

자본주의의 이상
CAPITALISM: THE UNKNOWN IDEAL

CAPITALISM: THE UNKNOWN IDEAL

by
Ayn Rand

Copyright © 1982 by Leonard Peikoff, Executor, Estate of Ayn Rand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1998 by The Korea Center for Free Enterprise.
through DRT International, Seoul.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DRT International을 통해 자유기업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자본주의의 이상
아인 랜드 저•강기춘 역

자본주의의 이상
아인 랜드 저/강기춘 역

1판1쇄 인쇄 • 1998년 5월 11일
1판1쇄 발행 • 1998년 5월 15일

발행처 • 자유기업센터
발행인 • 송 자
편집인 • 공병호
등록번호 • 제13-772

주소 •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화 • (대표) 3771-0454 팩시밀리 • 3771-0462

저자 서문

이 책은 경제학에 관한 학술논문은 아니고 자본주의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우리들의 접근방법은 『객관주의자 소식지 *The Objectivist Newsletter*』의 창간호(1962년 1월)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나의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객관주의는 철학적인 운동이다. 정치학은 철학의 한 분야이므로 객관주의는 어떤 정치적인 원리(특히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근본적이고

도 철학적인 원리의 결과와 궁극적이고도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지지한다. 객관주의는 정치를 분리된 목표나 기본적인 목표, 즉 넓은 이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치학은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 세 개의 다른 철학적인 분야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 및 인간과 실존의 관계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정치학은 누군가가 일관성 있는 정치이론을 만들어 실제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객관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우리는 급진적 자본주의자들이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철학적 기초, 그것 없이는 자본주의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철학적 기초를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다.”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그 자체는 아니고 ‘인간의 본성 및 인간과 실존의 관계’이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합리적 인간의 삶과 맞물려 있는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접근방법과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옹호자들 및 현대 옹호자들의 접근방법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자본주의의 과멸에 책임이 있다. 그들은 무능하거나, 혹은 도덕적·철학적인 문제와 같이 그들이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기를 기피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정치-경제적인 체제도 자본주의만큼 설득력이 있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지도 않았고, 자본주의만큼 무자비하고, 맹렬하고, 맹목적으로 공격받지도 않았다. 잘못된 정보, 그릇된 설명, 왜곡 및 자본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기만이

범람하여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본주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의 유적을 샅샅이 뒤져 찾은 도기와 뼈조각들로 선사시대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재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1백 년이 채 안된 사건들이 폭풍, 홍수, 지진에 파묻힌 지질과편보다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언덕에 묻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언덕이다.

검열권도 없이 더구나 의미 있는 항의의 소리도 듣지 않고, 진리를 광범위하게 말살하고, 공개된 비밀을 세상에 대해 숨기고, 이상적인 사회체제를 우리가 거의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 따위는 악한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고, 단지 자본주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무언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의 침묵, 즉 자본주의와 이타주의가 충돌하는 것을 그들이 회피함으로써 말미암아 자본주의를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자본주의가 시행도 되지 못한 채, 심지어는 자본주의의 원리, 본질, 역사, 또는 도덕적 의미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책임이 크다. 자본주의는 마치 분별력 없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광란의 폭도들이 짊어로 이상하게 만들어진 허수아비 인형이 이상ideal이라는 살아 있는 육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인형을 불태우고 있는 그 악몽과도 같은 모습으로 파괴되고 있다.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방법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며, 젊은 세대가 자본주의의 내용을 들어보고 인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세계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만든 데 대해서 오늘날 40대 이후의 사람들과 (극히 예외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자, 그리고 주제를 불분명하게 말하는 자들이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새로운 사실을 아는 데 두려움이 없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나이나 정신면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씌어졌다.

젊은이들이 발견해야 하고, 자본주의의 적들이 미친 듯이 숨기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유일한 도덕적 체제라는 것이다(『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을 참조하라. 『지성인들의 파업』은 1957년에 출간된 아인 랜드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 역주).

『지성인들의 파업』의 정치적인 면이 이 책의 주제는 아니다. 오히려 주제는 기본적으로 윤리-인식론인데, 인간존재에서 정신의 역할이 주제이고 필연적으로 정치학은 주제의 결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시대는 인식론적인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젊은 독자들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정치원리들로 바꾸어 표현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평가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책은 『지성인들의 파업』에 대한 각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치체제는 윤리학의 몇몇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는 독자는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책으로서 객관주의자 윤리학에 관한 에세이 모음집인 『이기주의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어떠한 정치적인 토론도 ‘권리’와 ‘정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아 적도 이 두 개념은 오늘날 혼란을 일으키는 기법technique of obfuscation에서 격렬하

게 회피되고 있다)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의미 있고 지적인 토론이 될 수 없으므로, 나는 『이기주의의 미덕』이라는 책의 초판에 실렸던 에세이를 이 책의 부록으로 전재한 「인간의 권리Man's Rights」와 「정부의 본질The Nature of Government」을 먼저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 책에 수록된 에세이들은 대부분 『객관주의자 소식지The Objectivist Newsletter』(지금은 『객관주의자The Objectivist』라는 잡지로 발간되고 있다)에 원래 실렸던 글들이다. 그렇지 않은 에세이들은 강의, 또는 논문들에 근거하고 있다. 몇몇 에세이들은 자본주의 경제학에 관해 널리 퍼져 있는 오류들에 대한 대답을 요약형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에세이들은 『객관주의자 소식지』내에 있는 「지식인의 무기Intellectual Ammunition Department」에 실려 있고, 독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씌어졌다.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의 부록에 실린 이 주제에 관한 추천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이 책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로버트 헤센Robert Hessen은 최근 콜롬비아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타운센드-그린스펀Townsend-Greenspan사의 사장이며, 경제지문가이다.

1966년 7월, 뉴욕
아인 랜드

※ 추신 : 나다니엘 브랜던Nathaniel Branden은 더이상 나 자신, 나의 철학, 또는 『객관주의자』와 관련이 없다.

차 례

저자 서문 • 5

제1장 이론과 역사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17
—아인 랜드
2. 전쟁의 근원 • 54
—아인 랜드
3. 미국의 박해받는 소수 : 대기업 • 67
—아인 랜드
4. 반트러스트 • 94
—앨런 그린스펀

5. 자본주의에 대한 공통적인 오류들 • 106

—나다니엘 브랜던

6. 금과 경제적 자유 • 139

—앨런 그린스펀

7. 미국의 자유기업사에 대한 주해 • 148

—아인 랜드

8. 산업혁명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 • 159

—로버트 헤센

9. 정직에 대한 공격 • 170

—앨런 그린스펀

10. 방송전파의 재산상태 • 176

—아인 랜드

11. 특허권과 저작권 • 187

—아인 랜드

12. 이론과 실제 • 194

—아인 랜드

13. 자유방임 • 202

—아인 랜드

제2장 현재상황

14. 타협의 해부 • 211

—아인 랜드

15. 지성인들의 파업 • 220

—아인 랜드

16. 연줄을 파는 사람들 : 로비스트 • 246

—아인 랜드

17. ‘극단주의’, 또는 ‘중상술’ • 255

-아인 랜드

18. 자본주의의 말살 • 270

-아인 랜드

19. 보수주의 : 사망광고 • 284

-아인 랜드

20. 새 파시즘 : 여론정치 • 299

-아인 랜드

21. 여론의 파멸 • 326

-아인 랜드

22. 이용당하는 학생폭동 • 349

-아인 랜드

23. 소 의 • 401

-나다니엘 브랜던

24. 인간을 위한 애가 • 442

-아인 랜드

부록 I : 인간의 권리 • 480

-아인 랜드

부록 II : 정부의 본질 • 493

-아인 랜드

해 제 • 509

색 인 • 545

추천도서 • 559

제1장

이론과 역사

Theory and History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철학이 19세기에 분리되고 20세기에 붕괴됨에 따라 비록 진행속도가 대단히 느리고 조금은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현대의 과학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늘날 기술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1929년 경제공황 이전의 날들과 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과학의 이론적인 설명이 길어지고 과학의 이론분야에서 자신의 자료조차도 해석하거나 통합할 수 없게 된 과학자들이 과거의 여세에 편승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인식론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잔류자에 편승하여 원시적인 신비주의의 부활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나 인문학에서는 붕괴는 과거의 일이고 침체가 시작되었으며 과학의 붕괴는 거의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향의 명백한 증거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학문인 심리학파 정치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자각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심리학에서 불

*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5년 11~12월호.

수 있다. 또한 인간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체제를 고안하고 연구하고 자 하는 시도를 정치경제학에서 볼 수 있다.

철학은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지식을,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정 과학을 안내해주는 인식론적인 기준을 정의하고 정립한다. 정치경제학은 철학이 칸트Kant 이후에 분리되는 시기인 19세기에 두각을 나타냈는데, 아무도 정치경제학의 전제를 검토하거나 정치경제학의 기초에 도전하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정치경제학은 집단주의collectivism의 근본적인 교의를 공리로 채택하였다.

자본주의 옹호자를 포함한 정치경제학자들은 정치경제학을 ‘공동체’나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조직화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자원’의 본질은 정의되지 않았다. 자원의 공동소유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정치경제학의 목표는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중요한 ‘자원’은 인간 자신이며, 인간이란 특정한 재능과 자격을 가진 특정한 본질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인간은 단순히 토지, 산림, 또는 광물과 같이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인간의 역할이나 질에 대한 연구보다는 다른 생산요소의 질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오히려 인간은 덜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정치경제학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볼 때 중도中途에 시작한 과학이다. 정치경제학은 사람들이 생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더이상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은 ‘사회’가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안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었다.

인간을 부족으로 보는 견해tribal view of man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타주의의 윤리가 그 하나이고, 19세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정치적 국가통제주의political statism가 또 다른 이유이다. 심리적으로는 유럽문화를 지배했던 정신-육체의 이분법soul-body dichotomy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역사시대 이후로 물질적인 생산은 노예나 농노와 같은 하급계층에게 부과된 찬한 일이며 인간의 지성과 관계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농노제도는 19세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의 도래로 정치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지적으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라는 개념은 유럽문화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 유럽문화는 부족문화tribal culture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유럽인들의 사고는 부족이 실체이고 단위이며 인간은 희생시켜도 좋은 세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고체계는 지배자들과 농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 지배자들은 부족에게 소위 군대나 국방과 같은 고귀한 질서moral order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부족에 있어서 귀족은 농노와 같은 노예에 불과했다. 그들의 생명과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었다.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로 인해 완전하고 법적인 의미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사유재산은 현실적de facto으로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법적de juri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은 관습과 1 목인에 의해 존재한 것이지 권리나 법에 의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은 부족의 우두머리인 왕에게

속했고, 왕의 허락하에 부족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왕은 마음대로 언제든지 그것을 철회할 수 있었다(유럽의 역사를 볼 때 왕은 반항하는 귀족의 토지를 몰수할 수 있었고, 또 몰수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인간의 권리right of man에 대한 미국인의 철학을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노예해방에 대한 유럽인들의 주된 생각은 인간을 왕으로 구현된 절대적 국가에 속한 노예로 인식하는 것에서 인간을 국민으로 구현된 절대적 국가에 속한 노예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노예해방으로 인간이 부족의 우두머리에 대한 노예에서 부족의 노예로 바뀐 것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비부족적 견해non-tribal view of existence는 폭력으로 물질생산을 지배하는 특권을 귀족의 상징a badge of nobility으로 간주하는 정신구조에 침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의 사상가들은 19세기에 군함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증기선의 발명가들에 의해 대체되고 마을의 대장장이가 용광로 주인에 의해 대체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임금노예’, 또는 ‘사회에서 많은 것을 취하면서 사회에 전혀 환원하지 않는 실업가의 반사회적 이기심’이라는 (서로 모순이 되는) 용어를 계속 생각했고, 부는 사회와 부족의 생산물이라는 공리를 계속 유지해나갔다.

부에 대한 그러한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도전받지 않고 있으며, 그 개념이 현대 정치경제학의 암묵적인 가정과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 그 결과에 대한 좋은 예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ncyclopaedia Britannica』의 ‘자본주의’에 관한 설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인용해보자. 이 사전은 주제에 대한 정의 없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봉건제도의 붕괴 이후 서구사회를 지배해왔던 경제체제를 일컫는 용어이다. 모든 사회체제에 있어서 국민경제나 기업의 기본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요인은 (자본이라고 알려진 토지, 자원, 공장 등의) 물질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자와 고용주에게 노동이라는 서비스를 파는 자유롭지만 자본이 없는 노동자의 관계라고 자본주의자들은 생각했다…… 임금교섭의 결과 사회의 총생산물이 노동자계층과 자본가계층에 분배되는 비율이 결정된다.1)

(『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에 나오는 갈트Galt의 연설 중 집단주의의 교묘함을 나타내는 몇 줄을 인용해보자. “실업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없다. 공장은 나무, 돌, 또는 진흙과 같은 ‘자연자원’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자본주의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속 설명하고 있다.

‘사회잉여social surplus’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장점 덕분에 자본주의는 이전의 모든 경제체제를 능가할 수 있었다. 피라미드나 성당을 건설하는 대신에 사회잉여의 계획하에 배, 창고, 원자재, 완성품, 그리고 부의 다른 물질형태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했다. 따라서 사회잉여는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영아사망률이 50퍼센트에 가깝고 주기적인 기근으로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가 먹여살릴 수 없었던 ‘과잉’인구를

1) Encyclopaedia Britannica, 1964, Vol.IV, pp.839~45.

일소해버린 가난 속에서 생활해가던 시대를 일컫는 것이다. 아직도 세금으로 징수된 부와 산업으로 생산된 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초기의 자본주의자가 ‘계획하고’ ‘투자를 선택한’ 것이 그 시대의 잉여재산이며, 그리고 이 투자가 다음 시대에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준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한다.

‘사회잉여’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이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없다. ‘잉여’란 어떤 기준^{norm}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만성적인 기아상태에서 생활수준이 어떤 기준보다 높다고 할 때 도 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

물론 ‘사회잉여’와 같은 것은 없다. 모든 부는 누군가에 의해 창출되고 누군가에게 속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 이전의 경제체제를 능가할 수 있었던 특별한 장점’은 자유(브리태니커의 설명에는 놀랍게도 빠져 있는 개념)인데, 이것이 몰수가 아닌 부의 창출을 가져왔다.

나는 나중에 형편없는(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형편없는) 논문들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것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정치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부족전제(tribal premise)의 간략한 예로서 사회잉여를 인용해보았다. 자본주의 옹호자와 적들 모두가 이 전제를 하고 있다. 이 전제는 자본주의의 적들에게는 내적인 일치성(inner consistency)을 제공해주고, 자본주의 옹호자들에게는 미묘하지만 아직도 강렬한 도덕적 위선(moral hypocrisy)(이른다면 자본주의를 ‘공동선’, 또는 ‘소비자에 대한 봉사’, 또는 ‘최적의 자원배분’(누구의 자원일?)에 근거하여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을 무장해제시킨다.

만일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부족전제를 먼저 조사해서 도전해보아야 한다.

인간은 존재물도, 유기물도, 산호초도 아니다. 생산과 교환에 참여하는 실체는 사람이다. 모든 인문과학은 ‘공동체’라고 알려진 영성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인식론적인 차이들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자연과학과 비교하여 인문과학이 열등하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과학은 그 자체가 (최소한 아직까지는) 주제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제의 본질을 무시하는 연구란 천문학에서 개별적인 별이나 행성이나 위성을 연구하기보다는 천체를 연구하며, 질병을 연구하는 약학에서 건강에 대한 기준이나 지식도 없이 병원 전체를 기본적인 연구주제로 택하면서 개별적인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을 연구하면 사회에 대해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를 연구해도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사회구성원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해도 개인을 결코 식별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부분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이다. 그들의 태도는 사실상 ‘인간은 경제방정식에 잘 어울린다’라고 묵시적으로 가정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의 실용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추상적인 개념을 실존하는 구체적인 개념과 연결을 시킬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또한 정치경제학자들은 인간과 사건을 관찰할 때 이해하기 힘든 이중기준(double standard), 또는 이중시각(double perspective)을 드러낸다. 만일 정치경제학자들이 제화공을 관찰한다면 그가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한다. 그러나 부족전제하에서 정치경제학자들은 그의 목적은(그리고 의무는) 신발을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만일 정치경제학자가 거리의 구석에 있는 거지를 본다면 그들은 거지를 게으름뱅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거지는 ‘주권적인 소비자’가 된다. 만일 정치경제학자들이 모든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교의를 듣는다면 그들은 공산주의의 교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단단히 결심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부의 공정한 분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말하고 사업가들을 국가의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그리고 철학적 무지가) 하는 역할이고 이것이 a 부족전제가 해은 일이다.

정치경제의 접근방법과 여러가지 사회체제의 평가방법에서 이러한 부족전제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들을 밝혀야 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합리적 재능rational faculty이다. 인간의 정신은 기본적인 생존수단이며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다.

인간은 동물들과 달라 단순한 지각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은 사고과정a process of thought 없이는 가장 단순한 육체의 필요조차도 제공할 수 없다. 인간이 씨를 뿌려 경작하고 사냥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도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동굴이 있을 경우

동굴로 인간을 데려가는 것은 인간의 지각이 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7 주거지를 건설하는 것도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지각과 본능은 인간에게 불, 천, 도구, 수레바퀴, 비행기 등을 만드는 방법, 맹장수술을 하는 방법, 전구, 진공관, 입자 가속장치, 성냥 한 갑 등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은 그러한 지식에 의존하며 단지 인간의 의식에 따른 의지적인 행동volitional act인 사고과정만이 그것을 제공해줄 수 있다.2)

사고과정은 단지 개인의 정신만이 할 수 있는 인식과 통합의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여기에는 집단두뇌collective brain와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은 서로 배우기도 하지만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 개개인의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데 상호협력할 수는 있지만 협력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학자 개개인이 합리적 재능을 독립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축적된 지식을 세대에 걸쳐 전수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물체이지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개개인의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그 증거로서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이 생각할 능력과 의지도 없었고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사람들의 삶에서 사라져갔던 문명의 붕괴, 즉 인류 발전과정사에서의 암흑기를 들 수 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은 본능적인 어떤 행동의 과정에 따라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본능적인 행동은 기본적으로는 지적 활동이다.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하고, 노력에 의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생산활동

2) Ayn Rand, "The Objectivist Ethics", in *The Virtue of Selfishness*.

은 이성^{reason}을 생존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안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일상적인 일을 모방하거나 반복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생각도 안하고 일도 안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약탈함으로써만 (일시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볼 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몇 사람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또는 그들이 무지몽매하고 비합리적이고 나쁜 것을 추구하기로 선택하든 관계없이, 이성은 생존을 위해 인간이 가진 수단이며, 인간의 합리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인간은 번영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생존하기도 하고 사멸하기도 한다.

지식, 사고, 합리적 행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합리적 재능을 행사하고 안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협력할 수도 있고 독자적인 행보를 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유는 인간정신에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다.

합리적인 생각이 강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의 명령, 지시 및 통제에 예속되어 현실을 이해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생각은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견해를 다른 사람의 견해, 위협, 희망, 계획, 또는 ‘복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의 방해받을 수도 있고, 침묵을 강요당하거

나 배척당하거나 투옥당하거나 파괴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총은 해결책이 아니다(갈릴레오Galileo가 그러한 태도의 좋은 예이며 상징이다).

인류의 모든 지식과 성취는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의 신성한 통합 작업과 비타협적인 혁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근원The Fountainhead』을 참조하라).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에 힘입은 바 크다(『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을 참조하라).

다양한 능력과 야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사람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고 인간이 정한 형태의 생존이나 복지를 어느 정도 성취한다. 사람은 어느 정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한다.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인간의 생존과 이성 사용의 관계)을 사회적으로 인식한 것이 개인권리^{individual rights}의 개념이다.

‘권리’란 사회의 관점에서 인간행동의 자유를 정의하고 허용하는 도덕원칙이며, 권리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본성에서 나왔고 인간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생존권은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나는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³⁾

정치경제학과 관련하여 생존권이 모든 권리의 원천이라는 것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사람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생산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생각에 따라 삶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그의 노력의 생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면 그의 노력을

3) 권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책의 부록에 있는 나의 글 “Man’s Rights”나 *The Virtue of Selfishness*에 있는 “Collectivized ‘Rights’”를 참조하라.

처리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이 그의 노력을 처리할 수 없으면 생활을 해결할 수 없다. 재산권 없이는 다른 어떤 권리들도 실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인간에게 적합한 사회체제가 무엇인 가라는 질문을 생각해보자.

사회체제란 사회의 법, 제도 및 정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도덕-정치-경제적 원리의 집합으로서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연합의 관계나 약정을 결정한다. 이러한 관계나 약정은 인간본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합리적인 존재로 구성된 사회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식민사회와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들을 서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체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과 ‘전체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관계나 약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떤 사회체제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단 두 개의 근본적인 질문이(또는 똑같은 질문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사회체제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체제가 인간관계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금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실질적인 이행이다.

인간은 인격, 정신, 삶, 일과 산출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적인 개체인가, 아니면 마음대로 인간을 처분해버리거나 인간의 신념을 지시하고, 삶을 지정하고, 일을 통제하고 생산물을 빼앗아가는 부족의

(국가, 사회, 집단의) 재산인가? 인간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부족에 봉사하는 것으로 삶을 유지하지만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하인(indentured servant)과 같은 노예로 태어났는가?

이것이 답변을 구해야 하는 첫번째 질문이다. 나머지는 결과요 실 **g** 질적인 이행이다. 단 하나의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은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자본주의는 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재산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다.

개인권리의 인정은 인간관계에서 폭력의 추방을 수반한다. 기본적으로 폭력을 통해서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나 그룹이 다른 사람에 대해 먼저 폭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사회에서 정부의 유일한 기능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 즉 인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자기방어라는 인간권리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정부는 보복용으로만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먼저 사용한 자들에 대해서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객관적인 통제하에 폭력을 보복용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⁴⁾

자본주의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이성의 사용을 연결하는 인간본성의 기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자발적이다. 인간은 그들

4)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부록에 있는 나의 논문 “The Nature of Government”를 참조하라.

자신의 판단, 신념 및 이해관계가 지시하는 대로 자유롭게 협력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서로 타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단지 이성이라는 수단, 즉 토론, 설득, 계약상 동의의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서로 타협할 수 있다.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사회에서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제도는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속성인 창조적인 정신에 대해서 항상 개방되어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와 집단주의의 극히 중요한 차이점이다.

사회체제의 확립, 변화, 진화 및 파괴를 결정하는 힘은 철학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기회, 우연 및 전통의 역할은 개인의 삶에서 그것들이 하는 역할과 같다. 그것들의 힘은 문화의(또는 개인의) 철학적인 무장의 힘에 반비례하고 철학이 붕괴됨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철학의 도움을 받아 사회체제의 특징이 정의, 평가되어야 한다.

철학의 네 분야와 대응되는 자본주의의 네 가지 근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형이상학적인 면에서는 인간본성 및 생존의 필수조건이고, 인식론적인 면에서는 이성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개인권리이며, 정치적인 면에서는 자유이다.

실제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부족전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자본주의와 정치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올바른 접근 방법의 기초이다.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정당성은 자본주의가 ‘국가자원의 최적 배분’에 영향을 준다는 집단주의자들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

간과 인간의 정신은 ‘국가자원’이 아니다. 인간지성의 창의력이 없다면 원재료들이 쓸모없는 원재료로 남게 된다.

자본주의의 ‘도덕적인’ 정당성은 자본주의가 ‘공동선’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타주의자들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선이라는 문구가 의미를 갖는다면 자본주의가 그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도덕적 정당성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합리적 본성과 일치하는 유일한 체제이며, 자본주의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존을 보호하며, 자본주의 지배원리는 정의라는 사실에 있다.

모든 사회체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윤리학의 몇몇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선’에 대한 부족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회체제와 모든 전체정치에서 도덕적 정당성으로 사용되어 왔다. 어느 사회의 노예상태나 자유의 정도는 ‘공동선’이라는 부족 슬로건이 적용되거나 무시되는 정도와 일치한다.

‘공동선’(또는 ‘공공이익’)은 정의되지도 정의될 수도 없는 개념이다. ‘부족’이나 ‘대중’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은(또는 대중이나 사회) 단지 많은 개인들에 불과하다. 그 어떠한 것도 부족이나 대중에게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선’과 ‘가치’는 단지 생물체(개별적인 생물체)와 관련이 있지 구체화된 관계들의 집단과는 관련이 없다.

‘공동선’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개념인데, 유일한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개인의 선을 모아놓은 것이 공동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자적인 개념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의미가 없다. 무엇이 개인을 위해 선한 것이며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동선이란 개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공동선이란 개념은 도덕적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으로부터의 탈출을 나타내는 유연하고 정의될 수 없는 신비한 특성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선이라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것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구체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선은 도덕적인 자유행동권moral blank check이 된다.

사회의 ‘공동선’이 사회구성원의 개인적인 선과는 별개의 것이고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될 경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선이 희생제물의 신분이 된 다른 사람의 선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우 ‘공동선’이 소수나 개인의 선에 대비되는 ‘다수의 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 가정이 묵시적이라는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라. 심지어 가장 집단화된 정신구조조차도 그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의 선’ 역시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권리의 침해는 마치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으로 규칙을 제정하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또다른 폭력집단이 등장할 때까지 활동하는 폭력집단의 힘에 무력한 다수를 맡기는 것과 같다.

개인의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한다면 선이 성취되고 성취될 수 있는 사회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을 공리로 먼저 받아들이고 개인의 선을 가능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필수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간주한다면 지배자의 하찮은 파벌은 예외로 하더라도 공공연히 ‘공동선’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국민은 두 세대에 걸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인 소비에트 러시아Soviet Russia와 같은 어리석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무엇이 희생자들과 관찰자들로 하여금 이것과 또한 유사한 역사적인 대실책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공동선’이라는 신화를 고수하게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도덕적 가치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이론에 있다.

선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내재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등 기본적으로 세 학파가 있다. 내재주의 이론intrinsic theory은 선이란 어떤 사물이나 행동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그것들의 배경이나 결과에 관계가 없고 그것들이 관련자나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든 해를 끼치든 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선’이란 개념을 수의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론이자 ‘가치’라는 개념을 평가자나 목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론으로, 선은 그 자체가 선이라는 이론이다.

주관론자 이론subjectivist theory은 선은 현실의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선은 인간의식의 산물이며, 인간의 감정, 욕구, ‘통찰력’, 또는 번덕에 의해 창출된 것이며, 선은 단지 ‘임의공준arbitrary postulate’, 또는 ‘감정적 위임emotional commitment’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내재주의 이론은 선은 인간의식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주관론자 이론은 선은 현실과는 별개로 인간의식에 존재하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객관주의 이론objective theory은 선은 ‘사물 그 자체’의 속성도 인간의 감정적 상태도 아니지만, 합리적인 가치기준에 따라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현실의 사실들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현실의 사실들에서 나오고 이성의 과정에 의해 유효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객관주의 이론은 선은 인간과 관계 있는 현실의 측면이며, 또한 선은 인간에 의해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

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가치에 관한 객관주의 이론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가치인가?’ 하는 것이다. 객관주의 이론은 상황무시context-dropping나 ‘개념절도concept-stealing’를 허용하지 않는다. 객관주의 이론은 ‘가치’를 ‘목적’에서 분리하며, 선을 수익자로부터 분리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성에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류역사의 모든 사회체제 가운데 자본주의는 가치에 관한 객관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유일한 체제이다.

내재주의 이론과 주관론자 이론은(또는 둘의 혼합은) 모든 독재국가, 전체정치, 또는 유사한 절대정치의 필수적인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적으로 철학자의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지지되거나 보통사람들의 감정에 암묵적인 무질서의 흔적으로 지지되든, 내재주의 및 주관론자 이론은 선은 인간의 정신과 독립적인 것이며 폭력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이 믿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이 어떤 행동들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억지로 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러한 행동들로 인한 인간의 혜택이나 해로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는 피바다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러한 행동의 수혜자가 부적절하다고(또는 교체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대규모의 학살을 ‘고도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가치에 관한 내재주의 이론이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 레닌Lenin, 스탈린Stalin, 히틀러Hitler 등을 배출했다. 아이히만Eichmann이 칸트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믿는다면 그에게 선과 악의 문제는 ‘나의 감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하는 문제가 된다. 그에게는 어떠한 중개, 이해, 또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인간에 있어서 이성만이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한 현실만이 인간에 있어서 유일한 공통의 준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이다. 이것들이 도덕분야에서 효력을 상실할 때(즉 관계가 없게 될 때) 힘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유일한 길이 된다. 만일 주관론자가 자신의 어떠한 사회이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들의 선을 위해’ 그들에게 폭력을 가할 도덕적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옳고, 그들의 잘못된 감정 이외는 자신을 반대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재주의 및 주관론자 학파의 지지자들은 서로 만나고 융합한다(그들은 그들의 심리-인식론의 용어로 역시 융합한다. 내재주의학파의 도덕주의자들은 특별하고 비합리적인 통찰과 계시, 즉 그들의 감정이 아니면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그들의 선형적인 ‘선’을 발견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론들을 비록 실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둘다 권력욕power-lust의 합리화와 폭력에 의한 지배의 합리화로 사용되어 잠재적인 독재자들을 부추기고 그의 희생물들을 무력하게 한다.

가치에 관한 객관주의 이론은 폭력에 의한 지배와 양립할 수 없는 유일한 도덕이론이다. 자본주의는 묵시적으로 이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유일한 체제이고, 이것이 명시화되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인 비극이다.

만일 선이 현실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고 인간의 정신에 의해 발견되는 객관적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고 있다면 폭력으로 선을

인지하는 인간의 능력, 즉 가치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도덕을 뿌리째 부정하는 엄청난 모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폭력은 인간의 판단을 무효화시키고 마비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무능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포기하는 대가로 억지로 받아들여지게 된 가치는 그 누구에게도 가치가 되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분별력을 빼앗긴 사람은 판단도 선택도 평가도 할 수 없다. 폭력으로 선을 얻으려는 시도는 마치 어떤 사람의 눈을 제거하는 대가로 미술관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 가치는 인간의 삶, 필요, 목표, 지식의 영역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평가될 수도 없다.

가치에 대한 객관주의의 견해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초구조로 퍼지고 있다.

개인권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선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과 이 지구와 개인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주목하라). 그것은 선은 수혜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인간은 대체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사람과 부족도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바친 대가로 선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유시장free market은 가치에 관한 객관론자 이론을 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가치는 인간의 정신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며, 생각하고 공부하며 그들의 지식을 물리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며, 교환을 위해 그들의 생산물(그것이 유형의 상품이든 아이디어든, 빵 한 조각이든 철학적인 논문이든)을 제공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데 자유로워야 한다. 가치는 상황에 맞추어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지식, 목표,

이해를 배경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가치는 현실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판단이 옳다면 그는 보상을 받게 되고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자신이 희생물이 된다.

가치에 대한 내재주의, 주관주의 및 객관주의 견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유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생산물의 시장가치는 내재적인 가치가 아니며,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다. ‘자유시장은 누구를 위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객관주의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 생산물의 시장가치는 그 생산물의 철학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생산물의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뿐이다.

‘철학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란 가능한 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관점에서 평가된 가치, 즉 주어진 범주 및 시간과 정의된 배경하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신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가치를 의미한다(그 어떠한 것도 정의되지 않은 배경하에서는 평가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비행기가 자전거보다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다는 것과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작품들이 삼류 통속잡지true-confession magazine보다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지적인 잠재력이 위고의 작품들을 거의 즐길 수 없다면 그가 읽을 수도 없는 책을 사는 데 그의 불충분한 재산과 그의 노력의 산물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인간의 수송범위가 자전거 정도로 충분하다면 항공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문학적 취미, 기술적 능력 및 소득수준에 맞춰야 할 이유가 없다. 가치는 명령에

의해, 또는 다수의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지자의 수가 어떤 사상의 진실과 거짓, 예술작품의 장점과 단점, 생산물의 효험과 무효험의 증거는 아니듯이 재화와 용역의 자유 시장가치는 반드시 그것들의 철학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그것들의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가치, 즉 주어진 시간에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인 판단의 총합이며 개인의 삶에서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의 총합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미경이 립스틱보다 과학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립스틱 제조업자는 현미경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꼬마숙녀 숙기사에게 현미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립스틱은 가치가 있다. 그녀에게 립스틱은 자신감과 자기회회의 차이, 성적 매력과 고달픈 일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유시장을 지배하는 가치가 주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숙기사가 그녀의 모든 돈을 화장품을 사는데 지출하고 그녀가 필요할 때(병원에 가게 될 때) 현미경의 사용료를 전혀 지불할 수 없다면 그녀는 그녀의 소득으로 더 나은 예산을 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자유시장은 그녀에게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누구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만일 그녀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현미경은 언제든지 그녀 자신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고, 그녀에 관한 한 현미경은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병원 전체와 연구실험실과 달을 여

행하는 우주선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 그녀 자신의 생산력의 범위내에서 그녀가 현미경을 필요로 함에 따라 과학적 업적을 이룬 비용의 일부를 그녀가 지불한 것이다. 그녀에게 ‘사회적 책임’은 없고, 단지 그녀 자신의 삶만이 그녀의 책임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다. 즉 그녀는 자신이 내린 최적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한다.

자유시장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모든 범위내에서 가장 큰 재정적인 보상을 얻는 사람은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상품을 납품하는 자이다. 그런데 그 보상은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명령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장참가자들에게 자신 능력의 범위내에서 객관적으로 최선의 것을 찾도록 가르치며,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참가자에게는 벌을 가하는 자유시장의 미덕(virtue of free market)으로 얻은 것이다.

자유시장은 어느 공통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평준화시키지 않으며, 대다수의 지적인 기준이 자유시장이나 자유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사람, 혁신가, 지적인 거인들을 대다수가 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라. 사실 그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자유사회 전체를 그들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이 예외적인 소수의 일원들이다.

자유시장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가장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 보상하는 상승과정(upward process)이다. 대다수가 자동차의 가치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 반면에 독창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대다수가 설명에 의해서만 배우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설

명할 수 있다. 새로운 생산물의 ‘철학적으로 객관적인’ 가치는 그들의 합리적인 재능을 그들의 능력만큼 기꺼이 발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그들 능력 이상으로 생산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없다. 정체된 자, 비합리적인 자, 주관적인 자들은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을 멈추게 할 힘이 없다.

(일하기를 싫어하기보다는 일할 능력이 없는 소수의 어른들은 자발적인 자선에 의지해야 한다. 불운하다고 저임금 노동에 처해져서는 안된다.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파괴할 권리는 없다.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은 자유시장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신적인 식충이들parasites(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대중의 기호라고 보고 이에 영합하려고 시도하는 모방자들은)은 대중의 지식과 기호를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혁신가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시장은 소비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가장 성공적인 혁신가들은 과거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생산의 장을 발견하는 자들이다.

일정한 상품, 특히 그 상품이 너무 급진적인 혁신품이면 즉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엉뚱한 경우만 제외하면 그 상품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시장은 어느 일정한 순간에만 유행하는 대다수의 지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배된다. 훌륭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자유시장에서 어떤 사람의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단 하나의 원리, 즉 자기들의 노동을 그의 노동과 교환하며 자기들의 생산물을 그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기꺼이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수요-공급법칙의 도덕적 의미이다. 그것은 악의에 찬 두 가지 교의인 부족전제와 이타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은 재산이 아니며 부족의 노예도 아니라는 사실과,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리사욕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희생제물을 기대할 수 없다. 즉 그는 동일한 가치의 교환 없이 가치를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거래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판단이다.

부족정신tribal mentalities을 가진 자들은 외견상 반대되는 두 측면에서 이 원리를 공격한다. 그들은 자유시장이 천재들과 보통사람에게 모두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반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로 표현된다. 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는 아인슈타인Einstein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그들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즐기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만일 많은 사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에 따라 그들의 돈을 지출할 권리가 있다. 프레슬리의 부는 그의 작품에 신경을 쓰지 않는(나도 그들 중 하나이다)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도 아인슈타인으로 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또한 프레슬리가 아인슈타인의 길을 막은 것도 아인슈타인이 자유사회에서 적절한 지적 수준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지원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두번째 반대는 평균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유시장에서 ‘불공정한’ 불이익으로 고생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자. 당신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자들 & 과 경쟁하는 것이 두려우며, 그들의 생각이 당신의 세계에 위협이 되며, 자발적인 교환의 시장에서 강자는 약자에게 그 어떠한 기회도 남겨놓지 않는다고 울부짖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당신은 계산할 수 없는 보너스를 받는다. 당신 노동의 물질적인 가치는 당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생산적인 지성인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살아 있는 지성이 구체화된 기계는 시간의 생산성을 높여 삶의 잠재력을 확대시켜주는 힘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능력만큼, 또는 그가 오르고 싶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의 사고의 정도가 상승의 정도를 결정한다. 육체적 노동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생산과정에서 그 자신이 공헌한 것에 해당되는 만큼의 물질적 가치만을 소비하며,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더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시도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영원히 도움을 주는 자이다…… 무제한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의 가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손해나 희생 없이도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어떠한 종류의 노동을 하든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한 사람은 그가 소비한 정신적 힘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지만, 어떠한 명성을 얻고 수백만 달러를 벌더라도 물질적인 보상으로 말하자면 그의 가치에 비해 적은 비율이다. 그러나 그러한 발명품을 생산해내는 공장에서 일하는 청소부는 그의 일이 그에게 요구하

는 정신적인 노력에 비해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수준에서든 야망과 능력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실이다. 지적 피라미드에서 상층부에 위치하며 그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공헌을 하는 자는 단지 물질적인 보상만 받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의 시간가치를 더해줄 어떠한 보너스도 받지 못한다. 지적 피라미드의 하층부에 있으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는 자기 위에 있는 자들에게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두뇌에 있는 모든 것을 받는다. 그것이 지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경쟁’의 본질이다. 그것이 당신이 지적으로 강한 자들을 향해 비난했던 ‘착취’의 형태이다.(『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와 인간의 정신 및 생존과의 관계이다. 자본주의가 짧은 기간에 이룩한 놀라운 발전, 즉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의 엄청난 진보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적들의 모든 선전에 의해서 숨겨지거나 회피되거나 교묘히 설명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러한 발전이 이기적인 수단(non-sacrificial means)에 의해 달성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발전은 강제적인 박탈이나 기근상태에 있는 희생자들로부터 ‘사회잉여’를 쥐어짜서 달성될 수는 없다. 개인잉여, 즉 일, 힘, 개인이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독창적인 풍성함으로부터 발전이 올 수 있으며 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미 알려진 것을 발전시키며 더 전진시킬 수 있는 자들로부터 발전이 올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이 자유롭게 제역할을 다하며 자신들이 위험부담을 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은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발전은 현재의 일부분이고 정상적

이고 자연적인 것이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즐길 때 달성된다.

다른 사회인 부족사회(tribal society)를 생각해보자. 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 가치, 야망, 목표를 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웅덩이나 항아리에 던져넣고는, 요리사 일당의 지도자가 한 손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한 백지수표를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총검으로 그것을 짓고 있을 동안 그 주위에서 배를 움켜쥐고 기다린다. 그러한 체제의 가장 좋은 예가 소련이다.

반세기 전에 소련의 지배자는 그들의 국민에게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인내하고, 궁핍을 참고, 희생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것은 일시적이며 산업화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소련의 발전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앞질렀다.

오늘날 소련의 지배자들은 서구의 기술개발을 복사하고 차용하고 훔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국민들조차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는 정태적인 목표가 아니고 빠른 속도로 퇴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계획부족경제(planned tribal economy)에서 전기발전기와 트랙터를 기다리면서 굶주려야 했던 비참한 노예들이 이제는 원자력과 달나라 여행을 기다리면서 굶주리고 있다. 따라서 ‘인민국가’에서는 과학의 발전이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모든 발전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역사는 아니었다.

미국의 풍요는 ‘공동선’을 위해 대중들의 희생을 치르고 창출된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사적 재산을 축적하고자 했던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천재들에 의해서 창출되었다. 그들은 미국의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굶기지는 않았다. 그들은 국

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새로 발명한 기계와 모든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한 값싼 상품들을 공급했다. 따라서 국가 전체가 발전해나갔고 각 발전단계마다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오류를 범하지는 말자. 도덕적 목표나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국가의 선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선은 결과였고, 원인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였다. 자본주의의 도덕적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권리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권리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가치에 대한 내재주의 및 주관론자 이론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타주의 도덕과 부족전제와도 양립할 수 없다. 객관성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하다. 자본주의의 기록을 살펴볼 때 이타주의 도덕과 부족전제가 연합하여 대항한 것도 인간의 속성, 즉 인간의 정신과 지성인데, 특히 인간생존의 문제인 생산력에 적용되는 지성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이타주의는 주장하면서 지성으로부터 보상을 강탈하려는 반면에 부족전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성의 존재와 부의 창출과정에서 지성의 역할을 부인한다.

부를 익명의 생산물과 부족의 생산물로 간주하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추잡하다. 부가 차별화되지 않은 집단적인 과정의 결과이며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고, 또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일종의 평등주의자식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야만인의 무리가 육체노동으로 육

석을 이동시키는 원시밀림에 적합했을지도 모른다(거기조차도 누군가가 옥석을 이동시키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개인의 성취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는 산업사회에서 그러한 견해를 신봉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책임회피여서, 그 견해의 미심쩍은 부분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역겹다.

한때 고용주였던 고용인이었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는 사람이든 스스로 하루동안 성실히 일해보았던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력, 지성, 집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능력이 있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은 (실제로 능력이 없는 자유의지로 능력을 가지지 않았든) 모든 생산과정에서 지극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증거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일상에서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아서 누구도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실수는 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위대한 실업가들이 자유시장에서, 다시 말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의 도움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재산을 모을 때 그들은 새로운 부를 창출한 것이지 부를 창출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부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그러한 실업가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들의 ‘사회의 총생산물’과 생활수준을 살펴보라.

부족주의-국가통제주의-이타주의 이론가들의 글은 인간지성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다루더라도 부적절하게 다루고 있음에 주목하라. 오늘날 혼합경제mixed economy의 지지자들이 정치-경제문제에 대한 그들의 접근방법에서 ‘사회의 총생산물’의 약탈에 대한 그들의

주장, 요구 및 압력단체의 전투에서 지성, 또는 능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음에 주목하라.

“자본주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한다. 사회체제를 지탱해주는 생명선은 그 문화를 지배하는 철학인데, 자본주의는 철학적인 기초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학과 세력의 마지막이자 (이론적으로) 불완전한 산물이었다. 19세기 철학을 삼켜버린 신비주의의 부활에 밀려 자본주의는 지적인 진공상태에 버려지게 되었고 생명선은 끊어졌다. 자본주의의 도덕적 본성도 정치적 원리들도 완전히 이해되거나 정의된 적이 없었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유방임laissez-faire이라는 개념의 의미나 시사점은 무시한 채 자본주의가 정부통제와(즉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세기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자본주의는 순수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아니고 혼합경제였다. 통제는 또다른 통제를 필요로 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통제를 과멸로 이끈 것은 혼합된 국가통제주의의 요소이지만 비난을 받는 것은 자유로운 자본주의 요소이다.

자본주의는 신비주의와 이타주의가 지배하고 육체-영혼의 이분법과 부족전제가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어떠한 사회체제도(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제도나 활동도) 도덕적 기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타주의의 도덕적 기초하에서 자본주의는 시작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비난을 받았다.⁵⁾

5) 자본주의와 관련한 철학자들의 태만에 관한 논의는 나의 책 *For the New Intellectual*에 있는 표제 에세이를 참조하라.

정치-경제적인 문제에서 철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있는 자본주의에 관한 글로써 오늘날의 지적 상태에 대한 가장 명백한 예가 되는 글을 좀더 인용해보자.

생산의 원동력으로서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특징을 도덕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난이 시작되거나 장기적인 발전이 산재된 단기적인 흥망성쇠(위기와 침체)로부터 비난이 시작된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위기와 침체’는 정부간섭에 의해 유발된 것이자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덕적, 또는 문화적 불인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글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득력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경향과 실현은 사업가의 이익이라는 명백한 특징이 있고 아직도 사업가형 마인드라는 특징이 있다. 더구나 그 특징은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생활의 철학이며 문화적 가치의 개요이다.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공리주의(materialistic utilitarianism, 어떤 형태의 진보에 대한 자신감,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취들, 예술적 창조의 경향들은 모두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나온 합리주의 정신에
2 그 원인이 있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이 항목을 집필한 사람은 자본주의(또는 합리적) 형태의 발전을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고, 분명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중세가 끝나갈 무렵 서구는 20세기의 많은 저개발국가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이것은 문예부흥의 문화가 오늘날 콩고와 비슷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는 그것은 사람들의 지적 발달은 경제학과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저개발국가에서 정치적 수완의 어려움은 경제개발의 누적적 진행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일단 어떤 계기를 얻게 되면 다음의 발전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개념은 계획경제의 모든 이론에 어느 정도 깔려 있다. 소련의 두 세대가 자동적인 진보를 기다리면서 파멸해간 것은 그러한 ‘정교한’ 믿음 때문이다.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족정당성(tribal justification)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공동체 ‘자원’의 최적‘배분’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음은 말도 안되는 그들의 주장이다.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서 자원배분에 관한 시장이론은 고전학과 경제학의 중심 주제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자원배분의 기준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자원배분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한계증가로부터 동일한 만족을 얻어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을 예로 들면서 자원을 공공부문(더 많은 교실과 더 적은 쇼펍센터, 더 많은 공공도서관과 더 적은 자동차, 더 많은 병원과 더 적은 불링라인 등)으로 재배분함으로써 미국

의 전체복지가 증가될 것이라는 실질적이고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학교, 도서관, 병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교통수단(자동차)도 없이, 필요한 상품을 사야 하는 적당한 수의 장소(쇼핑센터)도 없이, 여가를 즐기는 기쁨(볼링라인)도 없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부에 관한 부족견해(개인행동과 정부행동의 차이, 생산과 폭 3 력의 차이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권리'의 개념과 개별적인 인간의 현실을 전적으로 말살하고 대신에 사람을 교환 가능한 짐 나르는 짐승, 또는 '생산요소'로 대체하려는 견해)의 궁극적인 결과와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다음을 연구해보라.

자본주의는 두 가지 이유에서 공공부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자원은 세금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으로 가는 반면에 모든 상품과 소득은 처음에 민간부문에서 발생한다(?). 공공의 필요는 납세자로서 (생산자는 어떠한가?) 역할을 하는 소비자의 묵인에 의해서만 충족된다. 그들의 정치적인 대표자들은 세금에 관한 그들 유권자들의 부드러운 감정을(1) 예리하게 의식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른 지출보다 세금을 내기 위하여 더 돈을 번다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개념이다……(어떠한 가치이론에 의해서? 누구의 판단으로?).

둘째는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가치를 사적 소비로 편향되게 한 무서운 현대 판매정책의 수단들에게 주도권을 매각하는 민간

기업의 중압감이다……(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는 번 돈을 지출하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가 없어졌다는 것은 단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사적 지출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누구에게 긴급한? 의식주 외에 어떤 것이 '근본적인' 필요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천박한 사적인 필요가 동일한 자원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므로 많은 공공의 필요가 무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누구의 자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집단주의하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비교는 분명하다. (그렇다) 집단경제에서는 모든 자원이 공공부문에서 운영되므로 세금을 통한 이전 없이도 교육, 국방, 의료, 복지 4 와 다른 공공의 필요를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공서비스는 민간부문에 불리하다고 인정된 것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집단주의 경제에서 사적 소비는 사회생산물에 불리하다고 인정된 (누구에 의해서?) 것에만 제한되어 있다. 집단주의 경제에서 공공의 필요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적 소비가 누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종류의 내장된 우선순위(built-in priority)를 누리고 있다. 소련에는 교사는 많이 있으나 자동차는 많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허다하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생존을 예측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의定義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국가 어디에서나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경제활동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적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운명인 듯이 보인다(밀의 소비에서 처럼?). 두 경제체제가 양방향으로부터 수렴하는 변화를 하여 점차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경제구조의 중요한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인적 자본에 많이 투자한 사회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미래를 상속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 중요한 점에서 몇몇 경제학자의 눈에 자본주의는 집단주의와의 경쟁에서 근본적이지만 피할 수 있는 불리한 점을 가진 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소련농업의 집단농장화는 정부가 계획한 기아(government-planned famine)라는 수단으로 달성되었다. 즉 농부들을 집단농장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작업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실행되었다. 소련의 적들은 기근으로 1천5백만 명의 농부들이 죽었다고 주장했고 소련 당국은 7백만 명이 죽었다고 인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의 적들은 1천3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그리고 계획된 영양부족으로 죽어가고 있고 인간의 생명이 음식보다 싸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지지자들은 그 숫자가 1천2백만 명이라고 인정했다.

이것이 바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한 설명문이 지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도덕적 정의의 후광을 입고 이루어지는 문화에서 가장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집단주의자가 아니고 신비주의나 이타주의에 도전할 용기조차 없이 이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지나쳐버리려고 하며 인류역사상 유일한 합리적 도덕적 체제인 자본주의를 합리성과 도덕성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방

전쟁의 근원*

아인 랜드

핵무기가 전쟁을 너무 무섭게 만들어 생각하기도 싫다고들 한다. 그런데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전쟁이나 기아로 죽고 폐허 속에서 파멸한 경험이 있는 인류의 압도적인 다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류의 역사 밑에 그어진 긴 핏자국처럼 전세기에 걸쳐 전쟁은 계속 발발해왔다.

사람들은 전쟁을 야기시키고, 과거에 야기시켜 왔고, 다시 야기시킬 수 있는 교의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코 거부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교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

해서 폭력사용을 시도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정당하거나 실질적이거나, 또는 필요하며 어떤 종류의 '선'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교의는 폭력이란 인간생존과 인간사회에서 적절하며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추한 특징 중의 하나를 살펴보자. 그것은 평화선전과 광적인 전쟁준비의 결합인데, 둘다 동일한 근원, 즉 동일한 정치철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철학은 국가통제주의statism이다.

오늘날 평화운동들의 본질을 살펴보자. 그것들은 인류생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공언하면서 핵무기 경쟁은 끝나야 하며, 국가간 분쟁의 조정수단으로서의 무력은 철폐되어야 하고, 전쟁은 인류의 이름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 평화운동들은 독재정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평화운동 회원들의 정치적 견해는 복지국가통제주의에서 사회주의, 파시즘,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통제주의의 모든 색조를 띠고 있다. 이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강압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한 국가의 정부가 6가 자기국민에 대해 강압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무장한 적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무장해제된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재자에 의해 자행되는 약탈, 파괴, 기아, 폭력, 강제수용소, 고문실, 대학살 등을 생각해보라. 그런데도 오늘날의 평화애호가들은 인류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것을 기꺼이 지지하고 묵인한다.

국가통제주의의(또는 집단주의의) 사상적 근원은 개인권리를 이해할 수 없었고, 부족이 최고의 전능한 통치자이며, 부족이 구성원의 생

* *The Objectivist*, June 1966.

명을 소유하면서 구성원들을 언제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희생시킬 수 있고, 부족의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원시시대 야만인들의 부족전쟁은 명백하다. 폭력에 의한 지배 외에는 어떠한 사회원리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의 소망은 그 물리력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다른 부족들은 정복되고, 약탈당하고, 노예가 되고, 전멸되는 자신들의 자연먹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모든 원시인들의 역사는 부족전쟁과 부족간 학살의 연속이었다. 이 야만사상이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생존에 관해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잠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통제주의는 제도화된 폭력과 지속적인 내란의 체제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붙잡기 위해 싸울 수밖에(약탈하느냐 약탈을 당하느냐,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없게 한다. 폭력이 사회행위의 유일한 기준이고, 파괴에 대해서는 저항 없는 행복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하류층 사람이나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동물조차도 싸울 것이다. 노예국가 안에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국가간 전쟁이 아니고 법, 원리, 정의 등에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동일한 국가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내전이였다. 모든 절대군주 국가의 역사는 통상적으로 무자비한 몰살에 의해 진압된 유혈폭동, 즉 사상도 프로그램도 목표도 없는 맹목적인 절망자들의 폭동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나치독일이나 소련과 같은 완전한 독재정권에서는 한 폭력단이 다른 폭력단을 폐지할 때 국가통제주의의 고질적인 '냉담한' 내전은 피비린내 나는 추방의 형태를 취한다. 혼합경제에서 그것은 압력단

체의 전쟁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개별 압력단체는 다른 모든 그룹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폭력으로 강탈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싸운다.

한 나라의 정치체제에서 국가통제주의의 정도는 국가를 서로 싸우는 폭력단으로 분해하고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도와 일치한다. 개인권리가 폐기되면 누가 무슨 권리를 가질지를 결정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청구, 희망, 이해관계 등의 정당성을 결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개인의 희망은 개인이 속한 폭력단의 힘에 의해 제한된다는 부족의 개념으로 그 기준이 복귀한다. 그러한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서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비밀 구획정리plotting, 음모, 거래, 호의, 배신, 갑작스러운 유혈쿠데타의 체제이다. 그것은 형제애, 안전, 협력, 평화 등의 앞길이 밝은 체제가 아니다.

실제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가통제주의는 폭력단 지배gang rule에 지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자기국가의 생산적인 국민들의 노력을 약탈하는 데 몰두하는 폭력단이다. 국가통제주의의 지배자가 자기나라의 경제를 탕진할 경우 그의 이웃을 공격한다. 그것이 내부 붕괴를 연기시키고 그의 통치를 연장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기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단지 많은 개인들의 집합이다.

자유국가는 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국가통제주의는 전쟁을 필요로 한다. 자유국가는 생산으로 생존하지만 국가통제주의는 약탈로 생존한다.

역사상 중요한 전쟁들은 자유로운 경제에 반대하고 더 많은 통제

가 있는 경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은 군주국인 독일과 제정러시아가 그들의 자유동맹국들을 끌어들이므로써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독일이 소련과 동맹하여 폴란드를 함께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소련은 점령국가에 있는 모든 공장을 강탈하고 본국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분해했지만 혼합경제에서 가장 자유롭고 반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공장 전체를 포함하여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임대차 장비를 동맹국들에게 보냈다는 것에 주목하라.¹⁾

독일과 소련은 전쟁을 필요로 했다.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전쟁으로 획득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사실상 미국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았다. 미국은 이전의 동맹국들과 적국들을 오늘 날까지 지원하는 기이하고 쓸데없는 정책 때문에 거대한 국가부채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평화애호가들이 반대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그들이 평화의 이름으로 지지하는 것은 국가통제주의이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개인권리의 인정에 근거한 유일한 사회체제이기 때문에 사회관계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기본 원리들과 이해관계의 본질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전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탈할 유인이 없다. 그들은 전쟁에서 획득할 것도 크게 잃을 것도 없다. 관념적으로 개인권리의 원리는 어떤 사람에게 국내외에서 무력으로 자신의 생계를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전쟁은 돈이 든다. 부가 사적으로

소유되는 자유경제에서 전쟁비용은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오고(그러한 사실을 숨길 오만한 재무관리는 없다) 국민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세금, 상업혼란, 재산파괴와 같은) 자신의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할 것을 바랄 수도 없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평화를 지지한다.

부가 ‘공적으로 소유되는’ 국가통제 경제에서 국민(그는 구우일모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은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 반면에 전쟁은 국민에게 그의 통치자로부터 더 많은 기부를 받는다는(그릇된) 희망을 준다. 관념적으로 그는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간주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다. 그는 왜 외국인들은 같은 나라를 위하여 같은 제단에 희생제물로 바쳐져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

교역상traders과 전사戰士는 역사를 통해 볼 때 근본적인 적대자였다. 교역은 전쟁터에서는 번성하지 않고, 공장은 폭격하에서 생산하지 못하며, 이윤은 깨진 벽돌조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교역상의 사회이다. 자본주의는 교역을 ‘이기적’이라고 간주하며 정복을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예비총잡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평화에 대해 실제로 관심이 있는 자들은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기를 주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 기간에는 전소문명세계를 개입시키는 전쟁은 없었는데, 그 시기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의 종전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였다.

19세기의 정치체제들은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니었고 혼합경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유의 요소가 지배적이었다. 자유의 요소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한 세기의 자본주의와 유사했다. 그러나 국가통제주의의 요소가 19세기에 걸쳐 계속 증가하여 1914년에 세계를 폭파시켰는데 국가통제주의자의 정책들이 정부를

1) 러시아가 자행한 약탈의 전모에 관한 자세한 기록문서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Werner Keller, *East Minus West=Zero*, New York: G. P. Putnam's Sons, 1962.

지배했다.

국내문제에서는 국가통제주의와 정부통제에 의해 야기된 해약들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외국과의 문제에서도 국가통제주의자의 정책이 가져온 해약이 자본주의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전쟁-폭리행위’와 같은 꾸며낸 이야기나 자본주의는 군사적 정복으로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 등은 피상적인 예이거나 국가통제주의 해설가와 역사가들이 얼마나 파렴치한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자본주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자유무역, 즉 무역장벽, 보호관세, 특허의 철폐이다. 자유무역은 자유로운 국제교환과 경쟁에 이르는 세계의 무역로를 서로 직접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19세기에 봉건제도의 잔재와 절대왕정의 전제정치를 도려내고 파괴하면서 세계를 자유롭게 한 것은 자유무역이었다.

로마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대영제국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대영제국이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의 해협을 일반적으로 개방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억압이 아일랜드에 가해져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전소영국의 보이지 않는 수출품은 법과 자유무역이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영국이 해양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어떤 국가든지, 또 누구든지 자신의 상품과 돈을 안전하게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²⁾

로마의 경우와 같이 영국에서 혼합경제의 억압적인 요소가 사라

영국의 지배적인 정책이 되면서 영국을 국가통제주의로 전환시키자 대영제국은 붕괴되었다. 대영제국을 유지하게 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국내외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시장을 획득하고 유지한다. 전쟁으로 정복된 시장은 국제경쟁에 대해서는 시장을 폐쇄하려고 제한적인 규제를 부과하여 폭력으로 특권을 획득하려는 혼합경제의 지지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정부행동에 의해 특권을 추구했던 사업가들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가들이 외국에서는 정부행동에 의해 특별한 시장을 추구했다. 누구의 비용으로? 그러한 모험적 사업에 세금을 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압도적으로 다수인 사업가들의 비용이다. 누가 그러한 정책들을 정당화해서 그것들을 대중에게 팔았는가? ‘공익’ ‘국위’ ‘명백한 운명’과 같은 교의를 만들어낸 국가통제주의 지식인들이다.

모든 혼합경제의 실질적인 전쟁폭리자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은 전시나 전후 정부의 도움으로 재산(그들이 자유시장에서는 획득할 수가 없었던 재산)을 획득한 정치적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부자들 가난한 자들, 사업가들 노동자들 시민들은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힘은 정부의 독점적 특권이다. 어떤 유형의 정부가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더 큰가? 헌법의 제약에 구속된 제한된 힘을 갖는 정부인가, 아니면 호전적인 이해관계나 사상을 가진 어떠한 집단의 압력에도 개방되어 있는 무제한적인 정부, 즉 행정수반 한 사람이 일시적 기분으로 군대에 진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부인가?

그렇지만 오늘날 평화애호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제한된 권력

2) Isabel Paterson, *The God of the Machine*, Caldwell, Idaho: The Caxton Printers, 1964, p.121. 원래는 G. P. Putnam's Sons, New York, 1943에 의해 발행되었다.

을 가진 정부가 아니다(일방적인 반전론pacifism은 단지 침략에의 초대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이 자기방어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국가도 공격을 받을 경우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징병은 개인의 생존권에 대한 국가통제주의자의 가장 노골적인 권리침해이다. 도덕과 실질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없다. 많은 군당국자들이 검증한 것처럼 지원군이 가장 효율적인 군대이다. 자유국가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과 같은 모험에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징병군이 없었더라면 국가통제주의나 혼합경제의 대외정책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국가가 반 정도만 자유로운 한, 혼합경제의 부당이득자들이 호전적인 영향력이나 정책들의 원천이 될 수 없고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대중추세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폐품수집업자political scavengers들이다. 그러한 추세의 중요한 원인은 혼합경제의 지식인들이다.

19세기와 20세기 지식인의 역사에서 국가통제주의와 군국주의의 연계에 주목해보라. 자본주의의 붕괴와 전체주의 국가의 부상이 사업이나 노동자, 또는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지식인을 지배하던 국가통제주의 사상이 원인이 된 것처럼, 정치적인 ‘이상’들을 위한 무력정복과 무장한 전사라는 교의의 부활은 ‘선’은 폭력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지식인들의 믿음의 소산이었다.

미국에 있어서 국가제국주의 정신의 부활은 우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좌익에서 나왔고, 대기업 사업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집단주의자 개혁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영향력들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서 이커치Arthur A. Elkirch Jr.의 『미국 자유주의의 쇠퇴The Decline of American Liberalism』를 참조하라.³⁾

진보주의자들이 강제 군사훈련과 백인의 부담을 점점더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의 경제개혁 입법에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커치 교수는 적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최근의 한 연구자에 따르면 군국주의는 많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항하는 반란이었다는 것이다. ‘군국주의의 정신the spirit of imperialism’은 권리 위에 의무를 두며, 개인의 사리사욕 위에 집단의 복지를 두는 것이었으며, 물질주의에 반대하여 영웅적 가치를, 논리 대신에 행동을, 활기 없는 지성보다는 자연적 충동을 고양하는 것이었다.⁴⁾

윌슨에 대해서는 이커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윌슨은 틀림없이 자유로운 국제경쟁의 결과 일어나는 미국 자유무역의 성장을 선호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덕주의와 의무에 대한 사상으로 인해 국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직접적인 미국의 중재를 합리화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⁵⁾

그리고 “그(윌슨)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미

3) New York: Longmans, Green & Co., 1955.

4) 앞의 책, p.189. ‘군국주의의 정신the spirit of imperialism’은 R. E. Osgood, *Ideals and Self-Interest in America's Foreign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47에서 인용되었다.

5) 앞의 책, p.199.

국의 기관들을 세계의 미개한 지역들에 보급하는 임무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⁶⁾ 월슨을 도와 평화애호 국가를 병적인 군대증강 국가가 되도록 부추긴 자들은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주의’ 잡지인 『새 공화국*The New Republic*』이었다. 그 잡지의 편집인인 허버트 크롤리^{Herbert Croly}가 이용한 논지는 “미국은 심각한 도덕적 위협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개혁가인 월슨이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간 것처럼, 또 다른 ‘자유주의’ 개혁가인 루스벨트는 ‘네 가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갔다. 두 경우 모두 ‘보수주의자’들과 대기업 사업가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쟁에 반대했지만 묵살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그들은 ‘고립주의자’ ‘반동주의자’ ‘미국 일류주의자*America-First’ers*’ 등으로 비방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소련, 파시스트 이탈리아, 나치독일 등 세 독재정권을 창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네 가지 자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공산주의의 노예상태에 넘겨주었다.

만일 평화가 오늘날 지식인들의 목표였다면 그들은 큰 실패와 말로 다할 수 없는 대규모의 고통의 증거를 보고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국가통제주의 전체를 점검했어야 했다. 그 대신에 자본주의에 대한 중요 빼고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지금 “가난이 전쟁을 양육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물질적인 탐욕’과 같은 것을 동정함으로써 전쟁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무엇이 가난을 양육하나?”라고

6) 앞의 책.

물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의 세계를 주시하고 역사를 되돌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자유의 정도가 그 나라의 번영의 정도이다.

최근 또다른 구호는 세계의 국가들이 ‘가진 나라*haves*’와 ‘갖지 못한 나라*have-nots*’로 나뉘어 있다는 불평이다. ‘가진 나라’는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 ‘갖지 못한 나라’는 자유를 갖지 못한 나라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만일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반대해야 할 것은 국가통제주의이다. 개인은 집단의 희생제물이며, 몇몇 사람이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선’이 폭력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부족개념을 간직하고 있는 한, 한 국가내에서와 국가간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3) 핵무기가 전쟁을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무섭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핵폭탄에 의해 죽거나, 다이내마이트에 의해 죽거나, 구식 곤봉에 맞아 죽거나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공포를 산술적인 문제로 간주하며, 소수의 젊은이 그룹을 부족을 위해 죽으라고 기꺼이 보내면서 부족 자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큰소리를 지르는 자들, 더 나아가 방어능력이 없는 희생자들의 대량 학살은 기꺼이 너그럽게 봐주면서 잘 무장한 사람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항의시위를 하는 자들의 태도에는 역겨움이 느껴진다.

폭력으로 복종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은 반격할 것이고, 가능한 한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방어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치의 독가스실이나 소련의 총살 사격부대로 끌려간다면 그는 인류의 생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느끼겠는가? 아니면 독재정권을 묵인하는 식인종 같은 인류는 생존할

가치조차 없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겠는가?

만일 핵무기가 무서운 위협이고 인류가 전쟁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 인류는 더이상 국가통제주의를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선한 사람도 자신의 국가 안에서든 국가 밖에서든 폭력의 지배를 지지하는 것을 양심에 받아들이지 말자. 실제로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며 인간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만일 전쟁이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면 폭력의 사용이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자.

3

미국의 박해받는 소수: 대기업*

이인 랜드

4

만일 소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그룹과 충돌할 때 주제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유죄라고 간주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박해라고 부를 것인가? 만일 이 그룹이 죄, 오류, 어떤 다른 그룹의 실패에 대해 배상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박해라고 부를 것인가? 만일 이 그룹이 조용한 공포의 통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면제가 된 특별법, 피고인은 사전에 이해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법, 고소인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법 아래에서 살아야 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박해라고 부를 것인가? 만일 이 그룹이 그의 과실 때문이 아니고 그의 선

* 1961년 12월 17일 보스턴의 포드홀 포럼The Ford Hall Forum, 1962년 2월 15일 콜럼비아 대학, 1962년 뉴욕의 나다니엘 브랜던 연구소Nathaniel Branden Institute에서 한 강의.

행 때문에, 그의 실패 때문이 아니고 그의 업적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 업적이 클수록 벌도 커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박해라고 부를 것인가?

만일 당신의 대답이 ‘예’이면 어떤 종류의 엄청난 불의를 당신이 용서하고 지원하고, 또는 자행하고 있는지 자문(自問)해보라. 그 그룹은 미국의 사업가들이다.

소수 권리의 보호는 고도의 도덕원리로서 오늘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하는 이 원리가 대부분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된다. 그 원리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수에게만 적용된다. 그 원리는 이용당하고, 공공연히 비난받고, 방어능력이 없는 소수 사업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수에 대한 모든 추하고 잔인한 불의의 양상이 사업가들에 대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실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주는 악을 생각해보라.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사실이나 문제와 관계없이 노동조합과의 어떤 대립에서도 사업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옳고 그름’의 항의시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한다. 이중잣대(double standard)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몇몇 권리들을 부인하는 악을 생각해보라.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생계(임금)를 위한 노동자들의 (다수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자기들의 생계(이윤)를 위한 사업가들의 (소수의) 권리는 부인한다. 만일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위해 투쟁하면 그것은 ‘사회이득’으로 불리며 환호를 받는다. 만일 사업가들이 높은 이윤을 위해 투쟁하면 그것은 ‘이기적 탐욕’으로 매도당한다. 만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낮

으면 ‘자유주의자’는 그것이 사업가들의 잘못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만일 사업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효력을 향상시키고 그들 기업의 재무수익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여 높은 임금과 낮은 가격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동일한 ‘자유주의자’는 그것을 ‘상업주의’라고 비난한다. 예를 들어 기금을 벌어들여야 할 필요가 없는 비영리재단이 자신들의 특별한 견해를 지지하는 TV쇼를 후원하면 ‘자유주의자’는 그것을 ‘계몽’ ‘교육’ ‘예술’ ‘공익사업’이라고 하면서 환영한다. 만일 어떤 사업가가 TV쇼를 후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기를 원하면 ‘자유주의자’는 그것을 ‘검열’ ‘압력’ ‘독재자의 지배’라고 부르며 절규한다. 국제친선 트럭운전사 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의 세지부가 뉴욕시의 우유공급을 15일 동안 중단했을 때 ‘자유주의’ 진영은 도덕적 분노나 비난을 터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사업가가 한 시간 동안 우유공급을 중단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순식간에 그들이 법적인 린치를 당하거나 ‘반트러스트 공소 trust-busting’로 알려진 학살에 두들겨 맞았을지를 상상해보라.

어떤 시기, 문화, 또는 사회에서 당신이 선입견, 불의, 박해, 그리고 어떤 소수 그룹을 향한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증오현상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 박해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폭력단을 찾아보고, 이러한 특정한 희생제물의 파괴로부터 기득권을 얻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틀림없이 당신은 박해받는 소수 그룹이 자기목표의 본질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운동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어떤 국가를 예측시키려고 하는 모든 운동, 모든 독재정권, 또는 잠재적인 독재정권은 국가를 혼란하게 한 데 대해서 비난하고 독재권력을 요구하는 정당성으로 사용할 희생양으로 몇몇 소수 그룹을 필요로 한다. 소련에서 희생양은 부르주아 유산계급이었고 나

치독일에서는 유대인이었으며 미국에서는 사업가들이었다.

6 미국은 아직 독재의 단계에 도달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독재의 길을 열고 있으며, 과거 몇십 년 동안 사업가들이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또는 복지국가 등 모든 종류의 국가통제주의 운동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누구의 죄와 악 때문에 사업가들이 비난을 받았는가? 그것은 관료들의 죄와 악이다.

국가통제주의의 이론가들이 우리를 속인 비참한 지적 일괄교섭 package-deal은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균등화이다. “배고픈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가 사업가로부터 명령을 받든 관료들로부터 명령을 받든 차이가 없다”라는 틀에 박힌 문구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들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애매한 말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동자조차도 소련에 있는 가장 부유한 인민위원commissar들보다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하다고 알고 있다. 자유와 노예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필수적이며,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의 원리 대 물리적인 강압, 또는 강요의 원리이다.

정치권력과 모든 다른 종류의 사회‘권력’의 차이, 정부와 다른 민간조직의 차이는 정부는 폭력사용에 있어서 법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날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반복해보자. 정부는 폭력사용에 있어서 법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개인, 민간그룹, 민간조직도 다른 개인이나 그룹들에 대해서 폭력을 먼저 사용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과 반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정부만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정부행동의 본질은 강제적인 행동coercive action이다. 정

치권력의 본질은 재산몰수, 감금, 죽음의 위협 등 물리적 손해의 위협하에서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다.

“배고픈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애매한 은유, 단정치 못한 모양, 초점이 없는 시, 애매함 등은 단지 정치권력만이 물리적 강제의 권력이고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자유란 물리적 강압의 부재라는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자유국가에서 정부의 적절한 기능은 개인권리를 보호하는, 즉 개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부는 누구에 대해서도 먼저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이 권리는 개인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리인에게도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은 자기방어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7 법적으로 정의된 집행을 목적으로 개인이 정부에게 위임한 권리이다. 올바른 정부는 폭력을 보복수단으로, 그리고 폭력을 최초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만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의 올바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군대는 외국의 침입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법정은 폭력과 사기에 의한 불이행으로부터 사람들의 재산과 계약을 보호하며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객관적으로 정의된 법에 따라 중재한다.

이것들은 미국의 헌법이 암묵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정치원리들이다. 헌법에도 모순이 있어서 국가통제주의자들이 분열의 실마리를 잡고, 불화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국가통제주의자는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강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약탈하고, 살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부는(국가) 국민들에 대해서 먼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정치적 교의가 충족되어야 한다. 얼마나 자주, 누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폭력이 사용되는지는 상관없는 질문이다. 모든 국가통제주의자 교의의 기본적인 원칙과 궁극적인 결과는 동일하다. 그것은 독재와 파괴이다. 다른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다.

이제 경제권력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보자.

경제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을 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을 거래하는 힘이다. 어떤 개인이나 사람들의 그룹도 다른 누구에 대해서 물리적 강압을 사용할 수 없는 자유경제에서는 경제권력은 단지 자발적 수단(생산과 교환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합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는 모든 가격, 임금, 이윤이 부자나 가난한 자들의 자의적인 변덕이나 어떤 사람의 '탐욕', 또는 어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유시장 기구는 모든 참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선택과 결정들을 반영하며 요약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립적이고 비강제적인 판단에 따라 상호 이익에 대한 상호동의를 의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가치(낮은 가격에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유시장에서 부는 한 나라의 경제적 삶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의 판매와 구입이라는 자유롭고, 일반적이고,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달성된다. 당신이 다른 상품 대신에 어느 한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당신은 그 제조업자의 성공에 투표를 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투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 이해관계, 그리고 필요에 근거하여 자신이 판단할 자격이 있는 문제들에만 투표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할 힘이나 다른 사람 대신에 그의 판단을 대체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대중의 목소리'라고 지명하면서 대중을 침묵하게 하고 권리를 빼긴 상태로 내버려둘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차이를 정의해보자. 경제권력은 긍정적인 수단, 즉 사람들에게 보상, 인센티브, 지불, 가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집행된다. 정치권력은 부정적인 수단, 즉 처벌, 상해, 감금, 파괴 등의 위협에 의해 집행된다. 사업가의 도구는 가치이고 관료의 도구는 공포이다.

한 세기 반에 걸친 짧은 기간에 미국의 산업진보는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든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이에 필적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사회계급으로서 미국의 사업가들은 인류의 경제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가장 위대한 천재성과 가장 화려한 업적을 과시해왔다. 우리의 문화와 지식인들로부터 그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가? 그들의 지위는 미움받고 박해받는 소수이며, 관료들이 저지른 악의 희생양이다.

규제가 없는 순수한 자유방임 자본주의 체제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존재해본 적이 없었다. 존재했던 것은 단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유와 통제의 혼합, 자발적인 선택과 정부강제의 혼합,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주의의 혼합인 소위 혼합경제였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였다. 그러나 국가통제주의의 요소는 시작부터 미국경제 안에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국가통제주의 철학에 눈에 띄게 관계했던 지식인들의 영향력하에서 계속 자라갔다. 사상가, 해설자, 공공사건의 사정관들과 같은 지식인들은 다른 모든 사회그룹들이 단념한 정치권력을 손에 쥌 수 있는 기회와 '선한' 사회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견해를 무력, 즉 합법화된 물리적 강제에 의해 확립할 수 있는 기회 유혹을 받았다. 그들은 자유사업가들을 ‘자기 탐욕’의 대표적 인물로 매도했고, 관료들을 ‘공복public servants’이라고 찬양했다. 사회문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은 ‘경제권력’을 계속 매도했고 정치권력의 무죄를 증명하여 죄의 짐을 정치인에게서 사업가에게로 바꾸어놓았다.

사업가들과 자본주의의 잘못으로 공공연하게 돌려졌던 모든 해악, 남용, 부정은 규제가 없는 자유경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고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으로 야기되었다. 제임스 제롬 힐James Jerome Hill, 해군 94 준장 밴더빌트Commodore Vanderbilt,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모건J. P. Morgan 등과 같은 미국산업의 거인들은 개인능력과 자유시장에서의 자유무역으로 그들의 재산을 벌어들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혼합경제의 산물로서 다른 종류의 사업가들도 존재하는데, 그들은 정치적 연고를 가지고 정부가 그들에게 부여한 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모은 사람들로, 센트럴 퍼시픽 철도회사Central Pacific Railroad의 4인방Big Four이 좋은 예이다. 국가경제에 혼란, 곤궁, 침체, 늘어나는 대중항의를 야기시킨 것은 그들의 행동(강제적이고,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당한 특권의 힘)을 후원하는 정치권력이었다. 그러나 비난을 받는 것은 자유시장과 자유사업가들이었다. 정부통제의 모든 불행한 결과는 통제를 확대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힘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만일 미국산업의 궁극적인 파괴의 도상에서 전환점을 기록했던 연도와 미국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법률을 선택하라고 요청받는다면 나는 1890년과 셔먼법Sherman Act을 선택할 것이다. 그로 인해 독점금지법으로 알려진 시행할 수 없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모순들이 이상하고, 비합리적이고, 악성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했다.

독점금지법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가 사업에 맡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범죄자가 된다. 만일 그가 이러한 법들 가운데 하나만 따르면 다른 법들하에서 형사기소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어떤 관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한 가격을 매기면 그는 독점이나 성공적인 ‘독점할 의사intent to monopolize’로 기소당할 수 있다. 만일 그의 경쟁자들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매기면 그는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이나 ‘거래규제restraint of trade’로 기소당할 수 있다. 만일 그의 경쟁자와 동일한 가격을 매기면 그는 ‘공모collusion’나 ‘모의conspiracy’로 기소당할 수 있다.

나는 닐A. D. Neale의 『미국의 독점금지법The Antitrust Laws of the U. S. A.』이라는 우수한 책을 추천한다.¹⁾ 그것은 학문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이다. 영국의 공무원인 저자는 자유기업의 옹호자는 아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는 ‘자유주의자’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사실fact과 해석interpretation을 혼동하지 않고 둘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그가 제시하는 사실들은 공포이야기이다.

6 닐은 ‘거래규제’의 금지는 독점금지법의 핵심이며 무엇이 ‘거래규제’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법이 무엇을 금지하며 무엇을 허락하는지를 명확히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의 해석은 전적으로 법정에 맡겨져 있다. 사업가나 그의 변호사는 소위 판례법case law 전체, 즉 법정사례, 선례, 판결 등의 현재적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라도 얻기 위하여 이러한 법들의 전체기록을 공부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1) A. D. Neale,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Study of Competition Enforced by Law*,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판례들이 내일이나 내주, 또는 내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법정은 1890년 이래 법이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사례별로 결정하는 데 중사해왔다. 어떠한 광범위한 정의도 성문법의 의미를 진실로 털어놓을 수 없다…….”²⁾

이것은 사업가가 취할 행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업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력, 명성, 재산 등 모든 것을 잃고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안은 채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위협하에서 살아야 하며, 그의 전생애의 업적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에 대한 소송절차를 시작한 야망에 찬 젊은 관료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급법(또는 소급처벌법), 즉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범죄로 정의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법은 앵글로-색슨계 법체계의 전통에는 모순되며 거부된다. 그것은 독재하에서 시행되는 박해의 한 형태이며 모든 문명법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헌법에서도 상세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사업가들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취했던 행동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불법적인지 유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면 이것은 확실히 소급법이다.

나는 해롤드 플레밍Harold Fleming이 쓴 『만계명Ten Thousand Commandments』이라는 훌륭한 소책자를 추천한다.³⁾ 그 책은 문외한에 의해 씌어졌으나 명쾌하고 간단하고 논리적인 용어로 자세히 기록된 풍부한 증거(‘악몽’이

너무 희미하여 한마디로 그것을 묘사할 수 없는 독점금지법의 그림)를 제시한다.

- 5) 판매관리자가 지금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중의 하나는 오늘날 가장 합법적인 의견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던 어떤 정책들이 내년에 비합법적이라고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플레밍은 적고 있다). 그러한 경우 범죄행위와 처벌은 소급될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위험요소는 세 갑절의 손해소송 가능성과 소급 가능성이다. 선의이지만 위의 기소 조항 중의 하나에서 법에 저촉되는 회사들은 독점금지법하에서 세 갑절의 손해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설사 그들의 위반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던 방향의 행동이었을지라도 법의 재해석에 의해 불법적으로 드러난다.⁴⁾

사업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공판에 앞선 유죄Guilty Before Trial」(1950년 5월 18일)라는 연설에서 그당시 미국철강회사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의 회장이었던 벤자민 페어리스Benjamin F. Fairles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사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러한 법체계를 고집하고 그것을 모든 위반자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집행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크고작은 모든 사업들은 애틀랜타Atlanta, 싱싱Sing Sing, 리번위스Leavenworth, 또는 알카트라즈Alcatraz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대우는 사업가들에게 주어지는

2) 앞의 책, p.13.

3) *Ten Thousand Commandments: A Story of the Antitrust Laws*, New York: Prentice-Hall, 1951.

4) 앞의 책, pp.16~17.

법적 대우보다 우수하다. 범죄자의 권리는 객관적인 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 범죄자는 그가 유죄라고 판명될 때까지는 결백하다고 추정된다. 단지 사업가들(생산자, 제공자, 지원자, 경제 전체를 그들의 어깨에 지고 가는 사람들)만이 본질적으로 유죄라고 간주되고 결백이나 증거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도 없이 그들의 결백함을 증명하도록 요구된다. 그리고 그들은 명성을 쫓는 정치가들, 음모를 꾸미는 국가통제주의자들, 관료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반트러스트 공소를 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질투심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변덕, 호의, 또는 악의에 맡겨진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정부관리들은 독점금지법의 비객관적인 본질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같은 연설에서 페어리스는 그당시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위원이었던 로웰 메이슨Lowell Mason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5 미국의 사업은 괴롭힘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으며, 심지어 터무니 없이 짜맞춘 법체제하에서 협박을 당했다. 그 법체제의 많은 것은 지성적이지 않고 지키게 할 수도 없고 불공정하다.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을 지배하는 법의 혼란으로 정부는 문자 그대로 고소하고자 선택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죄목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 체제가 위법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페어리스씨는 대심원 판사인 잭슨Jackson이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국장으로 있을 때 쓴 논평을 인용하고 있다.

법률가가 어떤 기업행위가 법정으로부터 적법이라고 선고될지를 결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법과 법을 집행하려는 정부관료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업가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당황함을 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원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의 의장인 에마누엘 셀러Emanuel Celler가 1950년 1월 뉴욕주 법조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의 심포지엄에서 했던 말을 플레밍의 책은 인용하고 있다.

나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대체하는 청구명세서bills of particulars를 주면서 위반사항을 열거하려고 시도하는 그 어떠한 독점금지법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를 원한다. 법은 동적인 사회를 허용하면서 유동적이어야 한다.5)

‘유동적 법fluid law’은 ‘독단적인 권력arbitrary power’의 완곡어법이고, ‘유동성fluidity’은 모든 독재하에서 법의 특성이며, 법이 너무나 유동적이어서 범람하여 국가를 익사시키는 ‘동적인 사회’는 나치독일이나 소련에서 볼 수 있다.

그러한 논쟁의 비극적인 역설은 독점금지법이 자유기업의 옹호자라는 소위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결코 올바르고 철학적인 옹호자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자본주의의 적극적인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정치원리, 경제학에 대한 이해, 정치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의 냉혹한 증거이다. 법에 의해 강요되는 자유경쟁의 개념은 용어 자체가 크게 모순된다. 그것은 무력에 의해서

5) 앞의 책, p.22.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명령의 독단적인 지배에 의해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면법을 통과시킨 역사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नी의 책에서 인용해보자.

초기 법률제정 운동의 배후에 있는 추진력이 1870년대와 1880년대에 힘을 모았다…… 남북전쟁 이후 특권, 특별면제, 보조금 등을 가진 철도회사가 의심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 반독점 할인 화물철도연맹The National Anti-Monopoly Cheap Freight Railway League’과 같은 이름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나타났다.⁶⁾

이것은 정치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사업가들이 회생양의 대용이 된 생생한 예이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철도에 대한 특별면제나 보조금은 정치적으로 주어진 특권이였다. 서부의 철도회사를 경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고 그들에게 독점적 힘과 그로 인한 남용까지 부여했던 것은 이러한 특권들이였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법안으로 만들어졌던 치료책은 사업가들의 자유를 파괴하고 경제에 대한 정치통제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만일 당신이 미국의 진짜 비극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독점금지법⁵⁾의 이념적 동기와 실제결과를 비교해보라. नी의 책에서 인용해보자.

견제되지 않는 권력unchecked power의 모든 근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

6) Neale, p.23.

신은 다른 경제적 믿음이나 급진적인 정치적 경향보다도 독점금지 정책의 배경에 있는 뿌리깊고 지속적인 동기이다. 이 불신을 미국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과 ‘권력분산separation of powers’ 이론에 나타나 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재산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때때로 부득이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떤 특별한 권력의 보유자도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침해위협에 항상 처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독점금지이 이러한 기본적인 동기에 동의하여 행정적 규제보다는 합법적 과징과 사법적 치료에 의지한다. 매사추세츠 권리장전Massachusetts

5) Bill of Rights의 유명한 법규(“사람의 정부가 아니고 법의 정부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미국인들이 즐겨 인용하는 것이고 독점금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랍겠지만 이 요인이 없다면 이해관계, 특히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독점금지 정책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이해관계는 빈번하고 비싸게 독점금지 정책의 규칙에 종속된다.⁷⁾(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인간이 의도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줄 수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철학적 이론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역사상 최초의 자유사회가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했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차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강압은 생산에 대한 적당한 ‘균형’이 될 수 있으며, 둘다 서로에 대한 ‘견제’

7) 앞의 책, pp.422~23.

로서 역할할 수 있는 동일한 종류의 행동들이며, 사업가의 ‘권력’과 관료의 ‘권력’은 동일한 사회기능을 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경쟁자라고 가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람의 정부가 아닌 법의 정부’를 찾으려 하면서 독점금지 지지자들은 미국경제 전체를 다른 독재정권이 확립하기를 원하는 만큼의 독단적인 인간정부의 권력으로 인도했다.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사람들은 자유시장의 아주 복잡한 문제를 ‘큰 것’과 같은 아주 피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시도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있다. ‘큰 기업’ ‘큰 정부’ ‘큰 노동조합’은 ‘큰 것’의 본질, 근원, 기능과 관계없이 마치 그러한 크기가 악인 것처럼 사회에 대해 위협적이라고 비난받는다. 이러한 유형의 추리는 에디슨Edison과 같은 ‘큰’ 천재와 스탈린Stalin과 같은 ‘큰’ 악인이 모두 동등한 악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은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세계에 넘치게 했고 다른 사람은 계산할 수 없는 학살을 세계에 넘치게 했으나 둘다 매우 ‘큰’ 규모로 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동일시하는 데 대해 누가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기업과 큰 정부의 분명한 차이이다. 정부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한 유일한 수단은 폭력이고 기업이 자유경제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한 유일한 수단은 생산적인 업적이다.

자유경쟁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요인은 방해받지 않는 자유시장 기구의 운영이다. 자유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자유방임Laissez-faire으로서, 자유롭게 번역하면 손을 떼라Hands off이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은 완전히 반대 5 반대의 조건을 만들었고, 이루고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달성했다.

경쟁을 법률로 제정할 방법은 없다. 누가 누구와 경쟁하고, 어느

특정한 분야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해야 하고, 무엇이 그들의 상대적 강점, 또는 소위 ‘관련시장’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가격을 매기며, 경쟁의 어떠한 방법이 ‘공정한’지, 또는 ‘불공정한’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들은 정확하게 자유시장 기구를 통해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원리, 표준, 또는 그것을 안내하는 기준도 없이 독점금지판례법은 중세학자의 논쟁만큼이나 터무니없고 현실과 유리된 케변과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쓴 70년 동안의 기록이다. 단 이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중세학자들이 제기한 질문은 훨씬더 나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특정한 인간의 삶이나 운명이 그들 논쟁의 결과에 의해 정해지지는 않았다.

독점금지 사례의 몇몇 예를 제시하겠다. 1945년 연합통신사Associated Press 대 미국정부United States의 경우 연합통신사가 유죄로 판명되었는데, 그 이유는 AP의 내규가 회원자격에 제약을 가하여 새로 설립된 신문사가 가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닐의 책에서 인용해보자.

새로운 진입자가 그들의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통신사가 있다고 AP를 변호했다…… AP는 비회원에 대한 회원의 경쟁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조직되었고 비록 비회원사 모두가 경쟁에서 방해를 받든지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AP는 거래를 억제했다고 법정은 판결을 내렸다. (AP의 뉴스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편의로 간주되어) 연합의 회원들에게만 뉴스서비스를 한정하는 것은 예비경쟁자들would-be competitors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부과한다…… 회원사가 자신들을 위하여 편의를 쌓

왔다는 것은 변호가 되지 못한다. 새로운 참가자가 그것 없이도 실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뉴스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⁸⁾(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이 경우 누구의 권리가 위반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번덕이 법의 힘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는가? 무엇이 ‘예비경쟁자’의 자격을 부여하나? 만일 내가 내일부터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사와 경쟁하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실제적’이기 위하여 6 그들이 어떤 편의를 나와 공유해야 하는가?

1951년 밀그램Milgram 대 로즈Loew's의 경우 활동사진의 주요 배급자들이 드라이브인 극장에게 활동사진 개봉권을 주는 것을 계속 거부한 것이 ‘담합’의 증거로 잡혔다. 개별회사들은 확실히 그것을 거부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회사의 결정을 모른 채 자신의 독립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은 “의식적으로 유사한 회사운영”은 음모의 충분한 증거가 되며, “피고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의 증거는 불필요하다”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결정을 확인하고 유사한 행동의 증거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들에게 “연합행동으로 추측되는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제안했으나 그들은 명백하게 그것을 해명하지 못했다.

잠시 이 사례의 시사점을 생각해보자. 만일 세 명의 사업가가 독립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띄는 동일한 사업결정을 했다면 그들은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가? 또는 두 명의 사업가가 제3자가 고안한 뛰어난 사업정책을 알고도 공모 고소가 두려워 그것을 채택하기를 자제해야 하는가? 또는 두 명의 사업자가 그것을 채택

한다면 제3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취한 행동으로 그 자신이 법정에 가서 자신을 공모의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의 추측된 죄를 ‘해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것인가?

특허권의 경우 독점금지법은 특허소유자가 그의 특허를 혼자 사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한 특허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볼 때 그와 동일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와 특허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결정하거나, 만일 둘다 사업가들이 종종 고소당하는 ‘출혈경쟁dog-eat-dog’ 정책을 단념하기로 결정하거나, 그들의 특허를 같이 모아서 그들 자신이 선택한 몇몇 다른 제조업자에게 특허를 허가하기로 결정하면 독점금지법은 둘에게 모두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특허풀patent-pool의 경우 처벌은 신청자 전부에게 강제적으로 특허를 허가하거나 특허를 완전히 몰수하는 것이다.

닐의 책에서 인용해보자.

비록 회사 고용인의 연구노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얻은 유효한 특허라 하더라도 특허의 강제적 허가는 처벌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 회사를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1952년 I. C. I와 듀폰의 경우 라이언Ryan 판사는…… 그들의 제한적인 합의가 5 적용되는 분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허와 이 분야에서 새로운 특허는 아니지만 개량된 특허의 강제적 허가compulsory licensing를 명령했다. 이 경우 최근 통용화된 보조적인 구제책이 주어졌다. I. C. I와 듀폰은 모두 특허가 어떻게 실습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기술매뉴얼을 적당한 가격에 신청자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⁹⁾

8) 앞의 책, pp.70~71.

없다.¹⁰⁾

이것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누구의 무노동 혜택을 위해서 누구의 정신, 능력, 업적, 그리고 권리가 여기서 희생되었는가?

이 냉혹한 진행과정에서 (1961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가장 놀랄 만한 법정의 결정은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명한 ‘보수주의자’인 런드 핸드 Learned Hand 판사에 의해 씌어졌다. 희생자는 ALCOA였다. 사례는 1945년 미국정부 United States 대 미국 알루미늄 회사 Aluminium Company of America(ALCOA)였다.

독점금지법하에서 그러한 독점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인 것은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ALCOA가 유죄임을 밝히기 위해서 런드 핸드 판사는 ALCOA가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제외시키는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여기에 그가 밝혀냈고, 미국 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인 에너지를 봉쇄했던 그의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일련의 증거가 있다. 핸드 판사의 의견을 인용해보자.

(ALCOA)가 항상 금은괴(ingot)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들의 공급을 준비해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분야에 진입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그 회사의 생산능력을 계속 늘리도록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회사는 경쟁자들을 결코 배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기회를 붙잡고 이미 경험, 거래관계, 그리고 정예요원들의 장점을 가진 거대한 조직을 갖춘 채 새로운 진입자에 대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배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여기, 독점금지법의 의미와 목적이 노골적이고도 명확하게 공개되었다. 이러한 법의 입안자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러한 법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와 목적은 능력이 있다고 능력을 차별하는 것, 성공한다고 성공을 차별하는 것, 질투심이 강한 범인(凡人)들의 요구에 대한 생산적인 천재들의 희생이다.

만일 그러한 원리가 모든 생산적인 활동에 적용되고 어떤 지식인 ^s이 그와 경쟁하기를 원하는 어떤 겁쟁이나 어리석은 자를 실망시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느 직업에서든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거나 승진하거나 향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형태이든(그것이 타이피스트의 더 빠른 속도든, 예술가의 더 나은 그림이든, 의사의 더 나은 치유율이든) 개인의 발전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정상에서 경쟁을 시작하기 원하는 새로운 진입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작지만 최고의 마무리로서 ALCOA 사례의 설명에 대한 닐의 각주를 인용해보겠다.

ALCOA가 계속적으로 확장의 기회를 붙잡는 데 실패했고 금속의 수요를 과소추정하여 미국이 제1,2차 세계대전 시작부터 지독한 생산능력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경제작가들이 알루미늄 독점을 비난해온 중요한 이유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¹¹⁾

9) 앞의 책, p.410.

10) 앞의 책, p.114.

11) 앞의 책.

이제 다른 지지분한 기록은 하찮게 보이도록 만드는 최종적인 절정을 언급하겠는데, 이 사례를 통해 독점금지법의 본질, 핵심, 공판기록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것은 1961년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사례이다.

그 사례에 나오는 피고인의 명단은 전기장비 산업의 출석점호와 같다. 그것들은 제너럴 일렉트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엘리스-찰머스Allis-Chalmers, 그리고 26개의 작은 회사들이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토스터기에서부터 발전기에 이르기까지 전기시대에 있어서 당신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혜택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죄 때문인데, 그들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공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제품가격을 고정시키고 입찰을 조작하는 비밀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격을 너무나 낮게 책정하는 대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작은 기업들은 대파산했을 것이고, 그 결과 대기업들은 동일한 독점금지법하에서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소에 직면했을 것이다.

『포천Fortune』지(1961년 4~5월호)에 실린 「믿을 수 없는 전기모의The Incredible Electrical Conspiracy」라는 리처드 오스틴 스미스Richard Austin Smith의 논설을 인용해보자.

“만일 제너럴 일렉트릭이 시장의 50퍼센트 점유를 목표로 질주했다면 I-T-E Circuit Breaker와 같은 강한 회사조차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 논설은 가격고정 합의는 제너럴 일렉트릭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실상 ‘속은

회사’였으며 그 회사의 임원들이 그것을 알고 ‘모의’에서 빠지기를 원했으나 (독점금지과 정부규제로 인하여)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점금지법이 전기산업에 ‘공모’를 강요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의 가장 좋은 증거는 ‘합의판결consent decree’이라는 그 사례의 여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가능한 한 최저가로 책정할 생각이라고 발표했을 때 반대한 것은 작은 회사들, 정부 및 독점금지국이었다.

‘공모자들’의 모임은 물가통제국Office of Price Administration(O. P. A.)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스미스의 논설은 언급한다. 전쟁중에 전기장비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고정되었고, 전기산업의 임원들은 공동의 정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물가통제국이 폐지된 후에도 그들은 이러한 관계를 계속 지켜나갔다.

가격고정정책을 사업가들이 시행할 때는 범죄가 되고 정부가 시행할 때는 공익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평화시에 정부에 의해 가격이 고정되는 많은 산업들(예를 들면 트럭운송)이 있다. 만일 독점금지법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격고정이 경쟁, 산업, 생산, 소비자, 경제 전체, 그리고 ‘공익’에 해가 된다면 어떻게 동일한 나쁜 정책이 정부의 손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독점금지 옹호자들의 경제지식, 목적, 그리고 동기들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라고 제안한다.

전기회사들은 ‘공모’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항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경쟁no contest’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독점금지법이 자신들을 항변하려는 시도에 치명적인 위험을 배치시켜 놓아 항변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들

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회사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3종의 피해treble damages를 입을 수 있게 한다. 전기산업 사례만큼이나 큰 사례에서는 그러한 3중 피해 소송은 모든 피고들을 일소하여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러한 위협이 그를 위협하고 있고, 객관적인 법, 유·무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우연을 추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는 법정에서 누가 위협을 무릅쓰고 변호하겠는가?

만일 다른 그룹의 사람들, 다른 소수 그룹이 변호가 불가능한 재판이나 변호가 진지할수록 변호가 위협하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분노의 아우성 소리와 어떤 항의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들릴 것인가를 예측해보라. 실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반대의 경우이다. 범죄가 중대할수록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기회와 은전을 주는 법의 예방이나 보호가 더 크다. 법정에 와서 제한을 받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은 사업가들 뿐이다.

무엇 때문에 정부는 전기산업을 조사했는가? T. V. A.의 불평과 케파우버Kefauver 상원의원의 요구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스미스의 논설은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아이젠하워Eisenhower의 공화당 행정부하에서 있었던 일로, 그 연도는 1959년이였다. 1961년 2월 17일자 『타임Time』지에서 인용해보자.

종종 정부는 독점금지 사례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이 무너졌다. 1959년 10월, 4명의 오하이오Ohio주 사업가들이 독점금지 사건에서 무경쟁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감옥형에 처해졌다(그 중 1명은 감옥으로 가는 도중 자살했다). 이 소식은 조사중에

있는 전기설비 임원들을 소름끼치게 하여 몇몇 임원들은 면죄부를 대가로 그들의 동료들에 대해서 증언하기로 합의했다. 그들로부터 증거가 수집됨에 따라 (대부분이 자신들의 회사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폭력단, 공갈단, 또는 마약판매인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효율적이며,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인 사업가들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새로운 국면에서 독점금지법은 명백하게 사업을 밀고자, 사복경관, 배신자, 특별한 ‘거레’, 그 밖에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의 정서로 가득한 암흑가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기산업에서 7명의 임원들이 감옥형에 처해졌다. 우리는 이 사례의 막후에서, 또는 회사와 정부의 협상에서 무엇이 진행되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7명이 ‘공모’의 책임이 있는가? 만일 유죄라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가? 누가 그들을 ‘밀고’했고 왜 했을까? 그들은 누명을 쓴 것일까? 그들은 배신자인가? 누구의 목적, 야망, 목표를 위해 그들이 산재물이 되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독점금지법의 편제하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신들을 변호할 수 없는 이 7명이 선고를 듣기 위해 법정에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기를 청원했다. 『타임』지에 있는 같은 이야기에서 인용해보자.

“변호사가 법관 앞에 나오기 전 먼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부회장은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간청했다. 변호사는 그의 변호의뢰인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 샤론Sharon시에 있는 성 요한 성공회St. John’s Episcopal Church의 교구위원이었고 장애아동들을 위한 자선

단체의 후원자였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고인의 변호사는 그의 변호의뢰인은 “뉴욕주 쉐넬티디 Schenectady시에 있는 소년단의 이사였고 매사추세츠주 레녹스Lenox에 있는 새 예수회Jesuit 신학교를 건설하는 운동의 의장이었다”라고 변호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이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 7명의 업적, 생산능력, 임원자질, 지성, 권리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복지’에 대한 이타적인 ‘서비스’였다. 가난한 자들은 복지권a right to welfare이 있으나 복지를 만들고 제공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생산자들의 복지와 권리는 고려하거나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문화의 현재상태에 대한 고발이다.

무시무시한 연극 전체의 마지막 마무리는 개니Ganey 판사의 말이다. 그는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자유기업 체제로 성장하게 한 경제유형의 생존이다”라고 말했다. 자유기업 체제가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격을 가하고, 가장 훌륭한 7명의 대표자들을 감옥형에 처하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계층의 사람들(사업가들)이 그들의 본성과 직업 때문에 이제는 죄인취급을 받는다고 선언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 7명은 순교자들이었다. 그들은 희생동물처럼 취급되었고, 선사시대 정글에서 야만인들이 바쳤던 인간제물보다 더 잔인하고 진정된 인간제물human sacrifices이었다.”

만일 당신이 소수 그룹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가들은 지구상에 있는 미개한 대중 전체에 비해 아주 작은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이 소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으며 이들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박해를 견디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지

구상에서 가장 작은 소수는 개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개인권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소수의 옹호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독점금지에 관한 문제 전체의 6 재검토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의 철학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기초에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사업가를 위한 시민자유연합Civil Liberties Union을 가져야 한다. 독점금지법의 폐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오랜 지적, 정치적 투쟁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첫번째 단계로서 이러한 법들의 감옥형조항jail-penalty provisions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어떤 두 명의 법학자가 법의 의미와 적용에 서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비객관적이고, 모순되고, 정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법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벌금과 같은 재정적인 처벌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질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법 아래서 감옥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위반할 수밖에 없는 난해한 법을 위반했다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폭행에 중지부를 찍게 해야 한다.

사업가들은 자본주의와 미국인의 삶의 방식을 전세계를 삼키고 있는 전체주의적 국가통제주의와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룹이다. 모든 다른 사회그룹들(노동자, 농민, 전문직업인, 과학자, 군인)은 비록 그들이 구속, 공포, 불행, 점진적인 자멸 속에서 살기는 하지만 독재정권하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독재정권하에서는 사업가와 같은 그룹은 없다. 관료와 인민위원 등 무장한 흉악범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한다. 사업가는 자유사회의 상징이고 미국의 상징이다. 그들이 멸망하는 날에는 문명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유를 위해 싸우기를 원한다면 보상받지 못하고, 인지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

하지만 가장 훌륭한 대표자인 미국의 사업가들을 위한 싸움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4

반트러스트*

앨런 그린스핀

5

반트러스트의 세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Wonderland를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이 외관상 보이는 그대로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것도 확실하다. 그곳에서는 경쟁이 기본적인 원칙과 지도원리로

* 1961년 9월 25일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Economists의 반트러스트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논문에 근거하고 있고, 1962년 뉴욕의 나다니엘 브랜던 연구소 Nathaniel Branden Institute에 의해 출판되었다.

찬양된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경쟁은 ‘살인자’로 비난받는 세계이다. 그곳은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한 행동을 사업가들이 취할 때는 범죄로 낙인 찍히지만, 정부가 시작하면 ‘계몽시키는’ 것으로 찬양받는 세계이다. 그곳은 법이 너무 애매하여 사업가들이 판사의 판결을 듣기까지는 특정한 행동이 불법이라고 선언될지 안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세계이다.

반트러스트의 영역을 특정짓는 혼돈, 모순, 쓸데없는 법적인 논란 등을 고려하여 나는 반트러스트 체제 전체의 재검토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독점금지법의 역사적 근원과 이러한 법들이 근거하고 있는 경제이론들을 조사하고 추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은 독단적인 권력이 정치가들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왔다. 남북전쟁 이전 사업가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 정부관료는 폭력의 사용으로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합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사업가는 그러한 권력이 없다고 인식되었다. 사업가는 고객을 필요로 했다. 사업가는 그들의 사리사욕에 호소해야 했다.

그 문제에 관한 이러한 평가는 남북전쟁 직후의 시기, 특히 철도시대의 등장으로 급속도로 바뀌었다. 의견상으로 철도회사들은 합법적 폭력의 후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부의 농부들에게 철도회사들은 전에는 전적으로 정부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독단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철도회사들은 경쟁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농부들이 종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높지도 낮지도 않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 같았다. 농부들의 항의는 1887년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의 통과에 책임이 있는 조직인 전국농장운동National Grange Movement의 형태로 발생했다.

이 기간에 일어났던 록펠러Rockefeller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 Standard Oil Trust와 같은 산업계 거인들은 경쟁과 수요-공급법칙으로부터 면제된 것처럼 보였다. 트러스트에 반대하는 대중의 반발은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의 제정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기업은 만일 자유롭게 놓아두었다면 틀림없이 독단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그때 주장되었고, 아직도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 남북전쟁 이후의 기간에 새로운 형태의 독단적인 권력이 발생했는가? 아니면 정부가 아직도 그러한 권력의 원천으로 남아 있고 기업은 단지 권력이 행사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는가?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질문이다.

철도회사는 바지선, 배, 짐마차 등 구형 운송수단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힘든 경쟁 속에서 남북전쟁 이전에 동부에서 발전했다. 1860년대에 철도회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캘리포니아를 국가에 묶을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났다. 국가위신이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그러나 사람수가 많은 동부 이외의 수송량은 상업적인 운송을 서쪽으로 끌어당기기에 불충분했다. 잠재이윤은 수송시설에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이름으로 서부로 이전하는 철도회사에 대해 보조하기로 결정되었다.

1863년과 1867년 사이 1억 에이커에 가까운 공유지가 철도회사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교부가 개별적인 선로에 대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쟁회사들은 서부의 동일지역에서 수송을 위해 다룰 수가 없었다. 그동안 다른 형태의 경쟁(짐마차, 배 등) 서부에서 철도회사에 도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동부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경쟁적 영역에서 철도산업의 어떤 부분은 ‘벗어날 수’ 있었다.

예상대로 보조금은 기업사회business community의 가장자리에 항상 5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쉬운 거래easy deal’를 찾는 흥행주들을 끌어당겼다. 많은 새로운 서부 철도회사들이 영세한 규모로 신설되었다. 그 회사들은 수송을 담당하기 위하여 건설된 것이 아니고 토지교부를 얻기 위해 건설되었다.

서부 철도회사들은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진짜 독점이었다. 그들은 독단적인 권력을 후광으로 행동할 수 있었고 또 활동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자유시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의 보조금과 정부의 제약에서 유래되었다.¹⁾

궁극적으로 서부의 수송량이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운송회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가되었을 때 철도회사의 독점력은 곧 약화되었다. 그들은 최초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 경제사에 불길한 전환점이 발생했다. 그것은 1887년의 주간통상법이다.

그 법은 자유시장의 ‘해악’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되는 법률제정과 같이 그 법은 이전에 정부간섭으로 인해 창출되었으나 자유시장이 비난을 받았던 경제적 왜곡을 고치기 위한 시도였다. 주간통상법은 철도회사의 구조와 재정에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냈다. 오늘날 이러한 왜곡들이 또다른 보조금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 철도회사들은 최종 붕괴 직전에 있지만 그 누구도 철도회사들의 병폐의 실제원인을 발견하고 교정하는 데 있어 범한 최초의 오진에 도전하지 않는다.

1) 나는 이 원리에 대한 Ayn Rand의 문제인식에 도움을 입고 있다. 그녀의 “Notes on the History of American Free Enterprise”(이 책의 제7장)를 참조하라.

19세기의 철도 역사를 자유시장 실패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동일한 오류는 ‘트러스트’에 대한 19세기의 두려움이었다.

‘트러스트’ 가운데 가장 가공할 만한 것은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먼법이 통과될 때인 자동차 이전의 시기에 전 석유산업은 국민총생산의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고, 신발산업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우려한 것은 트러스트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었고 산업내에서의 트러스트의 지배였다. 6 그렇지만 관찰자들이 이해하는 데 실패했던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스탠더드 오일이 정제능력의 80퍼센트 이상을 통제한 것은 경제적으로 사리에 맞는 일이었고,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통제는 서로 다른 정제, 마케팅, 송유관 운영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확실히 높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자본조달을 더 용이하게 하고 저리로 가능하게 했다. 트러스트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산업이고, 또한 너무 작아 하나 이상의 대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산업에 가장 효율적인 구성단위이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산업의 일반적인 발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왔다. 산업은 소수의 작은 회사들로 시작한다. 머지않아 그들 중 많은 회사들이 합병한다. 이것은 효율성과 이윤을 증대시킨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회사들이 그 분야에 진입하고, 따라서 주도회사의 시장점유를 줄인다. 이것은 철강, 석유, 알루미늄, 콘테이너, 그리고 많은 다른 주요 산업들의 발전형태가 되어왔다.

산업을 주도하던 회사들이 결국 그들 시장점유의 일부분을 잃게 되는 경향은 반트러스트 법률제정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

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새로운 회사들이 그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래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분리되지 않았더라도 텍사코Texaco와 걸프 Gulf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세기 전 철강산업에서 미국철강회사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의 지배도 셔먼법과 관계없이 잠식당했을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큰 산업의 시장을 50퍼센트 이상 점유하려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품과 기술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비범한 생산능력, 확실한 사업판단, 꾸준한 노력 등을 요구한다. 수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시장점유를 유지하는 보기 드문 회사는 생산효율성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 따라서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만하다.

셔먼법은 19세기의 두려움과 경제적 무지의 투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지식의 배경하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넌센스이다. 그 이후 산업발전을 관찰해온 70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왔음에 틀림없다.

7 만일 우리의 독점금지법을 역사적 근거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잘못이고 역사의 오해에 의존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이론적 근거에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 미국인들은 큰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 개인들은 그가 선택한 것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었고 그가 선택한 누구에게든지 상호합의된 가격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 만일 두 명의 경쟁자가 연합가격 정책을 펴는 것이 서로의 사리사욕에 맞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만일 고객이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면 회사(보통 철도회사)는 그 요구에 맞추어 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고전학과 경제학에 따르면 경쟁은 경제를 균형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경제의 작동에 대한 설명과 같이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많은 이론이 근거가 확실한 반면에 경쟁에 관한 그들의 개념은 애매하여 그들의 추종자들의 생각에 혼돈을 가져왔다. 경쟁은 마치 로봇처럼 자연의 법칙으로서 시장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상태에 영향을 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최대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의 사업가들은 광고, 가변생산비용,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가격협상 등으로 그들의 시장상태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은 고전학과 이론과 모순된다고 가정했다. 그들은 경쟁은 더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이해했던 경쟁의 의미에서는 경쟁은 어떤 고립된 농업시장을 제외하고는 결코 작동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경쟁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19세기에 도 존재했다.

‘경쟁’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명사이다. 그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거래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전분야에 적용된다. 그것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19세기 관찰자들의 오류는 그들이 광의의 개념(경쟁)을 협의의 특정한 분야에 한정시키고 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해 ‘수동적’인 경쟁으로 한정시켰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가공의 ‘수동적 경쟁’의 ‘실패’가 자유방임이 모든 가능한 경제체

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예시해주는 것을 포함해서 고전학과 경제학의 전반적인 이론구조를 부정하는 것이라 86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자유시장은 본질적으로 자기과멸에 이른다고 결론을 내리고 시장의 자유를 정부통제에 의해 보존하려는, 즉 자유방임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방임의 혜택을 보존하려고 시도하는 이상한 모순에 도달했다.

그들이 제기하지 못했던 중요한 질문은 ‘능동적’인 경쟁이 그들이 가정했던 것처럼 강제적 독점(coercive monopoly)의 확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능동적’인 경쟁의 자유방임 경제가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자동조절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할 질문이다.

‘강제적 독점’은 경쟁과 수요-공급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과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정책을 결정하는 사업과 관계된 일이다. 그러한 독점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는 경직되고 정체될 것이다.

강제적 독점의 필요 전제조건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경쟁생산자들을 추방하는 진입폐쇄이다. 이것은 정부간섭의 행동에 의해서 특별규제, 보조금, 특권 등의 형태로만 달성될 수 있다. 정부지원 없이 예비독점자(would-be monopolist)가 경제의 다른 부분들과 독립적으로 가격과 생산정책을 결정하고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만일 예비독점자가 새로운 진입자들이 다른 분야에서 낼 수 있는 이윤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내는 수준에서 가격과 생산을 결정한다면 경쟁자들이 그의 산업에 침입해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쟁의 궁극적인 조정자는 자본시장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는 한 자본은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으로 찾아다닐 것이다.

자본의 잠재적 투자기는 단순히 어느 특정한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실제수익률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그 자신이 그 특정한 분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에 의존한다. 어느 산업내의 현존하는 이윤율은 현존하는 비용에 의하여 계산된다. 그는 새로운 진입자는 경험이 있는 생산자의 비용구조만큼이나 낮은 비용구조를 단번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 자본시장의 존재는 높은 이윤을 향유하고 있는 어떤 독점자가 그 자신이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유 자본시장의 존재가 보장하는 것은 낮은 비용보다는 높은 가격에 의해 높은 이윤을 획득한 독점자는 자본시장에 의해 시작된 경쟁에 곧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은 이윤의 조정자가 아니고 가격의 조정자로서 행동한다. 자본시장은 개별적인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의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가능한 한 그가 벌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생산성 증가와 그 결과 높아진 생활수준에 이르게 하는 큰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기구를 만들어낸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미국 알루미늄 회사ALCOA의 역사는 그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자신의 사리사욕과 성장하는 시장의 관점에서 본 장기수익성을 구상하여 ALCOA는 알루미늄 원료의 가격을 시장이 최고로 확장된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그러한 가격수준에서 이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한 단계 올리는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만 곧 나타나는 것이었다.

ALCOA는 알루미늄 원료의 유일한 독점생산자였으나 강제적 독점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그 회사는 경쟁세계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격 및 생산정책을 결정할 수 없었다. 사실상 그 회사는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루미늄 원료의 유일한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ALCOA가 가격인상으로 이윤을 높이고자 시도했었다면 그 회사는 알루미늄 원료 사업에서 새로운 진입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을 것이다.

자유방임경제의 경쟁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자본지출은(현존하는 생산자나 새로운 진입자들에 의한 공장과 설비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현재의 이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투자의 성사 여부는 미래 예상이윤의 추정된 할인 현재가치에 의존한다. 따라서 새로운 경쟁자가 지금까지의 독점산업에 진입하고 안 하는 것은 그의 미래 예상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어느 주어진 산업에서 미래 예상이윤의 할인된 현재가치는 그 산업에 있는 회사들의 보통주 시장가격에 나타나 있다.²⁾ 만일 어느 특정한 회사의(또는 어느 특정한 산업의 평균) 주가가 오르면 그 상승은 높은 미래 예상수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그룹 사이에서도 주가와 자본지출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적 실증이 있다.³⁾ 게다가 주가의 변동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지출 변동 사이의 시간이 다소 짧은데, 이 사

2) 1959년 12월 27일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과 American Finance Association의 연합회의에 앞서 발표되었던 Alan Greenspan의 논문 "Stock Prices and Capital Evaluation"을 참조하라.

3) 이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1961년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의 *Proceedings of the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Section*에 발표된 Alan Greenspan의 "Business Investment Decisions and Full Employment Models"를 참조하라.

실은 새로운 자본투자를 기대이윤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러한 상관관계가 그대로 잘 작용한다면 오늘날 자본의 자유이동에 대한 정부의 방해를 고려해볼 때 완전한 자유시장에서는 경쟁과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완전한 자유경제에서 국가자본의 교란은 자본을 계속 이윤이 있는 영역으로 확장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강제적 독점이 유지되기 불가능하게 하여 회사들의 경쟁적 가격 및 생산정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정부라는 조정자가 제공하는 특별면제, 보조금, 특권 등에 의해 자본시장의 규율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강제적 독점이 번성할 수 있는 곳은 소위 혼합경제뿐이다.

요약해보자.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의 전반적인 구조는 경제적 비합리성과 무지의 뒤범벅이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오해의 소산이고 다소 순진하고 확실히 비현실적인 이론들의 소산이다.

마지막 수단으로써 몇몇 사람들은 독점금지법은 최소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경쟁과정 그 자체가 강제적 독점을 억제하지만, 어떤 경제적 행동이 불법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이중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의할 수 없는 법과 모순된 판례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사업가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모험사업을 떠맡았을 것이다. 어떤 새로운 상품, 과정, 기계, 비용절감 합병 등이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서면법에 의해 살해당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자본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야기시킴으로써 생활수준을 계속 낮추어온 서면법에 대해 우리가 지불해온 가격을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독점금지법하에서 감옥에 간 회사임원들의 경력, 명성,

삶에 대한 불의와 피해를 평가하는 데 추측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독점금지법의 목적이 경쟁, 기업, 효율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ALCOA를 소위 독점적 실천(monopolistic practices)으로 기소한 런던 핸드 판사의 기소장 중 다음의 인용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ALCOA가 항상 금은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들의 공급을 준비해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분야에 진입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그 회사의 생산능력을 계속 늘리도록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회사는 경쟁자들을 결코 배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기회를 붙잡고 이미 경험, 거래 관계, 그리고 정예요원들의 장점을 가진 거대한 조직을 갖춘 채 새로운 진입자를 대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배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ALCOA는 너무 성공적이고,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좋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독점금지법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피해를 끼쳐왔든, 국가의 자본구조에 어떠한 왜곡들을 창출해왔든, 이러한 것들은 미국내 독점금지법의 효과적 목적, 숨은 의도, 실제집행으로 우리사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원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는 사실보다는 덜 비참하다.

7

통제를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을까?

5

자본주의에 대한 공통적인 오류들*

나다니엘 브랜던

27

독 점

자유방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전체경제에 대한

* 이 글들은 원래 *The Objectivist Newsletter*의 "Intellectual Ammunition Department"에 실렸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들을 반영하고 있는 질문들로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경제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들이다.

경제학 분야에서 칼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 전파되었고 많은 사업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최악의 오류들 중의 하나는 독점의 발전은 피할 수 없고 자유롭고 규제가 없는 경제운영의 내재적인 결과라는 개념이다. 정확히 그 반대가 사실이다. 독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시장이다.

‘독점’을 정의할 때는 절대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배경에서 독점의 위험과 해악을 말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강제적 독점(coercive monopoly), 즉 폐쇄적이고 경쟁이 없는 어느 주어진 생산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이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그러한 통제는 수요-공급법칙으로부터 면제되고 37 시장과는 독립적이어서 임의대로 생산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러한 독점은 경쟁의 부재보다도 더한 것을 수반한다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경쟁의 불가능을 수반한다. 경쟁의 불가능은 강제적 독점의 특징적인 속성이며 그러한 독점을 비난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본주의의 전체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시장에서 경쟁의 수단으로 강제적 독점을 확립할 수 없었다. 어느 주어진 생산분야에 진입을 금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밖에 없다. 미국, 유럽, 또는 지구상의 어디에서든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강제적 독점은 특권, 허가, 보조금 등에 의하거나, 어떤 개인, 또는 사람들의 그룹에게 (자유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특혜를 주는 입법적 행동에 의하거나, 그 특정한 분야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행동에 의해서만 창출되고 가능하게 되었다.

강제적 독점은 자유방임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방임의 폐지와 자유방임과 정반대 원리인 국가통제주의 원리의 도입에 의해 서만 생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기회사가 강제적 독점이다. 정부가 그 회사에게 한 정된 지역에 대한 특허를 주어 그를 제외한 누구도 그 지역 안에서 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전기를 판매하고자 시도하는 예비경쟁자는 법에 의해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전화회사도 강제적 독점이다. 가까운 제2차 세계대전 중 정부는 그 당시 웨스턴 유니온 Western Union과 포스탈 텔레그래프 Postal Telegraph 두 전신회사를 하나의 독점으로 합병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인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여러 상품(두 개의 유명한 상품을 들자면 면화와 밀)을 ‘매점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는 그 분야에서 경쟁을 없애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모으려고 했다. 그러한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파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입법적인 행동이 아니고 자유시장의 행동에 의해 패했다.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만일 어떤 크고 부유한 회사가 자기보다 작은 경쟁자들을 계속 돈으로 사거나 가격을 싸게 하여 손해를 보고 파는 수단으로 그들을 파산하도록 계속 밀어붙이면 주어진 분야에서 통제를 획득하고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경기침체가 없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이다. 만일 어떤 회사가 경쟁자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잃어버렸던 것을 재획득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그 분야

에 진입하여 기존회사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도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경쟁자들은 가격을 시장수준까지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큰 회사는 자신의 정책이 유인할 수 있는 경쟁자들을 퇴치하면서 독점가격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가격전쟁 price war’도 독점을 확립하거나 수요-공급법칙을 벗어나 시장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그러나 ‘가격전쟁’은 경쟁하는 회사들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자극으로 행동해왔고, 그것으로 인한 낮은 가격과 좋은 상품으로 대중에게 큰 혜택이 되어왔다).

이 문제에 관해 고려할 때 사람들은 흔히 자유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한다.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은 「반트러스트 Antitrust」라는 그의 글에서 다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¹⁾ 만일 정부 규제, 특히, 보조금 등에 의하여 어느 특정한 생산분야에 대한 진입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자유경제에서 경쟁의 궁극적인 조정자는 자본시장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흐르는 한 자본은 최고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으로 찾아다닐 것이다.” 투자가는 그들의 자본으로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사용처를 계속하여 찾는다. 따라서 어떤 생산분야가 높은 이윤이 발생하는 것같이 보이면(특히 수익성이 낮은 비용보다는 높은 가격 때문일 경우)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은 틀림없이 그 분야에 매혹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상품의 공급이 그 수요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떨어진다. 그린스펀은 “자본시장은 이윤의 조정자가 아니고 가격의 조정자로서 행동한다. 자본시장은 개별적인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의 비용을 낮추고 효율

1) 이 책의 제4장을 보라.

성을 증대시켜 가능한 한 그가 벌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생산성 증가와 그 결과 높아진 생활수준에 이르게 하는 큰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기구를 만들어낸다”라고 적고 있다.

자유시장은 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비효율성이나 침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산업사에서 잘 알려진 사건을 생각해보자. 헨리 포드Henry Ford사의 T-모델이 자동차시장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포드사가 스타일 변화에 주저하고 거부하려고 할 때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사는 매혹적인 스타일의 시보레Chevrolet를 가지고 “T-Model은 검
5 정색밖에 없습니다”라고 광고하면서 포드사의 중요한 시장들에 끼여 들었다. 그러자 경쟁을 하기 위해서 포드사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모든 산업의 역사에서 이러한 원리의 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본주의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인 비강제적 독점non-coercive monopoly을 고려할 경우 비강제적 독점의 가격 및 생산 정책은 시장에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법칙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고, 비강제적인 의미로서 독점을 사용할 때는 ‘독점’의 명칭을 유지할 가치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독점’을 비난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작은 읍에 생존하기 힘든 약방drugstore이 하나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주인은 ‘독점’을 향유하고 있다고 묘사될지도 모른다. 거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번째 약방에 대한 경제적 필요나 시장이 없다. 만일 읍이 커진다면 첫번째 약방이 다

른 약방의 개업을 방해할 방법도 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광업분야는 지구에서 추출하는 재료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어떤 회사가 어떤 원료의 모든 원천에 대한 통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특히 독점의 확립이 쉽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캐나다 인터내셔널 니켈International Nickel of Canada사는 전세계 니켈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지만 독점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보라. 그 회사는 실제로는 많은 경쟁자들이 없지만 마치 경쟁자들이 많은 것처럼 상품의 가격을 책정한다. 니켈은 (합금과 스테인리스 형태의) 알루미늄과 다양한 종류의 다른 재료들과 경쟁한다. 그러한 경우와 관계가 있으면서 좀처럼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원리는 어떠한 하나의 상품이나 재료도 가격과 관계없이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품은 단지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보다 선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존 루이스John L. Lewis가 경제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임금상승을 강요함으로써) 유연탄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것은 많은 산업에서 원유와 가스 사용으로의 대규모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자유시장은 자신의 보호자이다.

만일 어떤 회사가 정부가 제공한 특권이 아니라 순수한 생산적 효율성과 자신의 비용을 낮추어 다른 경쟁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비강제적인 독점을
6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주어진 분야의 모든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한 독점을 비난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독점을 달성한 회사는 최고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가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산적 효율성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어진 분야에서 경쟁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회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등

한 상품을 높은 가격에 사야 할 이유는 없다. 자본주의하에서는 경쟁자를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회사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은 능력에 대해 보상하고 부당한 것을 찾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 움직인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반대자들이 흔히 인용하는 틀에 박힌 문구는 큰 연쇄점 때문에 망하게 된 길모퉁이의 오래된 식료품 상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들 항의의 명확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식료품 상인의 이웃들은 연쇄점이 그들에게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더라도 식료품 상인에게서 계속 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식료품 상인을 불경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이웃들과 연쇄점의 주인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권리? 만일 그 식료품 상인이 연쇄점과 경쟁할 수 없으면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연쇄점에 고용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역동, 성장, 진보의 과정을 수반한다. 그 누구도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할 수 있을 경우 그자리에 대한 기득권^a vested right을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이 자유시장을 ‘잔인하다’고 비난할 때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사실은 시장이 정의justice라고 하는 유일한 도덕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 증오의 근원이다.

사람들이 정당하게 비난할 수 있고 ‘독점’이라는 명칭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독점의 종류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강제적 독점이다(비강제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생산물

의 독점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독점자’로 묘사된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러나 사회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것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독점문제에서도 자본주의는 그 파괴자들에 의해 죄를 범한 악한으로 흔히 비난을 받는다. 강제적 독점을 창출하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자유무역이 아니고 정부의 법률제정, 정부행동, 정부통제 등이다. 만일 사람들이 독점의 해악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림에서 실제 악한을 찾아내고 악의 실제원인인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을 밝혀내도록 하자. 그들에게 독점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경제의 분리, 즉 정부는 생산과 교역의 자유를 줄일 수 없다는 원리를 제도화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도록 하자.

-1992년 6월

불황

정기적인 불황은 자유방임 자본주의 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자본주의의 결과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통제주의의 결과인 해악 때문에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것이 자본주의 적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 해악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의한 결과이고, 정부간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들이다.

나는 자본주의가 강제적 독점의 확립을 가져온다는 비난과 같은 정책의 악명 높은 예를 논의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가장 악명 높은 예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정기적인 불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는 주장이다.

불황은(소위 경기순환의 현상이나 ‘호경기와 불경기boom and bust’의 현상은) 자유방임하에서는 선천적인 것이며 1929년의 대공황은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경제가 실패한 최종적인 증명이라고 국가통제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한다. 그 문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불황은 생산과 교역의 대규모 감소이다. 불황은 생산물, 투자, 고용, (공장, 기계 등) 자본자산 가치의 급격한 감소가 그 특징이다. 통상적인 경기변동이나 산업증가율의 일시적인 감소는 불황의 구성요소가 되지 못한다. 불황은 대부분 경기활동의 전국적인 위축이며 대부분 자본자산 가치의 일반적인 감소이다.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과잉생산’, ‘과소소비’, 독점, 노동절약형 고안물, 불균형 배분, 부의 과도한 축적 등에 의해 불황이 유발되었다는 통속적인 설명들이 많은 경우 오류로 밝혀졌다.²⁾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재조정과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하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역동, 성장, 진보과정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항상 어느 한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서 더 유익한 노력의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대한 필요나 수요가 항상 있으며, 그리고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생산에 가장 유리한 상품종류이다.

현존하는 다른 모든 수요하에서 어느 한 산업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산업에서 가격, 수익성, 투자, 고용

이 하락한다. 즉 자본과 노동이 더 가치가 있는 사용처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한 산업은 비경제적이고, 이윤이 나지 않고, 비생산적인 투자의 결과 경기침체의 시기를 겪는다.

금본위제에서 운영되는 시장경제에서는 그러한 비생산적인 투자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당하지 않은 투기는 그것이 전국을 휩쓸기 전까지는 저지되지 않은 채 상승하지 않는다. 자유경제에서는 기업이 모험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과 신용의 공급이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제활동의 보호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은행제도이다. 돈의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대규모의 정당화되지 않은 투자를 금지하도록 작용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은행대출로 그들의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은행들은 그들 고객의 저축을 가장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교환소investment clearing house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은행들은 대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금보유고에 의해서 그들이 확대할 수 있는 신용이 제한되어 있다. 성공하고 이익을 내어 투자자들의 저축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은 현명하게 대출해야 한다. 그들은 가장 건전하고 잠재적으로 이윤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업을 찾아야 한다.

투기가 증가하는 시기에 만일 은행들이 엄청난 수의 대출요구에 직면한다면 줄어드는 돈의 가용성에 맞추어 그들은 첫째, 이자율을 올리고, 둘째, 대출을 요구한 사업들을 더 엄격하게 조사하는 등 정당한 투자를 구성하는 보다 엄한 기준을 설정한다. 그 결과 자금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기업투자의 일시적인 삭감과 위축이 있게 된다. 사업가들은 종종 그들이 바라는 자금을 빌릴 수 없고 확장계획

2) 이와 관련해서는 Carl Snyder의 *Capitalism the Creator*,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0을 참조하라.

을 축소해야 한다. 회사의 미래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보통주의 구입도 유사하게 삭감된다. 과대평가된 주식은 가격이 하락한다. 비경제적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추가의 신용을 얻을 수 없으므로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생산요소의 낭비는 멈추게 되고, 경제적 오류는 종결된다.

최악의 경우 경제는 가벼운 침체, 즉 투자와 생산에 있어서 약간의 일반적인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규제가 없는 경제에서는 재조정이 아주 신속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생산과 투자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시적인 침체는 해로운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그것은 경제체제가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 즉 병을 줄여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침체의 영향은 몇 개 산업에서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전경제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전국적인 불황은 완전한 자유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 더 확실하게 말하면 통화공급의 정부조작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자유은행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정부지의 투기와 그로 인한 경제붕괴를 예방하는 조절기regulator가 정부정책으로 인해 마비된다.

경제에서 모든 정부간섭은 경제법칙을 작동할 필요가 없고, 인과 원칙principles of cause and effect은 중지될 수 있으며, 전능한 관료의 변덕을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것은 ‘유동적’이고 ‘순응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현실, 논리, 경제학이 끼여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1913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복잡하고 종종 간접적

인 수단을 통해 전국의 개별은행에 대해 통제하는 제도)를 설립하게 한 암묵적인 전제였다. 연방준비제도는 개별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계약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 법칙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관료들이 마음대로 신용의 양을 결정하는 권리를 폐지하겠다고 단언했다.

‘구매력이 하락한 돈cheap money’의 정책은 이러한 관료들이 따르고 있는 사상이었고 목표였다. 은행들은 더이상 그들의 금보유고만큼 대출하는 계약을 받지 않았다. 이자율은 더이상 증가하는 투기와 증가하는 자금수요에 따라 상승하지 않았다. 신용은 연방준비제도가 달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였다.³⁾

민간은행가의 손으로부터 돈과 신용을 통제하고, ‘이기적인’ 은행가들에 영향을 주는 것 이외의 것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신용을 축소하고 확대함으로써 다른 간섭주의자들의 정책과 함께 연결하여 투자를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번영의 상태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많은 관료들은 정부가 경제를 영원한 호황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앨런 그린스펀으로부터 매우 귀중한 은유를 빌어보자. 자유방임하에서 만일 은행제도와 자금의 가용성을 통제하는 원리가 경제의 파열을 방지하는 퓨즈와 같이 작용한다면 연방준비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퓨즈상자에 1센트를 넣는다. 그 결과는 1929년의 붕괴(Crash of 1929)로 알려진 폭발이었다.

1920년대 대부분의 기간을 정부는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또한 비경제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돈은 모든

3) Benjamin M. Anderson, *Economics and the Public Welfare*,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49를 참조하라. 이것은 1914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의 재무사 및 경제사에 관한 가장 좋은 책이다.

종류의 투기적 사업에 퍼부어졌다. 1928년에 위험에 대한 경고신호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당하지 않은 투자가 만연했고 주식은 더욱더 과대평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신호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하였다.

자유은행체제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러한 천정부지의 투기과정에 강제적으로 제동을 걸게 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신용과 투자는 과감하게 삭감될 것이다. 이익이 나지 않는 투자를 한 은행과 비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된 기업들, 그리고 그들과 거래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나라 전체는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은행체제의 ‘무정부상태’는 ‘개화된’ B 정부계획을 위해 포기되었다.

모든 중요한 불황에 앞서 오는 호황과 무모한 투기는 잘못된 투자와 계산착오의 광범위한 연결망 속에서 국가의 전체 경제구조를 관련지으면서 저지되지 않고 상승했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 투자했고 밤새 장부상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윤은 회사의 미래 수익에 대한 병적으로 과장된 평가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신용은 어떻게 하든지 신용을 지지해주는 상품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닥치는 대로 무차별하게 확장되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부도수표를 건네주면서 다른 사람이 그 수표를 제시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필요한 돈을 구해서 은행에 예금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정책과 같다.

그러나 A는 A이고 현실은 무한히 탄력적이지 않다. 1929년에 나라의 경제 및 재무구조는 극도로 불안했다. 정부가 최후수단으로 미친 듯이 이자율을 인상시켰을 때는 너무 늦었다. 어떤 사건이 먼저 공황을 유발했는지를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붕괴는 피할 수 없었다. 몇몇 사건들이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 은행과 상업의 실패라는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공포의 파도로 전국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은 채 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회수되고 있는 은행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갑자기 필요해진 돈을 얻기 바라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쳤고, 가격은 폭락하여 증권은 가치가 없게 되었고, 대출은 회수되었으나 많은 경우 상환할 수 없었으며, 자본자산의 가치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하락했으며, 재산은 일소되었고 1932년의 기업활동은 거의 중단되었다. 인과율은 스스로 복수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이 1929년 대공황의 본질이고 원인이었다.

이것은 ‘계획’경제의 비참한 결과들의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들 중의 하나이다. 자유경제에서는 개별적인 사업가가 경제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할 경우 그는(그리고 아마 그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된다. 통제경제에서 중앙계획가가 경제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할 경우 국가 전체가 그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것은 연방준비제도 B도 정부간섭도 아니었고 자본주의였다. 모든 유형과 종류의 국가통제주의자들이 소리쳤던 자유는 기회를 가졌었지만 실패했다. 악의 실제원인을 지적했던 소수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사업가, 이윤동기 및 자본주의에 대한 탄핵으로 물에 잠기게 되었다.

사람들이 붕괴의 원인을 이해하기를 선택했다면 국가는 뒤이은 고통의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황은 불황을 야기시켰던 바로 그 원인인 정부통제와 규제에 의해 비참하게도 필요없는

몇 년이 더 연장되었다.

대중적인 오해와는 반대로 통제와 규제는 뉴딜New Deal보다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1920년대 혼합경제는 이미 미국생활의 기정사실이였다. 그러나 국가통제주의로의 선회경향은 후버Hoover 행정부하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루스벨트의 뉴딜의 도래와 함께 그 경향은 전례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불황을 종결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조정은 질식시키는 통제, 세금증대, 노동입법조치 등으로 발생하지 못했다. 노동입법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는 영향을 주어 투자와 생산이 회복되기 위해서 비용이 떨어져야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사업가들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와그너법Wagner Act, 국가산업회복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금본위제도의 포기는 (그로 인한 정부의 인플레이션 돌입과 적자지출의 방탕함과 함께) 나라를 불황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공언된 목적을 가진 뉴딜에 의해 법제화된 많은 비참한 법령들 중 세 개이다. 세 개 모두 정반대의 영향을 주었다.

앨런 그린스펀이 「주가와 자본평가Stock Prices and Capital Evaluation」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회복에 대한 장애물은 뉴딜이라는 특정한 법률제정이 통과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더욱 해가 되었던 것은 행정부에 의해 야기된 불확실성이라는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어떠한 법과 규제가 어느 순간에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정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이동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4) 1959년 12월 27일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과 American Finance Association의 연합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행동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업가들은 ‘믿음’과 ‘희망’, 특히 관료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믿음’과 ‘희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 즉 합리적 계산의 가능성을 요구한다.

정부가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된 결과 뉴딜하에서 사업이 달성할 수 있었던 진보는 1937년에 붕괴되었다. 실업자가 1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기업활동은 불황기간 중 가장 최악의 해였던 1932년에 이르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루스벨트가 “불황에서 우리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뉴딜신화의 일부분이다. 불황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국가통제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방편인 전쟁을 통해서였다.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촉진된 불황은 비록 그것이 이전의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했지만 미국역사상 최초의 것은 아니었다. 이전의 불황들을 연구해보면 동일한 원인들과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될 것이다. 형태가 약간 다르고 수단이 약간 다르더라도 그것은 통화공급에 대한 정부의 조작이다. 초기 불황들에 대해 제안된 대책으로서 연방준비제도가 제도화된 것은 간섭주의가 증대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초기의 불황들은 그 자체가 정부에 의한 통화조절의 산물이었다.

경제의 재무구조는 민감한 중추이며, 살아 있는 심장이며, 기업활동이다.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정부간섭도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경기순환과 통화공급에 대한 정부조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는 루드비히 폰 미세스Ludwig von Mises의 『인간행동Human Action』을 참조하라.⁵⁾

5)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49.

가장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경기순환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더욱 자세한 논의로는 현 행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라.

-1962년 8월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은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이는가?

우리시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망상 중의 하나는 미국노동자의 높은 생활수준은 노동조합과 ‘인도주의적인’ 노동입법 때문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노동계 지도자, 입법가, 국가통제주의 신념을 가진 지성인들이 체계적으로 피해가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들 및 원리들과는 모순된다.

노동자의 임금을 포함한 한 국가의 생활수준은 노동생산성에 의존한다. 높은 생산성은 기계, 발명, 자본투자에 의존하고,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창조적인 재능에 의존하며, 이 재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경제적 체제가 필요하다.

육체노동과 같은 것의 생산적 가치는 낮다. 만일 오늘날의 노동자가 50년 전의 노동자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노동자가 더 많은 육체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에게 요구된 육체적 노력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한 노력의 생산적 가치는 그가 일할 때 사용한 도구와 기계로 인해 몇 배로 증대되어 왔다. 그것들은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해보자. 사막에서 반인치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어떤 사람의 경제적 보수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뉴욕시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단추를 누르는 사람에게 지불되는 임금을 생각해보라.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다.

루트비히 폰 미세스는 다음을 간파했다.

미국에서의 임금은 다른 국가들의 임금보다 높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 1인당 투자된 자본이 많고 그로 인해 공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도구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미국식 삶의 방식이란 저축과 자본축적을 함에 있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장애물이 적었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인도와 같은 나라들의 경제적 후진성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정책이 자본축적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방해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게 되자 인도의 기업들은 충분한 양의 최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1인 시간당 적은 양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으며, 미국의 임금과 비교하여 놀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밖에 없었다.⁶⁾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고용주가 다른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 경쟁적으로 값을 매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값을 매겨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그의 노동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의 노동자를 잃게 될 것이고, 그의 정책을 바꾸든

6) Ludwig von Mises, *Planning for Freedom*, 2nd edition, South Holland, Illinois: Libertarian Press, 1962, pp.151 ~ 52.

지 아니면 도산할 것이다.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고용주가 시장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높은 비용으로 인해 그의 상품판매에서 비교열위에 놓이게 되고, 다시 그의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도산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잔인하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다. 임금은 고용주의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은 자유경제에서의 모든 가격과 같이 인적 노동에 지불되는 가격이며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이는 증대되는 자본축적, 기술진보, 산업확장 등의 필연적인 경제적 결과였다. 자본주의가 무수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에 따라 자본주의는 노동에 대한 유례없이 광범위한 시장을 창출했다. 자본주의는 가용한 일자리의 수와 종류를 증가시켰고 노동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경쟁을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임금은 상승했다.

고용주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킨 것은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사리사욕 때문이었다. 하루 8시간 근무는 노동조합의 규모가 커지거나 경제적 힘을 얻기 훨씬전에 대부분의 미국산업에서 확립되었다. 경쟁자들이 하루 2달러 내지 3달러를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당시에 헨리 포드는 하루 5달러를 제시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을 끌어들이 생산과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1920년대에 미국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노동운동이 우세를 보일 때 미국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훨씬 우⁸위에 있었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의 결과이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을 하는 한, 즉 그 누구도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 한 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

다. 조합은 특히 작고 고립된 사회에서는 우애조직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조합원들에게 현재 시장상태를 알려주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고용주와 더 효율적인 협상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개별고용주가 전반적인 시장상태에 비해 너무나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파업이나 파업의 위협이 그의 정책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제시하는 임금으로 적절한 노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⁸ 것을 그가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이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온다는 믿음은 꾸며낸 이야기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더이상 자유롭지 않다. 조합이 경제의 많은 분야에 걸쳐 유일한 준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동조합과 강제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법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산업에서 임금은 더이상 자유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조합이 정상적인 시장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이 흔히 조합의 공적으로 돌려지고 있는 ‘사회적 이득’이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정책의 결과는 첫째, 생산축소, 둘째, 광범위한 실업, 셋째,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리함 등이었다.

첫째,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상승으로 생산축소가 필요할 정도로 생산비용이 증가했고, 새로운 사업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성장은 지체되었다. 시장에서 가까스로 경쟁을 할 수 있었던 한계생산자들은 증대된 비용으로 그 사업에 잔류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총체적인 결과는 이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둘째, 임금이 높아지면 고용주들은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 생산이 축소되면 고용주는 적은 수의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 그룹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다른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사리에 맞지 않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최저 임금법과 함께 이것은 광범위한 실업의 원인이다. 실업은 자유 시장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려는 것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고용주나 노동자가 강압에 예속될 수 없는 자유경제에서 임금은 고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용되는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얼어붙은 통제된 경제에서는 이 과정이 봉쇄되어 있다. ‘친노동자^{pro-labor}’ 입법과 조합이 향유하고 있는 독점력의 결과 실업자들은 통상적인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가 없다. 고용주들도 자유롭게 그들을 고용할 수 없다. 파업이 일어날 경우 만일 실업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겠다고 제시함으로써 조합의 파업으로 공백이 된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하면 그들은 종종 위협을 받게 되고, 조합원들의 손에 물리적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정부관리들이 실업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셋째, 시장상태가 노동비용이 상승한 생산자가 그들이 파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생산축소가 따른다. 그리고 일반대중은 그에 따라 잠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손실로 고통을 당한다(생산자가 장래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 ‘이윤을 줄임으로써’ 그러한 임금인상을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은 경제적으로 순진한 것보다 더 나쁘다. 장래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윤이다. 투자가 아니고 생산자의 개인 소비지출에 쓰이는 이윤의 양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

다). 시장상태가 허용하는 정도까지는 노동비용이 증가한 생산자는 그들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비가 오른 것을 발견한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은 그들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제 그들의 산업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이것은 새로운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또 새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조합의 지도자들은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전형적으로 분노를 표시한다. 그들이 인상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간주하는 유일한 가격은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 즉 임금뿐이다). 이로 인해 비조합원인 노동자들과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 생활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직면한다. 그들은 조합원 노동자들의 정당화할 수 없는 높은 임금을 보조하게 되었지만 조합의 ‘사회적 이득’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그리고 벽돌공들이 사무노동자들이나 교수들보다도 두 배나 세 배의 봉급을 받는 기이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주의^{unionism}가 아니라 정부통제와 규제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유롭게 규제가 없는 경제, 강압이 봉쇄된 시장에서는 다른 대중들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그 어떠한 경제그룹도 없다. 해결책은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악을 가능하게 했던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임금을 인상함에 있어, 즉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을 올리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무능은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감추어졌다. 적자지출과 신용증대라는 정부정책의 결과, 통화단위, 즉 달러의 구매력은 매년 급격히 감소해왔다. 명목 임금은 실질구매력으로 측정된 실질임금보다 현저하게 증가해왔다.

이 문제를 더욱 감추게 한 것은 실질임금이 20세기 시작부터 현

저하게 증가해왔다는 사실이다. 생산과 무역의 자유에 대해 날로 증대되는 정부의 속박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 자본축적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고, 이러한 진전은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여왔다. 이러한 진전은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전보다는 덜했으며, 정부통제가 강화될수록 그러한 진전은 늦어지게 되며 드물게 된다는 것을 덧붙여야 한다.

노동계 지도자들이 분노한 어조로 ‘국민생산’에서 ‘더 큰 비중’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들을 때 사업가들이 어떠한 장애물과 싸워야 했으며 생산을 계속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존 갈트John Galt의 말로 바꿔서 설명해보자. 누구에 의해 제공된 더 큰 비중? 확실하지 않다.

다른 모든 형태의 진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진보도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원천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 경제적 진보는 존재할 수 있다.

높은 생활수준이 노동조합과 정부통제로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보라. 만일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국 노동자연합의 지도자들과 3백만 정부관료들을 10세기로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이 중세노예들에게 전구, 냉장고, 자동차, TV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7) 이 문제에 관한 훌륭한 참고 자료는 Ludwig von Mises, *Planning for Freedom*을 참조하되, 특히 “Wages, Unemployment and Inflation”이라는 제목의 장을 참고하라. 그리고 Henry Hazlitt, *Economics in One Lesson*(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6)을 참조하되, 특히 “Minimum Wage Laws”와 “Do Unions Really Raise Wages?”라는 제목의 장을 참조하라.

추신 : 본고를 탈고한 후 9월 8일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기사를 발견했는데, 참 적절한 기사여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다. 데이먼 스텡슨Damon Stetson이 쓴 「노동자들의 충성심 부족을 발견한 10명의 노동지도자들10 U. A. W. Leaders Find Unions Are Losing Members’ Loyalty」이라는 기사는 자동차 노동자연합United Automobile Workers의 이사회가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연대에 대해 날로 증대되는 노동자들의 충성심 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보고했다. U. A. W.의 한 임원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인용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개별회원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더 큰 충성심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싸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고용주가 주기 싫어하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다른 것들이며 이러한 것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8)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른 어떤 논평이 필요한가?

-1963년 11월

공교육

교육이 오늘날과 같이

의무적이어서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하는가?

만일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해진다. 정부가 부모의 동의가 있는 없는 어린

이들을 강제로 집에서 데려와 부모들이 인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교육훈련 과정하에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시민들은 그들이 인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교육제도를 지원하고 그들의 자식도 아닌 어린이들의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징수당해야 하나? 개인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관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답변은 확실하게 아니오이다.

교육은 국가의 특권이라는 주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무노동의 혜택을 위해 어떤 사람들의 재산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한 그 어떠한 도덕적 근거도 없다. 교육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의는 나치나 정부에 대한 공산주의 이론과 일치한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터무니없게도 ‘무상교육’으로 묘사되는) 국가교육State education에 대한 전체주의의 시사점들은 나치독일이나 소련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묵인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왔다. 그러나 사립학교들은 권리에 의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허가에 의해 존재한다.

더구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효율적인 면에서 그들의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공립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데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학교들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의 기준들은 국가에 의해 규정된다. 셋째, 미국의 교육에 있어서 정부가 교육의 모든 면에 대한 폭넓은 통제를 행사하는 추세가 증대되고 있다.

이 마지막 사실의 예를 들어보자. 학생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 그림문자 방법pictographic method에 반대하는 많은 부모들이 음성 방법phonetic method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안이 만들어졌다. 어린이들의 정신이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것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국가가 교육의 재정적 통제를 한다고 가정할 때 국가가 교육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합한데, 이는 국가가 자금이 ‘만족스럽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상의 영역에 개입하고 지적 내용들에 관한 문제를 규정할 때는 자유사회는 끝장이다.

이사벨 패터슨Isabel Paterson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초자연력The God of the Machine』에서 인용해보자.

교과서는 주제, 언어, 견해 등에서 반드시 선택적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마다 교과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 부모들은 개설되는 교과과정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판단한다. 그리고는 개개인들은 객관적인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지상주의supremacy of the state’를 강제적인 철학으로 가르쳐 신봉하도록 하는 학교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모든 교육제도는 왕의 신권으로서든,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의지’로서든 국가지상주의를 조만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일단 그러한 국가지상주의가 받아들여지면 시민들의 삶에서 자유를 억누르는 정치권력을 부수는 것은 거의 초인적인 일이 된다. 국가지상주의는 태동 초기부터 그 수중에 몸체, 특성, 정신을 가지고 있다.⁸⁾

8) Caldwell, *Idaho: The Caxton Printers*, 1964, pp.271~72. 이 책은 원래는 G. P. Putnam's Sons, New York, 1943에 의해 출판되었다.

오늘날 치욕적으로 낮은 미국의 교육수준은 국가통제 교육제도의 예견된 결과이다. 학력schooling은 현저하게 신분상징과 관례ritual가 되어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들어감에 따라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된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거대한 관료주의와 거대한 시민봉사와 같아서 선생의 수업능력을 제외한 선생의 자격들에(그의 논문수와 같은) 관한 모든 것을 고려하는 정책과 학생의 지적 능력을 제외한 학생의 자격들에(그의 '사회적응력'과 같은) 관한 모든 것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해결책은 교육분야에 시장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에서도 경제적 필요가 아주 긴급하게 요구된다. 교육기관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고, 그들이 수여하는 학위에 부여되는 가치에서 경쟁해야 할 때 교육기준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이 가장 좋은 선생, 즉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선생들의 교육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할 때 교육의 가치와 선생들의 봉급은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오늘날 가장 재능 있는 선생들이 흔히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 더 나은 보수가 주어지는 사기업으로 전직한다). 미국산업에 있어 최상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했던 경제원리들이 교육분야에서도 작용하도록 허용될 때 그 결과는 전례없는 교육발전과 성장의 방향으로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사기업에게 넘겨져야 하는데, 이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일종의 '자연권natural right', 즉 자연으로부터의 무상의 선물이라는 현재의 지배적인 믿음은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무상의

선물은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러한 '무상의 선물'에 대한 대가로 자유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연막을 피우기 위해 이러한 망상을 불러일으킨 국가통제주의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교육이 아주 오랜 기간 세금으로 지원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을 사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 많은 다른 인간의 필요들과 구별할 만한 독특한 것이 교육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정부가(신발이 긴요한 필수재라는 이유로) 신발을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제공해왔고 만일 그 후 누군가가 이 분야가 사기업에 양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뭐라고! 부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다니기를 원하느냐?"라는 분개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신발산업은 공교육이 하고 있는 것보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사벨 패터슨의 글을 다시 인용해보자.

그들이 독재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가장 보복적인 분개는 교육계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것은 통칭 '반동주의자reactionary'와 같은 가장 온순한 형태로 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런데도 선생들에게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 누구도 기꺼이 당신에게 그의 자녀를 맡기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당신에게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보았는가? 왜 당신은 강제적으로 학비를 강탈하고 학생들을 모아야 하는가?)

-1963년 6월

9) 앞의 책, p.274.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경쟁적인 경제에서
어느 개인들에게 불공정한 우위를 주는가?

상속재산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권리는 상속인의 권리가 아니고 재산의 원래 형성자의 권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재산권이란 사용권과 처분권이다.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재산을 사용하고 그의 생애에 걸쳐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의 사후에 누가 재산의 수령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도 있다. 그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하에서는 어느 특정 상속인의 인물됨과 그렇지 못함을 고려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상속인의 권리는 문제가 되는 기본권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비난할 때 그들이 사실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형성자의 권리이다.

상속인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공헌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것은 사실이다. 상속인의 권리는 파생된 권리이다. 유일한 기본적인 권리는 형성자의 권리이다. 만일 미래의 상속인이 형성자의 선택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도덕적 청구권이 없다면 그 누구도 청구권이 없고 물론 정부나 ‘대중’도 청구권이 없다.

자유경제에서 상속재산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장애물도 위협도 아니다. 재산은 분배되거나 약탈될 수 있는 정적이고 제한된

양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재산은 창출된 것이다.
3) 재산의 잠재적 양은 사실상 무한정이다.

만일 어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기에 적합하다면, 즉 그가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창출하고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는 재능을 가진 신참자가 정상에 오르는 길을 쉽게 만든다. 산업발전에 투입된 재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 보수는(임금과 이윤은) 더 높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과 서비스 등 수완가들에 대한 시장은 확대된다.

현존하는 재산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모든 사람들의 고투가 길어지고 힘들어진다. 산업경제의 초기에는 임금이 낮다. 그때는 유별난 능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시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세대가 계속되고 자본축적이 증대됨에 따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수요가 증가한다. 기존의 산업조직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 조직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해 최고의 임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미래의 경쟁자들을 훈련시킨다. 그 결과 재능 있는 신참자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사업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계속해서 짧아진다.

만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자신밖에 없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경제는 발전, 혁신, 진보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침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이 성공한 아버지로부터 재산과 많은 산업설비를 얻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그는 경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관료들과 입법가들이 경제적 혜택을 팔거나 부여할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유경제에서 상속인은 모든 재산으로도 그의 무능함을 보호할 수 없다. 그는 그의 일에서 능

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작고 효율적인 회사와 경쟁하는 크고 관리가 엉성한 회사만큼 공격받기 쉬운 것도 없다.

능력 없는 상속인이 그의 아버지의 돈으로 즐기는 개인적인 사치나 술파티는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사업에 있어서 그는 재능 있는 경쟁자와 함께 할 수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뿐이다. 그는 그 어디에서도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ecurity를 찾을 수 없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재산은 3대까지 가지 않는다From shirtsleeves to shirtsleeves in three generations”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유명한 문구가 있었다. 만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의 사업을 능력 없는 상속인에게 남긴다면 그의 손자는 다시 노동자가 된다(그는 국가의 통치자가 되지 못한다).

사회를 일정한 수준의 발전에 묶어두고, 국민들을 계급제도에 묶어두어 사람들이 성공하고 망하는 것, 또는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부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의 반(半)사회주의나 반(半)파시스트와 같은 혼합경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 이전에 부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중세의 상속인처럼 경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큰 산업재산과 2대, 3대에 걸친 백만장자들의 상속인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욱 통제를 부르짖는 복지국가 통제주의자들인가 중요하다. 이러한 통제의 목표와 희생자는 자유경제에서는 그들 상속인을 대체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상속인들이 경쟁할 수 없는 자들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인간행동Human Action』에서 다음과 같이 적

고 있다.

오늘날 신참자의 ‘과도한’ 이윤의 많은 부분이 종종 세금으로 흡수된다. 그는 자본을 축적할 수 없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그는 결코 대사업가가 될 수 없고 거대한 이익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기존의 회사들은 그와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는 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들은 무사히 일상적인 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소득세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소득세는 위험한 신참자가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세제로 인해 특권을 받고 있다. 이 점에서 누진세는 경제적 진보를 방해하고 경직되게 만든다…….

정부간섭주의자들은 대기업이 보다 강해지고 있고 관료적이어서 능력 있는 신참자가 기존의 부유한 집단의 거대한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이 정당화되는 한 그들은 자신들 정책의 단순한 결과들에 대해서 불평한다.¹⁰⁾

-1963년 6월

자본주의의 실용성

사회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덜 실용적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10) Ludwig von Mises, *Human Action*, pp.804~5.

하지 못한 국가통제주의자들의 정서의 일부분을 조잡하게 합리화한 것이다.

-1963년 11월

이 주장은 ‘자유주의자들’이 그것을 입증해보지도 않고 관례적으로 되풀이하는 집단주의자들의 틀에 박힌 문구의 일종이다. 그 주장을 조사하는 것은 그것의 불합리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고도의 산업발전, 즉 고도의 ‘복잡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유라는 조건은 고도의 산업발전을 지키는 데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지리적 영역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들이 더 많은 양의 거래를 하며, 더 많고 다양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정부의 ‘계획’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은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더욱더 눈에 띄게 비실용적이 된다. 만일 어느 정도의 비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원시의 산업 이전 경제preindustrial economy를 큰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 그러나 노예노동자로 과학적인 고도산업사회를 움직인다는 개념은 무지하고도 야만적이다.

이러한 교의doctrine를 신봉하는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세계의 저개발국가에는 경제적 자유가 적합하지 않고, 그들 국가의 원시적인 개발수준에는 사회주의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극도의 저개발국가에도 자유는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적으로 극도의 개발국가에도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동시에 주장한다.

두 입장 모두 무엇이 산업근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전혀 이해

6

금과 경제적 자유*

앨런 그린스펀

9

금본위제에 대한 거의 병적인 반대가 국가통제주의자들을 종파로

* *The Objectivist*, July 1966.

결속하는 하나의 문제이다. 그들은 많은 일관성 있는 자유방임의 옹호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금과 경제적 자유는 분리할 수 없으며 금본위제는 자유방임의 수단이고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를 의미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들의 반대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사회에서 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화폐는 모든 경제거래의 공통분모이다.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불수단으로써 교환경제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가치저장, 즉 저축의 수단으로써 시장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품의 존재가 분업경제의 전제조건이다. 만일 사람들이 화폐로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상품이 없다면 그들은 원시적인 교환경제에 의지하거나 전문화가 주는 측정할 수 없는 이득을 포기한 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장으로만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가치를 저장하는, 즉 저축하는 수단이 없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교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교환의 매개수단이 경제내 모든 참여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임의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교환의 매개수단은 내구적이어야 한다. 재산이 빈약한 원시사회에서는 밀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내구성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교환들이 추수기간중이나 추수 직후에 이루어졌고 저장할 만한 잉여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부유해지고 사회가 문명화됨에 따라 가치저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된 지역에서는 교환의 매개수단은 내구성 있는 상품이어야 하는데, 보

통 그것은 금속이다. 금속이 일반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것은 동질적이며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단위는 동일하고 일정량을 혼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석은 동질적이지도 않고 분할할 수도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선택된 상품은 사치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치품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무제한적이어서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고, 또한 항상 받아들여진다. 밀은 영양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사치품이지만 부유한 사회에서는 사치품이 아니다. 담배는 보통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화폐로 사용되었다.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희소성과 높은 단위가치를 의미한다. 높은 단위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휴대가 간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온스의 금은 반톤의 주철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화폐경제가 발전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많은 교환의 매개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품들 중 하나가 더욱 광범위하게 통용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점차적으로 대체할 것이다.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써 보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상품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그 상품은 더 널리 통용되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그 상품이 교환의 매개수단이 될 때까지 진행된다.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유리한데 그 이유는 화폐경제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규모로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물교환경제보다 우수하다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유일한 교환의 매개수단이 금, 은, 조개껍질, 소, 담배 중 어떤 것

이나 하는 것은 선택이며 주어진 경제개발의 정도에 달려 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여러 기간에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20세기에 두 개의 중요한 상품인 금과 은이 9 국제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금이 은을 압도하게 되었다. 금은 예술적인 멋을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희소하여 항상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왔다. 금은 내구성이 있고, 이동이 용이하며, 동질적이고, 분할이 가능하여 다른 모든 교환의 매개수단에 대해 중요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금은 사실상 유일한 국제적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어왔다.

만일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면 대규모의 지불은 어렵게 되며 이것은 사회의 분업과 전문화의 정도를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교환의 매개수단을 창조하지는 논의는 은행제도의 개발과 금을 대체하면서 금으로 교환이 되는 신용수단의(은행권과 예금) 개발을 가져왔다.

금에 근거한 자유은행제도는 경제의 생산 요구에 따라 신용을 확대할 수 있고 은행권과 (통화) 예금을 창조할 수 있다. 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이자지불 때문에 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그러나 모든 예치자들이 그들의 금을 동시에 인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은행가는 금 예치 총액의 일부분만을 지불준비로 보유하면 된다. 이것이 은행가로 하여금 예치된 금의 총액 이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한다(이것은 그가 금을 예금에 대한 안전수단으로 보유하기보다는 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대출의 양이 임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지불준비와 투자상태를 고려하여 대출의 양을 판단해야 한다.

은행이 생산적이고 이윤이 나는 분야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대출할 경우 대출은 빠르게 회수되며 은행신용은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신용으로 자금을 융통한 기업이 이윤이 적게 나고 대출금의 지불이 늦어질 경우 은행가는 회수가 안된 대출금이 그들의 금 지불준비를 초과한 것을 곧 알게 되어 보통 높은 이자율을 책정함으로써 새로운 대출을 삭감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새로운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기존의 차입자들이 앞으로의 사업확대를 위한 신용을 얻기 전에 수익성을 향상시키게 한다. 따라서 금본위제하에서는 자유은행제도는 경제안정과 균형성장의 수호자로서의 입장에 있다.

금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통용될 때 자유로운 국제 금본위제는 전세계적인 분업과 광범위한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교환의 단위가 (달러, 파운드, 프랑 등) 국가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금에 연계되어 정의되면 무9 역과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서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하나인 것처럼 활동한다. 신용, 이자율, 가격 등이 모든 국가에 걸쳐 유사한 형태에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국가의 은행이 신용을 자유롭게 확대하면 그 국가의 이자율은 떨어져 그 국가의 금 예치자들은 높은 이자를 주는 다른 국가의 은행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즉시 ‘이자가 싼 자금 easy money’을 가진 국가의 은행지불준비에 부족을 가져와 신용기준을 강화하게 되고 다시 높은 이자율로 돌아온다.

완전히 자유로운 은행제도와 완전히 일관성 있는 금본위제는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은행제도는 금에 근거했고 정부가 가끔 간섭했으나 은

행업은 통제보다는 자유가 더 많았다. 지나치게 급속한 신용확대의 결과 정기적으로 은행은 그들의 금 지불준비 한도까지 대출하게 되었고 이자율은 빠르게 오르고 새로운 신용은 축소되었으며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에 빠졌으나 그 기간은 짧았다(1920년과 1932년의 경기침체를 비교해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기후퇴는 사실상 약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은 유형의 재해로 발전되지 않도록 기업활동의 불균형 확장을 중단시켰던 것은 제한된 금 지불준비였다. 재조정의 기간은 짧았고 경제는 빠르게 건전한 기초를 재확립하여 경기확장을 회복했다.

그러나 회복의 과정이 병으로 오진되었다. 만일 은행지불준비의 부족이 경기후퇴를 가져왔다면 은행들에게 지불준비를 증대시켜 지불준비가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왜 찾지 않았는가라고 경제간섭주의자들이 주장했다. 만일 은행들이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면 결코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1913년에 조직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 명목적으로 민간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고 통제하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은행들에 의해 확대된 신용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연방정부의 조세권에 의해 뒷받침된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금본위제를 유지했다. 개인들은 아직도 금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고 금은 계속적으로 은행의 지불준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에 의한 신용확대(‘지폐’지불준비paper reserves)도 예금자들에게 지불하는 법화legal tend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27년 미국이 약간의 경기후퇴를 겪고 있을 때 연방준비은행은 가능한 은행지불준비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지폐지불준비를 창출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시장은 이자율 상승을 요구하는데 (정치적으로 싫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자율 상승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국의 금이 미국으로 이동하자 연방준비은행은 영국을 도와주려고 시도했다. 여기에 개입한 당국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만일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은행들에게 과도한 지폐지불준비를 쏟아부으면 미국의 이자율은 영국의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국의 금유출을 정지시키고 이자율을 인상시켜야 하는 정치적 당혹감도 피할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성공했다. 그로 인해 영국의 금유출은 막았으나 그 과정에서 세계경제를 거의 파괴시켰다. 연방준비은행이 경제에 퍼부었던 과도한 신용은 주식시장으로 넘쳐 들어가 엄청난 투기붐을 유발시켰다. 뒤늦게 연방준비은행 관리들은 과도한 신용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끝내 투기붐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다. 1929년 투기적 불균형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러한 시도는 초긴축을 가져오고 기업에 대한 신뢰감의 추락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붕괴되었다. 영국은 더 나쁘게 되어갔다. 이전에 그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모든 결과들을 흡수하기보다는 1931년에 금본위제를 완전히 포기했는데, 이로 인해 신뢰감은 천조각이 찢어지듯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전세계적으로 은행도산이 잇달았다. 세계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빠지고 말았다. 한 세대 전의 논리를 회상하면서 국가통제주의자들은 금본위제가 대공황을 가져온 신용붕괴credit debacle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만일 금본위제가 없었다면 1931년 영국의 금에 대한 지불준지

는 전세계적인 은행도산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913년 이후 우리는 금본위제가 아니고 ‘혼합 금본위제’라고 불릴 수 있는 제도를 택해 왔는데 금이 비난을 받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 많은 복지국가 지지자들은 금본위제는 (복지국가의 특징인) 만성적인 적자지출과 양립될 수 없다는 교묘한 통찰을 앞세워 금본위제에 반대했다. 학술적인 이야기는 빼고 복지국가는 정부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들의 재산을 압수하여 다양한 복지 계획을 지원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압수는 대개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복지국가통제주의자들은 그들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양이 제한되어야 하므로 거대한 적자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즉 그들은 대규모의 복지지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차입해야 했다.

금본위제하에서는 모든 신용수단은 궁극적으로 어떤 유형자산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경제가 지지할 수 있는 신용의 양은 그 경제의 유형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채권은 유형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미래의 조세수입을 상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며, 금융시장에서 쉽게 흡수되지 못한다. 대규모의 새로운 정부채권은 누진적으로 높은 이자율에 의해서만 대중들에게 매각될 수 있다. 따라서 금본위제하에서 정부의 적자지출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금본위제의 포기로 복지국가통제주의자들이 무제한적인 신용확장의 수단으로써 은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급지불준비를 정부채의 형태로 창출했는데, 이 정부채가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 은행은 마치 그것이 실제예금인 것처럼, 즉 이

전의 금의 예치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유형자산 대신에 받아들인다. 정부채의 소유자나 지급지불준비에 의해 창출된 은행예금의 소유자는 그가 실제자산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발행된 청구권이 실제자산보다 많다.

수요-공급법칙은 속일 수 없다. 화폐공급이(청구권의 공급이) 경제내 유형자산의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결국 올라간다. 따라서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들이 저축한 소득은 재화에 비해 가치를 잃는다. 경제장부가 최종적으로 균형이 될 때 이 손실은 정부가 복지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은행신용 확장에 의해서 자금유통이 된 정부채의 화폐수익으로 구입한 재화와 그 가치가 동일함을 알게 된다.

금본위제가 없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통한 몰수로부터 저축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안전한 가치저장의 수단이 없다. 만일 있었다면 금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그것의 보유를 불법이라고 단정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은행예금을 은이나 동, 또는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여 재화에 대해 지불하는 수표의 수취를 거부한다면 은행예금은 구매력을 잃고 정부에 의해 창출된 은행신용은 상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금융정책으로 재산의 소유자는 자신들을 보호할 방법을 잃게 된다.

이것이 금본위제에 반대하는 복지국가통제주의자들의 긴 연설의 비열한 비밀이다. 적자지출은 ‘은밀한’ 재산몰수를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 금이 이 교활한 과정과 맞서고 있다. 금이 재산권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한다. 만일 이것을 이해하면 금본위제에 대한 국가통제주의자들의 반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7

미국의 자유기업사에 대한 주해*

아인 랜드

만일 국가통제주의자들에 의해 자유기업을 고발하고 정부통제 경제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사용되어 온 미국산업사에서 모든 예들에 대해 자세하고도 사실에 입각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가들의 잘못으로 돌려지는 행동들이 사업에 대한 정부간섭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흔히들 대기업가의 잘못으로 돌려졌던 해악들은 규제가 없는 산업의 결과가 아니고 산업에 대한 정부 권력의 결과이다. 악한은 사업가가 아니고 입법가이며 자유기업이 아니고 정부통제이다.

사업가들도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비난을 받아왔으며 (아직도 받고 있으며), 반면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확장하는 주장과 더 큰 규모로 동일한 죄를 범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주장으로 이용해왔다. 여론은 진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국가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을 병들게 했던 것보다 더한 독약을 요구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써 미국의 한 산업인 철도산업의 역사에 대해 내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예를 지금부터 열거할 것이다.

정부통제를 옹호하는 국가통제주의자들의 주장 중의 하나는 철도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주로 건설되었고, 정부가 없었다면 철도 건설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철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을 철도회사에 지원했는데, 이 지원의 결

* Nathaniel Branden Institute, New York에 의해 1959년 출판되었음.

과 철도회사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 스투어트 홀브루크Stewart H. Holbrook의 저서인 『미국철도 이야기The Story of American Railroads』에서 인용해보자.

20년이 약간 넘는 기간에 세 개의 대륙횡단 철도가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었다. 세 개 모두 도산했다. 따라서 제임스 제롬 힐James Jerome Hill이 정부의 현금지원cash grant이나 토지공여land grant 없이 미국의 5대 호Great Lake에서 퓨젯 사운드Puget Sound까지 철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친한 친구조차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그레이트 노던Great Northern은 연방정부로부터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고 퓨젯 사운드에 도착했고 도산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화제가 된 이리온하Eric Canal 건설에 창피를 주는 성과였다.¹⁾

어느 한 철도회사가 받은 정부지원의 정도는 그 회사의 어려움과 실패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스캔들, 이중계약, 도산 등 가장 최악의 역사를 가진 철도회사들은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회사들이었다. 가장 성과가 좋았고 도산을 하지 않았던 철도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아예 요청조차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었다. 이 법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철도회사들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아직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철도건설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 많은 양의 쓸모없는 ‘과잉건설’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철로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나중에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포기하여 폐허가 된 것으로 일반

적으로 믿고 있다. 국가통제주의자들은 흔히 이 시기를 자유기업의 ‘계획성 없는 혼돈’의 예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아마 모든) 쓸모없는 철도들은 이윤을 바라고 철도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건설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금을 얻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철도사업을 시작했던 정치적 연고political pull를 가진 투기꾼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 사업에 연방정부의 토지공여, 보조금, 주나 시의 지방채 등 여러 형태의 정부지원이 있었다. 많은 투기꾼들이 그들 철도의 장래나 상업적 가능성에는 관심 없이 정부로부터 현금을 얻는 빠른 수단으로 철도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이 선택한 지역이 철도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장래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그들은 조사해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몇 마일의 가짜 철로를 놓았다. 그들 중 몇몇은 현금을 모은 후 잠적하여 철로를 놓지 않았다. 이것이 미국철도의 태동은 악랄한 투기의 시기였다고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인상의 근원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적절하고, 사적이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가들에 의해 계획되고 건설된 철도는 살아남았고 번영했으며, 그들의 위치선택에 대한 탁월한 선견지명을 증명해주었다.

중요한 철도회사들 가운데 가장 소문이 나쁜 역사를 가진 회사는 유니온 퍼시픽Union Pacific과 센트럴 퍼시픽Central Pacific(지금은 서던 퍼시픽Southern Pacific이라고 불린다)이었다. 이 두 회사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철도를 건설했다. 유니언 퍼시픽은 관료의 독직이 개입된 철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철도건설 직후에 도산했다. 철도는 민간자본가인 에드워드 해리먼Edward H. Harriman이 인수할 때까지 조직과 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4 캘리포니아의 ‘4인방Big Four’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건설한 센

1) New York: Crown Publishers, 1947, pp.8~9.

트럴 퍼시픽은 철도회사에 반대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해약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회사이다. 거의 30년 동안 센트럴 퍼시픽은 캘리포니아를 지배했고 독점을 유지하면서 경쟁자가 그 주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회사는 매년 요금을 변경하면서 엄청난 요금을 부과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캘리포니아 농부들과 화주들의 모든 이윤을 실질적으로 가로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권력을 통해서였다. 4인방은 주의회를 통제하여 주정부가 자기에게 캘리포니아 전해안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주고 다른 철도회사가 어느 항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의 법적 제약으로 경쟁자들을 봉쇄시켰다. 이 30년 동안 사업가들이 캘리포니아에 경쟁 철도회사를 건설하여 센트럴 퍼시픽의 독점을 부수려고 많은 시도를 했다. 그러한 시도들은 자유거래와 자유경쟁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 행동에 의해서 실패했다.

4인방의 이 30년 동안 독점과 그들이 관여했던 일들이 항상 대기업과 자유기업의 대표적인 해약으로 인용된다. 그렇지만 4인방은 자유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규제가 없는 거래라는 수단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업가가 아니다. 그들은 소위 혼합경제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그들은 사업에 대한 법적 간섭으로 권력을 획득했다. 그들의 권력남용은 통제가 없는 자유경제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센트럴 퍼시픽은 농부들을 수탈하여 1870년대 후반 유헄폭동을 부른 토지거래로도 악명 높다. 이 사건은 프랭크 노리스 Frank Norris의 반기업 소설인 『나쁜 권세가 The Octopus』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모든 철도회사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거래는 정부가 4인방에게

준 토지와 관계가 있었고 계속되는 불법행위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그런데도 비난을 받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간섭이 아니고 기업이다.²⁾

한편, 가장 깨끗한 역사를 가진 철도회사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건설되었고 미국 북서부 전역의 개발에 단독으로 책임을 졌는데, 그 회사는 연방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힐 J. Hill이 건설한 그레이트 노던이었다. 그런데도 힐은 서면법하에서 독점가라는 이유로 평생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

뉴욕 센트럴 New York Central의 해군 준장 밴더빌트 Commodore Vanderbilt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는 가장 부당하다. 그는 항상 ‘늙은 해적’ ‘월 스트리트의 괴물’ 등으로 언급된다. 월 스트리트에서 무자비하게 활동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밴더빌트가 여러 개의 작은 무명 철도회사를 뉴욕 센트럴 체제하에 두려고 할 때 그의 철도회사인 뉴욕 New York과 할렘 Harlem이 뉴욕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했다. 시의회가 부패한 것으로 알려져 특허를 원하는 자는 돈을 지불해야 했고 밴더빌트도 그렇게 했다(이것으로 그를 비난해야 하나, 아니면 정부가 그 문제에 있어서 독단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밴더빌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비난해야 하나?). 그의 철도가 시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시의회가 갑자기 특허를 취소하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밴더빌트의 돈을 받은) 시의회 의원들이 투기꾼들과 함께 밴더빌트의 주식을 공매空賣했다(공매 short sale란 미래의 주식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2) 센트럴 퍼시픽의 사실에 근거한 역사로는 Oscar Lewis, *The Big Four*, New York: Alfred A. Knopf, 1938을 참조하라.

일정기간 주식을 빌려서 매각하고, 일정기간 후에 주식을 매입하여 갚는 제도를 말한다: 역주). 밴더빌트는 그들과 싸워서 회사를 구했다. 그의 무자비함이란 주식이 시장에 투매되면 재빨리 그의 주식을 매입하여 단기매각인 short-sellers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었다. 이 전투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고 그는 이겼다. 투기꾼들과 시의회 의원들은 무너졌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아서인지 얼마 뒤 동일한 수법이 다시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는 뉴욕주 의회가 개입했다. 밴더빌트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두 철도회사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허가가 필요했다. 다시 그는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약속의 대가로 주의회 의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다. 그의 회사 주가는 올랐고 주의회 의원들은 주식을 공매하기 시작하면서 밴더빌트에게 약속한 입법을 거절했다. 그는 다시 월 스트리트의 전투를 경험해야 했다. 그는 엄청난 책임 아래 그가 가진 모든 것과 친구에게서 빌린 수백만 달러를 모두 걸어 승리했고, 알바니 Albany(뉴욕주의 주도로, 주의회가 있는 도시: 역주) 정치가들을 파멸시켰다. 그는 “우리는 주의회 전체를 파멸시켰다” “그리고 몇몇 존경할 만한 의원들은 식사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가야 했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막도 알리지 않으면서 정부통제를 옹호하는 자들이 자유기업 해악의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밴더빌트를 이용하는 것은 사악할 정도로 우스운 일이다. 알바니의 정치가들은 잊혀졌고 밴더빌트는 악한이 되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밴더빌트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왜 그는 월 스트리트에서 잔인한 짓을 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는가?”라고 되물을 것이다.³⁾

기업과 정부의 주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가장 좋은 예는 홀브루크의 『미국철도 이야기 The Story of American Railroads』에 나온다. 231쪽에서 홀브루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거의 처음부터 철도회사들은 정치가들과 그들의 집달리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갈취를 당해야 했다. 방법은 거의 틀림없었다. 보통 주의회 의원인 정치가는 자기주의 철도회사들이 귀찮아하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법이나 규제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 큰소리로 떠든다. 주인인 국민이 괴물과 같은 철도회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것이다. 그리고는 인간만큼이나 오래된 방법으로 그를 설득시켜 단념하게 할 철도회사의 하수인을 기다린다. 하나의 주의회가 한 회기에 철도회사들을 괴롭히는 법안을 35개나 제출했던 기록이 있다.

나아가 홀브루크는 같은 책 235~36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1870년에 임의의 날짜를 택해보면 그날의 많은 강연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철도회사는 자신들이 법이었다. 그들은 철로와 기관차를 구입하듯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현금으로 매수했다. 그들은 전 입법부와 종종 사법부를 소유했다…… 1870년을 부패의 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3)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David Marshall, *Grand Central*, New York: McGraw-Hill (Whittlesey House), 1946, pp.60~64와 Alvin F. Harlow, *The Road of the Century*, New York: Creative Age Press, 1947, pp.166~73을 보라.

위에서 언급한 두 예시와 그것들로부터 유추되는 결론의 관계가 홀부르크의 머리에 명백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비난하고 부패했다고 한 것은 철도회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가 철도회사의 생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철도회사가 ‘전 입법부를 소유하려고’ 시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철도회사들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뇌물에 의존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고 누가 부패했는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호금(Protection Money)’을 지불해야 하는 사업가 인가 아니면 그 권리를 팔 권력을 가진 정치가인가?

대기업에 대한 또다른 대중적인 비난은 이기적인 민간기업들은 그들의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으로 위협을 받을 때 진보를 방해하고 연기시킨다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민간기업도 이것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 철도회사의 초기 역사는 좋은 예가 된다. 그당시 대부분의 수송을 담당했던 운하와 증기선의 소유주들은 철도회사의 출현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운하업자들의 선동으로 철도개발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시도로 여러 입법부에서 많은 수의 법, 규제, 제약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철교가 최초로 미시시피강에 건설되었을 때 강의 증기선 운영업자가 철교의 건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정은 철교를 ‘유형의 장애물과 불법방해’라고 규정하면서 파괴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근소한 차이로 판결을 뒤집었고 철교를 허용했다.⁴⁾ 근소한 차이로 반대의 결과

가 나왔다면 미국의 전 산업발전의 운명이 어떠했으며 그 결정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치권력으로 무장한 소수의 사람들의 독단에 맡겨졌다면 모든 경제발전의 운명이 어떠했겠는가를 자문해보라.

철도회사의 소유주들이 정부를 부패시킴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방어 때문에 입법부를 매수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했다. 최초이자 가장 우수한 철도의 설립자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큰 위험을 안은 채 민간자본을 동원한 자유기업들이었다. 투기꾼들과 입법가들이 새로운 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착취하려고 게임에 몰려든 때는 새로운 산업이 엄청난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을 철도회사들이 보여준 뒤였다. 철도의 소유주들이 매수로 선회한 때는 입법부가 무시무시하고 불가능한 규제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갈취를 하던 때였다.

8 민간자본으로 시작한 우수한 철도설립자들은 경쟁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일종의 특권을 얻기 위하여 입법부를 매수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재산을 모았는데, 만일 그들이 해군 준장 밴더빌트처럼 뇌물에 의존했다면 그것은 단지 합병허가와 같은 인위적인 제약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정도였다. 그들은 입법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었고 입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나 센트럴 퍼시픽의 4인방과 같이 정부지원으로 시작한 철도설립자들은 정부를 특권으로 이용해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입법부에 더 많이 의존해서 재산을 모은 자들이다. 이것은 어떤 종류나 어떤 정도든 혼합경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경쟁자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정부규제의 지원하에서만 가능하며, 그러한 사

4) Frank H. Spearman, *The Strategy of Great Railroads*, New York: Scribner's, 1904, pp.273~76을 참조하라.

람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부로 달려가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것은 고의성이 없는 성격이나 ‘부정직한 사업가’나 ‘부정직한 입법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정직은 체제에 내재되어 있고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부는 특별한 ‘엘리트’와 ‘연고귀족aristocracy of pull’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고, 부패한 정치인이 주의회에 진출하게 할 것이고, 부정직한 사업가가 유리하도록 할 것이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결국 파괴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예들은 동일한 문제를 나타내주는 더 많은 확실한 예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예들은 한 산업의 역사에서 취한 것들이다. 만일 유사한 방법으로 미국의 다른 산업사를 자세히 조사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의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솔하게 받아들여온 것으로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치명적인 혼란을 명확하게 할 시간이다. 그것은 경제통제는 정부의 적합한 기능이며, 정부는 경제계급의 이해관계에 대한 도구이며, 문제는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압력단체가 정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라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기업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다고 추정되는 통제경제인 복지국가와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업가들의 이익을 위한다고 추정되는 통제경제라고 믿는다. 통제가 없는 경제에 대한 생각이나 가능성은 완전히 잊혀져왔고, 이제는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레이트 노던의 힐과 같은 사업가들과 센트럴 퍼시픽의 4인방과 같은 사업가들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가들은 항상 정부를 부패시키는 악한이
9 고 해결책은 노동조합이 정부를 부패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

면서 차이점을 간단히 처리해버릴 것이다.

문제는 기업을 위한 통제나 아니면 노동자를 위한 통제나 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와 자유에 관한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항하는 것은 4인방이 아니다. 4인방과 복지국가가 한편이고, 반대편에 힐과 모든 정직한 노동자가 서 있다. 누구를 위하든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는 산업사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왔다. 해결책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이다. 즉 교회와 국가를 분리한 것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국가와 경제를 분리하여 생산과 거래에서 모든 형태의 국가간섭을 철폐하는 것이다.

8

산업혁명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

로버트 헤센

* The Objectivist Newsletter, April and November 1962.

아동노동과 산업혁명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이해가 부족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동노동이다.

공장체제의 도입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미처 성장하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생계와 생존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초에 걸친 산업혁명 기간에 영국에서 있었던 아동노동의 현상을 평가할 수 없다.

1) 공장체제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상승을 가져왔고 도시의 사망률을 빠른 속도로 하락시켰으며 영아사망률을 감소시켜 전례없는 인구팽창을 가져왔다.

1750년의 영국인구는 6백만 명이었고 1800년에는 9백만 명, 1820년에는 1천2백만 명이었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전례가 없었다. 인구의 연령별 분포도 크게 변했다. 소년 및 청년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런던에서 태어나서 5년내에 죽은 어린이의 비율’은 1739~49년에 74.5퍼센트에서 1810~29년에 31.8퍼센트로 떨어졌다.¹⁾ 예전

1) Mabel C. Buer, *Health, Wealth and Popula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15,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1926, p.30.

에는 유아 때 사망했을 어린이들이 이제는 생존할 기회를 가졌다.

증가하는 인구와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산업혁명 기간에 노동자 계층의 조건들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회주의자와 파시스트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만일 누군가가 산업혁명 기간에 어린이들의 조건이 나빠진 것이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비난한다면 그는 도덕적으로는 불의하고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다. 자본주의는 이전 시기보다 어린이들의 조건을 사실상 크게 개선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의의 근원은

■ 디킨스Dickens와 브라우닝Browning 여사와 같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소설가와 시인들, 사우디Southey와 같은 공상적인 중세 찬미자, 엥겔스Engels와 마르크스Marx와 같은 경제사가인 체하는 정치적 소책자의 작가들이다. 그들은 모두 산업혁명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주장되는 노동계급의 잃어버린 ‘황금기a lost golden age’라는 애매하고도 낙관적인 그림을 그렸다. 역사가들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가내수공업이라는 공장 이전 체제는 매력이 없다. 그 체제에서 노동자는 직물기나 방적기를 사기 위해 비용을 많이 들여 초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높은 임대료를 지불했고, 그와 관계된 투기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노동자의 먹거리는 형편없었고, 심지어 생존도 그의 부인이나 아이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둡고 환기도 잘 안되는 작은 집에서 가족생활을 하고 함께 일했지만 낭만도 없었고 부러워할 것도 전혀 없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어떻게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겠는가? 1697년에 존 로크John Locke는 가난과 가난구제의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상무성Board of Trade에 제출했다. 로크는 건강한 노동자와 그 부

인이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추산하면서, 3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방적이나 뜨개질을 배우는 직업학교에 보내어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들이 집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빵과 물 외에는 거의 없고, 그것도 아주 부족하다”라고 적고 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상기시킨다.

공장소유주들은 누구에게나 강제로 공장에서 일자리를 가지게 할 힘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임금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만 고용할 수 있었다. 이 임금은 낮았지만 극빈자들이 다른 곳에서 벌 수 있는 수준보다는 높았다. 공장들이 주부들을 아이 돌보는 일과 부엌 및 어린이들과 함께 노는 일로부터 빼앗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그러한 주부들은 요리할 것도 아이에게 먹일 것도 없었다. 어린이들은 빈곤했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공장이었다.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공장이 그들을 아사餓死로부터 구했다.²⁾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은 부모의 고집 때문에 일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노동시간은 아주 길었으나 일은 아주 쉬웠다. 방적기나 직조기 앞에 앉아서 끊어진 실을 다시 묶는 일 따위였다. 공장 입법운동의 시작은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1788년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아동노동법child labor law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오

래전부터 있었고, 공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굴뚝청소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하는 비참한 어린이들의 노동시간과 조건을 규제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에게 적용된 최초의 법은 행정교구당국parish authorities, 즉 정부에 의해 실질적인 노예로 공장에 보내졌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되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행정교구내 빈민구호법 관리들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들에게 묶여 오랜 기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도제신분으로 있다가 생명만 유지하여 돌아온 버림당하거나 고아인 극빈자 어린이였다.

근로조건과 위생시설은 크고 새로운 공장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1819년과 1846년 사이에 제정된 공장법Factory Act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고용에 더욱더 제약을 가하여 공장감독자들의 방문과 조사를 자주 받는 큰 공장의 소유주들은 정교하고, 임의적이며, 자주 변하는 규제 때문에 어린이들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린이들을 해고하는 쪽을 더욱더 선택하게 되었다. 법으로 간섭한 결과 해고된 어린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작고 오래되고 규정을 더 위반하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곳은 고용조건, 위생시설, 안전이 현격하게 열악한 곳이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어린이들은 1백 년 전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의 신분, 즉 불규칙적인 농업노동자나 더 심한 경우 미제스 교수의 표현대로 ‘부랑자, 거지, 방랑자, 도둑, 창녀와 같은 국가에 기생하는 자’로 격하되었다.

아동노동은 법제정에 의한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동노동은 어린이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임금을 벌어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그들 부모의 소득이 그들을 충분히 양육하게 된 때 끝났다. 그러한 어린이들의 해방자와 은인은 입법가나 공장감

2) Ludwig von Mises, *Human Action*,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49, p.615.

독자가 아니었고 제조업자와 금융업자들이었다. 그들의 노력과 기계에 대한 투자는 실질임금의 상승, 값싼 상품의 풍부한 공급,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향상을 가져왔다.

애쉬튼Ashton 교수는 산업혁명을 비난하는 데 대한 적합한 대답을 제시한다.

오늘날 인도와 중국의 평원에는 전염병에 걸리고 허기진 상태에서 낮에는 소와 함께 일하고 밤에는 소와 잠자리를 같이하면서 고통으로 보기에 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남녀가 있다. 그러한 아시아의 기준과 공포가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않고 인구만 늘어난 사람들의 운명이다.³⁾

산업혁명과 그 결과로 나타난 번영은 자본주의의 과업이었고 이는 그 어떤 다른 정치-경제 체제하에서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부연하고자 한다. 그 증거로서 나는 산업화와 기아飢餓를 결합시킨 소련의 비참한 상황을 제시한다.

여성과 산업혁명

자본주의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주의의 역사를 잘못 전해야 한다. 산업자본주의가 여성의 격하와 비참함만 가져왔다는 개념은 자본주의 비평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신념이다. 산업혁명으로 어린이들이 희생되었고 착취당했다는 견해만큼이나 이 신념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다.

이 견해의 근원을 살펴보자. 자본주의가 여성들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하에서 여성의 신분과 자본주의 이전에 여성이 처한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19세기 자본주의 비평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과거를 돋보이게 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의 모든 것을 비난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했다.

예를 들면 19세기의 가장 광적인 자본주의의 적들 가운데 한 사람인 리처드 오슬러Richard Oastler는 중세의 모든 사람들이 19세기초의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했다고 주장했다. 중세의 영국을 묘사하면서 오슬러는 잃어버린 황금기에 대해 열광적으로 말했다.

“아! 영국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배였던가! 그 배는 잘 건조되었고, 선원들을 잘 배치했으며, 양식을 충분히 공급했고, 장비를 잘 갖추었다!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 재미있었고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다.”

이것은 ‘인구의 대부분이 노예상태의 소작농이었고 신분에 얽매어 삶의 형태를 바꾸거나 출생지에서 이사할 자유도 없는’ 세기를 말한 것이다.⁴⁾ 그 시기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 되풀이되는 기근과 기껏해야 배를 반만 채워주는 상황을 내세워서나 구제해주겠다는 약속만이 있었던 때였고, 사람들이 오물과 해충이 창궐한 집에서 살았던 때였다. 어느 역사가는 이러한 집을 “위생적인 면에서 보면 그나마 좋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집들은 아주 쉽게 불에 탄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⁵⁾

3) T. 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p.161.

4) Buer의 저서 p.250.

오늘러는 중세 찬미자들의 견해를 표현했다. 중세 찬미자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확한 역사가들이다.

예를 들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7세기와 18세기초 대중들의 상태를 묘사할 때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는 “노동자들은 그런대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식물을 경작했고 모두 경건하고 정직함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했다. 그들의 물질적인 상태는 그들의 후세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특히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도시나 시골에 사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경이적으로 높은 사망률, 악명 높은 술 소비량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자 계층의 음식물은 주로オート밀, 우유, 치즈, 맥주 등이었고 빵, 감자, 커피, 홍차, 설탕, 고기 등은 비싼 사치품이었다. 비누가 비싸 목욕을 자주 못했고 옷은 10년이나 한 세대를 입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세탁하면 오래 입지 못하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안했다.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가장 급속한 변화는 섬유생산이 집에서 공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소위 ‘가내수공업’인 이전의 체제에서는 방적과 직조는 노동자의 집에서 부인과 아이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진보로 섬유생산이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자본주의의 한 비평가는 이것이 ‘사회단위로서의 가정의 와해’를 가져왔다고 했다.⁵⁾

네프Neff 여사는 “가내수공업 체제하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일했다. 아버지는 독재자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수입을 착복하고 그들의 지출을 감독했다”라고 공장체제를 인정하는 듯이 적고 있다. 차례대로 써나가면서 그녀의 논조는 비난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공장

체제하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수입이 있었고 공장내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서 단지 음식과 잠자리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숙소에 불과했다.”

그러한 비판에 따르면 난잡한 성행위, 간통, 매춘을 포함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서 공장에 책임이 있었다. 공장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암시하는 것은 여성의 자리는 가정에 있다는 개념과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공장은 소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주의깊은 감시를 없애버려 조혼을 장려했다고 동시에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장이 여성들의 복종심을 떨어뜨리고, 사치품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며, 어머니로서의 무지와 가사에서의 무능을 촉진시켰다고 비난을 받았다.

산업혁명으로 노동자 계층이 구입할 수 있었던 ‘사치품’들의 종류를 생각해 보는 것이 공장 이전의 체제에 대한 고발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은 나막신 대신 신발을, 솔 대신 모자를, ‘평범한 음식’ 대신(커피, 홍차, 설탕과 같은) ‘맛있는 음식’과 같은 사치품을 찾았다.

비평가들은 기성복을 입을 습관이 증가하는 것을 비난했고, 값싼 면이 모와 린네르를 대체하는 것을 가난해져가는 표시로 보았다. 여성들은 혁신적인 섬유생산 때문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손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다. 옷을 더이상 10년 동안 입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여성들은 더이상 페티코트petticoats가 더러워지고 헤질 때까지 입을 필요가 없었다. 싼 면옷과 속옷은 개인위생에 있어서 혁명이었다.

왜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 19세기에 유행했던 두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그들의 “남편들은 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

5) 앞의 책 p.88.

6) Wanda Neff, *Victorian Working Wom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0, p.51.

아가며 집에서 빈둥거리기를 좋아했다”는 것과, 둘째, 공장체제가 “나이든 남성들을 면직시키고 여성들에게 ‘그들의 남편과 가족들을 양육할 의무와 부담’을 지웠다”는 것이다. 엑서터Exeter 대학의 마가렛 히윗Margaret Hewitt 박사는 그녀 연구의 결정판인 『빅토리아 산업 시대의 부인과 어머니Wives and Mothers in Victorian Industry』에서 이 두 가지 설명을 조사했다. 그녀의 결론은 “두 가지 가정 모두 어떠한 통계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라는 것이었다.⁷⁾

사실상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이유보다 더한 이유로 공장에서 일했다. 히윗 박사는 그것들을 열거했다.

6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임금이 가정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일했다. 다른 여성들은 과부가 되었거나 버림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들은 임신을 못했거나 성장한 자녀들이 있었다. 몇몇은 남편이 실업상태에 있거나 계절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소수의 여성들은 비록 남편의 임금이 필수품을 조달하기에 충분했지만 돈을 벌어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⁸⁾

공장체제가 이러한 여성들에게 제공한 것은 격하와 비참함이 아니고 생존, 경제적 독립, 최저생계에서 벗어나는 수단이었다. 20세기에 비해 19세기의 공장상태는 열악했으나 가사서비스, 농장에서의 대단히 힘든 일, 광산에서의 일보다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증대했다. 게다가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여성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다.

공장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좋았던 과거’를 칭찬했던 트레벨안 Trevelyan 교수조차도 다음을 인정했다.

7) London: Rockliff, 1958, p.190.

8) 앞의 책, p.192, p.194.

……인생에서 최선의 것들 중 얼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트레벨안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독립을 얻었다…… 그들이 번 돈은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 공장에 고용된 여성들은 스스로 경제적 지위를 획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이 질투했다.

트레벨안은 “노동자 계층의 집은 공장의 축소판이 되지 않고 더 편안하고 조용하고 위생적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⁹⁾

공장체제의 비평가들은 가내방직공이나 직조공은 그들의 작업으로 창조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나 거대한 공장에서는 단지 부속품의 하나가 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잃었다고 아직도 주장하려고 한다. 도로시 조지Dorothy George 박사는 이 명제를 쉽게 뒤집는다.

“단순하고 맥 빠지는 일에 직조기의 북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몇 시간씩 일하는 평범한 직조공이 촛뜨기 기술에 대한 현대의 열광자들(공장체제의 비평가들: 역주)을 만족시킬 만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은 없다.”¹⁰⁾

끝으로 공장에서의 작업이 여성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가치를 희생하면서 너무 물질적인 편안함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자본주의 이전에 살았던 여성들은 그 비참함으로 인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라는 신약성경의 말씀(요한 1서 2장 15절: 역주)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

9) George M. Trevelyan, *English Social History*, New York and London: Longmans, Green & Company, 1942, p.487.

10) M. Dorothy George, *England in Transition: Life and Work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Penguin, 1953, p.139.

의의 탁월한 생산력이 그 견해를 극복하게 했다. 오늘날 그러한 견해의 중요한 지지자는 갈브레이드Galbraith 교수와 철의 장막 뒤에서 내핍생활을 설파하고 있는 자들이다.

앨런 그린스펀

9

정직에 대한 공격*

* The Objectivist Newsletter, August 1963.

‘부정직하고 악랄한 기업수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복지국가통제주의자들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사업가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과 약, 사기증권, 조잡한 빌딩을 팔려고 시도한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사업가의 ‘탐욕’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식품의약국Pur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많은 빌딩 감독기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평범한 보호자는 정확히 사업가의 ‘탐욕’이 고 더 적합하게는 그의 이윤추구이다.

모든 사업가들의 사리사욕 속에는 정직한 거래와 질 좋은 상품에 대한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집단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업중인 기업의 시장가치는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명성이나 ‘영업권good will’은 공장이나 장비와 같은 자산이다. 제약회사들에 있어서 자기상표의 시장성에 반영되어 있는 명성의 가치가 중요한 자산이다. 조잡하고 위험한 약품의

판매로 명성을 잃으면 비록 물적 자원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약회사의 시장가치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중개회사의 시장가치는 영업권 자산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일 수억 달러 가치의 증권들이 전화로 거래된다. 중개인의 말이나 약정의 신용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도 하룻밤 사이 그를 파산시킬 것이다.

규제가 없는 경제에서 명성은 중요한 경쟁수단이다. 최고급 건설을 한다는 명성을 획득한 건설업자는 덜 양심적이고 덜 성실한 경쟁자들의 시장을 잠식한다. 가장 평판이 좋은 증권딜러는 많은 양의 중개업무를 맡는다. 약제조업자와 식품가공업자는 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표를 만들려고 서로 경쟁한다.

의사들은 그들이 처방하는 약의 품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그들 역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신의를 위해 경쟁한다. 심지어 골목 구멍가게도 관계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도 유해한 식품을 팔 수 없다. 사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명성을 얻기 위한 경쟁에 어느 정도 발목이 잡혀 있다.

명성을 얻고 그것을 재정상 자산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일관성 있게 우수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후에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큰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떠한 회사도 한순간 품질기준을 낮추거나 하나의 열등한 상품으로 몇 년 동안 투자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 부담을 질 수 없다. 또한 잠재적인 ‘일확천금quick killing’의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장참여자는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회사들과 즉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노력을 몇 년 동안 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생산분야의 모든 수준에서 신중하게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유인이 있다. 그것이 자유기업 체제에 내장된 안전장치이며, 기

업의 부정적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수단이다.

정부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른 대안이 아니다. 정부규제는 상품에 품질을 추가하지도 못하고 정보에 정확성을 추가하지도 못한다. 소비자의 ‘보호자’로서 정부규제의 유일한 ‘공헌’은 유인책 대신에 폭력과 공포를 대체하는 것이다. 정부발표는 오히려 완곡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기초는 무력이다. 모든 규제를 특징짓는 끝없는 서류몽치의 밑바닥에는 총이 놓여 있다. 결과는 무엇인가?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을 바꾸어 표현해보면 나쁜 ‘보호’가 양화를 구축한다. 폭력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비자가 유인으로부터 얻는 보호를 잘라버린다. 첫째로 그러한 시도는 명성 있는 회사를 알려지지 않은 회사, 새로운 회사, 신용 없는 회사와 같은 조건에 덩으로써 명성의 가치를 없애버린다. 사실 그러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우며, 수년간의 증거가 오히려 그러한 의심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둘째로는 그러한 시도는 임의로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회사의 제품에 안전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어도) 자동적으로 보증한다. 명성의 가치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은 소비자들의 판단에 따른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보증’은 이러한 필요의 근본을 침식한다. 그것은 사실상 어떤 선택이나 판단도 필요가 없으며, 수년간의 업적을 나타내는 회사기록은 관계가 없다고 소비자들에게 단언한다.

규제의 근거가 되는 최소 기준은 서서히 최고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만일 건축법이 건설에 있어 최소 기준을 설정하면 건설업자는 그러한 기준을 초과한다고 큰 경쟁적 우위를 얻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최소 기준만 충족시키려고 한다. 만일 비타민에 대해 최소 명세가 정해지면 평균 이상의 품질을 가진 상품을 생산해도 거의 이익이 없다.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유인이 줄어들어 결국은 최소 기준의 근본을 침식하므로 점차로 최소 기준을 유지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조정자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과학자가 새로운 기적의 약을 발견했다고 해서 정부가 영예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면제의 일종인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추방하면 영예를 얻는다. 소극적인 측면에 대한 그러한 강조는 가장 양심적인 조정자조차도 따라야 할 구조이다. 그 결과 약의 실험, 검사, 배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증가한다. 모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구의 부차적인 보상인 기존약품의 향상을 동시에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약품의 개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품질향상과 혁신은 불가분의 것이다.

건축법은 대중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견으로 건축기준이 쓸모가 없게 된 지 한참 후까지도 그 기준을 강제로 고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업자들은 새롭고 안전한 건축기술을 채택하기보다는 오래된 기술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폭력과 공포에 근거한 규제는 기업거래의 도덕적 토대를 침식한다. 건설기준을 충족시키기보다는 건축감리자를 매수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 신용이 없는 증권중매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빠른 시일내 충족시켜 존경받을 만한 것들을 얻은 후 대중을 탈취할 수 있다. 규제가 없는 경제에서는 중매인은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신용을 가진 지위를 얻기까지 수년간의 평균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따라서 규제에 의한 소비자 보호는 착각이다. 그것은 소비자들을 부정직한 사업가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믿을 만한 보호인 경쟁과 명성을 점차적으로 파괴한다.

소비자들이 위협에 빠져 있는 동안 ‘보호적인’ 규제의 최대 희생자는 생산자인 사업가이다. 명성을 얻기 위한 사업가들의 경쟁을 파괴하는 규제는 사업가들이 수년에 걸쳐 이룩해놓은 영업권의 시장 가치를 잠식한다. 그것은 정직으로 창출한 재산에 대한 몰수행위이다. 사업의 가치인 재산은 돈을 버는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회사의 공장을 압류하거나 회사의 명성을 평가절하하는 정부의 행동은 모두 같은 범주에 속한다. 둘다 몰수행위이다.

더구나 ‘보호적’ 입법은 예방법preventive law의 범주에 속한다. 사업가들은 어떤 죄를 범하기도 전에 정부의 강압에 종속된다. 자유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사기나 명백한 피해를 당할 때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한 경우 요구되는 유일한 보호는 형법에 의한 보호이다.

정부규제는 잠재적으로 부정직한 개인들을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활동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건의 은폐를 쉽게 만든다. 더구나 개인적인 부정직의 가능성은 다른 모든 그룹의 사람들과 똑같이 공무원들에게도 완전히 적용된다. 관료나 감독자들의 판단, 지식, 정직이 더 우수하다고 보증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독단적인 권력을 가진 그를 믿었을 때의 결정적인 결론은 명백하다.

집단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유와 자유시장의 과정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다. 그들의 명확하고도 기본적인 전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소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옹호이다. 그들은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한 수단으로써 유인이나 보상보다는 폭력과 공포를 선호함으로써 인간은 단기적으로 활동하는 분별없는 금수이며 인간의 사리사욕은

‘신용할 수 없고’ 또한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그들의 견해를 고백한다. 그들은 생산과정에서 지성의 역할과 현대산업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폭넓은 지적 배경과 장기적 비전에 대한 무지를 고백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되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을 고백한다. 자본주의는 사리사욕과 자존심에 근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정직과 신의를 중요한 미덕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이를 보상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악덕이 아니라 미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복지국가통제주의자들이 예방법, 관료감시, 만성적인 공포분위기 조성 등의 수단으로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도덕적 체제이다.

방송전파의 재산상태*

아인 랜드

인간의 지식과 노력의 응용을 필요로 하는 물적 요소나 자원들은 지식과 노력을 응용한 사람의 권리에 의해 사적 재산(private property)이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이용되거나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방송주파에서 특히 그러한데, 그 이유는 방송주파는 인간행동으로 만들어지고 인간행동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전파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와 공간뿐이다.

두 기차가 동시에 같은 철로를 달릴 수 없듯이 두 방송이 서로 ‘전파방해’ 없이 동시에 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다. 땅의 소유권과 방송채널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 특정한 분야에 재산권의 적용을 정의하는 일이다. 미국정부가 참담한 실수를 하여 측정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 이 일이었다.

* *The Objectivist Newsletter*, April 1964.

방송과 연주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다. 방송은 음향을 더 먼 거리에 전파하고 좀더 복잡한 기술장비를 요구한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과 피아노는 그의 것일 수 있지만 그가 만들어낸 음향의 파동이 돌아다니는 연주회장내의 공간은 ‘공공재산public property’이므로 정부의 허락 없이는 그가 연주회를 할 수 없다고 그 누구도 감히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것이 방송산업에는 불합리하게도 적용된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er 판사는 방송주파수는 ‘공공재산’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지지하는 중요한 논거를 간략하게 제시했다.

“**B**(라디오) 시설은 제한적이다. 그 시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시설이 가용적이지 않다. 라디오 주파수역은 모든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만큼 크지 못하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송국의 수는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주장의 오류는 명백하다. 공연회장의 수, 원유, 밀, 다이아몬드, 지구상의 땅면적 등이 제한적인 것처럼 방송주파수도 제한되어 있다. 무한정한 양을 가진 물적 요소나 가치는 없다. 만일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이 그것의 사용권에 대한 기준이라면 이 세계는 불로소득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도모할 만큼 넓지 못하다.

정부가 개인권리를 보호하고 그 일환으로 이러한 권리를 이행해 주고 판결해주는 법을 공식화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 어느 특정한 활동분야에 개인권리의 적용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지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발명하고, 주고, 빼앗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원유권, 수직공간권과 같은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의 결과로 재산권의 적용을 정의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정부는 적합한 원리에 따랐다. 그 원리란 개인권리

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을 모색한 것을 말한다.

이전에 소유주가 없는 지역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맨처음부터 개인소유권을 확립한 유명한 예가 1862년의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이다. 이 법으로 정부는 서부에 이주지역을 개척하여 ‘공유지’를 개인소유주에게 불하했다. 정부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160에이커의 농장을 주어 5년간 경작하게 한 후 그들의 개인소유가 되게 했다. 비록 땅은 원래 법적으로 ‘공공재산’으로 간주되었지만 땅의 분배방법은 (명시적이고 이념적인 의도대로가 아니라) 사실상 적절한 원리에 따랐다. 시민들은 마치 땅의 소유주인 것처럼 정부에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소유권은 그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재산’개념의 근원과 뿌리가 된 방법(사용되지 않은 물적 자원으로 일하고, 또한 황무지를 문명화된 거주지로 바꿈으로써)으로 획득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는 소유주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유주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편견 없는 규칙을 정의하는 임자 없는 자원의 관리인처럼 행동했다.

이것이 방송주파수의 분배원리와 형태가 되었어야 했다.

B 라디오방송이 법적 정의가 없는 개인청구권이 서로 충돌되는 황무지가 될 수 있는 물적 자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 확실하게 되자마자, 정부는 방송에서 홈스테드법과 상응하는 법을 공표했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영역에서의 사적 재산권을 정의하고 몇 년 동안 방송국을 운영한 후 라디오 주파수를 소유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주파수를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

상업 라디오방송이 발전되기까지는 몇 년간에 걸친 노력과 실험

이 있었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위험을 안은 선구자들이 그곳을 큰 상업적 가치가 있는 희망찬 약속의 장소로 건설하기 전에는 ‘희망자’들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외에 누가 어떠한 권리, 법, 기준으로 그 가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가?

만일 정부가 사적 재산권 원리를 고수하여 선구자들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면 라디오 방송국을 얻겠다고 나중에 참여한 자는 원소유주의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모든 형태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매입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용 가능한 주파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원소유주의 기반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들이 재산을 경제적으로 선용하지 못하면 (자유경쟁이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유하는 것을 위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제한된 공급과 증대되는 수요로 인한 경쟁이 라디오 방송국의(그리고 나중에는 TV방송국의) 시장가치를 너무나 높게 하여 가장 유능한 사람들만이 방송국을 살 능력이 있거나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윤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가치 있는 재산을 오랫동안 낭비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누가 기업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가? 대중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 이때 대중이란 집단의 대변자로 행세하는 소수의 관리를 가지고 있고 도움이 되지 않고, 실체가 없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대중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적인 생산자, 시청자, 청취자의 집합으로서의 대중이다.

‘희소성의 논의’와는 반대로 ‘제한된’ 자원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사적 재산으로 만들어 자유롭고 공개된 시장에 맡겨버려라.

‘희소성의 논의’는 그 문자적 의미마저도 쇠퇴된다. 초고주파수 ultra-high frequencies의 발견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신청자들이 선구적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것보다 많은 방송채널이 오늘날 이용 가능하다. 어느 때처럼 ‘희망자’들은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보상과 이익을 양도받으려고 했다.

5 라디오와 텔레비전 공영화의 역사는 자본주의 파괴의 과정과 원인을 소규모로 축약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철학부재로 자본주의가 멸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예이다.

집단주의자들은 라디오방송의 초기 시기를 자유기업 실패의 좋은 예로 자주 인용한다. 방송업자들이 라디오에 대해서 재산권이 없었던 그대에 공중파는 누구든지 자기마음대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다른 주파수를 방해하는 무질서한 주인 없는 땅이었다. 몇몇 전문 방송업자들이 강제권이 없는 사적 계약으로 그들의 주파수를 분할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례하고 심술궂은 아마추어들의 방해에 맞설 수가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라디오에 대한 정부통제를 정당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그 적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예이다.

공중파의 무질서는 자유기업의 예가 아니고 무정부상태의 예이다. 그것은 사적 재산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적 재산권이 없어서 발생했다. 그것은 왜 자본주의가 무정부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왜 사람들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 정부의 기능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필요한 것은 법률주의이지 통제가 아니다.

부과된 것은 통제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것은 완전한 국영화였다.

점진적인 논의도 없이, 즉 이념이 결여된 채 공중파가 ‘대중’에 속한 것이며 ‘공공재산’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만일 당신이 그때의 지적 상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다음에 인용한 글의 저자가 지닌 정치철학을 추측해보라.

라디오방송은 단지 사적 이득, 사적 광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오락 등을 다루는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신력에 감동하는 공공의 관심사이며, 다른 공익사업들처럼 동등한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공익의 관점에서 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적 이득’보다는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자 바라는 기업 혐오 집단주의자business-hating collectivist가 한 말이 아니다. 사회주의 계획가가 한 말도 아니며 공산주의 음모자가 한 말도 아니다. 그것은 1924년 당시 상무장관이었던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가 한 말이다.

상무장관으로서 라디오에 대한 정부통제를 하기 위해 싸우고, 그 당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정부통제를 확대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라디오 허가에 대한 자세한 조건들을 붙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후버였는데,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없는 탓에 법정에서 계속 인정받지 못했다. 1927년 무선법(Radio Act of 1927)으로 알려진 라디오(그리고 그때는 태동하지도 않은 텔레비전)산업의 묘비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후버였는데 그 법으로 독재적이고, 자유재량적이며, 정의되지 않고, 정의할 수도 없는 권력을 가진 연방무선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그 법은 연방무선위원회를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 변경한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포함해서 작은 개정과 수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모든 면에서 오늘날의 방

송산업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뉴프런티어(1960년 7월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케네디Kennedy가 내세운 신개척자 정신:역주)와 함께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인 뉴튼 미노Newton Minow가 1962년에 말했다. 그가 옳았다.

1927년 무선법은 정부의 역할을 기술적인 방해로부터 방송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것이 필요한 전부였고 정부가 적절하게 해야 하는 모든 것이었는데) 공중파의 교통경찰에만 제한하지는 않았다. 1927년 무선법은 ‘공익, 편익, 필요’에 대한 서비스를 연방무선위원회가 방송허가 신청자들을 판단하여 허가를 주든지 아니면 기각하든지 하는 기준으로 확립하였다. (개별시민들의 개인적 이익의 합 외에는) ‘공익’과 같은 것은 없고 집단주의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정의되지 않았고 정의될 수 없었기 때문에 1927년 무선법은 우연히 위원회에 지명된 관료들에게 부여된 방송산업에 대한 전체주의 권력에 백지수표를 준 것에 해당한다.

집단주의자들의 희생 단두대에 있는 지적인 칼이며 방송국 운영자들이 매 3년마다 그들의 머리를 단두대 위에 놓고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은 자본주의의 적들에 의해 출현된 것이 아니고 방송업자 자신들의 지도자에 의해 출현되었다.

그들은 정부에게 규제와 통제를 간청했고, ‘공공재산’과 ‘공익’에 대한 봉사라는 개념을 찬양했으며, 미노와 헨리Henry가 단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꽃이 되도록 씨를 뿌린 자들은 몇몇 개척자와 오늘날에 와서는 불평하고 항의하는 방송산업의 일부 이사들을 포함한 소위 ‘보수주의자’들이었다. 방송산업은 희생자들에 대한 제재로 노예상태가 되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결백한 희생자들은 아니었다.

통합경제에 대한 신조를 가진 많은 사업가들은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본질을 원망한다. 그들은 권리가 아니고 정실favor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유시장의 경쟁을 무서워하고 관료들과 사귀는 것이 훨씬더 쉽다고 느낀다. 장점merit이 아니고 연고pull가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며, 능력 있는 경쟁자인 무자비한 침입자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줄 관료들을 유혹하고, 압력을 가하고, 매수하는 데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공익’의 자격증 있는 노예와 ‘공공재산’의 허가받은 사용자의 신분에서 발견되는 특권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을 경제적 경쟁의 범위 밖에 둘 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에 수반되는 책임과 비용을 절약해준다. 그것은 자유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했어야 했을 방송주파수의 사용권과, 만일 그가 오늘날 송출하고 있는 불합리한 쓰레기와 같은 종류를 송출한다면 오래 유지할 수도 없었을 방송주파수의 사용권을 그에게 무상으로 준다.

그러한 것들이 ‘공익’이라는 신조에 의해 가능하게 된 기득권이며 ‘공공재산’이라는 어떠한 형태나 정도의 신조에 의한 혜택들이다.

재산권 없이는 다른 권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만일 자유언론에 대한 검열과 억압이 이 나라에서 확립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시작되었다.

1927년 무선법은 정부위원회에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방송업자들의 직업적 운명을 좌우하는 전권을 주었고, 동시에 위원회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검열하는 것은 금지했다. 초기부터, 그리고 해가 더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많은 큰 목소리들이 이것은 실행이 불가능한 모순이라고 지적해왔다. 만일 어떤 위원이 방송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자

중 누가 가장 ‘공익’에 충실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신청자가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프로그램의 내용, 본질,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만일 자본주의가 적절한 지적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러한 모순에 가장 큰 목소리로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자유언론을 방어함으로써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검열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리’를 지지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한 자들은 국가통제주의자들이었다. ‘공익’에 대한 기준이 도전받지 않는 한 국가통제주의자들의 논리가 옳았다.

결과는 과연 그랬다(기본원칙의 힘을 한 번 더 나타냈다). 서서히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빠른 단계를 거쳐 위원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미노의 공개협박과 최후 통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수년 동안 암묵적으로 알려져 있던 것을 겉으로 드러낸 장본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검열하지는 않았고 단지 허가를 갱신하는 시기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심리했다. 오히려 (법정에서 폐지될 수 있는) 공개검열보다 더 심한 것을 확립했다.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교활한 불만에 의한 검열censorship-by-displeasure이었는데, 그것은 모든 비객관적인 법률제정의 통상적이고 유일한 결과이다.¹⁾

모든 통신매체는 서로 영향을 준다. 텔레비전과 같은 강력한 매체에 영향을 받은 성격이 뚜렷하지 않고, 유순하며, 두려움이 많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우리 문화의 퇴폐에 공헌한 정

1) *The Objectivist Newsletter*에 있는 나의 글인 "Have Gun, Will Nudge"(March 1962)와 "Vast Quicksands"(July 1963)를 참고하라. 텔레비전 산업의 상태에 관한 그래프식의 보고서로는 *TV Guide*에 있는 Edith Efron의 글인 "TV: The Timid Giant"(May 18, 1963)와 "Why the Timid Giant Treads Softly"(August 10, 1963)를 참조하라.

도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매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한 통신매체의 자유를 파괴할 수는 없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검열이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완전히 인정되면 도서, 잡지, 신문, 강연 등과 같은 다른 매체들도 오래되지 않아 눈에 띄지 않게, 비공식적으로 선례에 따르게 된다. 그 방법은 전과 동일한데, 겉으로는 ‘공약’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보복government reprisals이 두려워서이다(이 과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재산권에 대한 ‘인간’ 권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재산’은 집단주의자가 만들어낸 것이고, 전체로서의 대중은 공공의 ‘재산’을 이용할 수도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은 항상 문자 그대로 박탈당한 프롤레타리아인 대중을 지배할 소수의 도당인 몇몇 정치‘엘리트’에 의해 점거된다. 만일 현실과 집단주의자 이론의 괴리를 측정해보고자 한다면 다음을 자문해보라. 어떠한 상상할 수 없는 기준으로 공중파가 전기의 개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몇몇 무식한 소작인이나 옥수수 위스키 증류기를 따라갈 만큼 충분한 기술력이 없는 시골사람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과학천재의 엄청난 생산물인 방송이 그러한 소유주들의 뜻에 지배되

야 하는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 방송산업의 전체적인 법적 구조의 토대를 이루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덜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 채널은 개인소유권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를 (객관적으로 정의되고, 공개

적이고, 공정한 과정으로) 최고가를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시무시한 ‘공공재산’이라는 가공물을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한 개혁은 하룻밤 사이에 달성될 수 없고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기억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공격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엄청난 고격세유전적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격세유전적atavistic’이라고 말한 이유는 미개한 유목민족이 개인재산, 특히 문명의 시작을 나타내는 토지재산의 개념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기 때문이다. 과학의 위대한 업적으로 열리게 된 새로운 영역을 맞이하여 우리 정치가와 지성인들이 재산권을 고안할 수 없어 미개한 유목민족nomads의 정서로 되돌아가 새로운 영역을 부족의 사냥터로 선언한 것은 비극적인 아이러니이다.

인간의 과학적 업적과 이념적 개발 사이의 괴리는 매일 점점더 넓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과학진보의 모든 단계에서 이념적인 미개 상태로 계속 퇴보한다면 사람들은 과학진보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시점이다.

특허권과 저작권*

아인 랜드

▶ 특허권과 저작권은 모든 재산권의 기초를 법으로 완성한 것들로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생산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형태의 생산적 작업은 정신과 육체노력의 결합, 즉 사고^{thought}와 사고를 물질적인 형태로 전환하려는 육체적 행동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이 두 요소의 비율은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한쪽 말단은 단순 수작업이며, 여기에는 최소한의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말단은 특허권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으로,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 정신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들은 아이디어의 기점^{origination of an idea}이라고 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신적 기여를 보호한다. 특허권과 저작권의 주제는 지적 재산이다.

* *The Objectivist Newsletter*, May 1964.

그러한 아이디어는 물질적 형태를 취할 때까지는 보호될 수 없다. 발명은 특허가 주어지기 전에 물리적 모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이야기가 써어지거나 인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과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물체가 아니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아이디어이다. 허가받지 않고 물체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법은 모방을 하는 육체적 노동은 물체가치의 원천이 아니며, 그 가치는 아이디어의 창시자에 의해 창조되고 그의 동의 없이는 이용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법은 물체를 존재하게 한 정신의 재산권을 확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견에는 특허를 줄 수 없고 발명에만 특허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의 법칙, 원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과학적, 또는 철학적 발견은 발견자의 배타적인 재산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고, 둘째, 만일 그가 그의 발견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발견을 공표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는 사람들이 그의 허락 없이 계속 거짓을 추구하거나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발견을 발표한 책에 대해서 판권을 얻을 수 있고 발견에 대한 그의 원작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명성을 착복하거나 표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론적인 지식을 판권으로 얻을 수는 없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지식의 실용적인 응용과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물체의 창조에만 관계된 것이다. 특허권의 경우 물체는 그것의 특정한 창시자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저작권의 경우 물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선물, 특권, 호의와 같은 의미에서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단지 그것을 보호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아이디어의 창시를 증명해주며 이용과 처분에 대한 소유주의 독점권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신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가 원한다면 그는 아이디어를 싸게 팔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다른 모든 권리를 보호하듯이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재산증서나 표제를 등록하는 것과 형식상 동등함을 나타낸다. 물체에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발명자나 저자가 그의 상품을 상업적 재생산의 용도가 아니고 구매자의 이용용도에 국한시켜 기꺼이 팔겠다고 공시한 것이다.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는 영원히 행사될 수 없다. 지적 재산은 물체가 아니고 물체로 구현된 아이디어에 대한 청구를 나타낸다. 즉 현존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직 창출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며 발명자나 저자의 작업에 대한 지불청구권이다. 어떠한 부채도 만기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없다.

물적 재산은 이미 생산된 재산의 정태적 양을 나타낸다. 그것은 상속인에게 넘겨질 수 있으나 노력하지 않고 얻은 그들의 손에 영구히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상속인은 그것을 소비하거나 그들 자신의 생산적인 작업으로 소유를 지속시켜야 한다. 재산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상속인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같은 양의 노력 없이는 공장이나 광대한 땅의 소유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적 재산은 소비될 수 없다. 그것이 영구히 유지된다면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원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업적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식객parasitism에 대한 지원이 될 것

이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의 생산에 대한 누적적인 선취특권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무력하게 할 것이다. 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서 바퀴의 발명자부터 시작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발명자들의 후손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보라.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손들이 누리게 된 뜻밖의 신분과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청구권의 비현실성을 생각해보라.

물적 재산의 유산은 재산의 정태적 양에 대한 동태적 청구권을 나타내고, 지적 재산의 유산은 생산의 동태적 과정에 대한 정태적 청구권을 나타낸다.

지적 성취는 지성, 능력, 또는 다른 개인적인 특성이 이전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이전될 수 없다. 이전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취의 물질적 형태이며, 실제로 창출된 재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적 재산이 근거하고 있는 권리, 즉 사람의 정신이 만들어낸 생산물에 대한 사람의 권리라는 바로 그 본질에 의해서 권리는 사람과 종말을 함께 고한다. 사람은 그가 알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 즉 4세대나 4세기 이후에나 있을 아직 생산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그의 성취의 결과를 처분할 수 없다.

집단주의의 용어가 어느 정도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특허권과 재산권의 만기문제와 지적 재산은 (‘공공의 범위내에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공공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적 재산은 재산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일 발명품이나 책이 계속적으로 생산되면 그러한 재산의 혜택은 ‘대중’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와 그 아이디어를 새로운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하여 그 아이디어가 계속 존재하게 한 사람들과 같은 정당한 상속인에게로 간

다.

지적 재산권들은 영원히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의 시간제한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다. 만일 창시자의 생존기간으로 그 시간이 제한되면 장기계약이 불가능해져 그것들의 가치가 파괴될 것이다. 만일 어떤 발명가가 그의 발명품이 시장에 나온 지 한 달 뒤에 죽었다면 그 생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제조업자를 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는 장기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더 혁명적이고 중요한 발명일수록 재정적인 후원자를 찾을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다. 따라서 법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정의해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1911년에 나온 영국의 저작권 법Copyright Act인데, 이 법은 저서, 그림, 영화 등 저작권을 저자의 생애와 사후 50년까지로 정했다.

▶ 특허권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특허를 받은 발명품은 종종 그 과학분야에서 더 나은 연구와 개발을 방해하고 제약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특허권은 중복되는 분야를 포함한다. 발명가가 간접적이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발명가의 특별한 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평생 특허권은 발명가의 잠재력, 또는 실제업적을 초월하여 지식의 개발을 방해하는 정당치 못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법적인 문제는 독자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발명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완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많은 다른 법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의 한계는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특허법에 대한 반대로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한다. 두 명의 발명가가 동일한 발명품을 몇 년 동안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한 사람은 한 시간, 또는 하루 차이로 특허출원을 먼저 하여 다른 사람을 눌러 독점권을 얻게 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작업은 그때부터 전적으로 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반대는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이 처음일 수 있지만 그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상업권이기에 때문에 그러한 경우 패배자는 모든 유형의 경쟁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그도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자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상표, 상표명 등을 폐지하는 제안을 통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집단주의자들이 공격하는 특별한 목표는 특허권이다.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공격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인정하는 반면에 집단주의자들은 특허권들이 재산권의 심장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특허권들이 붕괴되면 다른 모든 권리들의 붕괴는 간단한 추신처럼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우리 특허체계의 현상태는 악몽이다. 발명가들의 권리가 많은 비객관적인 법령의 엄호하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침해되고, 잠식당하고, 값어치없고, 방해를 받아 사업가들이 특허받기를 두려워하여 가치 있는 발명품들을 비밀리에 보호하기 시작했다(많은 것들 중의 한 예로 독점금지법에서 특허권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생각해보라).

특허권이 점진적으로 붕괴되어가는 광경(보통사람들이 천재의 업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나의 소설 『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의 제2부 제7장을 끝맺는 글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들 중의 한 명은 “왜

리어던Rearden이 리어던 금속Rearden Metal의 제조를 허가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한 승객이라고 했는가를 이해할 것이다.

12

이론과 실제*

아인 랜드

5 인간증오자

‘보수주의자들’이 이타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만큼이나 고지식하고 자멸적인 오류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타주의altruism는 친절, 자비심,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이다.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생뿐만 아니라 불특정한 ‘공

* 이 두 글은 원래 *Los Angeles Times*, 1962에 실린 Ayn Rand의 칼럼이다.

공필요'에 대한 자기희생을 가르치고 사람을 희생동물로 간주한다.

집단주의자들collectivists이 인류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 자극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자본주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자들의 목표에 이르는 실질적인 길이며, 동일한 목적에 대한 최선의 수단이며, 공공필요에 대한 최고의 '충복'이라고 그들의 적들에게 확신을 준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사회주의화의 피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지 그들은 의아해 한다.

그 누구의 복지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얻어질 수 없으며 인간의 복지는 사회주의자들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다.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결점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의 장점을 미워한다.

만일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몇 가지 예를 생각해보자.

많은 집단주의 역사학자들은 미국헌법의 제정자가 부유한 대토지가여서 그들의 입법동기가 정치적인 이상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미국헌법을 비난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어떤 사람의 이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주의자들 주장의 배후에 있는 도덕성의 본질이다.

미국혁명 이전 수세기의 봉건주의와 군주제를 거치면서 부자들의 이해관계가 착취, 노예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불행에 관여했다. 따라서 부자들의 이해관계가 일반적인 자유, 제약이 없는 생산, 개인권리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회는 인간의 복지가 목표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적인 체제로 환영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주의자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집단주의 이상주의자들이 미국 시민전쟁에 대해 유사한 비난을 했다. 그들은 북군의 동기가 노예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 노동시장을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고 비난했다.

자본주의가 자유 노동시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노예노동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 노예제도를 유지했던 것은 농업을 하던 봉건적인 남군이었다. 자본주의가 19세기에 문명화된 전 세계에서 노예를 일소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노예를 일소했던 것은 산업을 하던 자본주의적인 북군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보다 더 큰 장점이 있는 사회체제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복지가 목표인 사람들이 바라는 고귀한 사회는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이 집단주의자들의 목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만들어왔다.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대조는 마치 우리가 실험실의 실험을 보는 것 같은 최근의 좋은 예이다. 그런데도 가난을 추방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자들이 자본주의를 가장 큰 목소리로 비난한다. 인간의 복지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저개발'국가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들 국가의 대부분은 빈곤하다. 브라질과 같은 몇몇 나라들은 외국투자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국영화한다. 콩고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외국인을 학살한다. 그후에 모든 국가들이 기술자와 자금 등 외국의 도움을 간청한다. 그것이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이타주의의 꼴불견이다.

만일 그러한 나라들이 재산권의 완전한 보호가 있는 자본주의를 확립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들의 문제점은 사라졌을 것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윤을 기대하고 자연자원의 개발에 개인자본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들은 기술자, 자금, 문명의 영향력 및 그러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을 가져왔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타주의자들의 규칙에 따르면 그것은 ‘이기적’이고, 따라서 악이다. 대신에 그들은 세금을 통하여 사람들의 수입을 강탈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리고는 그 돈을 외국에 쏟아붓고는 우리 경제가 매년 침체하는 것을 지켜본다.

다음에 당신이 필수품이나 즐거움과 고된 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사치품을 살 수 없게 될 때, 당신의 어떤 돈이 캄보디아의 폐허가 된 길을 수리하기 위해서나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정글에서 거물big shots역할을 하는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라는 ‘헌신적인’ 작은 이타주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되는지를 자문해보라.

만일 당신이 그것을 중지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타주의는 사랑의 신조가 아니고 인간중요의 신조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집단주의는 어떤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써 희생을 가르치지 않는다. 희생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다. 집단주의자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독립성, 성공, 번영, 행복이다.

희생은 필요가 없으며, 비희생적인 사회가 인간들에게 가능하며, 그러한 사회가 인간의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라는 제안들을 환영하는 그들의 병적인 증오에 주목하라.

만일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정직한 인도주의자가

그것을 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본주의의 존재를 회피하려고 하고, 자본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며, 자본주의의 최후 잔존물까지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인간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그 동기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맹목적인 혼돈

알제리의 현사태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교훈이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데올로기와 대항하여 이념전쟁을 수행해왔다. 그는 정치철학은 무용지물이며 ‘궤변’은 순간의 편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7월 31일, 그는 한 무리의 브라질 학생들 앞에서 ‘진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원칙은 없으며 사회주의를 포함하여 어떤 정치적인 체제도 그 체제가 대중의 ‘자유선택’을 나타내고 있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달 후인 8월 31일, 마치 잘 구성된 연극처럼 역사는 그에게 생생한 해답을 제공했다. 알제리인들은 도시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정부를 원한다!”라고 외쳤다. 그들은 새로운 내전의 위협에 대해 맹렬하게 항의한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 그들은 어떤 정치철학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종적인 문제로 단결했다. 그들은 어떤 강령 때문이 아니고 프랑스의 지배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들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 그들

은 경쟁관계의 종족과 서로 싸우는 무장한 ‘캠프willayas’로 산산조각이 났다.

1962년 9월 2일자 『뉴욕타임스』는 그것을 ‘장래 지도자들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국가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인가? 정치원리가 배제된 경우 정부의 문제는 권력을 획득하고 폭력으로 지배하는 문제이다.

프랑스와 대항하여 싸웠던 다수를 대표하는 알제리 국민들과 여러 종족의 주장들은 승리하기까지 등장하지도 않았던 잘 조직된 소수에게 이양되었다. 그 소수의 지도자는 벤 벨라Ben Bella였고 소련이 무기를 제공했다.

이념이 없는 다수는 무용한 폭도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점령당한다.

이제 브라질인들과 세계를 향한 케네디의 충고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가 선언한 것은 미국의 정치철학이 아니고 무제한적인 다수결원리principle of unlimited majority rule, 즉 다수의 뜻은 전능하기 때문에 다수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다수가 행한 모든 것은 정당하며 실질적이라는 원리이다.

이것은 다수는 소수의 권리에 반하는 투표를 하여 소수가 뭉쳐 다수의 무리가 될 때까지 개인생활, 자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의 소망대로 되지는 않는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들의 소망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이론에 관한 지식과, 또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데는 수세기에 걸친 지적, 정치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서 존 로크John Locke와 미합중국의 헌법제정자들Founding Fathers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확립한 체제는 무제한적인 다수결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고, 다수의 투표나 소수의 구상에 의해 소외될 수 없는 개인권리에 근거했다. 개인이 그 이웃이나 지도자에 의해 좌우되도록 버려지지 않았다.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라는 입헌체제는 개인을 이웃과 지도자들로부터 보호하도록 과학적으로 고안되었다.

이것이 위대한 미국인들의 업적이었고, 만일 다른 국가들의 실제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현재 우리 지도자들의 동기라면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대해 가르쳐왔어야 했던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정치적인 지식은 필요가 없고, 우리 체제는 단지 주관적인 기호preference 문제이며, 부족전제정치, 깡패규칙, 대량 학살 등 어떠한 선사시대의 형태도 우리의 인가와 지원으로 잘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무지한 자들과 반야만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를 획득하는 데 얼마나 많은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알제리 노동자들을 고무시켜 그들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피가 아니고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게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1917년 러시아 농부들은 ‘토지와 자유’를 요구했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레닌Lenin과 스탈린Stalin이었다.

1933년 독일인들은 ‘살아갈 빵’을 요구했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히틀러Hitler였다.

1793년 프랑스인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나폴레옹Napoleon이었다

1776년 미국인들은 ‘인간의 권리’를 선언했고, 정치철학자들의 인

도로 그것을 획득했다.

아무리 정당화된 혁명, 아무리 대중적 인기가 있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정치철학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치이론가들에 의해 창출된 국가로서 역사상 훌륭한 예가 되는 미국은 자신의 철학을 포기해왔고 붕괴되고 있다. 나라가 소위 ‘경제 압력단체’라는 서로 싸우는 부족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가통제주의에 대하여 우리는 소위 ‘보수주의자들’의 쓸모없는 ‘캠프willayas’만 있는데, 그들은 단지 어떤 정치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

알제리가 혼돈의 상태로 붕괴된 것에 분격찬 알제리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은 “우리는 콩고사람들을 비웃곤 했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우리 차례이기도 하다.

13

자유방임*

아인 랜드

10

‘경제성장’은 오늘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정부는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즉 창출되지 않은 부를 지출하면서 이전보다 광범위한 정부통제로 일반적인 번영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방임laissez-faire이란 용어의 어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17세기 프랑스는 절대군주국가였다. 그 나라의 체제는 ‘무질서에

* 1962년 8월 *Los Angeles Times*에 실린 칼럼에 근거함.

의한 한정된 절대주의'로 묘사되어 왔다. 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일, 재산에 대한 전권을 가졌고 정부관리의 부패만이 국민들에게 비 공식적인 자유의 여유를 주었다.

루이 14세는 전형적인 전제군주로 웅대한 야망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의 통치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는 장기에 걸친 성공적인 전쟁이라는 형태로 '국가목표'를 국가에 제공했다. 그는 프랑스를 유럽의 지도국가와 문화의 중심지로 확립했다. 그러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돈이 필요했다. 루이 14세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가를 만성적인 위기상태로 몰고 갔는데, 이를 전례없이 높은 세금으로 국민을 짜내는 아주 오랜 편법으로 해결했다.

루이 14세의 고위자문관인 콜베르Colbert는 근대 국가통제주의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부규제는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통해 높은 조세수입이 얻어진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산업장려를 통한 부의 일반적인 증가'를 찾는 데 헌신했다. 산업장려는 무수한 정부통제와 기업활동을 질식시키는 사소한 규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콜베르는 기업의 적이 아니었다. 우리의 현정부만이 기업의 적이다. 콜베르는 희생제물의 살을 찌우기 위해 열심히 도왔다. 그리고 어느 역사적으로 유명한 시점에서 그가 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를 제조업자들에게 물어보았다. 레장드Legendre라는 제조업자가 “내버려두라Laissez-nous faire(Let us alone)”라고 대답했다.

확실히 17세기 프랑스 기업인들은 20세기 미국 기업인들보다 더 많은 용기를 가졌고 경제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정부의 박해만큼이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고, 국가번영에 정부가 서비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을 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제트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17세기 사람들은 마차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17세기에 진리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는 분칠한 가발과 후프 치마hoop skirts(버팀대로 받쳐서 펼친 스커트:역주) 대신 방수외투나 바지를 입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필요로 했지만 우리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는 천박함, 즉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생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었다.

본질적인 것을 고려해보자. 만일 정부통제가 산업 이전 시대에 단지 마비상태, 기아, 붕괴만을 초래했다면 고도로 산업화된 경제에 정부통제가 가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수직기手織機와 대장간의 운영과 제철소, 비행기공장, 전자관련 제품의 운영 중 어느 것이 관료들이 규제하기 쉽겠는가? 단순 수작업을 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무리와 산업문명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창조적인 천재성을 가진 무한한 개인들 중 누가 강압하에서 일을 하겠는가? 만일 정부통제가 산업 이전 시대에서조차 실패했다면 근대의 국가통제주의자들이 고도 산업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은 어느 정도겠는가?

국가통제주의자들의 인식론적인 방법은 하나의 문제, 구체적인 문제, 문맥이 맞지 않는 문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끝없는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것들을 결코 통합하지 못하며 결코 기본원리나 궁극적인 결과를 참고로 하지 못하여 그들 추종자들의

지적 분열상태를 유발시키고 있다. 불명확한 용어verbal fog를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 근본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는 것이다. 첫째는 생산과 번영은 인간지성의 산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 권력은 폭력에 의한 강제력이라는 것이다.

■ 일단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의 유도는 피할 수 없다. 그 하나는 지성은 강압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마음은 무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비교적 사소하고 지엽적인 고려사항들이다.

한 나라 경제에서 세부적인 것은 현존하는 많은 문화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동일한 기본적인 원리의 실제적인 표출이다. 인류의 번영, 업적, 진보의 정도는 정치적 자유의 정도의 직접적인 함수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그 예로 고대 그리스, 문예부흥기, 19세기를 들 수 있다.

지금 시대에 서독과 동독의 차이는 더이상의 토론이 필요없는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와 통제된 경제의 효율성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그러한 극명한 대조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거나, 그 의미에 해답을 주지 못하거나,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그 교훈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론가는 사려깊은 이론가가 될 자격이 없다.

이제 ‘사회주의의 평화로운 실험’이며 투표로 자멸한 국가의 예인 영국의 파멸을 생각해보자. 폭력, 유혈참사, 테러가 없었고 ‘민주적으로’ 가해지는 정부통제라는 목을 조르는 과정만이 있었지만 현재 영국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특히 과학자나 기술

자들이 영국을 버리고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든지 조그만 자유라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베를린 장벽이 동독으로부터의 ‘두뇌유출’을 중지시키기 위해 건설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45년 동안 완전한 통제경제를 실시한 소련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을 먹여살릴 수 없어서 반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워너 켈러Werner Keller의 『동구 마이너스 서구는 제로East Minus West=Zero』¹⁾라는 책을 읽어 보라. 소련경제의 무력함에 대한 사실적이고 이의가 없는 그림을 본 후 자유와 통제의 문제를 판단하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부^富는 먼저 창출되어야 한다. 경제학에 관한 한 콜베르와 존슨Johnson 대통령의 동기에는 차이가 없다. 둘다 국가번영을 달성하기를 원했다. 세금으로 강탈한 재산이 루이 14세 개인을 위해 유출되든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든 국가의 경제생산성에는 차이가 없다. 어떤 사람이 ‘고귀한’ 목적이나 천한 목적에 속박되든, 가난한 자나 부자를 위해 속박되든,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탐욕’을 위해 속박되든 일단 속박되면 그 사람은 생산을 할 수 없다.

속박에 대한 정당성에 관계없이 모든 통제된 경제의 궁극적인 운명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정당성의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

‘소비자 수요’의 창출? 부수입이 있는 가정주부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트농 여사Madame de Maintenon와 그녀의 수많은 동료들이

1) New York: G. P. Putnam's Sons, 1962.

말하는 ‘소비자 수요’와 일치하는지 계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재산의 ‘공정한’ 분배? 루이 14세로부터 특혜와 총애를 받은 사람들보다 빌리 솔 에스테스Billie Sol Estes나 보비 베이커Bobby Baker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변형인 ‘연고귀족aristocrats of pull’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불공정하게 유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

‘국익’의 필요? 만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국익’ 같은 것이 있다면 루이 14세는 최고의 행동을 한 셈이다. 그의 사치의 많은 부분은 ‘이기적’이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를 국제적인 힘을 가진 주요국가로 건설했으나 경제는 파멸로 이끌었다(즉 그는 복지, 미래, 자기국민들의 삶을 지불한 대가로 전체주의 지배자들 중에서 ‘명성’을 얻었다).

우리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진보의 촉진? 정부보조의 연극 프로젝트가 ‘예술인’(코르네이유Comeille, 라신Racine, 몰리에르Molière 등)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한 루이 14세 법정의 지원을 받은 것과 비교할 만한 천재들을 만들어낼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술에 대한 정치적 후원자가 요구하는 관변예술art of bootlicking을 배우기를 거부하면서 그러한 체제하에서 사라진 사산아가 된 천재를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동기가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국가생산성과 번영을 위한 최고의 필요조건은 자유이다. 인간은 강요와 통제하에서는 생산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경제문제에 대해 전혀 새로운 것이나 불가사의한 것은 없다. 콜베르와 같이 존슨 대통령은 여러 경제단체에게 호소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해줄지 자문을 구하고 있다. 만일

그가 콜베르와 유사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에게 ‘규제완화decontrol’라는 한 단어로 된 불후의 충고를 해줄 현대판 레장드의 목소리에 주의하면 될 것이다.

제2장

현재상황

Current State

타협의 해부*

아인 랜드

곧 다가올 구체적인 순간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위축되는 것은 인간이나 문화의 지적, 도덕적 분해의 중요한 징후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 과정이나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추리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의 분해는 원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나타난다.

원리principle는 “다른 진리들이 종속되어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일반적인 진리이다.” 따라서 원리는 많은 구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어느 특정한 순간에 구체적인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은 원리밖에 없다.

원리가 대중들의 토론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며, 허황된 순간의 이익과 미래를 바꾸면서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 옥신각신 다투는 가족의 치사하고 분별력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문화적 품격이 떨어진 것을 보면 우리 문화의 현상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더욱 이상한 것은 옥신각신 다툼haggling은 누군가가 그 누구와 (타협해야 할 이념은 제외하고) 모든 것을 타협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주장의 형태를 띤 병적인 자기정당화와 ‘실용성practicality’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호소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실용적인’ 사람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것은 없다. 실용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예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

*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4년 1월.

다. 만일 당신이 LA에서 뉴욕까지 자동차로 가기를 원한다면 지도를 참고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만일 당신이 임의대로 시작해서 순간의 분위기와 날씨에만 의존하면서 아무 방향이나 아무 길을 따르면 훨씬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방법에 의하면 당신은 결코 뉴욕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코스과 관계된 이 사실은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생활과 그들 국가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엄청난 규모의 무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견해를 제공해주는 철학이다. 근대철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식의 개념적 수준에 대해 일치된 공격(이성, 추상화, 일반화, 그리고 지식의 통합을 무효화하는 일련의 시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리의 본질, 기능, 또는 실제적 적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며, 야만인의 인식을 가진 무력한 상태로 수십 년 전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잡한 산업문명의 일상생활(모색, 투쟁, 실패, 포기, 파멸, 자신들의 파괴자에 대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당황하게 하는 많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중모색해 왔다.

따라서 그러한 자살적인 과정을 계속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원리가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준칙과 원리와 목표와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준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 열거된 세 가지 준칙은 결코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광범위한 주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첫걸음이다.

1. 동일한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있는 두 사람(또는 두 그룹) 사이의 갈등에서는 승리하는 쪽이 더 일관성이 있다.

2. 상이한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있는 두 사람(또는 두 그룹) 사이의 협력에서는 승리하는 쪽이 더 나쁘거나 비합리적이다.

3. 상반된 기본원리들이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정의될 때는 합리적인 쪽에 이익이 된다.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숨겨지거나 회피될 때는 비합리적인 쪽에 이익이 된다.

1. 두 사람이(또는 두 그룹이) 동일한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있지만 어느 주어진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그 둘 중 어느 한 쪽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원리는 장기적인 행동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달성해야 할 목적에 대해 더 명확하고 일관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그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더 일관성이 있고, 또한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의 모순점들은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그와 반대하는 자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승인하고 추진할 것이지만 강력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없어 서로 다투고 있는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자신은 소심하고 회피한다는 느낌을 주어 망신을 당하는 반면에, 그의 반대자는 더 정직하고 용기 있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어 반대자의 승리를 시인하고 도와주고 재촉할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취하는 모든 단계와

조치들은 (목표가 거절되거나 기본원리가 바뀌지 않는 한) 동일한 방향으로 한층 심화되고 중요한 단계와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일관성 있는 사람의 지도력을 강하게 하고 일관성 없는 사람의 지도력을 무력하게 한다.

두 적대자가 공유한 기본원리가 옳든 옳지 않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관계없이 갈등은 그러한 과정에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을(그리고 같은 당내에서도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갈등을) 생각해보자. 두 당이 모두 이타주의를 기본적인 도덕원리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둘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로 복지국가와 혼합경제를 지지한다. 경제에 가해진 모든 정부통제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든지 관계없이) 최초의 통제로 야기된 재난을 순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또다른 통제를 필요로 한다. 민주당은 정부권력의 증대에 더 일관된 자세를 취해왔으므로 공화당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음me-too'ing'과 민주당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을 서투르게 표절하는 것으로 전략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주장 속에 민주당과 '동일한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수치스러운 고백으로 전략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들(이타주의-집단주의-국가통제주의)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당도 그러한 목적들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원리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논리는 그들을 점점더 좌익으로 끌고 갈 것이다. 만일 '보수주의자들'이 전부 게임에서 축출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동일한 갈등이 '자유주의자'와 자칭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계속될 것이다. 사회주의자가 승리할 때 갈등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에서 계

속될 것이다. 공산주의자가 승리할 때 전인류의 희생이라는 이타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기본원리를 바꾸지 않고는 그러한 과정을 중지하거나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한 과정의 증거는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경솔한 사람들이 '역사적 필요'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힘이 알 수 없는 수단과 불명확한 방법으로 인류를 공산주의의 깊은 구렁으로 파멸시키도록 미리 정해놓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숙명적인 '역사적 필요'는 없다. 세계의 사건들을 이동해다니는 '신비로운' 힘은 인간원리의 위대한 힘인데, 그것을 '무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교육을 받은 '실용적인' 근대의 야만인들에게 그 원리가 신비롭게 보인다.

그러나 혼합경제의 지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데, 그들이 혼합한 것들 중 왜 비합리적인 것만 승리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 다음 사실을 고려해보자.

2. 상이한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있는 두 사람(또는 두 그룹) 사이의 협력에서는 승리하는 쪽이 더 나쁘거나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것들, 즉 원리, 전제, 아이디어, 정책, 또는 행동은 현실의 사실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것은 사실들을 부인하고 피하려고 한다. 협력은 과업의 공동인수이며 공통된 행동이다. 합리적인(선한) 것은 실패와 범죄를 공유하는 것 외에는 비합리적인(악한) 것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비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업적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모든 것을 얻는다. 사업가가 성공하기 위하여 강도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 강도는 존재하기 위

해서 사업가의 업적을 필요로 한다. 둘 사이에 어떤 협력이 가능하며 무슨 목적으로 협력할까?

만일 어떤 개인이 혼합된 전제를 견지하고 있다면 그의 악이 그의 선을 잘라내고, 방해하고, 쳐부수고 궁극적으로 파괴한다. 때때로 도둑질하는 정직한 사람의 도덕적 상태는 무엇인가? 동일한 방법으로 만일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혼합된 목표들을 추구한다면 나쁜 원리가 좋은 원리를 몰아낸다. 때때로 시민의 권리를 위반하는 자유 국가의 정치적 상태는 무엇인가?

동업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일 한 파트너는 정직하고 다른 파트너는 사기꾼이라면 후자는 사업의 성공에 전혀 공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자의 명성이 희생자들의 적의를 없게 하여 사기꾼에게 그 스스로는 얻을 수 없었던 큰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제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 있는 공산주의 독재정권과 반자유 국가의 협력을 생각해보자. 그러한 제도를 밝혀내는 것이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라서 그 어떤 비판도 필요없다. 국제연합은 평화, 자유, 인권을 위한 제도인데 가장 잔인한 공격자이며, 가장 피비린내 나는 독재정권이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학살과 대량 노예화의 국가인 소련을 회원국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에는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사실을 경감할 수 없다. 그 제도는 이성, 도덕성, 문명에 대한 아주 나쁜 모욕이어서 결과를 잠깐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더이상의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

심리적으로는, 국제연합은 서구를 삼키고 있는 타락(냉소, 신랄함, 절망, 두려움,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의 회색지대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세계는 서구로부터 도덕적 승인과 존경을 얻었고, 희생자들을 속이는 데 서구의 도움을 받았고, 동등한 파트너라는 지

위와 명성을 얻어 인권과 대량 학살은 단지 정치적 견해차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선언하는 목표는 세계의 정복이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와 협력하여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의 물질, 재정적, 과학적, 지적 자원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에 가능한 공동의 정책이나 타협의 유일한 형태는 재산소유자들이 무장한 살인청부업자에게 자기들을 약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정책이다.

국제연합은 소련이 무력으로 정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넓은 지구의 땅과 인구를 소련의 권력에게 양도해왔다. 카탕가Katanga에 대한 처리와 헝가리Hungary에 대한 처리는 국제연합 정책의 충분한 예이다. 침략자를 저지하기 위해 세계의 연합된 힘을 사용할 목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약소국가를 침략자들의 권력에 항복하도록 세계의 연합된 힘을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협력의 실험’에서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는 야만인들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 말고 누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지역사회에서 선두주자에 있는 깡패들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대책위원회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단지 기본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다음은 왜 그런지를 나타낸다.

3. 상반된 기본원리들이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정의될 때는 합리적인 쪽에 이익이 된다.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숨겨지거나 회피될 때는 비합리적인 쪽에 이익이 된다.

어떤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쪽은 그들의 목표를 이해시켜야 한다. 현실은 합리적인 쪽과 관련이 있어서 숨길 것이 없다. 비합리적인 쪽은 목표를 속이고, 혼돈시키고, 회피하고, 숨겨야 한다. 혼미, 암흑, 맹목은 이성의 도구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오로지 비합리성의 도구들이다.

사고, 지식, 일관성은 파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끊임 없는 사고, 거대한 지식, 잔인한 일관성은 창조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모든 오류, 회피, 모순은 파괴의 목표에 도움이 된다. 단지 이성과 논리만이 건설의 목표를 전진시킨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지, 무능력, 비합리성을 필요로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지식, 효력, 사고를 필요로 한다.

악의 확산은 공허함의 징후이다. 악이 승리할 때는 언제나 기권승이다. 즉 기본원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실패에 의해서만 악이 승리한다.

“음식물과 독약 사이의 타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선과 악의 타협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악뿐이다.”(『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

15

지성인들의 파업*

아인 랜드

* 1964년 4월 19일 보스턴의 Ford Hall Forum에서 한 강연.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4년 8월에 발표됨.

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신문을 읽으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이 당신이 책에서 다룬 사건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의 말이 맞다. 아니 더하다.

세계의 현재상태, 오늘날의 정치적 사건들, 제안들, 아이디어들은 신기할 정도로 비합리적이어서, 나나 다른 그 어떤 소설가도 그것들을 소설화시킬 수 없다. 그 누구도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 소설가가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단지 정치인만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상상할지 모른다.

『지성인들의 파업』의 정치적 면은 소설의 주제가 아니라 소설주제의 결과들 중의 하나이다. 주제는 인간존재에서의 지성인의 역할이고, 부제는 합리적 사리추구의 도덕성이라는 윤리학의 새로운 규칙의 발표이다.

『지성인들의 파업』의 이야기는 모든 합리적 노력의 창시자이고 혁신가인 지성인들이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사회에 대항하여 파업하고 자취를 감추어버릴 때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준다.

『지성인들의 파업』에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두 개의 중심 문구가 있다. 첫번째 문구는 존 갈트John Galt의 말이다.

II

인류역사상 결코 파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소. 모든 다른 종류나 계급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만두었고, 그들이 필요한 존재라고 세계에 대해 요구해왔소.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세계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고통을 유일한 대가로 여기고 참으면서 결코 인류를 저버리지 않았소. 자, 이제는 그들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이 논의의 주제는 나의 소설 『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1957년에 출간된 아인 랜드의 대표적인 소설로, 원래 아틀라스Atlas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지성인들을 총칭한다: 역주)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과 오늘날 세계의 실제사건들과의 관계이다.

또는 내가 종종 듣는 질문형태로 나타내보자.

“『지성인들의 파업』은 예언적 소설입니까? 아니면 역사적 소설입니까?”

1) 질문의 두번째 부분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만일 사람들이 『지성인들의 파업』이 역사적 소설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지성인들의 파업』이 성공적인 예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문제의 진실은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낼 수 있다. 비록 『지성인들의 파업』의 정치적인 면은 그 소설의 중심 주제도 아니고 주요 목적도 아니지만 그 소설을 쓰는 동안 이러한 면에 관한 나의 태도는 나 스스로가 설정한 ‘이 책의 목적은 이 책이 예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간단한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소설은 1957년에 출간되었다. 그 이후로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많이 받았고 많은 논평들을 들었다.

“내가 『지성인들의 파업』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당신이 과장하

의 차례가 왔소.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그들이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계가 알게 합시다. 타가트Taggart양! 이것은 지성인들의 파업이오.

두번째 구절은 소설의 제목을 설명한다.

프란시스코Francisco는 엄숙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어던 Rearden씨! 만일 당신이 아틀라스Atlas, 즉 세계를 그 어깨에 지고 있는 거인을 본다면, 만일 그가 서 있는데 피가 그의 가슴으로 흐르고, 그의 무릎은 구부러져 있고, 그의 팔은 떨고 있지만 아직도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 세계를 높이 들려고 하며, 그가 노력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소?”

“나는…… 잘 모르겠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소?”

“내던져버려라.”

『지성인들의 파업』의 이야기는 근본적인 두 적대자의 갈등, 철학에서 정반대인 두 학파의 갈등, 인생에 대해 정반대인 두 태도의 갈등을 나타낸다. 나는 그것들을 간단하게 나타내어 ‘이성-개인주의-자본주의 축’ 대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 축’이라고 부르겠다. 우리시대의 기본적인 갈등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갈등뿐만 아니라 도덕 및 철학적 갈등이며, 우리시대의 지배적인 철학은 이성에 반(反)하는 적의에 찬 반란이며, 소위 재산 재분배는 단지 신비주의-이타주

의-집단주의 축의 표면적인 표현이며, 그 축의 본질과 은밀하고 극적인 의미는 반인류, 반지성, 반인생이라는 것을 소설은 말하고 있다.

당신은 내가 과장했다고 생각하는가?

『지성인들의 파업』을 쓰는 동안과 그 이후에도 나는 공식적으로 ‘연구, 또는 서류파일’이라고 불러야 할 파일을 간직했다. 나 스스로는 그것을 ‘공포파일’이라고 불렀다. 그 파일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1959년 6월 웨슬리언대학Wesleyan University의 동문-교수 세미나에서 “이성의 불신The Distrust of Reason”이라는 제목이 붙은 현대사상의 한 예가 제시되었다.

아마 장래에는 이성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인간의 사고가 아니고 고통을 이기는 인간의 능력을 안내자로 여길 것이다. 사상을 가진 대학들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장소나 사람들, 보호시설과 집중훈련 캠프의 수용자들, 관료주의에 빠진 무능한 의사결정자들과 참호 속의 무능한 군인들 등 이러한 사람들이 인류의 길을 밝힐 사람들이고 재난에 대한 그의 지식을 개조하여 창조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낼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영웅은 아이작 뉴튼Isaac Newton이나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같은 지적 거인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상보다는 위대한 기적을 보여준 앤 프랭크Anne Frank와 같은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하며, 악 속에서 어떻게 선을 창조하며, 죽음에 직면하여 어떻게 사랑을 교육하는지를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대학은 아직 그 역할이 있을 것이다. 지적인 사람들조차 창조적

고통의 예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이것이 흔하지 않은 예외이고 이상한 극단이라고 생각하는가? 1963년 1월 4일자 『타임Time』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실었다.

두뇌와 성적이 아니고 ‘사회에서의 궁극적인 성과’가 최고 수준 대학의 입학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하버포드Harverford 학교 교장인 레슬리 시버링하우스Leslie R. Severinghaus가 말한다. 교육계 저널인 대학입학 상담역 연합회지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dmissions Counselors에서 그는 ‘아주 지적이고, 공격적이며, 개인적으로 야망이 있고, 사회에는 무관심한 이기주의자’에 대해 경고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총명한 학생들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내놓을 것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다른 좋은 품성을 가진 학생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누가 두뇌와 동기부여에 의한 성과가 탁월함의 일면을 나타낸다고 했는가? 사회적 관심은 탁월함의 일면이 아닌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입학지원자를 발견하는 것은 흥분할 일이 아닌가? 지도력은 어떤가? 성실성은? 아이디어와 우호관계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인 열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약간 희생하면서도 선한 동기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무시해야 하는가? 호의와 관대함은?” 이러한 것 중 그 어떤 것도 대학 입학시험 성적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시버링하우스는 비난한다. “대학은 이러한 유형의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만일 당신의 남편, 부인, 또는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희생한 의사의 ‘사회적 관심’이나 ‘호의’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만일 우리나라가 핵파괴의 위협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과학자의 지성과 야망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정신적 열망’과 ‘우호관계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는가?

그런 종류의 문구는 극도로 과장된 풍자극farce-satire의 주인공도 입에 담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무나 터무니없고 이상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데도 문명사회라는 곳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말하고 듣고 논의한다.

당신은 이런 이론들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는다고 믿고 싶은가? 1960년 2월 18일자 『로체스터 타임스 유니온Rochester Times Union』에 실린 「우리의 인재는 고갈되고 있는가Is Our Talent Running Out?」라는 기사를 인용해보자.

이 위대한 나라에서 인재가 고갈되고 있는가?

역사상 러시아와 미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시점에서 이 나라가 두뇌집단의 부족으로 러시아에 뒤지고 있는가?

뉴욕시에 있는 미국 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의 인류학과 과장인 해리 라이오넬 샤피로Harry Lionel Shapiro 박사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능력 있는 자의 공급이 고갈되고 있다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의업醫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한다”라고 말한다. 성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의대생들은 10년 전의 의대생들보다 열등하다는 연구가 있다.

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변인들은 이 현상을 우주시대에 공학과 다른 기술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사피로 박사는 “이것은 보편적인 불평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인류학자인 사피로 박사는 아드슬리 온 허드슨Ardsley-on-Hudson의 과학자그룹을 대상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 이 그룹은 2주 동안 25명의 과학자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엔지니어, 물리학자, 기상학자 및 많은 다른 과학자로부터 동일한 한탄을 들었다.

그들 분야에서 저명한 대변인들인 이 과학자들은 이 문제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나라 최고 과학자 중의 한 사람이며 뉴저지주 머레이 힐Murray Hill의 벨연구소Bell Telephone Laboratories 연구담당 부회장인 윌리엄 베이커 William O. Baker 박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구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에 의존하지 많은 돈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는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늘려왔으나 연구결과는 ‘만일 그것들이 내리막이 아니라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베이커 박사는 주장했다.

미국 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의 홍보담당 이사인 유진 콘 Eugene Kone씨는 물리학에서 “우리는 1등급의 사람들을 어디에서든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학인력위원회Engineering Manpower Commission의 부회장인 시드니 인그램Sidney Ingram 박사는 현상황이 “서구문명사에서 참으로 독특하다”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이야기가 신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 일반대중에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근심의 첫번째 징후를 반영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이 너무나 명백해서 더이상 숨길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신문의 머릿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영국인들은 그것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고 부른다.

5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파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존 갈트가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는 역사를 통해 행해져왔던 계획과 의도대로 해왔다.” 그리고 그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성이 심리적으로 전제정치에 대항하여 파업하고, 신비적·이타적·집단적 사회를 저버리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열거한다. 당신은 대그니Dagney가 갈트를 만나기 전에 한 갈트에 대한 묘사를 기억할 수도 있다. 나중에 갈트는 그녀에게 ‘세계의 두뇌를 유출시키는 사람The man who’s draining the brains of the world’이라고 되풀이한다.

나는 영국인들이 나의 말을 표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이 『지성인들의 파업』을 읽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일한 현상에 직면하여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암중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4년 2월 11일자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보자.

노동당은 정부에 대해 여기서는 ‘두뇌유출’로 알려져 있는 영국 과학자들의 미국이주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의 행동은 아이언 부시Ian Bush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버밍햄대학Birmingham University을 떠나

매사추세츠주 스류버리Shrewbury에 있는 워체스트 실험생물재단Worcester Foundation for Experimental Biology으로 가는 것을 발표한 후에 나왔다.

35세인 부시 교수는 버밍햄대학의 생리학과를 이끌고 있다. 9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그의 팀은 약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연구해왔다.

오늘밤 물리학의 선두주자인 모리스 프라이스Maurice Pryce 교수와 최고의 암연구 병리학자인 레오너드 와이스Leonard Weiss 박사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의 과학대변인인 톰 달엘Tom Dalyell씨는 수상인 알렉 더글러스 홈Alec Douglas-Home 경에게 ‘영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학인력의 훈련, 모집, 보유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만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영국의학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회장인 조지 피커링George Pickering 경은 부시 교수의 결정을 ‘비극적’이라고 했다. 그는 부시 교수를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 가장 총명한 학생이며, 내가 만난 가장 총명한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했다.

2월 12일자 『뉴욕타임스』를 인용해보자.

오늘 최고의 이론물리학자가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말하자 영국이 과학인재를 잃는 것에 대한 흥분이 최고도에 달했다.

국립 물리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 기초물리분과의 감독자인 존 앤소니 포플John Anthony Pople 박사는 한 달내에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기술연구소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신문은 지난 주말 이후 13번째 이주를 머리기사로 다루었다. 한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또 한 명의 두뇌가 유출됨’이라고 적고 있다.

2월 13일자 『뉴욕타임스』도 살펴보자.

영국으로부터 최소한 5명 이상의 과학자 이주가 임박했다는 오늘의 발표로 인해 영국은 새로운 걱정을 하면서 탈출의 근본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이 기사에서 영국을 떠날 두 명의 과학자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한 명은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에 있는 34세 된 해부학 부교수인 레이 길레리Ray Guillery이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대학의 39세 된 생화학 조교수인 에릭 슈터Eric Shooter이다.

다음은 2월 16일자 『뉴욕타임스』의 인용이다.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이주열풍이 불고 있는 영국에서 국가는 다시 탈출의 원인을 찾고 있고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 과학자들의 이주를 나타내는 ‘두뇌유출’은 이제 새롭지 않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대학, 교육 및 연구기관들이 영국으로부터 과학인재를 끌어가고 있다.

대학교원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에서 발행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영국은 160명의 상위직 대학교수들을 잃었는데 그 중 약 60명이 미국으로 갔다…….

왕립학회Royal Society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영국의 과학자들이 매년 최소한 140명씩 영국을 영구히 떠나고 있다.

이것은 영국이 배출하는 과학자의 약 12퍼센트에 달할 것이다.

영국을 영구히 떠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지급해주는 연구 장비와 인력에 필요한 기금을 본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받는 것의 두 배 내지 세 배에 해당하는 봉급과 과학적 노력 및 업적에 대해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높은 관심에 매료되었다고 솔직히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의 상위직 부족, 영국에서 연구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 모든 대학보조금에 대한 재무부의 치사한 통제력을 불평한다.

영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어떠한 지적인 눈인들이 과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제안되고 있는가? 교육과학장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cience인 키킨호그Quintin Hogg는 고국에 남아 있어달라고 과학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했다. “영국인이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이다. 초기의 기사(1963년 10월 31일자 『뉴욕타임스』)는 “각료인 버크 트렌드Burke Trend 경이 이끄는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영국의 민간과학civil science 조직을 재조정하고 과학대신Minister of Science에게 증대된 힘을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기술했다(고딕체는 저자가 삽입한 것임).

물론 미국인의 부와 대기업에 대해 명시적인 분개와 암묵적인 분개가 많이 있는데, 영국인들이 과학인재들의 이주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는 것과도 같다.

이제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당신이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이름이 언급된 과학자들의 나이와 직업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30대이고 이론의학과 관련이 있다.

의료사회화socialized medicine는 영국 정치체제하에서 확립된 제도이다. 의료사회화 제도하에서 총명한 젊은이들이 미래에 무엇을 획득할 수 있겠는가? ‘두뇌유출’의 원인과 복지국가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의 미래복지와 인간생존에서 지성인의 역할에 대해 당신 자신의 결론을 끌어내보라.

다음에 영국과 유럽의 다른 복지국가에서 의료사회화 제도의 성공에 관한 보고서(한치 앞만 보며 가정의family doctor의 성실한 효율성에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상적이고 고착화된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에 의한 보고서)를 읽을 때 가정의의 효율성, 지식, 힘의 원천은 이론의학의 연구실에 있으며 그 원천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한 나라가 의료사회화 제도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가격이며 계획입안자의 비용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머지않아 현실화될 가격이다.

현재 우리는 집단주의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에서 영국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뒤쳐져 있지는 않다. 근년에 우리의 신문들은 의과대학의 등록상태에 관한 걱정스러운 보고들에 대해 언급해왔다. 의과대학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 때문에 최고의 학교성적을 가진 능력 있는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오늘날 지원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곧 지원자 수가 우리 의과대학의 정원보다 적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인 의료사회화 제도의 증가, 이 나라에서의 의료보험Medicare(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운영 프로그램 : 역주), 사스카치완Saskatchewan에서 발생한 캐나다 의사들의 파업, 벨기에에서 발생한 의사들의 최근 파업 등을 생각해보라. 모든 경우에 대

다수의 의사들이 의료사회화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사실과 복지국가통제주의자들의 도덕적 식민주의는 무력으로 의사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라. 벨기에에서는 특히 유별났는데, 의사들의 영업을 재개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군대로 징병하는 노골적이고 나치와 같은 군국주의적 조치를 취한 자칭 ‘인도적인’ 정부 때문에 수천 명의 의사들이 몰래 나라를 떠났다.

이것을 생각하고 『지성인들의 파업』에 나오는 외과의사로서 의료사회화 제도에 항의하여 파업을 했던 헨드릭스Hendricks 박사의 성명서를 읽어보라.

“나는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의 일을 통제하고, 나의 의지를 강압하고, 나의 양심을 모독하고, 나의 마음을 질식시키는 권리를 주장하며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의지하고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언제 그들이 나의 수술대에 누울지 의아해 해왔다.”

그것이 벨기에의 이타주의적 노예추진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다. 다음에 당신이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논의를 듣게 될 때 미래를 생각해보라. 특히 최고로 우수한 두뇌들이 더이상 의사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당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라.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해적으로 나오는 라그나 데네스콜드Ragnar Danneskjöld는 “필요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성한 이상이며, 어떤 사람들의 필요는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단두대의 칼이며, 우리 능력의 정도는 우리 위협의 정도여서 실패하면 밧줄을 당기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성공하면 머리를 단두대 위에 처박아야 하는 아이디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타주의 도덕성의 본질이다. 어떤 사람의 업적이 커서 그에 대한 사회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그가 받는 대우는 더 나빠지고 그는 희생제물의 상태에 더 가까워진다.

우리에게 생계수단, 일자리, 노동절약적 고안물, 근대화된 안락함, 계속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해주는 사업가는 사회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 축으로부터 증오받고 비난받고 착취당한 최초의 희생자였다. 의사가 다음 차례이다. 의사들의 서비스는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여 오늘날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이타주의자들의 공격목표이기 때문이다.

사업가들의 현재상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보자. 『지성인들의 파업』을 탈고한 후 나는 기술적인 점검을 받기 위해 그것의 교정쇄 galley-proofs를 철도전문가에게 보냈다. 그가 그것을 읽고 난 후 내게 한 첫번째 질문은 “당신이 발명한 모든 법과 명령은 우리의 법령집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였다. 나는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독자들이 깨닫기를 나는 원한다. 나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시대와 어느 나라에서든 정부통제와 국가통제주의자의 입법의 본질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용어로 나타냈다. 그러나 『지성인들의 파업』에 나타나 있는 ‘기회균등법’이나 ‘명령 10-289’와 같은 모든 칙령과 명령의 원리들은 우리의 독점금지법에서 조잡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

비객관적이고, 정의할 수 없고, 재판할 수 없는 법령의 모음집에서 당신은 능력 있는 자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능력의 변형, 성공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성공의 변형, 질투심이 강한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생산적인 천재를 희생시키는 모든 변형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대기업의 강제적인 와해나 자회사와의 ‘결별’(이것이 나의 ‘기회균등법’이다), 새로운 사업가들이 창출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설비들을 새 사업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존회사들에 대한 강제, 강제적인 허가, 또는 특허의 완전한 몰수, 그리고 희생자들이 그들 자신의 경쟁자들에게 이러한 특허들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치도록 하는 명령과 같은 지배들을 발견할 것이다.

『지성인들의 파업』에 나타난 사회분해의 수준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국가통제주의자들이 아직은 그들의 전권을 이용하여 독점금지법을 과감하게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있고 그 적용범위가 매년 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마 『지성인들의 파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소개했던 ‘철도통합계획’과 ‘제철통합계획’에 필적할 만한 것들이 현실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건의 논리적 전개에 따라 사회붕괴의 최종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 그것들을 발명했다. 이 두 가지 계획은 강제적으로 ‘공동출자’를 하도록 하는 수단에 의해 산업계 최강자의 비용으로 최약자를 도와주는 전형적인 집단주의자들의 고안물이었다. 나는 이러한 계획들이 이 시대보다 약간 앞서간다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1964년 3월 17일자 기사를 인용해보자.

세 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연방정부로부터 현존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경쟁적 불리함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텔레비전 방송국들에게 각각 프로그램의 일부를 양도하는 시안을 고려해보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토의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은 현재 하나의 방송사와 가맹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방송국들에게 강제적으로 다른 방송사와의 가맹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방송산업에서 사실상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은 주말에 콜롬비아 방송국Columbia Broadcasting System(CBS)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연방통신위원회F. C. C. 제안의 배후에 있는 생각은 기존의 극초단파 ultra-high frequency(U. H. F.) 방송국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청취자를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원을 보장해줌으로써 추가적인 새로운 방송국의 개국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통상적으로 더 강력한 초단파very-high frequency(V. H. F.) 방송국을 선호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안하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두 개의 V. H. F. 방송국과 한 개의 U. H. F. 방송국으로 분할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의 정당성은 ‘경쟁 불균형competitive imbalance’을 수정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이제 노동분야의 현재상태를 살펴보자.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나는 수송능력이 대단히 부족한 시기에 원동력, 궤도, 연료의 부족 때문에 이 나라의 철도회사들은 낮은 속도로 짧은 기차를 운행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철도회사가 사라져가고 대부분의 철도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는 시기에 철도조합은 ‘과잉고용featherbedding’(즉 필요없고 쓸모없는 일자리) 실시와 시대에 뒤떨어진 작업 및 보수지급 규칙을 유지해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의 논평은 찬반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지금 순간에 주목받을 만한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1963년 8월 16일자 뉴저지주 캠던Camden의 『스타 헤럴드Star Herald』지에 실린 사설인데 나의 팬이 나에게 보내주었다.

미국의 강력한 기업지도자들인 축재가money-maker들은 번영은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사람이 이윤에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윤에 대한 야망과 추진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성취를 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우리가 철도회사의 교착상태를 심사숙고할 때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상들이다. 인디언의 합성과 같은 ‘과잉고용!’이라는 외침에 철도회사의 경영진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을 주장해왔다……. 일자리는 가계의 생업이다……. 어떤 사람이 무익하다고 느끼는 것과 고귀하다고 느끼는 것의 차이를 의미하는 일자리……. 당신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진행에 찬성표를 던지기 전에 그러한 진행으로 희생제물이 될 운명에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 형제, 아버지라고 상상해보라. 우리의 견해는 정부가 철도회사를 국영화시켜 인간을 대가로 치르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일방통행의 과정에서 나올 또다른 재난을 방지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¹¹ 이 사설은 필명이 없다. 그러나 익명의 나의 팬은 거기에 활자체

대문자로 ‘유진 로션Eugene Lawson에 의해?’라고 썼다.

그러한 종류의 ‘인도적인’ 태도는 이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업적을 반대하는 것이다. 부자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 축의 유일한 희생자가 사회계층의 최상부에 있는 몇몇 예외적인 사람들과 재무관리의 귀재와 지적인 천재들 몇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 나의 ‘공포파일’에 몇 년 전에 올려낸 기사가 있다.

영국은 지금 돈캐스터Doncaster에서 광부 2천 명의 파업을 막기 위해 사직한 젊은 석탄광부의 이야기로 술렁거리고 있다.

31세의 앨런 불머Alan Bulmer가 일주일 분량의 일을 3시간 일찍 마치자 그의 동료들과 알력이 생겼다. 3시간 동안 쉬는 대신에 그는 새로 할당된 일을 시작했다.

2천 명이 넘는 광부들이 그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 반대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그를 3개월 정직停職하고 보수도 일주일에 36달러에서 25달러로 감봉하라고 요구했다.

불머는 “사람은 하루치의 온전한 보수에 상응하는 하루치의 온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기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직했다.

국영탄광의 관리는 그것은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 젊은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문해보라. 그들이 그에게 보상하기는커녕 처벌할 것임을 그가 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성과 공명심을 유지하겠는가? 만일 그의 능력으로 인해 정직停職을

당한다면 그는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겠는가? 이것은 한 국가가 최고의 국민들을 잃는 것이다.

당신은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행크 리어던Hank Rearden이 결국 파업을 결정하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에게 상황판단을 명확하게 해 준 마지막 지푸라기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요구에 직면할 경우조차도 리어던은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을 항상 찾을 것이라는 제임스 타가트James Taggart의 설명이었다. 그것을 1959년 12월 28일 시 교통파업의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운송노동자조합Transport Worker's Union의 조합장인 마이클 킬Michael J. Quill이 발표한 성명서의 다음 구절과 비교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전에 일이 잘 풀려갈 때도 그러한 일은 발생했고 거기에는 무엇인가 있었다.”

『지성인들의 파업』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이 나라의 노동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실업으로 타격을 입은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달라!”라는 탄원이 통합이사회Unification Board의 책상을 점점더 크게 치기 시작했고, 탄원자와 위원회는 모두 그 함성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달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능력 있는’이라는 위험한 단어를 감히 추가하지 못했다. 청소부, 정비공, 잡역부, 웨이터, 조수 등의 일자리에는 몇 년씩 대기하지만 관리직, 경영자, 감독자, 기술자 등의 일자리를 신청하는 자가 없다.

『배론스Barron's』지의 1963년 7월 29일자 사설은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

6 아서 번스Arthur F. Burns 박사가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대한 최근의 비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학자, 교사, 시술자, 의사, 간호원, 타이피스트, 속기사, 자동차 및 TV 기술자, 재단사, 공무원의 광범위한 부족’을 포함한 숙련노동의 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당신은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미네소타주의 추수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정부가 콩 수확물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열차를 보내버려 밀의 풍작으로 대형 곡물저장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은 밀이 화물열차가 없어 길가에서 썩어 없어졌다.

다음은 1962년 11월 2일자 『시카고 선 타임스Chicago Sun Times』에 실린 기사이다.

일리노이의 농장관계자와 곡물판매인은 중서부의 곡물풍작을 위협하는 심각한 화물열차 부족을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목요일 만났다…….

농부들과 판매인들은 화물차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고 최소한 2주내에 개선될 희망이 거의 없다고 보았다.

어떤 대형 곡물저장고 운영자는 저장고 근처의 땅에 운반되지 않고 쌓여 있는 옥수수 사진을 보여주었다.

화물차의 부족은 올해 옥수수, 콩, 수수 등 주요 곡물의 동시수확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보유 곡물의 대이동이 있었다.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라그나 데니스콜드는 로빈 훗Robin Hood을 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파괴하기를 원하는 악의 특별한 형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업적이 아닌 필요가 권리의 원천이며, 우리는 생산할 필요가 없고 단지 원하면 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며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우리 것이라는 아이디어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나는 라그나가 『평화와 지방정부의 정의에 대한 리뷰Justice of the Peace and Local Government Review』라는 법과 정치문제에 관한 영국저널에 작년에 실린 로빈 훗 축제를 비난하는 기사에 고무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결코 알지 못한다. 그 기사가 실린 때는 로빈 훗 축제가 부활되던 때였다.

이 전설적인 영웅의 탈취는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허울 좋은 동기 하에서 부자들에게서 강탈하는 것과 주로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기능이 근대에 복지국가에게 이양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보면 로빈 훗 축제가 공공정책과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성인들의 파업』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단계에 있다. 나는 그것을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타주의-집단주의의 정서에 대한 나의 추정치가 아무리 낮더라도, 그리고 매우 낮은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것은 픽션이 아니고 1964년 3월 23일자 『뉴욕타임스』의 제1면에 실린 기사이다.

모든 미국인은 그가 일하든 일하지 않든 권리로서 적당한 수입이 보

장되어야 한다고 자칭 3대 혁명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Triple Revolution이라는 32명의 회원을 가진 그룹이 오늘 강력히 권고했다…….

그들의 성명서에 나타나 있고 존슨 대통령에게 제출된 3대 혁명은 ‘사이버네이션 혁명’ ‘병기혁명’, 그리고 ‘인간권리 혁명’이다.

미국에서 사이버네이션 혁명으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이버네이션 혁명이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채택된 일반적인 과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지금까지는 기계와 사람이 어느 정도 동등한 조건에서 고용경쟁을 하는 가운데 경제자원이 생산에 대한 공헌에 근거하여 배분되어 왔다”라고 계속 말했다. 개발되는 사이버네이션 체제에서는 인간과 별로 협력할 필요가 없는 기계체제에 의해 잠재적으로 무제한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

유효수요를 배분하는, 즉 소비할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과정으로서 “일자리를 통한 수입의 존속이라는 연결고리의 존속이 이제는 사이버네이션 생산체제의 거의 무제한적인 용량에 대한 주요 제동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그 연결고리가 적당한 법적, 정치적 제도를 통해 ‘모든 개인과 가정에게 권리의 문제로서 적당한 소득을’ 제공해주기 위한 사회의 ‘무자격의 관여’에 의해 부서졌다고 주장했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제공된다고? 누구에 의해? 확실치 않다.

이러한 성명서는 현실과 격리되어 있고 경제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작은 시골의 미친 사람 그룹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또는 민중선동기trabble-rousers 그룹이 최하층의 사람들

을 선동하여 컴퓨터를 보유함으로써 그들의 ‘소비할 권리’를 박탈한 사무실에 대항하게 할 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

이 성명서는 교수, 경제학자, 교육가, 작가 및 다른 ‘지식인’ 그룹에 의해 발표되었다. 우리 문화의 현재상태에 대한 징후로서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성명서가 제1면에 실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언뜻 보기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교양 있는 대화의 틀 속에 넣을 수 있다고 기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문화적 정서는 무엇인가? 다음 설명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재난과 파국을 가속화시키는 일련의 것들에 대해 언급한 구절을 인용해보자.

신문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설에서 자기부인self-denial을 미래진보를 향한 길로, 자기희생을 도덕규범으로, 탐욕을 적으로, 사랑을 해결책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 그들의 진부한 문구는 병원에 있는 마취약 냄새만큼이나 구역질나게 달콤하다.

소문은 냉소적인 공포의 컷속말로 전국에 퍼져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문을 읽었고 읽은 것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다. 각 사람들은 누가 가장 무턱대고 침묵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경쟁을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체하고 익명의 사람들은 가공인물이었다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데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갑작스런 균열, 검은 가스, 끓는 화산재를 무시하고 그들의 유일한 위험은 이러한 징후들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계속 믿고 있는 것과 같다.

오늘 내가 이것을 논의하는 목적은 내가 예언하는 신비로운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당신에게 그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반대로 그 재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학자라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유행되는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역사는 우연과 변덕chance and whim에 의해 지배되는 난해한 무질서가 아니고 역사적인 추세는 예측되고 변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무력하고, 맹목적이고, 불운한 피조물이 아니다.

역사가 모든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역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힘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합리적 재능의 힘, 즉 사상의 힘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신념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회의 지배적인 철학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회의 진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신념과 철학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숙명적이고 미리 결정된 역사적인 필요는 없다. 『지성인들의 파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파괴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진로를 바꾸기로 선택한다면 파괴를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성명서이다.

우리를 현재상태로 만들어왔고, 『지성인들의 파업』에 나타나 있는 상태의 대단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 축의 철학이다. 반면에 우리를 구해서 나의 소설의 마지막 두 쪽에 설게 되어 있는 아틀란티스Atlantis(바닷속에 잠겨버렸다는 대서양상의 전설의 섬 : 역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이성-개인주의-자본주의 축의 철학밖에 없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사상적 갈등의 결과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갈등이 지속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너무 일러서 말할 수 없다. 내가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지성인들의 파업』의 목적의 일부분이 그 소설이 예언적인 소설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 그러한 목적에서는 『지성인들의 파업』이 성공적이었다는 많은 징후들이 있다는 것이다.

추신 : 이 글을 쓴 지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집단주의자들에 의한 지배의 종식을 묘사하고 있는 『지성인들의 파업』의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은 문단이 있다.

“땅이 갈라지고 도시가 지구표면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런 전율을 느낄 때 비행기는 고층빌딩의 정상 위에 있었다. 혼란이 발전소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은 순식간이었고 뉴욕의 불은 나갔다.”

1965년 11월 9일 뉴욕과 미국 동해안의 모든 도시에서 불이 나갔다. 그 상황은 나의 소설 속의 상황과 완전히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독자들이 그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인식했다. 그후 며칠 동안 내가 받은 편지와 전보 중 몇 개를 인용해보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Austin에서 온 전보 :

“우리는 소설이 예언적이지 않다고 당신이 말한 것을 생각했다.”

위스콘신주 마리온Marion에서 온 전보 :

“존 갈트가 있다.”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에서 온 편지 :

“랜드양! 그러나 그것으로 당황하지 않았죠? 오래된 무책임과 무능력 일 뿐입니다. 기차참사는 우리를 낚칠 옷게 하지만 이 성취된 예언은 역시 전율을 가져옵니다.”

스코틀랜드 던디Dundee에서 온 메모 :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불이 없는 뉴욕(빌딩으로 된 검은 협곡과 차들이 길을 찾는 희미한 불빛의 정경)을 보았을 때 당신의 책인 『지성인들의 파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테네시주 멤피스Memphis에서 온 엽서(독자의 어머니가 독자에게 보낸 것을 다시 나에게 보내온 엽서) :

“나는 이것을 전해주어야 한다. 어젯밤 북동부 지역에 정전이 되었을 때 (친구가) 전화를 걸어 당신이 거기에 있는지를 물었다.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그럼 미안해. 나는 그에게 지성인들이 파업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거든.’ 하고 말했다.”

시카고에서 온 메모 :

“우리는 1965년 11월 9일의 ‘정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이것은 존 갈트가 한 말이다.’”

16

연줄을 파는 사람들 : 로비스트*

미국의 대외정책은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비합리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뒤에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비합리성은 자기보호색을 가지고 있다. ‘허위선전Big Lie’의 기술처럼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뻔한 악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만큼 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하고, 따라서 비록 그들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한다.

외국원조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언급되어 있는 구역질나는 일반론들과 모순들은 대략 우리에게 동시에 제공된 두 범주에 속하는데, 그것은 ‘이상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며, 또는 감상과 두려움이다.

‘이상적인’ 주장은 이타주의에 호소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도움 없이는 굶주림으로 죽을 지구상의 ‘저개발’국가들을 지원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추상적인 것들의 오리무중 속에서 초점을 잃고 헤맨다.

‘실질적인’ 주장은 두려움에 호소하고 다른 종류의 흥미함을 가져 오면서 우리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는 ‘저개발’ 국가들의 호의를 얻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그들이 우리에게 무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호소한다.

우리의 대외정책 지지자들에게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양자택일이란 먼저 ‘저개발’ 국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없이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그들은 우리에게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없다. 또는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잠재적인 적의 발전을 도와주는 데 우리의 경제력을 쏟지 말아야 한다.

이상적인 주장과 실질적인 주장의 모순을 논의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데, 그 이유는 둘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주장들의 지지자들은 사실, 논리, 늘어나는 증거에 무감각해서 범세계적 이타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대외정책은 기대하던 목표와 정반대의 것을 얻었다. 대외정책은 우리 경제를 파멸로 이끌고 있으며 우리를 타협, 퇴각, 패배, 배신의 기록만을 가진 무능한 낙오자의 위치로 끌어내려 국제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세계발전을 가져오는 대신에 종족전쟁의 피나는 무질서를 가져오고, 약소국가들을 하나둘씩 공산주의 권력에게 양도하고 있다.

어떤 사회가 자살에 이르는 길을 고집스럽게 추구할 때 그 사회가 주장하는 이유들과 함성들은 단지 합리화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원조의 변덕스러운 혼돈 속에는 일관성 있는 형태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러한 해외원조는 비록 장기적으

*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2년 9월.

로는 소련에게 유리하게 되지만 소련이 그러한 원조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혜자는 아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고 영원한 패자만 있는데 그 패자는 미국이다.

그러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음모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상상하고, 합리화가 어떤 악의에 가득차고 엄청나게 강력한 거인을 숨기고 있다고 상상한다.

진실은 그것보다 더 나쁘다. 합리화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고 오리무중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허둥대는 벌레들의 등우리만 있을 뿐이다.

나는 1962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외국로비의 역할 Role of Foreign Lobbies’이라는 제목의 사설발췌문을 증거로 제시한다.

외국대리인의 ‘비외교 사절단’이 최근 (워싱턴에) 몰려들고 있다(라고 그 사설은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국고객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또는 통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로비하고, 행정부가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법을 찾고, 무수한 방법과 기교로 여론형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대리인 군단이 워싱턴과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망령이 되고 있다.

‘로비’는 개인적으로 입법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법률제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하는 행동이다. 그것은 혼합경제, 즉 압력단체에 의한 정부의 결과와 창조물이다. 그 방법은 단순한 사교, 각테일 파티, 오찬 ‘친교’에서부터 호의, 뇌물, 공갈까지 다양하다.

외국이나 국내의 이해관계자를 위해 일하는 모든 로비스트들은 30년 전에 통과된 법에 의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로비스트가 빠르게 증가하여 국내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로비스트를 초과하자 입법가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이러한 외국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지의 사설은 외국의 로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적인 기획 뒤에 있는 이론은 외국정부나 외국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자는 비용, 의뢰료, 그리고 종종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선전비 및 경비지출로 미국의회에서 그들에게 호의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하고, 행정부에서는 우호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하거나 미국인의 여론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이러한 로비스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거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연고political pull를 가진 사람들로, 외국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고용된 미국인들이다. 사설은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워싱턴 변호사들’이거나 ‘뉴욕 홍보회사’라고 언급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외국 이해관계자의 하나이고, 워싱턴에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러시아를 위해 일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단지 상황을 이용할 뿐이다. 이 나라에서 러시아의 음모가 성공한 것은 자기파멸 self-destruction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다. 러시아는 부전승을 거두고

있다. 원인은 그것보다 훨씬더 깊다.

로비문제는 미국정부로부터 설탕쿼터를 얻으려고 하는 외국 로비스트들의 경쟁을 통해 최근에 관심을 끌었다.

사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들의 노력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민주당 하원의원이며 하원 농업위원회House Committee on Agriculture 위원장인 해롤드 쿨리Harold D. Cooley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쿼터의 배분에 관한 거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쿨리 위원장이 이러한 쿼터를 배분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사용했는지는 결코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에게 로비스트들이 한 간청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정부나 설탕재배자협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러한 대리인들이 사실상 쿨리 위원장과와 실질적인 친분관계나 그들이 주장하는 친분관계를 파는 것이다.

이것이 로비문제, 우리의 외국원조 문제, 혼합경제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문제는 ‘쿨리 위원장이 쿼터를 배분하는 데 이용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이러한 힘을 준 법률에 의해서 그는 그가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들이 분명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기준도 정의될 수 없다. 그것이 비객관적인 법과 모든 경제법률의 본질이다.

‘대중의 이익’과(또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이익과) 같은 개념이 법

률제정을 도와주는 유효한 원칙이 되는 한 로비와 압력단체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대중’과 같은 실체는 없고 대중이란 단지 다수의 개인이기 때문에 ‘대중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단 한 가지 의미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은 ‘대중’으로 인정받는 특권을 위해 죽도록 싸워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불규칙적인 진자처럼 이 단체 저 단체를 따라다니며 흔들려야 하고, 어떤 순간에는 번덕스럽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영향력’을 파는) 로비와 같은 이상한 직업이 하나의 일자리가 된다. 만일 기생寄生, 정실, 부패, 부당이익에 대한 탐욕이 존재한다면 혼합경제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게 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할 합리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모든 ‘대중의 이익’에 관한 법률은(그리고 강제로 어떤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의 부당이득으로 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의되지 않고, 정의될 수 없으며, 비객관적이고, 독단적인 힘을 정부 관료들에게 주는 것이 된다.

그것의 가장 나쁜 점은 그러한 힘이 부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순수한 정직함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도 정당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원칙을 정당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정직한 관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결정과 그 결과를 더 정당하게 하거나 덜 비참하게 하지는 않는다.

명확한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명확한 신념이 불가능할 때는 개인적인 영향력이 역할을 한다. 사람의 마음이 비객관적이라고 하는 미로로 빠져서 출구도 없고 해결책도 없을 때 그는 그럴싸한 설득력을 가진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확실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모방할 것이다. 그는 사회의 ‘조종자’, 선동가, 로비스트의 자연적인 Ⅱ 떡이이다.

어떤 주장이 다른 주장들만큼이나 결정적이지 않을 때는 주관적, 감정적, ‘인간적’ 요소가 결정적인 것이 된다. 유린당한 입법가는 지난해 칸타일 파티에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던 호의적인 사람은 그를 속이지 않을 좋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의견은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고 의식적으로나 잠재의식 속에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당신의 돈, 노력, 미래를 빼앗을 수 있다.

비록 입법가와 정부관료 사이에 실질적인 부패가 틀림없이 존재할지라도 그것들이 오늘날의 상황에서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된 경우, 뇌물은 거의 애처로울 정도로 작다는 것이 중요하다. 수백만 달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수천 달러짜리 양탄자나 모피코트나 냉장고를 받고 호의를 베푼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것을 뇌물로 간주하지 않고, 그들이 공신력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유 없는 선택들, 기준이 없는 것, 언뜻 보기에 주인이 없는 재산을 던져버리는 낭비와 같은 그들의 특별한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백만 달러에 자기나라를 팔지 않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미소나 플로리다 휴가를 대가로 받고 팔고 있다.

존 갈트의 표현을 빌리면 “당신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그러한 펀돈과 웃음이다”이다.

일반대중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지식인들’은 우리의 대외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 자신들의 케케묵은 사상이 그들이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과들의 원인임을 알고 있다. 그들이 피하면 피할수록 합리화나 유행하고 있는 하찮은 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흐리멍덩한 공격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망은 더 커진다. 이타주의의 케케묵은 구실은 그것을 감싸주고 희미해져가는 도덕적 정당성에 의한 회피를 인정한다. 파산된 문화와 가치관·원칙·신념, 지적 기준이 없는 사회에 대한 기진맥진한 냉소가 나머지를 담당한다. 그것은 누군가가 채워넣어야 할 진공상태로 남는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의 자살적인 출혈 뒤에 있는 원동력은 이타주의적 열정이나 집단주의자 운동은 더이상 아니고 활기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끈을 끌어당기는 작은 변호사들과 홍보활동가들의 조작이다.

외국의 이해관계자에게 고용된 로비스트들, 즉 다른 환경에서는 그들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총체적인 희생에서 이득을 보는 실질적이고도 유일한 부당이득자profiters들인데, 이는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역사상 모든 이타주의적 운동에 아주 Ⅱ 가까이 있어왔던 것과 같다. 미국의 자기희생self-immolation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자는 ‘저개발’국가도 아니고 ‘혜택을 받지 못한’ 일반대중도 아니고 영양실조에 걸린 정글마을의 아이들도 아니다. 혜택을 받은 자는 단지 너무나 작아서 그러한 이타주의적 운동을 시작할 수 없고, 끝내는 손을 떼기에 충분히 작은 사람들이다.

이타주의-집단주의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고상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의 종착역은 다음과 같다.

노스 다코타North Dakota주의 지방 철도회사는 그 황폐한 지역을 운명에 맡겨두고 도산했고, 지역은행가는 먼저 자기부인과 아이들을 죽인 후 자살했다. 테네시주에서 스케줄을 취소했던 화물열차는 하루 전의 통보로 짐도 신지 않고 지역공장을 떠났고 공장주의 아들은 대학을 그만두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침략자들의 무리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에 대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캔사스주에서는 작은 역이 문을 닫았고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역장은 공부를 포기하고 접시 닦는 사람이 되었다. 제임스 타가트James Taggart는 술집에 앉아서 오렌 보일Orren Boyle이 목에 붓고 있는 술값을 지불할지도 모른다. 보일의 가슴에 술을 쏟은 웨이터는 보일의 옷을 쥐어짜고 있으며, 카펫은 전에 칠레에서 포주였던 사람이 3피트 거리에 있는 재떨이에 재를 털기 싫어서 피우다 버린 담배로 인해 불탔다.(『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

‘극단주의’, 또는 ‘중상술’*

아인 랜드

오늘날 도덕적 파탄의 많은 징후들 중 공화당 전당대회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에서 나온 소위 ‘온건주의자들’의 행위가 최소한 오늘날까지는 최고 절정이었다. 그것은 중상smear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써 제도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즉 그러한 중상을 흑색선전yellow journalism이라는 사적인 위치에서 정당의 강령에 포함할 것으로 제안하여 공적인 정상의 위치에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다. ‘온건주의자들’은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도 없이 극단주의와의 단절을 요구했다.

그들은 ‘극단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는 계속된 도전들을 무시하고 정의 대신에 흑평을 하면서, 토론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토론과 관련된 보다 넓은 추상개념이나 원칙들은 지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몇 개의 구체적인 단체를 욕하면서 이러한 단체들이 선택된 기준은 발표하지 않는다. 대중이 확실하게 느낄 수

*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4년 9월.

있는 유일한 것은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purveyors of hate’을 비난하고 ‘관용’을 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오르러거리는 표정을 짓고 격렬한 증오로 가득한 병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강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의견상 모순되고 분명하지 않은 어떤 목표를 위해 잔인하게 싸울 때, 그들의 실질적인 목표는 널리 공개되어 밝혀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의 정체를 밝혀보자.

먼저 공산당Communist Party, KKK단Ku Klux Klan, 존 버치 협회John Birch Society(1958년에 창설된 미국의 반공 극우단체: 역주) 등 ‘온건주의자’의 구체적인 증오대상으로 선택된 것들의 이상한 부적합을 살펴보자. 이러한 세 단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 즉 원칙을 발취하려고 시도한다면 ‘정치단체’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온건주의자’가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온건주의자’가 이 시점에서 소리치며 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 ‘악’이다. 좋다. 어떠한 악인가? 공산당은 지구상 전대륙에 걸쳐 셀 수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죄를 범한다. KKK단은 사형lynch을 가하는 집단폭력mob violence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죽이는 죄를 범한다. 존 버치 협회는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온건주의자’가 논리적으로 이끌어낸 유일한 답은 “아이젠하워Eisenhower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라는 것이었다.

이 비난이 속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유형은 명예훼손libel이다. 명예훼손은 모든 반반복지국가-국가통제주의자들이 공개토론에서 상습적으로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쳐두자. 명예훼손은 심한 공격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공산당과 KKK단의 행동과 동일

한 악의 범주에 속하는지 단 하나만 묻고 싶다.

우리는 대량 학살, 린치에 의한 살해와 명예훼손을 동일한 악으로 간주하는가?

만일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람이 “나는 선腺페스트bubonic plague, 사람의 얼굴에 산을 뿌리는 것, 나의 장모의 바가지 소리 등 모든 것을 똑같이 반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가 증오하는 유일한 대상은 그의 장모이고 장모를 없애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라고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동일한 원리가 동일한 수법의 두 예에도 적용된다.

진실로 공산당과 KKK단에 반대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무책임한 무모함 정도의 죄로 여겨지는 무익하고 황당한 조직의 활동과 동일시할 만큼 공산당과 KKK단의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더구나 그러한 공산당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선거이슈가 아니다. 사실상 오늘날 모든 사람이 공산당을 비난하고 있고, 그 누구도 재차 공산당과의 공식적인 단절을 선언할 필요도 없다. KKK단은 공화당원의 이슈나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그 단체의 회원은 민주당원이다. 공화당원이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태머니 홀Tammany Hall(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1789년 조직된 민주당내 조직인 태머니파의 본거지로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회관: 역주)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공화당원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존 버치 협회만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실질적인 이슈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인 이슈였지만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깊고 더 우회적인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이슈는 존 버치 협회 그 자체가 아니다. 그 협회는 단지 더 강하고 더 중요한 희생양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관심의 초점으로써 ‘온건주의자’에 의해 선택된 인위적이고 하찮은 허수아비였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극단주의’라는 이슈의 이면에 있는 암묵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도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다. 마치 단어들 이 아무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이슈를 내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토론은 거대하고 정의되지 않은 ‘일괄교섭package-deals’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초점을 잃고 진행된 생사를 건 투쟁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격노하고 있는 대중논쟁에서도 동일한 분위기가 압도한다. 사람들은 ‘극단주의’에 대해 논쟁할 때 마치 자기들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두 가지 설명도 동일한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어떤 두 명의 연설자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만일 바벨탑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것이 확실히 그러한 상황이다. 그것은 이슈의 중요한 부분이 아님에 유의하라.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주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느낀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수단으로 무엇인가가 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낀다.

무엇이 행해졌고 어떻게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던 몇 가지 전례를 살펴보자.

대규모 예는 1930년대 우리 정치용어에 소개된 세계 ‘고립주의’이다. 그것은 무언가 나쁜 것을 암시하는 경멸적인 용어이고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 즉 근거 없이 주장하는 의

미와 실질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둘다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근거 없이 주장된 의미는 “고립주의는 자신의 국가에만 관심을 가지며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의 태도이다”라고 대략 정의되었다. 실질적인 의미는 ‘애국심과 국가이익’이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 누구도 이 국가를 세계와 관계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립주의’라는 용어는 이 나라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지위를 허위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허수아비였다. 애국심의 개념은 ‘고립주의’라는 용어로 대체되었고, 공론에서 사라졌다.

고립주의라는 꼬리표로 인해 비방을 당하고 침묵을 강요받고 제거된 훌륭한 애국적인 지도자들의 수는 셀 수가 없다. 그리고는 조용히 감지할 수 없는 과정으로 그 꼬리표의 실질적인 목적이 점령을 했다. ‘관심’의 개념은 ‘헌신적인 관심’으로 바뀌었다. 궁극적인 결과는 미국을 오늘날까지 파멸시켜 온 대외정책에 대한 견해이다. 그것은 우리의 대외정책은 국가이익에 대한 고려가 아니고 세계, 즉 우리를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의 이익과 복지에 대한 고려가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자멸적인 견해이다.

1940년대 후반 우리문화에 또다른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맥카시주의McCarthyism’이다(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맥카시J. R. McCarthy의 이름에서 유래한 극단적 반공주의:역주). 그것 역시 잠행성 악insidious evil을 암시하는 경멸적인 용어이며 분명한 정의가 없었다. 그것의 근거 없이 주장된 의미는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대한 부당한 고발, 박해, 암살이다.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반공주의’이다.

맥카시 상원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한 죄를 범했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용어는 공론을 위협하고 침묵하게 하는 영향을 끼쳤다.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에 대한 강경한 고발은 아직도 ‘맥카시주의’라고 비방을 당한다. 그 결과 공산주의자의 침투에 대한 반대나 폭로는 거의 우리의 지적 무대에서 사라졌다(나는 맥카시 의원의 찬미자가 아니지만 그러한 증상이 시사하는 이유들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이제 ‘극단주의’라는 용어를 생각해보자. 그것의 근거 없이 주장된 의미는 불관용, 증오, 인종차별주의, 편협, 이상한 이론, 폭력, 고발이다.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자본주의 옹호’이다.

이 세 가지 예와 관련 있는 수법을 살펴보자. 그 수법은 어떤 합당한 개념을 대체하고 없애버리기 위해 인위적이고 불필요하며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마치 개념같이 들리는 그 용어는 논리적인 개념적 순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공통점이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모순적인 요소들의 ‘일괄교섭’을 나타낸다. ‘일괄교섭’이 정의하는 특징은 항상 비본질적인 것인데, 이것이 속입수의 본질이다.

정의를 내리는 목적은 하나의 개념하에서 적용되는 것들과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것들을 구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기하라. 따라서 그것들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해야 한다. 의사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정의된 용어를 인정한다면 그의 마음은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특징을 그 용어에 대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심(또는 무관심)’은 대외관계에 관한 어떤 이론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고립주의자’라는 용어를 듣는다면, 그는 그러한 개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본질적인 특징은 애국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립주의’는 ‘애국심’을 의미하며 애국심은 나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용어의 실제의 의미가 근거 없이 주장된 의미를 자동적으로 대체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맥카시주의’라는 용어를 듣는다면 그는 맥카시 의원을 다른 공인(公人)들과 구분하는 잘 알려진 특징은 반공주의자라고 인식하고 반공주의는 나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극단주의’라는 용어와 악의가 없는 모습의 존버치 협회가 그 예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는 그 협회의 잘 알려진 특징은 ‘보수주의’라고 인식하고 ‘보수주의’는 공산당이나 KKK 단만큼이나 나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보수주의’ 그 자체가 영성하고, 정의되지 않고, 나쁜 오해를 가져오는 용어이지만, 오늘날은 그것을 ‘친권자본주의 procapitalism’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것이 현대의 중상이라는 꼬리표가 하는 기능이고, 정치적 이슈에 관한 합리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우리 대중들의 의사소통을 파괴하는 과정이다.

영웅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반영웅’을 만들어내고, 소설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반소설’을 만들어내고, 개념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반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동일한 정서이다.

‘반개념’의 목적은 공론을 거치지 않고 어떤 개념들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공론을 어렵게 만들고, 반개념들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분열을 유발시켜 그

로 하여금 명백한 사고를 못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나는 ‘반개념’의 살포를 도와주거나 선동하는 독특한 두 계층의 사람들이 이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한다. 한 계층은 정의는 임의적인 사회전통의 문계이기에 올바른 정의나 잘못된 정의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아탑 속의 철학자들이고, 다른 한 계층은 인식론과 같은 추상적인 학문은 세계의 정치사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우리의 문화적 정서를 오염시키는 ‘반개념’들 중에서 ‘극단주의’가 규모면에서나 시사하는 점에서 가장 야심적이다. 그것은 정치보다 고차원적이다. 이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극단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용어이다. ‘극단’의 개념은 관계, 측정,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극단의, 형용사 : 1. 보통이나 평균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성질이나 종류의, 2. 정도에서 최대한도나 대단히 큰 것의.”

그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무엇의 정도나 하는 것이다.

대답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와전된 아리스토텔레스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이기 때문에 어떤 한 극단도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 즉 특성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특성의 정도가 나쁘다고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척도와 같은 것은 가치 중요성이 없고 측정되는 것의 본질로부터 가치의 중요성을 얻는다.

극단적인 건강과 극단적인 질병이 똑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모두 ‘보통이나 평균에서’ 동시에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는 극단적인 지성과 극단적인 우매함이 똑같이 하찮은가? 극단적인 정직과 극단적인 부정직이 똑같이 비도덕적인가? 극단적인 미덕을 가진 사람과 극단적인 악행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나쁜가?

그러한 불합리한 예들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아주 극단적인(즉 파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미덕만이 미덕이라고 적절하게 불릴 수 있는 도덕분야에서 그렇다(‘적당한’ 정직을 가진 사람의 도덕적 상태는 무엇인가?).

그러나 귀찮게 어리석음을 살펴보지는 말고 그것이 무엇을 달성하는지만 자신에게 물어보라. ‘극단주의’라는 ‘반개념’이 정치에서 달성하고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시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이슈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또는 자유 대 국가통제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이슈는 원래의 의미를 잃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애매모호하고 정의되지 않은 고무줄 용어(rubber-term)들에 의해 침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회피되고, 숨겨져왔다.

지난 수십 년의 기록에 나타나 있듯이 ‘자유주의자’의 목표는 하나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척도라는 수단으로 이 나라에 복지국가통제주의를 몰래 들여와 단번에 정부의 힘을 한 단계 확대시키고, 이러한 단계들이 원칙으로 설명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며, 그들의 방향이 알려지거나 기본적인 이슈가 언급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통제주의는 투표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느리지만 오랜 회피와 와전된 인식론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서 기정사실(fait accompli)이 되었다(‘보수주의자’의 목표는 단지 그러한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의’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개념이 말살되기를 요구했는데 단지 자본주의 개념이 더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존재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말소하는 것

이다.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본질, 원칙 및 역사는 비방받고, 왜곡되고, 잘못 전해져야 하며, 따라서 공론화되어서도 안된다. 사회주의가 공개토론에서, 즉 와전되지 않은 사상시장marketplace of ideas에서 논리적 배경이나 경제학, 도덕성, 역사적 성과로 볼 때 자본주의를 이겨본 적이 없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적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

▶ 그러한 말살blackout은 잠시 동안 작용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오늘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낡고 헤진 꼬리표는 부서지고 있고,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이다.

북지국가통제주의자들은 새로운 포장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극단주의자’와 ‘온건주의자’라는 두 개의 ‘반개념’을 성사시키려는 필사적인 최후의 시도이다. ‘반개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거 없이 주장된 의미의 예로서 역할을 할 허수아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주의자’가 선택한 존 버치 협회의 역할이다.

그 협회는 몇 년 전에 ‘자유주의’ 언론에 의해 대중들의 관심사에 끼여들게 되었고, 그것의 실질적인 중요성에 비해 과대광고되었다. 그 협회는 분명하고 특정한 정치철학(그 협회는 자본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실질적인 정치 프로그램, 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협회는 혼란스럽고 지성적이지 않은 ‘소박한’ 형태의 항의를 한다. 그 협회는 확실히 친자본주의의 대변인이나 재집결지는 아니며, 더구나 ‘보수주의’의 대변인이나 재집결지도 아니다. 이것들이 정확히 그 협회가 ‘자유주의자’에 의해 선택된 이유들이다. 그들이 의도하는 수법은 먼저 문자 그대로 자본주의

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진지하고, 평판 있고, 지적인 지지자들의 존재와 증대되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자본주의에 관한 문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존 버치 협회를 ‘우익’의 유일한 대표자로 광고한다. 그리고는 모든 ‘우익주의자’를 존 버치 협회와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비방한다.

이러한 의도는 나중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극단주의’에 대한 공격을 선도했던 록펠러Rockefeller 주지사의 작년(1963년 9월 15일) TV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급진우익the radical right’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좋은 예가 몇 개월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공화당 청년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거기서 소득세를 폐지하고, 국제연합에서 탈퇴하며, 얼 워렌Earl Warren에 대한 고발을 포함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전체적인 개념의 일부분이며, 아이젠하워 장군이 공산당 비밀당원crypto-communist이었다는 아이디어를 낸 한 젊은 공화당원이 선출되었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어떤 개념의 부분?

처음의 두 개의tenet(소득세 폐지와 국제연합에서의 탈퇴 : 역주)는 많은 근거가 있는 이유들로 뒷받침이 되는 정당한 ‘우익’의 위치이다. 세번째(얼 워렌에 대한 고발 : 역주)는 존 버치 협회 회원의 어리석음의 표본이고, 네번째(아이젠하워 장군에 대한 내용 : 역주)는 존 버치 협회 회원 한 사람의 무책임의 표본이다. 전체는 중상술의 표본이다.

이제 ‘극단주의’의 ‘일괄교섭’내에서 ‘우익’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우익’과 ‘좌익’의 용어는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 옹호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와 폭력을 ‘극단적 우익’과 연관지으려고 시도하는 비정상적이고 가공적인 노력을 보라. 허수아비인 버치 협회조차 인종차별주의와 폭력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KKK단을 통해) 민주당이 그 두 개의 악과 관계가 있다.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처럼 정치적으로 정반대인 두 극단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개념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두 ‘극단’은 파시즘과 공산주의이다.

그 개념의 정치적 유래는 ‘온건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다. 무솔리니Mussolini는 파시즘만이 이탈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집권을 했다. 히틀러Hitler는 파시즘만이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선언하면서 집권을 했다. 1933년 독일선거에서 공산당 지도자는 나치에게 투표하라고 명령을 내린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두 집단의 공동의 적인 자본주의와 의회정치를 파괴할 수 있도록 먼저 나치를 도와주고 나중에 나치와 권력투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파시즘 대 공산주의라는 부정직한 이슈가 달성한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동일한 정치체제에 대해 정반대인 듯한 두 가지 변형을 제안한다. 자본주의를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자유, 또는 독재’의 선택을 ‘어떤 종류의 독재?’로 변경하여 독재를 당연한 사실과 지배자의 유일한 선택으로 만든다. 그러한 사기fraud의 제안자들에 따르면 선택은 부유한 자들을 위한 독재(파시즘)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독재(공산주의)나 하는 것이다.

그 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0년대에 무너졌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적대관계가 아니며 동일한 영역을 위해 싸우는 경쟁관계의 집단이며, 둘 다 사람은 권리가 없는 국가의 노예라는 집단주

의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통제주의의 변형이며, 둘 다 이론과 실제 및 그들 지도자의 명백한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주의적이며, 두 체제하에서 가난한 자는 노예화되고 부자는 지배계층ruling clique에게 착취를 당하며, 파시즘은 정치적 ‘우익’의 산물이 아니고 ‘좌익’의 산물이며, 기본적인 문제는 ‘부자 대 빈자貧者’가 아니라 사회주의 대 국가, 또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개인권리 대 전체주의 정부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고 쉽게 보여줄 수 있다.1)

자본주의 지지자를 ‘파시스트’라고 한 중상은 이 나라에서 실패했고, 10년 이상 감히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구석에서 봉괴되면서, 가끔 지하와 실질적인 좌익주의의 허수아비에서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은 재부활을 시도할 만큼 까다롭지 않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 개념이 어떤 기득권자를 위해 진력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확실하다.

만일 독재가 불가피하고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극단’이라면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할 안전한 장소인가? 왜 중도는? ‘적당한’ 양의 정부지지와 부자에 대한 특권과 가난한 자에 대한 ‘적당한’ 양의 정부보조, 권리에 대한 ‘적당한’ 존경과 ‘적당한’ 양의 폭력, ‘적당한’ 양의 자유와 ‘적당한’ 양의 노예, ‘적당한’ 정도의 정의와 ‘적당한’ 정도의 불의, ‘적당한’ 양의 안전과 ‘적당한’ 양의 공포, 그리고 원칙, 일관성, 객관성, 도덕성을 지지하고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극단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적당한’ 정도의 관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하게 정의되지 않고, 막연하며, 혼합경제이며, ‘적당한’ 것이 중도이다.

1) 1963년 뉴욕의 Nathaniel Branden Institute에서 발행한 나의 강의 *The Fascist New Frontier* 를 참조하라.

다른 모든 것을 대신하는 최고의 미덕으로서의 타협의 개념은 혼합경제의 도덕적 규범이며 도덕적 전제조건이다.²⁾ 혼합경제는 안정적인 수 없고 궁극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가야만 하며, 폭발하기 쉽고 유지할 수 없는 두 개의 정반대 요소가 혼합된 것이다. 그것은 자유와 통제의 혼합인데, 이것은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혼합이 아닌 (모든 변형을 포함한)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주의의 혼합을 의미한다. 지탱할 수 없어 붕괴되고 있는 현재상태(status quo)를 지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기본요인인 두 ‘극단’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고 미친 듯이 소리지르고 있다. 그러나 그 두 극단은 자본주의와 완전한 독재이다.

독재는 당황하고, 풍기가 문란하고, 냉소적으로 융통적이고,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념적 혼돈을 공급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요구한다(파괴는 임의대로 맹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건설은 특정한 원칙의 엄격한 고수를 요구한다). 복지국가통제주의자는 중상과 침묵으로 자본주의를 제거하기를 바라고 ‘자발적인’ 순종과 정부의 증대되는 힘을 가지고 교섭과 타협의 정책으로 독재를 ‘피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극단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깊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모든 것에 대한) 비타협적인 자세는 ‘반개념’이 비난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타협은 도덕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역시 확실하다. 도덕분야에서 타협은 악에 대한 항복이다.

기본원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도덕적 문제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지식, 진리, 합리적 확신의 문제에도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비타협적인 자세가 ‘극단주의’라고 비방을 받는다면 그 비방은 가치에 대한 헌신, 원칙에 대한 충성, 깊은 확신, 일관성, 확고부동함, 열정, 파괴되지 않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헌신을 향하고 성실한 사람을 향한다.

그리고 그 ‘반개념’이 이용되어 왔고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항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개념’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던 더 깊은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근대철학의 분해로 불확실성 예찬, 인식론적 비합리주의, 윤리적 주관주의를 가진 채 정신적으로 마비되고 근심에 빠진 신경과민환자들이 대학을 나와 만성적인 공포로 파괴되고 스스로 무능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현실의 절대주의로부터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은 공포 때문에 교활한 정치초종자와 실용주의자 앞잡이를 혼합경제에서 전형적인 시민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보통사람들에게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연합한다. 전형적인 시민이란 결코 흥분하지 않고,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결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적응하면서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 유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온건한 겁쟁이(Milquetoast)이다.

‘중용’에 대한 간청 외에는 궁극적인 이상으로 제공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시기는 지식운동의 붕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이다. 그것이 집단주의 파산의 최종적인 증거이다. 자본주의 개혁가들은 이제 간신히 비전, 용기, 헌신, 도덕적 정열을 각성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증지시키는 데는 ‘반개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The Virtue of Selfishness*에 있는 "The Cult of Moral Grayness"를 참조하라.

자본주의의 말살*

아인 랜드

8 「‘극단주의’, 또는 ‘중상술’이라는 나의 논문에서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합리적인 개념을 말살하고 대체할 의도를 가진 인공적이고, 불필요하며, 정의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인 ‘반개념’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 나라에 국가통제주의를 들여오기 위해 ‘반개념’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고, 그들이 말살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자본주의’ 개념이며, 만일 자본주의 개념이 없어지면 자유사회가 존재해왔고 존재할 수 있다는 지식까지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적들보다 덜 매력적인(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손해가 큰) 무엇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옹호자들로, 그들 중 몇 사람은

*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5년 10월.

자신들의 반개념을 가지고 ‘반개념’을 만들어내는 게임에 억지로 비집어 끼여들고 있다.

우습지도 않은 코미디언의 기이한 행동과 같이 총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인간행동을 보면서 묘한 당혹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인간으로서 그러한 품위없는 행동을 목격하는 것은 주제감을 빼앗아가고 아주 당혹스럽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매장시키겠다고 자랑하는 데 대한 롬니Romney 주지사의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다음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은 자본주의를 오래전에 매장시켰고 소비자 중심주의consumerism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말의 시사점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하다. 그 말에 대한 가장 좋은 평이 『리차드슨 다이제스트The Richardson Digest』(Richardson, Texas, 1965년 4월 28일자)의 얼 라이블리Earl Lively가 쓴 「라이블리 논평Lively Comments」이라는 칼럼이었다. 그는 “롬니는 고립되는 것이 무서워 저자세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정의를 알 수 없으며, 경제원칙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자본주의와 같은 인기 없는 개념을 방어하느라고 배회하는 것을 중단하면 더 잘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적고 있다.

롬니 주지사의 태도에 대한 라이블리씨의 묘사는 감탄할 만큼 정확하다. 그러나 롬니씨는 외톨이가 아니다. (몇몇 저명한 자유기업 경제학자를 포함해서) 지적으로 더 명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심리적인 이유로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노선을 채택해왔다.

자본주의의 본질은(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은) ‘다른 사람들, 즉 소비자

들에 대한 서비스'이고, 소비자의 요청이 자유시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선언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에 의한 정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예이며, 반면半面的 진리가 거짓말보다 나쁜 이유이다. 그러한 모든 이론가들이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단 한 종류의 소비자만 경제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이다. 한 종류의 소비자란 거래자를 말한다. 즉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자가 자유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소비의 전제조건인 것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하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념적인 광고에 재산을 사용하는 사업가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소득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이 노동자(임금) 및 정부(세금)에게 가며, 이러한 몫은 화려한 색을 가진 큰 덩어리로 나타나 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2.5퍼센트'라는 표시가 있고 '이윤'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작은 은화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확신시킨다.

뉴욕 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복도에는 자유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며 '대중자본주의The People's Capitalism'라는 자막이 들어가 있는 차트와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들 중 어떠한 것도 자본주의의 본질을 감추거나 자본주의를 이타주의적 가축방목장의 수준까지 격하시키는 데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유일한 결과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옹호자들에게 비열한 죄와 위선에 물들게 하는 나쁜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대중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애써 감추려고 하는 비밀은 자본주의의 본질과 훌륭한 미덕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보는 이타주의적 견해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인간의 권리인 개인권리의 인식에 근거한 체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옹호자들에 의해서 대중들이 악으로 간주하도록 강

요당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미덕이고, 그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타주의가 선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재확인되고 강화되도록 한다.

그들이 감히 그들의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이타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전을 하면 할수록 자본주의가 더 인기가 없어지는 이유를 궁급해 한다. 그들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성공적인 실업가는 이타주의적 자기희생의 전형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면서 비난한다. 다른 하나는 (실업가의 재산은 '도덕적으로' 자기들의 것이라는 확신에 난타를 당한 후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부당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라면서 비난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시작한 그 어떠한 '반개념도' 지금까지 '소비자 중심주의'의 꼬리표만큼이나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소비자 중심주의는 '소비자'의 신분은 '생산자'의 신분과 분리되며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의미한다. 소비자 중심주의는 생산하는 능력으로 표시된 노예계급에 대한 특별 청구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소비'하는 능력으로 구분된 새로운 귀족정치aristocracy를 위한 사회체제를 제안한다. 심할 경우 그러한 꼬리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는 공산주의자의 궁극적인 불합리가 될 것이고, 자칭 자본주의의 대표자들은 "맞다, 그래야 한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3대 혁명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Triple Revolution가 그러한 도덕적 외설moral obscenity을 '소비할 권리'라고 제의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도록 고취했는가? 칼 마르크스Karl Marx인가 롬니 주지사인가?

우리사회는 더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주의의 혼합, 자유와 통제의 혼합인 혼합경제이다. 혼합경제는 분해의 과정과 서로 삼키고 약탈하는 압력단

체들간의 내전과정에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 중심주의’는 혼합경제에 대한 적합한 이름일 수도 있다.

이제 자본주의의 친구, 반친구, 지인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마음을 줄이며 사과하고 있는가?

‘반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관련된 심리적 동기, 도덕적 의미, 지적 기법의 명백한 예로서 나는 1964년 7월판 『뉴욕타임스』에 실린 「낡은 이름표는 바뀌어야 한다Should the Old Labels Be Changed」라는 술츠버거Sulzberger의 칼럼을 소개한다.

미국 정보부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의 연구보고는 우리 선전기관이 ‘자본주의’의 미덕을 선전하고 ‘사회주의’를 공격하면 할수록 세계는 우리를 더 싫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술츠버거는 적고 있다)…… 혼란스러운 어의는 홍보활동을 나쁘게 만든다…… 전세계에 있는 여론조사자들의 결론을 분석한 끝에 미국 정보부의 연구는 다음 사실을 발견했다. “자본주의는 나쁘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선도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나쁘다.” 이러한 일련의 생각이 끼친 해악을 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5 소련과 공산중국에서 그러한 일련의 생각은 열 핵전쟁thermonuclear war의 위협을 크게 증대시키는 태도와 행동을 유지한다.

‘태도와 행동을 유지한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비방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작했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한 비방이 그들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비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열 핵전쟁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지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비공산주의 세계에서 그러한 일련의 생각은 우리가 원조 프로그램과 다른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 해악은 우리의 원조수혜자가 우리 돈을 받기를 거절할 위협에 우리를 처하게 하여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부흥을 창출한 체제를 중상하는 데 합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막연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수백만 명의 비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불결한 단어이다. 미국 정보부가 외국의 여론을 표본조사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정부소유를 의미하지 않고 공산주의와 반드시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사회주의는 보통사람들의 복지에 유리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일 당신이 진리는 여론조사public poll로 확립된다는 것을 실용주의 철학이 가르친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우면 여기에 그러한 것에 대한 꾸밈 없고 적나라한 예가 있다. 수많은 이론, 1백 년의 역사, 5개 대륙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정부소유를 의미하지 않고 공산주의와 관계가 없다. 대다수 표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복지에 유리한 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보통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풀어주나? 보통이 아닌 사람들의 희생으로? 정당한 이득은 호의가 아니고 권리이므로 ‘호의’는 부당이득을 의미한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구의 권리와 소득이 폐지되고 몰수당해야 하는가? 정부소유 없이 ‘호의’를 배분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유일한 변형은 파시즘이다. 그 여론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 식인종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당신 자신의 결론을 유도해보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자본주의’를 효율적 경제를 나타내는 것이나
8 개인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본주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적은 관심, 부의 불공정한 분배, 부자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어떻게 개인권리의 보호와 정부강요에 의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정부가 배분하는 부와 ‘영향력’을 결합할 수 있을까? 해답이 없다.

미국 정보부는 영국인, 서독인, 이탈리아인, 일본인, 멕시코인, 브라질인 중 상당한 비중의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나라들의 철학적 추세, 지적 헌신, 도덕적 기록과 그들의 정치적 결과를 생각해보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파시스트 독재정권이었다. 정치적 지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소련과 공산중국에 있는 그들의 이념적 형제들에 필적할 만한 공포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 멕시코, 브라질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의 경계를

오가며 경제파탄을 한 혼합경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환심을 사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역사상 가장 고귀한 정치체제라고 우리가 사과해야 할 도덕적 대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우리가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그 기록을 치욕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말살함으로써 회유해야 할 심판관들이다.

한 나라를 그렇게 치사하게 배반하도록 자극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가? 합리적 개념의 영역에서 보면 없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다.

외국에서 ‘자본주의’는 흔히 경멸적인 단어이다. ‘대중자본주의’와 같은 문구로 자본주의가 함축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멋있다(그래요, 멋있어요). 사적 소유가 유행하는 영국과 서독에서조차 대다수가 공산주의는 혐오하면서도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만일 ‘사회적 형이상학social metaphysics’이라는 용어가 이 시점에서 당신의 머리에 떠오른다면 당신이 옳다. 그러나 그 용어조차도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여 다음을 설명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추방하는 저개발국가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라는 특정 상표를 자랑한다. 세네갈의 레오폴드 생고르Leopold Senghor는 “사회주의
8 는 아프리카주의로 회귀하는 공동체의 느낌이 든다”라고 말한다. 탕가니카(1964년에 잠비아와 합병하여 탄자니아가 됨 : 역주)의 줄리우스 니이레레 Julius Nyerere는 “모든 저개발국가는 ‘사회주의자’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튀니지의 하비브 부기바Habib Bourguiba는 모하메드Mohammed의 동료들은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부

터 사회주의자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왕자인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는 “우리 사회주의는 불교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적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위에 언급된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가장 심오한 철학적, 심리적, 정치적, 도덕적 근본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고발이다. 사회주의는 원시미개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정보부 보고서의 평가나 결론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고층빌딩, 자동차, 수도 및 가스배관,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자신감 있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빈털터리로 살아가지 않는 젊은이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슬람교도, 불교도, 식인종(이 경우 문자 그대로의 식인종)에게, 그리고 저개발, 미개발, 개발예정인 없는 문화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요구받는다.

그 칼럼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그 연구는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사회주의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사회복지 척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고도의 자본주의자의 힘과 자본주의자의 착취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 적대자의 공격에 이상할 정도로 약하고 잘 팔리지도 않는 우리 철학을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의미가 없다…….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는 그 이름표가 마르크스와 19세기 사상가들에 의해 처음으로 적용된 구식 경제학설(outmoded economic doctrine)로부터 무한히 발전되어 왔다. 미국 정보부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체제를 알리는 방법을 찾기 위한 또다른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그 덕은 미국 정보부가 붙인 것임)

영향을 준다.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무슨 목적으로? 만일 유효정책을 채택하여 우리가 우리 철학을 포기하고 그들의 것을 채택한다면, 만일 우리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버리고 우리 자신을 ‘국가사회주의 복지국가’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매장을 한 것인가?

이 칼럼에서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만일 미국의 선전자들이 국내에서 하던 것처럼 외국에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면 그 결과는 미국 정보부 연구에 나타난 것과 같이 되거나 악화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자유주의자’를 달래면서 패하는 쪽은 ‘보수주의자’다.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진짜 본질을 감히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공산주의자를 달래면서 패하는 쪽은 ‘자유주의자’이다. 인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는, 즉 이타주의를 거부하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옹호할 방법이 없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위(眞僞)의 문제에 대해 가지는 섬뜩한 무관심을 보라. 그들은 공산주의를 증오하면서도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모순이나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대한 유일한 적수이고 방어자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주의 비평가들의 무지, 부정직, 불의, 비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적-철학적 문제에 직면할 때도 그들의 반응은 비평가들의 용어를 즉각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무지, 부정직,

불의, 비합리성에 항복한다. 자본주의가 바로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적인 공산주의자에 의해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중상을 비난하지 않고, 세계를 계몽하지 않으며, 희생자를 보호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중상을 시인하며, 진리를 감추고, 희생자를 포기하며, 사형私刑에 가담하는 정책을 취한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어떤 설명이 진실이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소리지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 진흙에서 갈아 산산조각이 나게 한 후에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들이 배신한 협력자와 절대 용서 못할 적 모두로부터 모욕을 받는지 의아해 한다.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moral cowardice은 매력적인 특성도, 감격시키는 특성도, 매우 실질적인 특성도 아니다.

이 시대에 세계적인 학살의 경향이 증대되고 있고, ‘새롭게 나타나는’ 국가들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적은 관심’을 감히 재잘거리고 그것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유럽인들의 역겨움을 보라.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인간고통에 대한 관심은 그들 동기 중의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할 수도 있으나 하나의 중심적이고 압도적인 사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오늘날 세계의 지적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불교와 아프리카주의의 권리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전통(그러한 전통의 본질과 기록을 기억하라)을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예외가 있다.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전통을 포기하고, 그 보상으로 무릎을 꿇고 5개 대륙의 미개인들에게 그 체제의

새로운 이름을 선택해달라고 빌면서 과거의 죄를 씻으려는 유일한 9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죄가 무엇인가? 인류역사의 짧은 한순간에 미국은 이기주의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희생당하지 않는 사람의 비전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정치적으로 하찮은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나 이타주의의 본질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이타주의 세력이 공포를 널리 확산시키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타주의의 본질은 자비심, 선의, 불행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이타주의의 본질은 사람을 도우려는 욕망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증오이고, 삶을 발전시키려는 욕망이 아니고 삶에 대한 증오이고, 성공적인 삶에 대한 증오이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으로 나쁜 것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이다.

모든 성공한(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인간가치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부딪히고, 느끼고, 당황했지만, 거의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개인 대신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에게 행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악을 전세계적인 규모로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더이상 숨길 수 없다. 미국이 미움을 받는 것은 미국의 결함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미덕 때문이며, 미국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업적 때문이며, 미국의 실패 때문이 아니고 장엄하고, 빛이 나며, 생명을 주는 미국의 성공 때문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다. 이것은 정신, 삶, 인간에 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음모는 지도자도 방향도 없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의 고통을 이용하려는 악한들은 ‘감정’이 지성보다

우월하다고 연설한 적이 있는 모든 반인간들이 만든 저수지로서 이성, 논리, 능력, 성과, 기쁨에 대한 증오의 저수지와 수세기에 걸쳐 부서진 댐의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급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인간쓰레기들이다. (『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

야만과 타락의 부정확한 협력으로 대부분의 세계가 폐허가 되고, 철학의 목소리는 침묵하고, 문명의 마지막 자취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잔인한 악한들이 전리품을 놓고 싸우고 있다. 반면에 깊은 절망에 빠진 냉소적인 실용주의자들은 유럽의 각테일 파티에서 그들의 공포를 달래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력해진 남자와 병적이고 공포에 썩어 여성들이 사회주의는 멋있다고 공포함으로써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 이것이 우리시대의 얼굴이다. 타협, 화해, 애매함, 완곡함으로 그러한 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적과 연합하거나, 그의 선전문구나 잔인한 이념적 지식을 빌리거나, 세계에 대해서 전투의 본질을 속이거나, 그러한 무리들과 한패인 것처럼 가장하여 싸울 전투는 아니다.

그것은 왜 그들에게 기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때 왜 먼저 적의 기초를 맹공격하고 그것과의 어떠한 연결고리나 발판을 차단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름끼치는 악을 닦은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전투이다.

그것은 『지성인들의 파업』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표현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전투이다.

“자본주의는 약탈이 아니라 생산에 의해, 폭력이 아니라 거래에

의해 부를 획득한 역사상 유일한 체제이며, 자신의 정신, 자신의 일, 자신의 생활, 자신의 행복, 자기자신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현재 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 만일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라면 인간을 지지하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계로부터 비난받기를 선택한다. 우리는 귀족의 상징으로써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이마에 자랑스럽게 인쇄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전투가 요구하는 것이고 이보다 덜한 그 어떤 것으로도 전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 : 사망광고*

아인 랜드

2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모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것은 세계는 치열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는 문명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그룹 모두 그것은 공산주의와 어떤 것의 갈등이라고 대답한다. 확실하지가 않다. 그들은 그것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의 갈등인데, 공산주의자 방식과 어떤 방식의 갈등이라고 대답한다. 확실하지가 않다. 그들은 그것은 두 이념의 갈등이라고 대답한다. 무엇이 우리의 이념인가? 확실하지가 않다.

* 1960년 12월 7일 프린스턴대학에서 가졌던 강의에 근거함. 1962년 뉴욕의 Nathaniel Branden Institute에서 출판됨.

정치적으로 오늘날 세계의 갈등은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주의 사이에 발생한 투쟁의 최종단계라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을 두 그룹 모두가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두 그룹 모두 자유에 찬성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통제, 규제, 강제, 세금, ‘희생’을 부과할 것인지, 그들이 어떤 독단적인 힘을 요구하는지, 어떤 그룹으로부터 ‘이득’을 착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술하지도 않은 채 어떤 그룹에게 어떤 ‘사회이득’을 나누어줄 것인지를 계속 공포한다.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는 국가통제주의의 기본원칙, 즉 사람의 생활은 국가에 속한다는 원칙에 의존한다는 것을 두 그룹 모두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없다. 혼합경제는 단지 반사회주의 경제인데, 이것은 반노예사회를 의미하고 점진적인 분해의 과정에서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의해 분열된 국가를 의미한다.

정치적 배경에서 자유는 정부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지주로부터의 자유, 고용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에게 자동적인 번영을 제공해주지 못한 자연법칙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강제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다른 어떤 의미도 아니다.

오늘날 세계의 갈등은 개인과 국가의 갈등이며, 동일한 갈등이 인류역사를 통해 존재해왔다. 그것이 개인 대 봉건제도, 절대군주제,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사회주의, 복지국가 등 무엇이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본질과 결과는 동일하다.

만일 자유를 지지한다면 개인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만일 개인권을 지지한다면 개인의 삶,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이것은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주고 보호해

주는 정치체제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치-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권리, 자유, 정의, 진보는 자본주의의 철학적 가치, 이론적 목표, 실질적 결과였다. 다른 어떤 체제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증명으로는 기본원칙의 본질과 기능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역사, 즉 유럽 여러 나라들의 현재상태를 고찰해보라.

문제는 '선한' 동기에 대한 굴종 대 '나쁜' 동기에 대한 굴종이 아니다. 문제는 '선한' 악당에 의한 독재 대 '나쁜' 악당에 의한 독재가 아니다. 문제는 자유 대 독재이다. 사람들은 노예와 독재를 선택한 후에 오늘날 압력단체 전쟁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통상적인 악당전쟁을 시작한다. 그 전쟁은 어떤 악당이 지배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노예화할 것이며, 누구의 재산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약탈당할 것이며, 누가 누구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희생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모든 논의들은 차후의 문제이며,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결과는 항상 동일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자유 또는 독재, 자본주의 또는 국가통제주의이다.

오늘날 정치지도자들은 그러한 선택을 회피한다. '자유주의자'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떠한 길을 택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사회주의와 반나치주의 국가통제와 같은 국가통제주의를 몰래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도 아주 패싹하지만 더 패싹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몰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자'의 정책이다.

만일 '자유주의자'가 적당한 이름으로 그들의 프로그램을 밝히는 것이 두렵다면, 만일 그들이 모든 특정한 단계, 법안, 정책, 국가통

제주의 원칙을 지지하지만 스스로 머뭇거리면서 '복지국가' '뉴딜 * New Deal' '뉴프런티어 New Frontier'와 같은 완곡한 어구로 파배기와 같이 비비 꾀다면 그들은 아직도 도덕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논리로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희생물이 목적을 발견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사기꾼 con man의 논리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라는 용어로 대충 분류된 사람들은 대개 그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통제주의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그들 목표의 완전한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인을 파괴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이로운 점과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들은 국가통제주의의 필연적인 결과 없이도 국가통제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이 독재와 노예의 지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두려워 문제를 회피한다.

이것은 부도덕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목표가 좋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두려워 문제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되나? 그들이 자유의 지지자라는 것을 공포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도덕수준은 어떠한가? 자신들의 이상을 비방하고, 잘못 전하고, 침을 뱉고 사과함에 있어서 그들의 적을 능가하는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국가통제주의를 주입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게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유, 정의, 진보로 속여 그들의 권리를 보존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합리성은 무엇인가?

이들이 '보수주의자'요, 대부분의 지식대변인들이다.

그들이 왜 선거에서 패하고, 왜 이 나라가 격정스러워하고 마지못해 하면서도 국가통제주의를 향하여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지 궁

금해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나타난 원인이 불운한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한 정책을 가진 단체가 도덕, 지성,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청구권을 몰수당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파산을 선언하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자유주의자들’의 프로그램의 의미는 이제 상당히 명확하다. 그러나 ‘보수주의자’가 ‘보존하고자’ 찾는 것은 무엇인가?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식 삶의 방식’이라는 부정확한 용어에 의해 위장되어 온 체제를 유지하기 기대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수주의’ 지도자들의 도덕적 배신은 그 위장 뒤에 그들의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미국식 삶의 방식이 자본주의였으며, 자본주의는 미국에서 탄생했고 확립된 정치-경제 체제이며, 1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수준급의 자유, 진보, 번영, 행복을 이룩한 체제이며, 혼합된 다른 모든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체제이며, 그들이 지금 침묵함으로써 사라지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다.

만일 ‘보수주의자’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목표, 방향, 정치적 원칙, 사회이상, 지적 가치,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보수주의자’는 자본주의를 지지하거나 방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도덕률 사이의 깊은 갈등으로 무력화되었다. 그 도덕률이란 이타주의의 도덕이다. 이타주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존재할 권리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가 그가 존재하는 유일한 정당성이며, 자기희생이 최고의 도덕적 책임, 미덕, 가치라는 것을 신봉한다. 자본주의와 이타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그 둘은 철학적으로 정반대이다. 그 둘은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사회내에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이타주의의 갈등은 건국 초기 때부터 미국을 약화시켜 오늘날에는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다른 도덕원칙에 근거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원칙인데, 이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도 않으며, 자신을 위해 존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상호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래자로 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도덕원칙은 단지 미국의 정치체제에 암시되고 있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밝혀져 있지 않으며, 완전한 철학적 윤리 규칙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 문화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아 있고 오늘날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미완성의 작업이다. 자본주의는 도덕적 기초의 부재와 완전한 철학적 방어의 부재로 사라져가고 있다. 이타주의 도덕에 근거하고 있고 그것과 일치하는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와 그 변형인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이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을 집단, 부족, 사회,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제물로 취급한다. 소련이 실제로 이타주의 도덕의 궁극적인 결과요, 최종 산출물이요, 완전히 구체화된 국가이다. 소련은 그러한 도덕성이 실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타주의 도덕에 감히 도전해보지도 않고 ‘보수주의자’는 도덕성의 문제를 피하거나 무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감, 용기, 주장을 상실했다. 대부분 ‘보수주의자’의 연설과 문장에서 나타나는 떳떳하지 못한 회피, 미안해 하는 소심함, 특히 비지성적

이고 비철학적인 태도를 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완전하고도 합리적인 확신인 도덕적 확실성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와 싸우면서 죄의식, 불확실성, 도덕적인 무장해체를 느끼는 것처럼 ‘자유주의자’는 공산주의자와 싸우면서 죄의식, 불확실성, 도덕적인 무장해체를 느낀다. 사람들이 동일한 기본전제를 공유할 때 승리하는 쪽은 가장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이타주의의 도덕을 받아들이는 한 그들은 공산주의의 발전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타주의 도덕은 소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최선의 무기이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지위에 대한 위선, 회피, 주제 넘지 않는 소심함, 자국의 재산·힘·성공에 대한 사과, 자국체제의 최고 미덕에 대한 사과, 마치 자본주의가 벽장에 있는 해골인 양 ‘자본주의’에 대한 언급의 회피 등으로 소련이 더 많은 명성을 얻었고, 소련 자신의 시시하고 과장된 선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산주의가 세계로 확산되었다. 도덕적 죄책감에 젖은 태도로는 세계전쟁의 지도가가 될 수 없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를 따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 요구할 것인가? 그들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자유 대 노예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 공산주의의 전쟁에서 누가 싸우려고 하겠는가? 독재자가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희생을 그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중투표에 의해 달성해야 하는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누가 싸우고, 또 죽겠는가? 누가 자살할 특권을 가지기 위해 살인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기를 원하겠는가?

최근 ‘보수주의자’는 그들 지위의 약점과 수정되어야 할 철학적 결점을 점진적으로나마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수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수단들은 원래의 약점보다 더 못한 것들이다. 그 수단들은 지적 지도력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청구권의 평판을 나쁘게 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다.

오늘날의 ‘보수주의자’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상호관련성이 있고 다음과 같이 부를 수 있다. 그것들은 신앙에서 나온 주장, 전통에서 나온 주장, 부패에서 나온 주장이다.

도덕적 기초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많은 ‘보수주의자’가 그들의 도덕적 정당성으로 종교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미국과 자본주의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으로 그러한 주장은 미국의 근본적인 원칙과 모순된다. 미국에서 종교는 정치적 문제로 끌어들이 수도 없고 끌어들이어도 안되는 개인의 문제이다.

지적으로 어떤 사람의 문제를 신앙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제시할 합리적 주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문제를 신앙에 의지하는 ‘보수주의자’의 주장은 미국체제를 지지할 만한 합리적 주장이 없으며 자유, 정의, 재산, 개인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은 신비주의적 계시에 의존하고 믿음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성과 논리에서는 적이 옳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이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론의 시사점을 생각해보자. 공산주의자가 그들이 이성과 과학의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는 그것을 인정하고 신비주의, 신앙,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물러나고 이 세계를 공산주의에게 내주면서 다른 세계로 물러간다. 공산주의자의 비합리적인 이념은 스스로의 장점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데도 승리를 거두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자. 최초의 미국방문에 즈음하여 TV로 방송된 오찬에서 흐루시초프Khrushchev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에 있는 미래의 체제인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매장하겠다고 위협했다. 우리 대변인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헨리 캐봇 로지Henry Cabot Lodge씨는 답했다. 흐루시초프의 도착에 앞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포함한 ‘보수적인’ 지도자들은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성난 항의를 했으나, 그들이 미국인들에게 제시했던 유일한 행동과 ‘실질적인’ 항의의 유일한 형태는 기도와 흐루시초프로부터 희생된 자들을 위한 종교의식을 가지는 것이었다. 자유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기로 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표자들이 유일한 무기라고 제시한 기도를 듣는 것은 국내외에서 모든 사람의 눈에 미국과 자본주의의 평판을 나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전통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인 두번째 주장을 생각해보자. 어떤 그룹들은 ‘보수주의’라는 단어를 현대 미국인들의 용법과 정반대의 의미로 바꾸고 19세기의 의미로 되돌려 그것으로 대중들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들은 ‘보수주의적’이 된다는 것은 현상이 좋든 나쁘든, 옳든 잘못되었든, 방어할 수 있든 방어할 수 없든 관계없이 주어져 있고 확립되어 있

는 현재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방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미국은 ‘원조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지력에만 의존하여 모든 정치적 전통을 타파한 사람들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체제를 고안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는 미국은 ‘드러난 진리에 대한 믿음’의 산물이고, 과거전통에 대한 무비판적 존경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려 하고 있다. ‘새것’을 가치기준으로 사용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이 단지 새롭기 때문에 좋다고 믿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오래된 것’을 가치기준으로 사용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이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훨씬더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다. ‘자유주의자’는 그들은 미래를 나타내고, ‘새롭고’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보수주의자’를 죽은 과거의 낡은 대표자라고 비난한다. ‘보수주의자’는 그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주의자’가 오늘날 가장 이상한 반전의 하나를 선전하도록 도와준다. 그 반전이란 하나밖에 없는 자유롭고, 동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인 자본주의는 침체라는 미명하에 방어되고 있는 반면에, 오래되고, 냉혹하며, 신분사회인 집단주의는 진보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자고 하는 간청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성취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 간청은 사람들의 최악의 요소(공포, 나태, 소심, 복종, 신념상실에 호소하고 최선의 요소(창조력, 독창력, 용기, 독립성, 자기신뢰)는

거부한다. 인간에게 그것은 터무니없는 간청인데 인간은 자립해야 하며,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야 하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혁신가로서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터무니없는 간청이다.

우리가 그러한 ‘전통’을 존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단지 존경하라는 주장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왜 우리가 그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주장에는 인간자존심에 대한 모욕과 인간본성에 대한 깊은 경멸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몇몇 ‘보수주의자’가 사용하는 세번째 주장이면서 최악의 주장인 인간부패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를 변호하려는 시도에 이르게 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인간은 약하고, 속기 쉽고, 전지全知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독재자가 되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책임을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자유사회가 불완전한 피조물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이다. 이 주장의 시사점을 완전히 파악하기를 바란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재를 할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 자유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전부이다. 만일 그들이 완전하다면 그들은 전체주의 국가를 이루기에 족할 것이다.

이 이론은 믿거나 말거나 독재는 인간과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만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독재자에게 힘을 위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부패에 대한 믿음이 인간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패한 자를 노예로 삼는 것은 잘못이지만 고결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재와 다른 모든 현대세계의 재난들은 완전한 정치체제를 고안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확립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는 죄, 그리고 인간지성에 의존하는 죄에 대한 인간의 처벌이라고 이 이론은 주장한다. 이것은 겸손, 복종, 체념, 원죄Original Sin에 대한 믿음은 자본주의의 보루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치적, 철학적 무지나 파괴에서 이보다 더 나아갈 수는 없다. 이것은 틀림 없이 산업문명화가 진행되는 중에 다시 일어나는 암흑시대Dark Ages의 목소리이다.

냉소적이고 인간을 증오하는 이 이론의 지지자는 모든 이상들을 비웃고, 인간의 모든 열망을 조롱하고,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을 비웃는다.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표준화된 대답은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주의는 이상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결국 그들은 자본주의에 찬성하는 운동(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시작해야 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한다. 누가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죽겠는가? 그러한 이론의 결과로 만일 사람들이 ‘보수주의’에 대해 경멸하게 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사회주의자의 영리함으로 돌리지 마라.

그것은 자본주의 옹호자와 그들이 자본주의를 구하고자 제안한 주장들 덕분이다.

이러한 이론적 무장과 실제에 있어서 패배, 양보, 타협, 배신 등의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는 변변찮고,

무기력하며, 문화적으로 죽은 것이 명백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지적 기준을 파괴하고, 사상을 분해시키며, 자본주의를 의심하며, 이 나라의 명백한 붕괴를 촉진하여 절망과 독재로 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❶ 그러나 그것과 논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특히 젊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경고하고 싶다. 그 어떤 것도 사산아만큼 죽은 상태는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목표가 없는 운동이나, 이상이 없는 개혁이나, 무기가 없는 전쟁만큼이나 무력하지 않다. 나쁜 주장은 무력한 것보다 더 나쁘다. 나쁜 주장은 당신 적들의 주장을 믿는 것이다. 어정쩡한 전투는 안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고 적들의 승리를 도와주고 재촉한다.

세계가 깊은 이념적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질 때는 당신에게 제시할 이념, 즉 이상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하고는 연합하지 마라. 케케묵은 표어, 종교적인 상투어, 의미 없는 보편성만으로 무장한 채 싸우지 마라. 소위 ‘신앙’ ‘전통’ ‘부패’, 주장의 변형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그룹, 조직, 사람들과는 연합하지 마라. 어느 마을의 토론에서 나온 궤변가도 그러한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고, 5분내에 당신을 얼버무리게 할 수 있다. 세계의 철학적 전장에서 그러한 무기를 가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당신은 할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장에서 당신을 알릴 수도 없다.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문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 지도력의 부재 때문에 파멸해가는 세계를 공허한 표어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무시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파괴해온 문제를 ‘보수주의자’가 무시하고 단지 사람들에게 ‘돌아가자’라고 간청만 하는 한 그들은 무엇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책임회피는 오늘날 우리를 삼키고 있고 거의 최종 단계에 도달해 있는 암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자는 암묵적인 답변이라는 사실을 속일 수 없다. 그 암은 이타주의 도덕이다.

‘보수주의자’가 이타주의의 문제를 회피하는 한 그들의 모든 간청과 주장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당된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와 이타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던 19세기로 돌아갈 수 없는가? 암의 초기 단계는 고통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극단적으로 수술을 생각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역사와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현실의 사실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타주의 도덕으로 파괴되었다. 자본주의는 집단의 ‘공익’에 대한 개인의 희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개인권리에 근거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이타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타협을 하거나 아스피린을 사용하기에 너무 늦었다. 지적 수술 외에는, 다시 말해서 파괴의 근원을 파괴하지 않으며 이타주의 도덕을 거부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자유, 문명, 미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면 도덕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형태로써 당신이 채택해야만 하는 주장의 형태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존심self-esteem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권,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개인권리의 주장을 의미한다.

나의 책 『새로운 지식인을 위하여For the New Intellectual』에서 인용해 보자.

오늘날의 세계의 위기는 도덕적 위기이다. 그리고 도덕적 혁명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도덕적 혁명은 미국혁명의 업적을 인정하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새 지식인은 ‘실질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정의감을 가진 도덕적 문제로서 자본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주의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과거의 체제가 아니다. 만일 인류가 미래를 원한다면 자본주의는 미래의 체제이다.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보수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려야 한다. ‘보수주의’는 항상 오해를 가져오는 이름이었고 미국에는 부적합하다. 오늘날 ‘보존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확립된 정치철학, 지적인 정설正說, 현상유지는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의 모든 기본전제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적합한 단어는 급진주의자이다. ‘급진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전사들은 파산한 ‘보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새 급진주의자, 새 지식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고 헌신적인 도덕가가 되어야 한다.

20

새 파시즘 : 여론정치*

아인 랜드

11

나는 오늘날의 지적 유행에 잘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인기가 없는 것, 그래서 ‘반여론anti-consensus’인 것부터 시작하겠다.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용어를 먼저 정의 하겠다.

세 가지 정치체제인 사회주의, 파시즘, 국가통제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당신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 1965년 4월 18일 보스턴의 Ford Hall Forum에서 가졌던 강연에 근거함.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5년 5~6월호에 게재됨.

사회주의 : 생산수단, 자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의 사회귀속을 지지하는 사회조직의 체제나 이론.

파시즘 : 강력한 중앙집권력을 가지면서 반대나 비난을 허용하지 않고 국가의 모든 일(산업, 상업 등)을 통제하는 정부체제.

국가통제주의 : 개인자유를 희생시키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정치적 통제와 그와 관련된 통제를 국가에 집중하는 정치나 원리.¹⁾

‘국가통제주의’는 사회주의와 파시즘을 국가통제주의의 특정한 변형으로 하는 광의의 포괄적인 용어인 것은 분명하다. 국가통제주의가 우리시대를 압도하는 정치추세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변형 중 어떠한 것이 그러한 추세의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는가?

‘사회주의’와 ‘파시즘’은 둘다 재산권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에 주목하라.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용과 처분에 대한 권리이다. 이 두 이론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사회주의는 사적 재산권을 모두 부정하고 ‘소유와 통제의 귀속’을 사회 전체, 즉 국가에 둔다. 파시즘은 소유권은 개인의 손에 두지만 재산에 대한 통제는 정부로 이전한다.

재산에 대한 통제를 가지지 않는 소유는 용어에서 모순이다. 그것은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없이 모든 이익을 획득하는 반면에 시민들은 그 어떠한 이익도 없이 재산을 보유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가 파시즘보다 더 정직하다. 둘다 실제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정직한’ 것이라고 나는

1) 이 정의들은 *The American College Dictionary*, New York: Random House, 1957에 있는 정의이다.

말한다. 둘다 동일한 집단주의자-국가통제주의자 원칙에서 나왔고, 둘다 개인권리를 부정하고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며, 둘다 시민들의 삶과 생계를 전능한 정부의 힘에 맡긴다.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차이점은 지배자들이 그들의 노예화된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문구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단지 시간, 정도, 피상적인 세부사항의 문제이다.

국가통제주의의 두 변형 중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가? 사회주의인가 파시즘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오늘날의 문화를 지배하는 이념적 추세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치욕스럽고 놀랄 만한 답변은 오늘날 이념적 추세는 없다는 것이다. 이념이 없다. 정치적 원칙, 이론, 이상, 철학이 없다. 방향, 목표, 미래에 대한 비전, 지도력의 지적 요소도 없다. 오늘날의 문화를 지배하는 감정적인 요소는 있는가? 그렇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포이다.

정치철학이 없는 국가는 대양 한가운데서 운 좋은 바람, 파도, 조류에 좌우되면서 닳치는 대로 표류하는 배와 같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선실로 몰려가면서 선장의 함교艦橋가 텅빈 것을 발견하기가 무서워 “배를 요동시키지 마시오!”라고 소리지른다.

요동할 수 없는 배는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시 항로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더 강한 요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현실, 원칙, 장기적 안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현실안주자들’이 피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버둥거리고 있는 것들이다.

노이로제 환자가 현실의 사실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오늘날 문화 전체에 대한 노이로제는

만일 사람들이 모든 원칙과 개념을 말살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치원칙과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맹렬한 필요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사실상 개인이나 국가가 이념의 어떤 형식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이념이 이제 파산된 우리 문화의 형식적, 명시적, 지배적 이념이다.

이 반이념은 새롭고 아주 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론정치Government by Consensus’라고 불린다.

만일 몇몇 선동정치가가 지도강령으로 다음과 같은 교의를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하자. 통계가 진실을 대체하고, 득표수가 원칙을 대체하고, 숫자가 권리를 대체하고, 여론조사가 도덕을 대체해야 한다. 순간의 실용적인 편법이 한 나라 이익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신봉자의 숫자가 어떤 사상의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구나 본질을 지지하는 한 그것들은 유효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수는 소수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악당규칙과 폭도규칙이다. 만일 어떤 선동정치가가 이것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론정치’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다.

이 개념은 이념으로서가 아니고 반이념으로서, 원칙이 아니고 원칙을 말살하는 수단으로서, 이성이 아니고 합리화로서, 국가적인 불안 노이로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말뿐인 의식, 또는 신비한 제조법으로 지금 선전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현실안주자들’을 위한 원기회복약이나 신경안정제이다.

‘여론정치’라는 개념의 의미, 시사점, 결과들에 대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지도자와 지적 지도자들의 발

표에 대한 오늘날의 무기력한 경멸이다. 당신들 모두는 그것을 들어왔으면서도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정치가들의 수사修辭로 여기고 잊어버린 것으로 나는 의심한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들이 고려하라고 내가 재촉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뉴욕타임스』(1964년 10월 11일자)에 실린 톰 위커Tom Wicker의 글이다.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가 ‘미국 사상의 주류the mainstream of American thought’라고 부르곤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위커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 주류는 정치이론가들이 ‘국가여론’으로 몇 년 동안 계획해온 것이다.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은 교묘하게도 ‘생명센터’라고 불러왔다…… 정치적 중용은 정의상 여론의 심장부이다. 다시 말해 여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견해(전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모든 사상들)에 퍼져 있다. 따라서 수용될 수 있는 사상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이 중용의 의미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보자. “여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견해에 퍼져 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여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견해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양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성acceptability’의 기준이 무엇인가? 위커씨는 그것을 제공해준다. 그 기준은 지식과 어떤 견해의 진위眞僞에 관한 질문이 아니다. 그 기준은 도덕과 견해의 옳고그름에 관한 질문이 아니다. 견해가 모순이 되든 안되든 기준은 감정이다. 누구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견해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

로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또다른 단서가 있다.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들을 위협하는 견해는 '수용할 수' 있나? 개인은 어떤가? 확실히 개인과 소수 그룹은 고려되지 않는다. 어떤 사상이 한 사람에게 아무리 모순이 되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 일, 미래를 아무리 위협하든 그가 상당히 큰 폭력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는 전능한 여론과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고 희생당한다.

그 누구에게든 '직접적인 위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혼합경제에서는 모든 정부행동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위협이다. 경제에 대한 모든 정부의 간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몇몇 사람들에게 부당이익을 준다. 어떤 정의의 기준에 여론정부가 따라야 하나? 희생집단의 크기에 의해서이다.

이제 위커씨의 마지막 문장에 주의해보자. "따라서 수용될 수 있는 사상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이 중용의 의미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다른 사람들? 그것은 개인들이나 소수의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의미는 모든 '다수집단'이 모든 다른 '다수집단'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그룹이 모든 공장들을 국유화하기를 원하고 실업가 그룹은 재산권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라. 각 그룹이 다른 그룹의 견해를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경우 '중용'은 무엇인가? 공공지출로 지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그들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납세자의 갈등이 있을 경우 무엇이 '중용'인가? 남부지방의 흑인과 같이 공정한 시도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그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작은 그룹의 사람과 그들 사회의 '공익'으로 그에게 사형私刑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 남부지방의 인종차별주의자 그룹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무엇이 '중용'인가? 나의 삶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나와, 국가의 '공익'으로 나를 강탈하고, 노예로 만들고, 살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 공산주의자 사이에(또는 각자의 추종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무엇이 '중용'인가?

정반대 되는 원칙 사이에는 합의근거, 중도, 타협이 없다. 이성과 도덕의 영역에서는 '중용'과 같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성과 도덕은 '여론정치'라는 개념에 의해 폐지된 두 개념이다.

여론정치란 개념의 지지자는 어떤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사상은 '극단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어떤 형태든 '극단주의'와 비타협적인 자세는 나쁘며, 여론은 '중용'에 따르는 사상들에게만 '퍼져 있고', '중용'은 이성과 도덕을 대신하는 지고至高의 덕이라고 이 시점에서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여론정치'에 대한 신념의 핵심, 본질, 동기, 실질적인 의미인 타협예찬에 대한 단서가 된다. 타협은 혼합경제의 전제조건, 필수품, 명령이다. '여론'에 대한 신념은 혼합경제의 야만적인 사실들을 이념적(또는 반이념적) 체제로 변환시켜 정당성과 유사한 것을 제 공하려는 시도이다.

혼합경제는 원칙, 규칙, 이론이 없는 자유와 통제의 혼합이다. 통제는 반드시 또다른 통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독재를 가져오는 불안정하고 폭발하기 쉬운 혼합물이다. 혼합경제는 정책, 목표, 법을 정의하는 원칙이 없다. 즉 혼합경제하에서는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원칙이 없다. 이름이 붙여져서도 안되고 인정되어서도 안

되는 혼합경제의 유일한 원칙은 어떤 사람의 이익도 안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이익은 공공경매대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은 일을 잘해내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다. 그러한 체제, 또는 더 정확하게 반체제는 한 나라를 전례없이 급증하는 적진들과, 막연한 공격과 방어의 혼합 속에서 정글의 본질에 따라 자기예방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경제단체들로 분해한다. 정치적으로 혼합경제는 유사한 법과 질서를 가진 유사한 조직사회를 유지하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혼합경제는 중국을 수세기 동안 지배했던 무질서(도둑집단들이 국가의 생산요소들을 약탈하고 유출시키는 무질서)와 동등하다.

혼합경제는 압력단체에 의한 지배이다. 그것은 모두가 입법기구에 대한 덧없는 통제를 움켜쥐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행동, 즉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몇몇 특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싸우는 특수이익집단과 로비집단에 대한 초도덕적이고 제도적인 내전이다. 개인권리, 도덕적, 또는 합법적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압력단체의 불안정한 유사질서를 유지하고, 혼합경제가 만들어낸 아주 욕심 많은 야만인을 억제하고, 합법적인 약탈자가 비합법적인 약탈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혼합경제의 유일한 희망은 타협이다. 즉 어떤 단체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월권을 못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부패한 구조를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과 물질적, 정신적, 지적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의 타협이다. 만일 게임이 계속된다면 어떤 것도 견고하고, 튼튼하고, 절대적이고,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허락될 수 없다. 모든 것은(그리고 모든 사람은)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고, 불확실해야 한다.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 순간의 편법에 의해서이다.

혼합경제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타협되지 않는 가치, 덕, 사상이

다. 유일한 위협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단체, 운동이다. 유일한 정적이다.

그러한 게임에서 누가 계속 승자가 되고 누가 계속 패자가 되는지는 지적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여론일지를 그 게임이 원하는지는 명백하다. 그것은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것은 ‘협상’을 하고, 나머지는 압력, 로비, 조종, 호의적인 교환, 홍보, 타협, 기만, 구걸, 매수,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준다는 무언의 합의이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무장해제된 희생자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특권을 상으로 주는 맹목적인 전쟁이다.

이러한 형태의 상은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확립한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것은 강한 정부, 즉 무제한의 힘을 가지고 있고, 승자와 미래의 승자에게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어느 정책을 표명하지 않고, 어떤 이념에 구속받지 않으며, 힘을 위한 힘을 모으는 정부를 가지려는 욕망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특정한 법을 국가에 강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부를 움켜쥐는 ‘중요한’ 폭력단을 위하고, 또한 그 폭력단을 이용하는 정부를 가지려는 욕망이다. 따라서 ‘타협’과 ‘중용’의 신조는 정부의 힘을 제한하려는 제안을 제외한 모든 것에 응용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온건주의자’가 자유, 즉 자본주의 지지자들에 대해 중상, 욕설, 신경과민적인 증오를 촉발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극단적 중도’나 ‘투쟁적인 중도’와 같은 명칭이 사람들에게 의해 진지하고 독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골드워터Goldwater 상원의원에 대한 중상캠페인의 터무니없이 사악한 격렬함에 주목하라. 그것은

실질적인 친자본주의 운동이 그들의 계임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한 ‘온건주의자’ ‘중요한 중도파 의원’ ‘중도파’들의 혼란을 연상하게 한다. 부언하면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자본주의의 지지자가 아니었고 그의 의미도 없고, 철학도 없고, 지성적이지도 않은 캠페인이 여론지지자를 구축하는 데 공헌했기 때문에 친자본주의 운동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느끼는 공포의 본질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이 과시하는 ‘중용’, 대중선택에 대한 ‘민주적인’ 존경, 의견 불일치나 반대자에 대한 관용을 언뜻 보여준다.

『뉴욕타임스』(1964년 6월 23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어느 정치학 교수는 골드워터의 지명을 두려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실질적인 위험은 그의 지명이 불러일으킬 확고한 캠페인에 있다…… 골드워터의 입후보는 유권자를 분열시키고 실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효율성을 위해 미국정부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여론과 양당제를 요구한다…….

언제 누구에 의해 국가통제주의가 미국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논의와 이견을 보일 수 없는 원칙이 되어 다른 기본적인 문제가 더이상 제기될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것이 일당제 정당정치 방식인가? 그 교수는 상술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1964년 6월 24일자)에 기고한 다른 글에서 ‘자유주의 민주당의자 Liberal Democrat’라고 밝힌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미국인들이 11월에 선택하도록 하자. 만일 그들이 압도적으로 린든

존슨 Lyndon Johnson과 민주당을 선택한다면 일시에 연방정부는 외국에 대한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만의 흑인, 실업자, 노약자, 다른 장애인들이 기대하는 것을 이유 없이 단번에 진행시킬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골드워터를 선택한다면 국가는 결국 거의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드로 윌슨 Woodrow Wilson은 한때 너무 자랑스러워 싸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는 전쟁을 해야만 했다. 총알 대신에 투표용지를 가지고 아직 전투를 할 수 있을 때 단번에 결말을 내도록 하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편에 표를 찍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는 것인가? 당신의 추측은 나와 마찬가지로이다.

확실히 여론정치를 지지했던 『뉴욕타임스』는 존슨 대통령의 승리에 대한 논평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1964년 11월 5일자 사설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무리 당당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단진부한 일반화와 자기도취적인 약속의 바다를 따라 밀려가는 인기의 물결을 탈 수는 없다…… 이제 행정부는 광범위한 대중의 위임을 받았고, 행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렵고, 구체적이고, 중대한 행동과정을 정착시켜야 하는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중대한 행동인가? 만일 유권자들에게 ‘진부한 일반화⁹와 자기도취적인 약속’만이 제시되었다면 어떻게 그러한 투표를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위임’으로 간주하겠는가? 지명되지 않은 목적의 위임인가? 정치적인 백지수표인가? 그리고 만일 존슨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는 것’으로 당당한 승리를 했다면 그가 지금은 무엇이 되겠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어떠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거나 배신하며, 무엇이 광범위한 대중적 여론인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 사실은 아주 수상스럽고 자가당착적이다. 그러나 혼합경제의 반이념이라는 배경하에서 그것은 명백하고 일관성이 있다. 사람들은 혼합경제의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갖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백지수표가 그가 유권자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이다. 그 이후로는 백지수표가 압력단체의 손에 달리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승인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그가 줄 것인지는 운에 달렸고, ‘다수의 인구’에 의존한다.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은 힘을 유지하고 호의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1930년대 ‘자유주의자’는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과 개혁정신을 가졌었고, 그들은 계획사회를 지지했고, 추상적인 원칙으로 말했으며, 탁월한 사회주의 본질을 가진 이론들을 제의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정부권력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 대부분은 정부권력은 속박에서 물질적 필요에 이르기까지 개인을 해방시키려는 ‘고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라고 반대자들을 확신시키고 있었다.

오늘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계획사회를 말하지 않는다. 장기 프로그램, 이론, 원칙, 추상, ‘고귀한 목적’은 더이상 유행하지 않는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는 전체사회나 전체경제와 같은 대규

모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비웃는다. 그들은 비용, 배경,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고, 순간적인 프로젝트나 요구에 관심을 가진다. ‘태도stand’가 아니라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들의 ‘자세stance’의 정당함을 증명해보라는 요구를 받을 때 그들은 ‘이상적인idealistic’ 형용사보다는 ‘실용적인pragmatic’ 형용사를 좋아한다. 그들은 정치철학에 굉장히 반대한다. 그들은 ‘꼬리표’ ‘이름표’ ‘신화’ ‘환상’과 같은 정치적 개념을 비난한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견해에 ‘이름표’를 달려는 시도, 즉 그들의 견해를 밝혀내려는 시도에 저항한다. 그들은 호전적으로 반이론적이며, 그들의 어깨에 지성의 빛바랜 외투를 걸치고 있는 반지성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옛 ‘이상주의idealism’의 유일한 자취는 진부한 ‘인도주의적인’ 슬로건의 지치고, 냉소적이고, 의식적인 인용뿐이다.

냉소, 불확실성, 공포는 그들이 아직도 압도하고 있는 문화의 혼장들이다. 이념적 준비에서 쓸모없이 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무섭게 현명해지고 명백해지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권력, 즉 독재, 국가통제, 전제주의의 정부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그것은 개혁을 하는 현명함도, 임무를 가진 광신자에 대한 욕망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망연자실한 절망상태에서 그의 목적에 대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법은 있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법을 통과시키면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다, 폭력이라는 신비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완고한 믿음으로 아직도 그의 신비로운 무기를 붙들고 있는 몽유병자의 생기 없는 총명함 같다.

그것이 우리 문화의 현재 지적 상태이고 이념적 추세이다.

이제 나는 이 논의의 초기에 제기했던 질문을 당신들이 고려해보기를 요청한다. 국가통제주의의 두 변형 중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사회주의인가 파시즘인가?

그 해답의 일부분으로 1964년 10월 『워싱턴 스타Washington Star』지에 실린 사설을 인용하여 증거로 제시한다. 그것은 진실과 오보의 생생한 혼합이며 오늘날 정치지식 상태의 전형적인 예이다.

사회주의는 아주 단순히 말해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이다. 이것은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 의해 제안된 적이 없었고 린든 존슨이 제안한 적도 없다.(진실임)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기업에 대한 정부통제나 개인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증대시키는 일련의 입법활동이 있다.(진실임) ‘사회주의’에 대한 경고의 소리는 그러한 입법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정부규제의 헌법적 조항 외에도 독점금지법과 같은 것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침입’을 시작한다.(아주 진실임) 그들 덕분에 경쟁적 자본주의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카르텔 자본주의cartel capitalism의 존속이 가능하게 되었다.(진실이 아님) 사회주의는 어떤든 카르텔 자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사실상 사회주의를 예방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거짓보다 더 나쁨)

복지에 대한 입법활동에서는 현재의 사회주의가 제공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에 대한 보장에는 몇 년 뒤떨어져 있다.(진실이 아님) 그것은 일종의 이념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인간고통에 대한 통상적인 인간관심처럼 보인다(이 문장의 전반부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념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다. 문장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인간고통에 대한 통상적인 인간 관심은 흔히 이웃의 지갑이나 소득을 겨냥한 총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설은 물론 정부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지 않는 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제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파시즘이라고 가정한다. 복지국가통제주의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그들은 개인 재산의 사회화를 지지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개인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 정부통제를 가진 채 개인재산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파시즘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여기에 다른 증거가 또 있다. 이것은 처음 것보다는 순진하지도 2 않으며 더 교활할 정도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경제학 조교수가 1964년 11월 1일자 『뉴욕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거의 모든 척도로 볼 때 오늘날 미국은 아마 다른 산업국가들보다 더 민간기업을 위하고 있고 사회주의 체제에는 원격적으로나마 접근하지 않는다. 비교경제체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부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는 광범위한 국유화, 압도적인 공공부문, 강력한 협동조합운동, 인류평등주의적인 소득분배, 완전한 복지국가와 중앙계획으로 인식된다.

미국에서는 국유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심사가 민간기업에게 이양되어 왔다…….

이 나라에서 소득분배는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하며 조세감면과 조세허점이 우리 조세구조의 적당한 누진성을 무디게 해왔다. 뉴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계획 및 포괄적인 사회보장과 비교해보면 미국은 아주 제한적인 복지국가이다.

상상력을 마음껏 펴지 않더라도 이 캠페인의 실질적인 문제는 자본주

의와 사회주의의 선택, 또는 자유경제와 계획경제의 선택이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간기업 체제라는 틀 속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에 관한 것이다.

민간기업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산권을 포함한) 사람의 개인권리를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이다. 자유경제에서 정부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편지를 쓴 사람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는 ‘자유주의자’이거나 자칭 자본주의 지지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본주의 지지자라면 그 사람과 같은 견해(이와 같은 견해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데)는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의 사상보다 자본주의에 더 손해를 끼치고 손상을 준다는 것을 나는 지적해야만 한다.

그러한 ‘보수주의자’는 자본주의를 정부통제와 양립할 수 있는 체제로 간주하고, 따라서 가장 위험한 오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준다.³ 다. 완전하고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가 어디에서든지 아직 존재해보지 않았고, 어떤 (불필요한) 정부통제는 작은 장애물로서 원래의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오류를 통해서) 미국체제를 희석시켰고 약화시키는 반면에 19세기의 혼합경제는 현저하게 자유로웠고, 인류에게 미증유의 진보를 가져다준 것은 전례없는 이 자유이다. 원칙, 이론, 자본주의의 실제적인 실습은 지난 2세기의 역사가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자유롭고 규제가 없는 경제에 의존한다. 어떠한 자본주의 지지자도 ‘자유방임’과 ‘혼합경제’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혼합경제란 용어는 두 개의 반대되는 요소가 혼합된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의 요소인 자본주의와 정부통제의 요소인 국가통제주의이다.

모든 정부는 경제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며, 자본주의는 자유경제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특권층을 위하는 정부통제체제라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집요한 캠페인이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캠페인의 목적은 경제학을 왜곡시키고, 역사를 다시 기록하며, 자유국가와 통제가 없는 경제의 존재와 가능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정부통제에 의해 지배되는 명목적인 개인재산의 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파시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살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파시즘과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 사이의 선택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통제주의자와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다(자유파괴가 그들 공통의 목표이고 그 이후에 그들은 권력투쟁을 하기 바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교수와 많은 ‘보수주의자’의 견해는 자본주의를 파시즘과 동일시하는 악의에 찬 좌익의 선전에 신임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건의 논리에 모진 정의justice가 있다. 그 선전은 공산주의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선전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같이하고 있는 ‘자유주의자’, 복지국가통제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 되는 결과이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대신에 그 선전은 파시즘을 속이고 위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 나라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방어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이익을 포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자본주의는 통제, 특히 그들의 특징이

익(정부기부, 최저임금, 가격지지, 보조금, 독점금지법, 나쁜 영화에 대한 검열)을 더 가져오는 특정한 통제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들은 그 결과가 ‘수정’자본주의보다는 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동행할 것이다. 따라서 파시즘을 증오하는 국가는 무지, 혼돈, 회피,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적 태만을 통해 사회주의나 역겨운 이타주의적 이상을 향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꾸밈없고, 잔인하고, 약탈하며, 권력을 찾는 사실상의 파시즘으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동하고 있다.

아니다, 우리는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더이상 ‘근본적으로 민간기업 체제’는 아니다. 현재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붕괴되고 있는 혼합경제이다. 사회주의적 계획의 잡종이 섞인 혼합, 공산주의의 영향, 파시스트 통제, 아직도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축된 자취 등 그 모든 것들이 파시스트 국가를 향해 굴러가고 있다.

미국의 현정부를 생각해보자. 만일 내가 존슨 대통령이 철학사상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파시스트도, 사회주의자도, 친자본주의자도 아니다. 이념적으로 그는 특정한 것이 없다. 그의 과거기록과 그의 지지자들의 여론으로 판단해보면 그의 경우에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아주 위험하지만 현재 우리 상태에 아주 적합한 비범한 정치인이다. 그는 혼합경제의 완벽한 지도자의 가공적이며 전형적인 화신이다. 그는 권력을 위한 권력을 즐기는 사람이고, 압력단체를 조종하여 서로 대항하도록 하는 전문가이며, 웃음, 불쾌감, 호의, 특히 갑작스러운 호의를 분배하는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다음 선거 이후까지는 비전을 확장시키지 않는 사람이다.

존슨 대통령이나 오늘날 저명한 그 어떤 단체도 산업의 사회화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의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존슨 대통령은 사업가는 혼합경제의 돈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이 번영하여 (다음 선거에서 필요한) 그의 복지 프로젝트를 유지해줄기를 원한다. 반면에 사업가는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것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 사업가 로비는 노동자 로비나 농장주 로비, 또는 다른 ‘중대한 부분’의 로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요구조건에 대한 영향력과 인정에 있어서 공정한 몫을 확실하게 얻으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연고귀족the aristocracy of pull’이라고 부르는 사업가를 만들어내고 격려하는 일에 특히 정통하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형태가 아니고 파시즘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사업가를 향한 존슨 대통령 정책의 정치적, 지적, 도덕적 의미는 1965년 1월 4일자 『뉴욕타임스』지의 글에 설득력 있게 요약되어 있다.

존슨씨는 사업계에 대한 주도면밀한 구애에서는 철저한 케인즈학과 사람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할 때까지 사업가를 공격하기를 즐긴 루스벨트 대통령과 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초래한 케네디 대통령과는 다르게 존슨 대통령은 그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의 대열에 사업가를 동참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다.

이 캠페인은 많은 케인즈학과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순수한 케인즈이다. 사실 미국 사업가들에 의해 한때 위험한 권모술수가로 간주되었던 케인즈경은 대통령과 기업계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다.

그는 1938년, 전년도에 발생한 불황에 뒤이어 사업가들로부터 부활된 비난의 곤경에 빠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견해를

적었다.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자본주의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찾았던 케인즈경은 사업가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손상된 관계를 개선하라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확신시키려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업가는 정치인이 아니며 동일한 대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언했다. “그들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온순하고 동시에 세상의 평판에 유혹당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애국자’가 되는 것에 쉽게 설득당하며,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하며 두려워한다. 그들은 활기에 찬 견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들에 대해 확신이 없고, 어떤 종류의 단어에 감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케인즈는 적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업가들을 길들여, 대통령이 단순한 케인즈법칙에 따르는 한 사업가들이 대통령의 분부에 따르게 할 수 있다고 케인즈는 확신했다.

“비록 사업가들이 아주 나쁘게 길러졌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훈련이 안되었더라도 만일 당신이 사업가들을 (심지어 대기업가조차도) 늑대나 호랑이처럼 다루지 않고 가축처럼 다룬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적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조언을 무시했다. 케네디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은 케인즈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친절한 말과 격려를 자주 해주어 그가 시키는 대로 재계가 하게 했다. “만일 당신이 잘못 다루어진 가축이 할 수 있는 완고하고 두려운 분위기 속으로 그들을 몰아붙이면 국가의 부담이 시장으로 옮겨지지 않고 여론이 결국 그들을 외면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사업가를 ‘국가의 부담’을 짊어지고 대통령에 의해 ‘그의 명령대

로 하도록’ ‘훈련’된 ‘가축’과 같다고 한 견해는 확실히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견해는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사업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주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견해가 아니다. 그것은 파시즘의 경제적 본질이며 파시스트 국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의 경제적 본질을 나타내는 견해이다.

어떠한 용어로 속이더라도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변형된’(또는 ‘수정된’ ‘근대화된’ ‘인간화된’) 자본주의의 형태이다. 이러한 모든 형태에서 ‘인간화’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가장 생산적인 구성원들)을 집 나르는 짐승으로 전환시킨다.

희생제물들이 속임을 당하고 길들여지는 방식은 강요와 빈도가 증대되는 가운데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사업가는 정부를 적으로서가 아니고 ‘동반자’로 간주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개인단체와 정부관료, 기업과 정부, 생산과 폭력 사이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의 개념은 폭력을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요소와 궁극적인 조정자로 간주하는 파시스트 이념의 전형적인 언어의 와전, 즉 ‘반개념’이다.

‘동반자 관계’는 ‘정부통제’에 대한 풀사나운 완곡표현이다. 무장한 관료와 복종할 수밖에 없고 방어능력이 없는 시민 사이에 동반자 관계는 없다. 독단적인 단어가 법이며, (만일 당신의 압력단체가 충분히 크면) 당신에게 청문회의 기회는 줄 수도 있지만, 자기마음에 드는 사람과 짜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흥정을 하며, 총을 들이대고 당신의 재산, 일, 미래, 삶을 그의 권력하에 두기를 강요하는 최후 통첩과 법적 ‘권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 ‘동반자’에게 어떻게 당신이 대항할 기회를 가지겠는가? 그것이 ‘동반자 관계’의 의미인가?)

5

그러나 그러한 매력적인 가능성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다른 단계나 직업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업가 속에도 존재한다. 그들은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두려워하여 그들보다 능력 있는 경쟁자들로부터 특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무장한 ‘동반자’를 환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업적보다는 연고로 승진하려는 사람들이고 권리보다는 호의로 기꺼이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사업가 중에서 이러한 유형의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독점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고 오늘날 아직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상당수의 공화당 사업가들이 존슨 쪽으로 돌아섰다. 1964년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 이것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북동부와 중서부의 5개 공업도시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대기업 임원과 소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치전망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평생 처음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기업임원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기업임원 중 젊은층과 노년층보다는 40대와 50대가 존슨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 40대와 50대의 많은 사업가들은 젊은층 임원 가운데서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존슨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30대 임원들에 대한 면담조사는 이를 확인시켜 준다…… 젊은 임원들은 젊은 세대에서 자유주의로 향하는 추세를 역전시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말한다…… 소기업과 대기업 사업가 사이에 의견이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부적자이다. 대기업의 임원들은 정부적자는 때때로 필요하고, 심지어는 아주 바람직하다

는 생각을 훨씬더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소기업가는 적자지출을 아주 경멸한다.

이것은 혼합경제에서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제가 젊은층과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는지를 나타낸다.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의 정서에서 중요한 면은 정당한 이득과 부당이득의 차이를 없애버리고, 따라서 헵크 리어던(Hank Rearden)과 오렌 보일(Orrin Boyle)의 차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바람이다. 부의 근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외쳐대는 고착화되어 있고, 순간적이며, 원시적인 사회주의 정서로 볼 때, 부의 근원에 관계없이 부자들은 모두 적이다. 30대에는 ‘이상주의자’였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유주의자’가 된 그러한 정서는 어떤 종류의 부가 파괴되고 있으며 그들 ‘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종류의 번영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회피하면서 부자들을 적대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회주의 국가의 한 종류로 우리가 이동해가고 있다는 환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다. 이상주의자가 주장하는 ‘이상’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파시즘을 향해 길을 포장해왔다고 하는 그들에 대한 심한 농담이 있다. 그들 노력의 수혜자는 단호한 상상과 진부한 허구를 가진 어찌할 도리가 없고 머리가 나쁘게도 고귀한 ‘작은 사람’이 아니고 약탈과 폭력과 정치적 특권에 의한 부자의 최악의 형태와 자본주의하에서는 기회를 가질 수 없으나 모든 집단주의자의 ‘고귀한 실험’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등 모든 형태의 국가통제주의하에서 파괴된 사람은 부의 창출자인 헵크 리어던이다. 국가통제주

2) Ayn Rand, *The Fascist New Frontier*, New York: Nathaniel Branden Institute, 1963, p.8.

의, 특히 파시즘의 특권 ‘엘리트’이며 부당이득자는 식충이인 오렌 보일이다(사회주의의 특별한 부당이득자는 제임스 타가트James Taggart이고 공산주의의 부당이득자는 플로이드 페리세스Floyd Ferrises이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리적인 상대자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나라에서 점점더 또렷해지고 있으며 압력단체의 힘의 부산물인 경제조직의 독특한 형태는 국가통제주의의 최악의 변형 중의 하나인 길드사회주의(guild socialism)이다. 길드사회주의는 사람들을 엄격한 규칙하에서 직업적 특권 계급으로 묶어둠으로써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약탈한다. 대부분의 국가통제주의자들이 보통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길드사회주의는 그들의 기본적 동기가 공개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길드사회주의는 능력 있는 경쟁자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속박하여 직업에 있어서 하잘것없는 보통사람으로 만든다. 그 이론은 (지지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대규모로 실시한 가장 유명한 예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였다.

1930년대 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은 길드사회주의의 한 형태이며 다른 어떤 것들보다 무솔리니Mussolini 체제에 근접한다고 했다. 그들은 목살당했다. 오늘날 증거는 명백하다.

만일 파시즘이 미국으로 건너온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로 위장하고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싱클레어 루이스Sinclair Lewis의 『여기서는 일어날 수 없다It Can't Happen Here』를 읽어보거나 다시 읽어보되 파시스트 지도자인 베르질리우스 윈드립Berzelius Windrip의

특성, 스타일, 이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것을 권한다.

② 이제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체제의 본질을 그들이 위장하려고(파시즘과 차별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데 대한 일반적인 반대에 대해 언급하고 답을 해보자.

“파시즘은 일당 지배를 필요로 한다.” ‘여론정치’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되겠는가?

“파시즘의 목표는 전세계의 지배이다.” 세계의식을 가지고 있고 당파를 초월하는 국제연합 지지자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도달한다면 ‘하나의 세계’라는 권력구조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까?

“파시즘은 인종차별주의를 장려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 히틀러하의 독일은 그랬지만 무솔리니하의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파시즘은 복지국가를 반대한다.” 당신의 역사책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에게 강탈한 돈으로 몇몇 단체의 충성을 산다는 개념을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서 복지국가의 아버지이자 창시자는 히틀러의 정치조상인 비스마르크Bismarck였다. 나는 나치당의 정식명칭이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National Socialist Workers Party of Germany이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1920년 2월 24일 뮌헨에서 채택된 그 당의 정치 프로그램 초록을 당신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가 특히 시민들에게 적당한 고용의 기회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활동은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되어서는 안되며, 그 범위내에서 일어나야 하고 모두에게 선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적 이익에 대한 힘의 종말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기업들의 이윤분담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보살핌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 주정부 및 시당국이 구매에 있어서 소기업을 최대한 고려해줄 것을 요구한다.

능력 있고 부지런한 모든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교육의 전소체제를 골고루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부모를 가진 재능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는 정부가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 미성년 노동을 금지시키며…… 젊은 이들을 위한 체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클럽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배제하는 유물론적 정신과 싸우며, 우리 국민들을 영원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선에 우선하는 공동체의 선의 기초에서만 계속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³⁾

그렇지만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파시즘의 형태와 유럽국가들을 파괴했던 파시즘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형태는 호전적인 파시즘의 유형이 아니며 날카로운 선동정치가, 피비린내 나는 흉악범, 병적인 삼류 지식인, 비행소년의 조직적인 운동이 아니다. 우

리의 형태는 타오르는 재난과 같은 것이 아니고 내부부패에 의해 서서히 먹혀들어가는 둔감한 육체의 조용한 붕괴와 같이 지치고, 헤치고, 냉소적인 파시즘이다.

그것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아니다. 그것을 아직 피할 수 있는가? 그렇다.

만일 당신이 인간사회의 운명의 과정과 모양을 결정하는 철학의 힘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혼합경제는 실용주의를 문자 그대로 성실하게 수행한 산물이며, 실용주의의 영향하에서 자란 세대의 산물이라는 것에 주목하라. 실용주의는 객관적인 현실이나 영원한 진리는 없으며, 절대적인 원칙, 확실한 추상, 확고한 개념은 없다는 것을 지지하는 철학이며, 모든 것은 어렵계산으로 시도될 수 있으며, 객관성은 집단적 주관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론이 지지하는 한 사람들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진리이고 사람들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철학이다.

만일 당신이 마지막 재난을 피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명제들의 모든 것을 직시하고, 이해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는 당신은 철학과 정치의 연관성 및 철학과 당신 삶에서의 일상사의 연관성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회도 그러한 철학적 기초보다 낮지 못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존 갈트의 표현을 빌면 당신은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발견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3) Walther Hofer가 편집한 *Der Nationalsozialismus Dokumente 1933~1945*(Fischer Bucherei, 1957, pp.29~31). 나치와 파시스트 이념의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기초에 대한 많은 인용들은 *The Fascist New Frontier*에 있다.

여론의 과멸*

아인 랜드

2

2년 전인 1965년 4월 18일 나는 이 포럼에서 ‘새 파시즘: 여론정치The New Fascism: Rule by Consensus’라는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다. “여론정치”에 대한 신념의 핵심, 본질, 동기, 실질적 의미의 단서는 타협에 대한 예찬이다. 타협은 혼합경제의 전제조건, 필수품, 명령이

* 1967년 4월 16일 보스턴의 Ford Hall Forum에서 가졌던 강의. *The Objectivist*, 1967년 4~5월호에 게재됨.

다. ‘여론’에 대한 신념은 혼합경제의 야만적인 사실들을 이념적(또는 반이념적) 체제로 변환시켜 정당성과 유사한 것을 제공하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혼합경제의 야만적인 사실들은 폭력단의 규칙이다. 즉 그것은 도덕원칙이나 정치원칙도 없고 프로그램, 방향, 목적, 장기목표도 없이 폭력에 의한 지배라는 목시적인 신념을 그들의 공통분모로 하고, 추세가 변하지 않는 한 파시스트 국가를 궁극적인 결과로 하는 여러 압력단체들의 권력쟁탈이다.

1965년 9월호 『객관주의자 소식지*The Objectivist Newsletter*』에서 나는 “타협을 지지하는 자의 광신과는 대조적으로 타협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불만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성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좌절로 간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다.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원칙이 빠른 속도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놀랍다.

- 2 존슨 대통령의 여론은 오늘날 어디 있는가?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은 어디 있는가? 변영으로 비쳐지는 이 시대에 확실한 국가적 재난 없이 2년 만에 추락하는 것, 즉 압도적인 승리의 정점에서 1966년 선거에서 자신의 당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로 추락하는 것은 근대정치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주저하게 하는 묘기이다.

만일 타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존슨 대통령은 그것을 시도했어야 했다. 그는 압력단체들을 조종하는 게임, 즉 약속을 하고 친구로 삼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친구관계는 유지하는 게임의 전문가이다. 조종자로서의 그의 기술은 그의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그의 ‘공식 이미지를 만드는 자들public-image builders’이 우

리에게 팔아먹었던 특성이었다. 만일 그가 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아마 추어도 할 수 없다.

타협의 실질적인 효력은 존슨의 역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한다는 첫번째 전제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공화당원도 아니고, 프로도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롬니Romney와 같이 미숙하고 온전한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아니다.

여론이 붕괴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혼합경제의 지적, 도덕적 붕괴라는 노출된 광경이며, 대중들은 잠잠한 가운데 어떤 정치적 이상이나 도덕적 정당성을 위장하는 것조차 포기한 압력단체들의 노골적이고 순간적인 요구의 소리이다.

여론주의consensus-doctrine는 위장이고 위조품이고, 투박한 무명cheese-cloth이었지만 아직도 명백한 깡패전쟁을 실습하는 데 이론적인 지위 같은 것을 부여해주는 위장이다. 오늘날 투박한 무명은 없어졌지만 이전보다 더 공개적이고 뻔뻔스러운 기능을 하는 반이념을 남겨두었다.

정치이념이란 어떤 사회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원칙들의 집합이다. 그것은 특정한 단계들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과정으로 통일시키고 통합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들을 가진 장기적인 행동 프로그램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수단뿐이다.

반이념은 사람들의 마음을 과거와 미래, 배경이나 기억, 특히 기억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에만 집착하게 하여 모순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오류나 재난을 희생자들의 탓으로만 돌리게 한다.

반이념의 실행에서는 원칙들은 암묵적으로 이용되고 반대자들을

무장해제하는 데 의존한다. 그러나 원칙들은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순간의 목적에 부합될 때는 마음대로 변한다. 어떤 목적인가? 깡패집단의 목적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선, 바른 것, 진리에 대한 나의 견해’가 아니고 ‘나의 깡패집단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가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중문제와 토론을 구역질나게 잘못되게 하고 무익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많은 잘못된 전제들에 의존하고 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옳은가?”라는 질문 대신에 “어떤 깡패집단을 당신은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을 암암리에 우리는 계속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전쟁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 소름끼치는 혼란은 (가장 큰 소리로 질러대는 이유들 때문이 아니고) 그 명칭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냉전cold war’은 용어상으로 뻔뻔스러운 모순이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미국군인이나 그들의 가족이나 우리 누구에게도 ‘차갑지cold’가 않다.

‘냉전’은 전형적인 헤겔철학의 용어이다. 그것은 A는 A가 아니며 우리가 사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 한 사물들은 사물이 아니라 명제에 의존한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사물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말하는 그대로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인식론은 심지어 무지한 러시아 농부집단에게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시민들에게 시도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문화가 붕괴되는 가장 치욕스러운 징후가 아닌가 한다.

사람들이 외국군대의 군사행동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의 원인으로 어떠한 온도를 선택하든 관계없이 그것

은 전쟁이다.

그러나 해켈철학의 용어가 혼합경제의 지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유리한 점에 주목해보라. 어떤 나라가 전쟁중일 때는 싸워서 가능한 빨리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한다. 싸우는 것과 싸우지 않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군인들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포의 밥으로 죽도록 보낼 수는 없다. 어떤 나라가 전쟁중일 때는 우리 지도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교류’나 ‘다리를 놓는 것’이니 하는 쓸데없는 말을 적에게 할 수 없다. 적과의 거래는 적의 경제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서 적이 우리 군인들을 죽이는 비행기와 총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쟁중에 있는 국가는 종종 자유문명 국가에서는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방법인 잔악한 소문을 퍼뜨려 적을 비방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자유언론을 가진 문명국가는 사실만을 말한다. 자신들에 관한 중상과 잔악한 소문을 퍼뜨리면서도 적의 잔악함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무시하거나 발표하지 않는 나라의 도덕적·지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 나라의 시민들이 적국인 베트남의 국기를 가지고 시위 행진하는 것을 당연하게 허락하는 나라의 도덕적·지적 상태는 어떠한가? 또는 대학캠퍼스에서 적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은 어떠한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전쟁중이 아니고 ‘냉전’중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전시에는 국가의 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중 영국의 호호Haw-Haw경은 극복할 수 없는 나치독일의 힘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방송에서 함으로써 영국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했다는 죄로 배신자로 간주되었다. ‘냉전’에 직면하여 오늘날 호호경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이 우리의 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전쟁의 확대’와 중국과 전쟁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구역질나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모나코와 룩셈부르크의 지도자가 했다면 도덕적으로 치욕스러울 것이다. 그것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도자에게서 나왔을 때 ‘치욕스러움’은 그들의 도덕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단어가 아니다.

만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싸우겠다고 장담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나라가 실제로 약하다면 “나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마세요. 나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소리치르면서 전쟁터로 가지는 않는다. 두려움을 평화에 대한 희망의 증거로 공포하지 않는다.

그 무서운 현상이 전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에서다. 미국은 그것으로부터 얻을 것이 전혀 없다. 전쟁은 인간사회가 할 수 있는 두번째로 나쁜 죄악이다(첫번째는 전쟁의 원인이 되는 독재와 자기국민들의 노예화이다). 어떤 국가가 전쟁에 의존할 때는 옳든 그르든 어떤 목적이 있고 싸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이다. 만일 당신이 국제적인 규모로 행해지는 이타주의의 궁극적이고 자살적인 극단을 보기 원한다면 베트남에서의 전쟁, 즉 미국군인들이 아무 목적 없이 죽어가는 전쟁을 주목해보라.

이것은 베트남전쟁의 가장 추한 악이며, 미국의 어떠한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맹목적이고, 몰상식하며,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학살의 순수한 예이다. 이것은 베트남전쟁 개입 반대자들 Victims이 울부짖고 있는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악이다.

왜 우리가 그 전쟁에 관계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으며 무엇이 우리를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도 모른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더 불가사의하게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과 미국이 그 전쟁에서 얻을 ‘이기적인’ 이익은 없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 나라에서 반공산주의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이 억제되어야 하지만 아프리카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이 베트남에서 격퇴되어야 하지만 유럽에서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은 남베트남에서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지만 동독, 폴란드, 라트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카탕가 등의 자유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은 북베트남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쿠비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은 ‘민주적인’ 선거를 유지해야 하는 남베트남의 권리와 그들이 원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한 공산주의에 투표할 남베트남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상이나 정의의 원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제한적인 다수결 원리 unlimited majority rule를 위해 싸우며, 미국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남베트남에게 강제로 공산주의자를 인정하게 하고 연립정부를 설립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준 과정이었으며 우리가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그들은 우리가 ‘국가의 자기결정’에 관한 남베트남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미국의 국가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고립주의자이고, 민족주의는 나쁜 것이며, 지구는 우리의 모국

이며, 복미를 제외한 지구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미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그 누구도 우리 지도자의 선언을 더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의 반이념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전형적인 형태에 따라 ‘신뢰성 차이(credibility gap)’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베트남에서의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용어들에 주목해보라. 명시된 목표가 없고 지적인 문제도 없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이념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명시된 ‘매’와 ‘비둘기’라는 반대되는 양편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야만인의 원시적인 인식론이다. 그러나 ‘매’는 변명조로 짓고 있고 ‘비둘기’는 목청껏 소리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내부분제는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견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고립주의자’라는 용어를 제2차 세계대전중에 만들어냈던 동일한 단체가 미국은 베트남의 내부분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소리치고 있다.

존슨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일단 성사만 되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제안하지 못했는데, 그는 평화의 대가로 10억 달러를 제공했다. 10억 달러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의 경제개발을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모든 납세자들이 그들의 베트남 주인을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노예 노동을 하는 특권을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비합리성을 과시하는 것이 미국 혼자만의 독점이 아니어서 북베트남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베트남전쟁의 적절한 해결책은 없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개입하지 않았어야 했을 전쟁이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전쟁에서 철수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되고 치욕스러운 기록에 하나의 유효적인 행동으로 남을 것이다. 유화정책의 궁극적인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계전쟁이다. 오늘날 그것은 세계 핵전쟁을 의미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은 50년에 걸친 자멸적인 대외정책의 결과이다. 원인을 수정하지 않고는 결과를 수정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재난이 '실용적으로', 즉 얼떨결에 해결된다면 국가는 어떤 대외정책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인 원칙, 즉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반이념주의자들은 기본전제를 뒤집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대외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가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의 대외정책은 초당파적이라고 하는 우리 지도자들의 주장이 더 커진다.

적절한 해결책은 미국의 권리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헌신하며, 외국원조와 모든 형태의 국제적인 자기희생을 거부하는 정책, 즉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외정책을 가진 정치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리라. 그러한 정책 하에서 우리는 즉시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고, 단 한 사람도 철수를 오해하지 않는 가운데 세계는 평화를 달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가가 현재는 없다. 현재상태에서 유일한 대안은 그 전쟁에서 가능한 한 빨리 승리하여 한국에서의 '냉전'이 우리를 베트남으로 밀어낸 것처럼 베트남전쟁이 우리를 또다른 '냉전'으로 밀어내기 전에 새로운 대외정책을 가진 새로운

정치가를 개발할 시간을 버는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을 그러한 책임 없는 무모한 모험에 빠져들게 한 제도는 징병제도이다.

징병제도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토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우리의 반이념적인 '주류'에 의한 유감에 찬 표현들이다.

혼합경제에서 개인권리에 대한 국가통제주의자의 침해사항들 중 징병제도가 최악의 것이다. 그것은 권리의 파기이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부정하고 국가통제주의의 근본원칙, 즉 인간의 삶은 국가에 속하며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전투에서 희생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일단 그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는 시간문제이다.

만일 국가가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원인으로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한 후 그로 하여금 강제로 죽음이나 무시무시한 불구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 그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교지에 보낼 때 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국가에서는 모든 권리가 부인되고, 그 정부는 더이상 사람을 보호하는 정부가 아니다. 거기에 무슨 또다른 보호할 것이 남아 있겠는가?

오늘날 반이념적인 단체의 무질서 속에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모순은 개인권리, 특히 재산권의 보호자의 자세를 취하면서 징병제도를 지지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소위 '보수주의자'의 모순이다. 생존권이 없는 피조물이 은행구좌를 가질 권리는 있다는 명제를 어떻게 정당화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인간은 경제적 안정, 공공주택, 의료보험, 교육, 오락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생존권은 없다거나 인간은 생계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생존권은 없다고 주장하

는 ‘자유주의자들’을 위해 지옥의 약간 높은 단계는 예약되어 있어야 한다.

징병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양쪽 모두가 사용하는 개념 중의 하나는 “권리에는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책임,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 부과된다고? 누가 부과한다는 것인가? 이념적으로 그 개념은 그것이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악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권리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선물들이며 사람은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그의 생명을) 제공함으로써 그것들을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그 개념은 모순이다. 정부의 유일한 기능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보호와 교환하여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개인권리와 관련된 유일한 ‘책임’은 국가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즉 동일률the law of identity)에 의해 부과된 책임이다. 이 경우 만일 자신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징병제도는 확실히 헌법에 위배된다. 대법원이나 개인에 의한 어떠한 합리화도 징병제도는 ‘비자발적인 노역involuntary servitude’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지원군이 자유국가를 지키는 적절하고도, 도덕적이며,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만일 그의 국가가 공격을 받는다면 자발적으로 싸워야 하나? 만일 그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가치를 둔다면 그렇다. 자유국가나 심지어 반자유국가도 외국의 공격에 직면하여 지원병이 부족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왜 싸우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군대인 지원군이 가장 효율적인 군대이고, 징병군은 가장 비효율적인 군대라는 것을 많은 군 당국자들이

증언해왔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되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그 나라 젊은이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지원자의 부족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발생한다. 첫째, 만일 어떤 나라가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인해 사기가 떨어졌다면 시민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징병이 되더라도 그들은 오래 싸우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중 제정러시아 군대의 문자 그대로의 붕괴에 주목하라. 둘째, 만일 어떤 국가가 자기방어 이외의 다른 이유와 시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는 목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그 나라는 많은 지원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원군은 가장 좋은 평화보호자 중 하나이며, 외국의 침략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 정부의 일각에 있는 호전적인 이념이나 계획에 대항한다.

한국 및 베트남과 같은 전쟁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징병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대외정책의 입안자들이 그러한 모험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징병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다른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해보자. 대규모 군대의 시대는 지났다. 현대전은 기술전쟁이다. 현대전은 수동적이고, 생각하지 않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과학적인 요원을 필요로 한다. 현대전은 힘이 아니고 머리를 필요로 하며,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고 지능을 요구한다. 사람을 강제로 죽게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생각하게 할 수는 없다. 해군이나 공군과 같이 더욱 기술

적인 분과를 가진 군대는 응소병(draftees)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원병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따라서 징병제도는 오늘날의 상태에서는 가장 효력이 없고 군대에서 가장 불필요한 분야인 보병에만 적용된다. 만일 그렇다면 국가방어가 징병제도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자들의 중요한 고려사항인가?

국가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은 운명이 걸린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징병제 지지자들의 중요한 관심이 아니다. 그들 중 일부에게는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개념과 두려움이 그 동기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더 깊은 동기가 관련되어 있다.

사악한 원칙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압력단체들은 신속하게 이러한 논리적 암시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찾는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징병제도는 노동력 징병, 즉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정부가 선택한 일자리를 부여하는 권력을 가지고 전국민들을 위해 강제적으로 노동서비스를 확립하는 제안의 정당성으로 이용되었다. “만일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죽는 것에 징병이 된다면 왜 그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징병할 수는 없는가?”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한 제안을 구체화시킨 두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다행히도 좌절되었다. 그 법안 중 두번째 법안은 흥미로운 궤변에 차 있었다. 징병된 노동자에게는 조합의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합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군대징병자와의 ‘공정성’을 위해 군대급료와 동일하게 지불하고 나머지 임금은 정부가 차지한다.

당신은 어떤 정치단체가 이러한 개념을 생각해냈다고 추측하는가? 두 법안 모두 공화당원이 만들었고 우리와 전제정치 국가 사이에서 있는 유일한 대규모 경제단체인 조직화된 노동자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오늘날 징병제도의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주목해보라. 징병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1) 것이다, 징병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지원군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군대는 이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 징병된 군인에 대한 지불은 현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서 1시간에 약 1달러이다.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수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함으로써 군대경력을 민간노동시장의 기준과 비교할 수 있다.

지원군에게 지불된 비용의 정확한 추정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추정치는 1년에 약 40억 달러이다.

이 숫자를 기억하라. 당신이 일간신문에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숫자를 기억하고, 특히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기억하라.

15세와 25세의 시기는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세계와 다른 사람들과 그가 살아가야 할 사회에 대한 그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기이고, 죄를 자각하고, 자기의 도덕가치를 정의하고, 자기의 목표를 선택하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야망을 키우거나 포기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인간의 삶을 특징짓는 시기이다. 자칭 인도주의적인 사회가 강제로 그에게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시기이다. 그 공포란 그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공포, 그가 가는 길이 예측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어느 순간에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공포, 잿빛 막사나 나아가서는 외국의 정글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한 죽음이 그의

장래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공포 등이다.

만일 젊은이가 그러한 압력의 문제점을 자각한다면 그의 심리를 황폐화시키고 그렇지 못한다면 더 나쁘다.

어느 경우든 그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지성이다. 지성은 무기력을 전제로 하고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만일 그가 사는 것이 희망이 없고 그의 생명은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손에 놓여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만일 그가 연장자들의 위선에 대해 흥분하여 비난을 하고 모든 인류에 대해 깊은 증오를 가지게 되면, 만일 그가 “지금, 지금, 지금”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그는 ‘지금’이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 그의 공포를 둔하게 하고 대형 상륙용 주정LSD으로 그의 마지막 생각까지도 죽이고 즉흥적인 비트족 문화로 전환함으로써 비인도적인 심리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면, 그를 비난하지 마라.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그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40억 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와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와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곳을 기억하라. 1968년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예산에 따르면 우리는 외국원조와 동맹국 프로젝트에 45억 달러,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53억 달러, 공공복지를 다루는 많은 부서 중 하나에 113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를 잔인한 심리적인 고문의 고통에서 구하는 데 40억 달러를 지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적 범죄 뒤에 있는 실질적인 동기는 재정적인 것이 아니다. 비용문제는 단지 합리화이다. 1966년 6월 24일 선발징병제 Selective Service System의 국장인 루이스 허쉬Lewis Hershey 중장의 다음과 같은 성명서에서 실질적인 동기를 감지할 수 있다.

“나는 시민들이 국가에 무엇인가 빛진 것이 있다고 계속 믿게 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비록 단체의 권리가 파괴되더라도 개인주의는 완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가 제출한 제안에도 동일한 동기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 이제는 언론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966년 5월 18일 맥나마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현재의 선발징병제는 소수 그룹에서 적격의 젊은이들만을 선발한다. 그것은 불평등하다. 나는 미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2년간 군대에서든, 평화봉사단에서든, 국내외의 다른 개발업무의 지원자로서든 봉사하기를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불평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업무? 누구의 개발에 대한 헌신인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벼를 심거나 도랑을 파는 것은 확실히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생산적인 경력을 준비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두메산골이나 도시의 빈민가에서 우리의 문맹자를 가르치는 것은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대학을 가는 것은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체아들에게 바구니 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무명의 원칙이 불명확하지 않은가? 생산적이며 야망 있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비참한 희생제물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

로 간주된다.

이것은 도덕적 외설(moral obscenity)이라는 의견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나라라면 그것은 미국이 아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신을 역겹게 파괴한 것이 아니라 변덕스럽고 몰상식한 방법으로 파괴한 소련도 아니다.

그 제안은 이타주의의 적나라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나타낸다. 그 제안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희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찾는다. 그 제안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 야망, 자존심, 자신감, 자아를 획득해가는 과정에 있는 바로 그 시기에 그러한 것들을 파괴하는, 즉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법을 찾는다.

맥나마라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띄운 예비적 타진(trial balloon)은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았다. 강렬한 분개와 항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서둘러 포기를 발표했다. 1966년 5월 20일자 『뉴욕타임스』는 “존슨 행정부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공익업무를 위해 징병하거나 그러한 일로 군복무를 대체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오늘 급히 만들어 발표했다. 또한 정부관리는 맥나마라의 용어는 젊은이들을 사회봉사에 ‘강요하기’보다는 ‘요청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만일 정부가 ‘강요하기’보다는 ‘요청하기’를 원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도 안되고, 그리고 징병제도와 관련된 문구를 사용하면서 ‘요청’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자 한다.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전제하는 ‘자발적인 봉사’라는 제안은 미국의 모든 청년을 향한 공갈이며, 그들에게 명백한 노예제도에 항복하도록 요구하는 공갈이다.

최초의 제안이 있는 후 희생제물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국가통제주의자-이타주의자 폭력집단은 ‘자발적인’ 사회 봉사라는 개념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1966년 9월 14일자 『뉴욕타임스』를 보면 제임스 레스톤(James Reston)은 “나는 사회와 국가 및 세계에 대한 자원봉사의 형태가 미국에서 학교에 가는 것처럼 보편화될 날,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진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 존슨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분명하다. 징병제도는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 방위의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제주의자들이 징병제도가 그들에게 주는 권력과 징병제도가 확립하는 무명의 원칙을(그리고 선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은 국가에 속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문제이며, 징병제도에 반대하여 싸우거나 그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권리는 인간에게 있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도덕적-정치적 이념 없이는 그러한 권리를 지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미친 듯이 날뛰는 양쪽의 반이념주의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문제의 접근방법은 아니다.

징병제도에 반대해야 할 사람들은 자유와 자본주의 옹호자라고 지칭되는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징병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1964년 대통령선거 캠페인 초기에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는 징병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듯한 애매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대중의 희망 섞인 관심을 자극하여 그는 즉시 그것을 철회했다. 그리고는 보비 베이커(Bobby Baker)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데 주력했다. 누

가 징병제도 문제를 대중의 관심과 논쟁 속으로 끌고 들어와 징병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는가? 극단적인 좌익인 베트남전쟁 개입 반대자Vietniks와 반전운동가Peaceniks이다.

모든 다른 단체의 반이념적 방법과 동일하게 러시아, 중국, 북베트남에 동정하는 베트남전쟁 개입 반대자들은 믿거나 말거나 개인 권리라는 명목으로 징병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절규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이 선택할 권리도 없고 자신의 생각조차 말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면서 그들이 싸울 전쟁에 대한 그들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들이 (만일 신문기사가 믿을 만하다면) 개인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이념적 혼동 중에서 나는 하나의 작은 사건을 도덕적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 뽑고자 한다. 1967년 2월 6일자 『뉴욕타임스』에서 인용해보자.

중도파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단을 대표하는 15개 학생조직의 지도자들은 징병제도의 폐지와 인도주의적인 일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장려할 것을 오늘 요구했다. (워싱턴에 있는 쇼어햄Shoreham 호텔에서 열린 징병제도와 국가봉사에 관한 이틀 동안의 회의를 마감하는 결의문에서 학생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불의를 가지고 있었던 현재의 징병제도는 민주사회내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의 원칙과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무지, 가난, 인종차별 및 전쟁과 같은 사회악의 제거에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다.” 결의문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좌익인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회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 우익인 자유를 위한 미국청년회Young Americans for Freedom, 중도파인 유색인의 진보를 위한

전국연합 청년대학부Youth and College Divis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의 핵심 회원들이 있다…… 비록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만장일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회의의 후원자인) 치커링Chickering씨는 대부분의 학생지도자들이 자발적인 국가봉사체제를 만들자는 그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제안하에서는…… 이 나라의 모든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인도주의적인 일에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삶에 대한 개인권리’ 대신에 ‘민주사회내에서 개인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의 원칙’이라는 공식화에 주목하라. 무엇이 ‘민주사회내에서의 개인자유인가?’ 무엇이 ‘민주사회인가?’ ‘개인자유’는 기본적인 정치원리가 아니며 개인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없이는 정의될 수도, 보호될 수도, 실행될 수도 없다. 그리고 ‘민주사회’는 전통적으로 무제한적인 다수결 원리를 의미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반이념주의자들이 권리의 개념을 말살하는 방법의 예이다. ‘보수적인’ 자유를 위한 미국청년회Young American for Freedom의 지도자가 그러한 종류의 문서에 서명한 것에 주목하라)

이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찍을 고분고분 받아들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으로 그 제안은 징병제도보다 더 나쁘다. 징병제도는 최소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구실이라도 제공한다. 그리고 징병제도의 정치적인 의미는 애국심과 관련 있는 오랜 역사적인 전통으로 희석된다. 그러나 만일 젊은이들이 되돌릴 수 없는 그들의 정신형성 시기를 짊어갈 경작하고 번기를 나르는 데 보내는 것이 그

들의 의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심리적으로 끝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관한 놀랄 만한 통계를 실고 있다. 그 기사는 전국학생연합(National Students Association)이 전국 23개 캠퍼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그 여론조사가 믿을 만하다면 “약 75퍼센트의 학생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평화봉사단, 교사봉사단, 또는 미국내 봉사지원자(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약 90퍼센트의 학생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징병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68퍼센트의 학생들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다른 때 그러한 징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희생자의 허가(sanction of the victim)’라고 부르는 대규모의 예이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무장해체를 당할 때까지는 정치적으로 노예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들이 그렇게 무장해체가 되면 자신들의 파괴과정에서 선두에 서는 것은 희생자들이다.

그것은 오늘날 두 가지 가장 두드러진 문제인 베트남과 징병제도를 삼켜버리는 모순의 늪이다. 대중에게 알리는 모든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다른 문제나 거짓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반이념주의자들은 모욕까지 하면서 대중들의 무기력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무기력은 혼돈, 혐오, 절망에 대한 유일하고도 불확실한 심리적 은신처이다.

23 이 나라는 일반적으로 현상유지에 아주 불만족하고 있고 복지국가통제주의의 진부한 선전문구에 환멸을 느끼고 다른 대안, 즉 지적

인 프로그램과 과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그러한 필요의 강렬함은 이전에 공직을 가져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인 레이건(Reagan)이 연설만을 잘하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었다는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는 레이건 주지사를 깎아내리기에 바쁜 양당의 국가통제주의자들은 레이건 당선에 실질적인 교훈과 의미(유명한 레이건 연설의 두드러진 속성이었으며 여론을 좇아다니는 반이념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일관성, 명확성, 도덕적 자신감의 목소리에 이 나라가 굽주리고 있다)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안달을 한다.

24 이 시점에서 레이건 주지사는 유망한 공인(公人)인 것 같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회의(懷疑)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망을 해왔다. 그러나 그가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든 살지 않든 명쾌한 아이디어에 대한 필요, 추구, 반응은 사실로 남게 되고, 만일 이 나라의 지적 지도자들이 계속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사실이 될 것이다.

1966년 선거 이후 몇몇 시사평론가들은 이 나라에 ‘우익으로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해왔다. (아마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우익으로의 움직임은 없었고 좌익에 반대하는 움직임만이 있었다(여기서 ‘우익’은 자본주의를, ‘좌익’은 국가통제주의를 의미한다). 확고하고 일관된 이념적 프로그램이나 지도력 없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항의는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국가통제주의라는 가망없는 국면으로 사라질 것이다. 만일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지 소극적인 추세나 운동은 승리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도 결코 승리한 예가 없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여론주의는 원래 목표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달성했다. 통일과 합의를 가져오는 대신에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할 정도로 이 나라를 와해시켰고 분해시켰다. 한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통일^{unity}이 아니고 지식인의 응집^{intellectual coherence}이다. 그러한 지식인의 응집은 사람들간의 타협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폭력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상의 탁월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사상과 목표를 정의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고 선거시기에 성취되지 않는다. 선거는 단순한 결과이다. 그 일은 지식인들의 몫이고,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추신 : 나는 징병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젊은이의 편지를 때때로 받는다. 도덕적으로 그 누구도 선택과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 조언할 수 없다. “총이 시작하는 곳에서 도덕은 끝난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다른 대안으로 가장 좋은 것은 훌륭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도덕적 면이 하나 있다. 몇몇 젊은이들은 징병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징병법에 따르는 것은 그 침해를 도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오해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강압에 의한 굴종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법에 따르면 강요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법의 폐지를 지지하는 한 우리의 굴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이념으로 싸워야 한다. 단순한 불복이나 무의한 순교라는 수단으로

그것과 싸우거나 교정할 수 없다. 이 주제에 관해 1967년 4월호 『신념 Persuasion』의 사설을 인용해보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릴 수 없다…….”

22

이용당하는 학생폭동*

아인 랜드

✎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서 그 기본방향이 정해진 소위 학생‘폭동’은 아주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시사평론가들은 폭동의 원인을 그 대학의 탓으로만 여긴다. 그러나 그 폭동은 그렇지 않았다. 잘못된 설명의 본질이 학생폭동의 중요한 일부분

* The Objectivist Newsletter, 1965년 7~9월호.

이다.

버클리 사건은 1964년 가을 표면상으로는 캠퍼스에 인접한 학교 소유의 일정한 구역에서의 정치활동, 특히 캠퍼스 밖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조직하는 것들을 금지시킨 학교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란자’의 작은 단체가 많은 ‘보수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견해를 가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결집하여 ‘언론자유운동Free Speech Movement’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본부 건물에서 ‘연좌데모sit-in protests’를 했고, 경찰서를 습격한다거나 연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차를 탈취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

폭동의 정신, 형태, 책략은 한 특별한 사건에서 잘 나타났다. 학교당국은 총장인 클라크 케르Clark Kerr의 현상황에 관한 연설을 듣기 위해 1만 8천 명의 학생과 교수가 참가하는 대중집회를 요청했다. 어떠한 학생도 그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발표되었다. 케르 총장은 조건부로 항복함으로써 폭동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그는 반란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중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반란자의 지도자인 마리오 사비오Mario Savio가 규칙과 집회가 폐회된 사실을 무시하고 집회를 이어받으려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가 연단에서 억지로 끌어내려질 때 언론자유운동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투쟁에서 거의 패할 뻔했으나 학교당국으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시킴으로써 구출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환호하면서 인정했다(따라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목표에 대한 승리가 그들의 투쟁목표가 아님을 인정했다).

이어진 것은 이상한 전국적인 명성이었다. 여러가지 기본적인 먼

에서 접근방법의 이상한 만장일치를 나타내는 기사, 연구, 조사들이 갑작스럽게 자발적으로 쏟아져나왔다. 먼저 사실로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자유운동 때문에 국민운동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했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일반화라는 수단으로 사실을 흐리게 했다. 그리고 반란자들에게 미국청년의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으며, 정치행동에 대한 반란자의 ‘현실참여’와 ‘이상주의’를 인정했다. 또한 그들을 가리켜 ‘정치 무감각’으로부터 대학생들을 ‘깨우는’ 징후라고 환영했다. 만일 중요한 언론들이 ‘추켜세우는 일puff-job’을 한 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그 사이에 버클리에서는 대학당국, 재단이사회 및 교수들간에 격렬한 3파전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언론에 개략적으로만 보도되어 그 정확한 본질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재단이사회는 반란자들에게 대해 ‘강경한’ 정책을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반란자들편이었고 대학당국은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그 싸움은 (반란자들이 요구한 대로) 대학총장의 영구적인 사임을 가져왔고, 궁극적으로는 대학당국이 반란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언론자유운동에 거의 완전히 항복했다(그 요구는 불법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권리와 캠퍼스내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순진한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이것으로 폭동은 종식되지 않았다. 더 많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수록 더 많은 요구들이 생겨났다. 대학당국은 언론자유운동을 달래는 데 더한층 노력했고, 언론자유운동은 더한층 도전적으로 나왔다. 제약받지 않는 언론자유는 ‘추악한 언어운동Filthy Language Movement’의 형태를 띠었는데, 그 운동은 학생들이 네 글자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다니며 대학내 확성기를 통하여 음담패설을 방송
하는 것이었다(그 운동은 단순한 ‘청소년들의 못된 장난adolescent prank’이라는 언
론의 부드러운 비난으로 해제되었다).

그 운동은 확실히 폭동에 동정을 보이던 사람들에게도 너무 심하
게 보였다. 언론자유운동은 추종자들을 잃기 시작하여 드디어 해제되
었다. 마리오 사비오는 “학교당국이 행하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따르
지 못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를 떠났는데, 전국규모의 혁명
적인 학생운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임)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자원하여 정상적인 뉴스경로가 아닌 독자투고 같은 것을
통해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캘리포니아대학 도너연구소Donner Laboratory의 생물물리학자인 알렉
산더 그렌든Alexander Grendon이 『뉴욕타임스』(1965년 3월 31일자)에 기고
한 글은 아주 인상적이다.

언론자유운동은 항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했다. 공산
주의 국가나 남부의 흑인차별 반대운동 조직처럼 일당 ‘민주주의’는 당
내 반대자들을 벌주어서 바로잡는다. 고집센 대학당국에 대한(그리고 갈
등에 휘말려들기를 싫어하는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폭력에 의
해 ‘대학을 정지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민주주의의 부패에 항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방법이
옳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케르 총장은 계속적으로 항복했다…….

케르 총장은 대학이 ‘불법적인 행동의 지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
체적인 예로 나타날 때까지는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 대학
강의실에서 자칭 무정부주의자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속임수로 군복무를

피할 수 있는지를 조언한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공산주의자는 베트
콩을 도와주는 기금은 불법적으로 모금하면서도 베트남에서 취하고 있
는 우리정부의 행동을 심한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하는 일에 대학시설
을 이용한다. 구입장소까지 알려주는 마약사용에 대한 선전물이 캠퍼스
내에서 공개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한 학생은 집단적인 성관계와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저속한
용어로 대학 확성기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보라고
추천하며, 다른 학생은 캠퍼스내에서 개와 동일한 성의 자유를 학생들
이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추상적인 ‘외설’이 무엇인
지 잘 이해가 된다…….

9 질서정연한 대학업무에 대한 계획적인 도전에 있어서 클라크 케르의
‘협상’(항복의 완곡한 표현)은 자유로운 대학이 아니라 무법의 대학을 만
드는 데 공헌한다.

하버드대학 역사교수인 데이비드 랜드스David Landes는 『뉴욕타임
스』(1964년 12월 29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흥미로운 관찰을 하고 있다.
버클리 폭동은 미국에서 대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 중의 하
나를 잠재적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
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논쟁이 캘리포니아대학에 아주 해롭다는 점을 지
적하고 싶다. 나는 ‘언론자유’나 ‘정치행동’에 대한 동정의 결여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사이공대학에서 가르치기를 원해서(?) 대학
을 떠난 대역섯 명의 교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 사회학과 교수인 윌리엄 피터슨 William Petersen이 “버클리에 무엇이 남았는가What’s left at Berkeley”라는 제목으로 『콜럼비아 대학포럼Columbia University Forum』(1965년 봄호)에 실은 글은 가장 명백한 설명이고 가장 통찰력이 있는 평가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언론자유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운동은 언론자유와 거의 관계가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언론자유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상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권력쟁탈이다…….

2만 7천 명 이상이나 되는 학생들 중에서 몇백 명이라는 소수의 학생들이 캠퍼스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동하는 기술과 정력 이상의 결과이다. 캠퍼스 밖에 있는 여러 종류의 지원, 학교당국, 교수 등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작은 단체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효율적이며 거의 군대조직에 가까운 선동가들의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잘 훈련된 요원들과 자금이 버클리 투쟁에 급송되었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버클리 지역사회에서 학생폭동의 여러 요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어느샌가 12개나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학교당국이 취한 과정은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반항적인 학생회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할 수 없었다. 모호한 규제를 만들고,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 불합리한 주장으로 방어하려는 것은 아주 나쁘다. 더 나쁜 것

은 대학은 끝까지 소멸되지 않는 어떠한 제재를 학생들에게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규범에 관한 복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벌이 주어질 때 규범에 대한 복종이 발전된다. 직업적인 교육자들이 이 명제를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버클리 위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극단주의자가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은 지지자를 확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수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아마 언론자유운동에 대한 가장 악명 높은 항복은 12월 8일 평의회Academic Senate에서 통과된 결의문일 것이다. 그 결의문에서 교수들은 급진주의자들의 요구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급진주의자들을 위해 재단이사회와 대항하여 기꺼이 싸우겠다고 학내에 공포했다. 그 결의안이 824 대 115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자 언론자유운동에 반대하는 학생조직들은 침묵했다…….

언론자유운동은 1930년대 공산주의 전선Communists fronts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대규모 군중을 조정하기 위하여 급진주의의 핵심 분자들이 합법적인 문제를 불분명하게 사용한다는 중요한 특징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경우 핵심 분자들은 잘 훈련된 공산당이 아니고 급진적인 분파radical sects의 이질적인 단체이다.

피터슨 교수는 이것과 관련된 사회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트로츠키는Trotsky는 러시아혁명의 지도자였지만 스탈린과 노선상의 갈등을 빚다가 암살당했다: 역주), 공산주의자 및 여러 단체들을 열거한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의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버클리 캠퍼스의 급진적인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식 정당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진주의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급진주의자는 정당에 회비를 지불했는지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 어휘, 사고방식에 의해 정의된다. 나의 의견으로는 그들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용어는 카스트로주의자Castroite이다. 이 용어는 책략의 선택에서 결정적으로 카스트로 운동을 모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카스트로는 설명한다…….

버클리에서는 독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분리되어 있으며, 우유부단한 대학당국에 대항하는 데 적용된 선동적인 책략이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도전과 승리는 계속 이어졌다.

피터슨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면서 그의 글을 끝낸다.

2

나의 진단에 따라…… 대학을 환자로 비유하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프다. 열은 일시적으로 내려갔으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더 악성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언론보도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참고로 반란자들의 이념을 생각해보자. 언론보도의 일반적인 논조는 『뉴욕타임스』(1965년 3월 15일자)의 「새로운 좌익학생: 운동은 변화를 추진하는 진지한 행동주의자들 나타낸다The New Student Left: Movement Represents Serious Activists in Drive for Change」라는 머리기사에 잘 표현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변화인가? 어떤 특정한 해답이 거의 전면에 달하는

기사 속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냥 ‘변화’이다.

그들의 운동을 ‘혁명’에 비유하는 몇몇 행동주의자들은 급진주의자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러나 행동주의자의 대부분은 ‘조직자organizers’로 불리기를 선호했다.

무엇의 조직자인가? ‘가난한 자’의 조직자. 무엇을 위해서? 해답이 없고 그냥 ‘조직자’이다.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이름을 경멸하고 그들이 냉소주의자cynics로 불리는 데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질문을 받으면 그들 대다수는 그들이 어떤 형태든 정치적 통제에 대해 회의적인 만큼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한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당신은 우리가 초초도덕적이며 거의 모든 것에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초초공산주의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버클리 폭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온 한 여학생이 한 말을 인용해보자.

“현재 사회주의 세계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향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까이 가고 있다. 소련은 거의 모든 것을 달성했다.”

뉴욕 시립대에서 온 다른 학생이 이에 동의한 말을 인용해보자.

“소련과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행동주의자가 민권운동에 활동적이었고 버클리 반란자들이 민권문제를 감추고 시작했다는(모든 반대자들을 ‘인종주의자’의 기원으로 비방하는 데 실패했지만)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음을 읽어보면 흥미롭다.

“인종통합에 대해서는 행동주의자들 사이에 거의 토론이 없다. 그들 중 몇몇은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로 간주한다. 그들은 통합이 자기만족에 찬 중산층의 인종혼합 사회로 끝난다면 그것은 분리만큼이나 나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행동주의자들의 중심 주제와 기본이념은 반이념이다. 그들은 모든 ‘이름표’, 정의, 이론에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들은 순간과 행동, 즉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동기가 유발된 행동에 의한 현실참여가 최고라고 주장한다. 강조하는 중심 사상leitmotif처럼 그들의 반지성적인 태도는 모든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The New York Times Magazine』(1965년 2월 14일자)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버클리 폭도들은 광폭한 1930년대Turbulent Thirties 학생폭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성인제도adults institutions를 아주 의심하여 체제를 박살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이념들조차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무정부주의자나 세계산업노동자I. W. W. 계열은 마르크스주의 신념만큼이나 확고한 것처럼 보인다. 언론자유운동에 찬성한 한 사람으로 대학내에 있는 법과 사회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Society의 연구원인 폴 제이콥Paul Jacobs은 “일종의 정치적 실존주의political existentialism가 있다”라고 말한다. “모든 과거의 호칭은 없어진다…….”

자부심이 있고 무절제한 언론자유운동의 광신자들은 현실참여만이 버클리와 같이 거대한 ‘지식공장’에서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삶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자 강령을 추구한다.

여러 좌익 청년단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The Saturday Evening Post』(1965년 5월 8일자)에 실린 기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회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 지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과거의 편협한 좌익과 오래된 불화를 거부하고, 우리가 보기에 부패한 미국사회를 경멸한다. 우리는 직접적인 행동과 특정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소련의 본질이나 유고슬라비아가 퇴화한 노동자들의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에 끝없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좌데모를 통해 우리는 의미 있는 사회혁명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보았다.”

시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진보적 노동당Progressive Labor의 청년들은 맨해튼 동부 마을에 있는 실험극장과 커피숍을 드나든다. 그들의 독서 취향은 마르크스Marx보다는 사르트르Sartre이다.

만장일치에 대해 흥미롭게 다룬 『뉴스위크Newsweek』(1965년 3월 22일자)의 한 조사는 미국대륙의 서부에 있는 한 젊은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마르크스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버클리 자유학생운동Berkeley Free Student Movement의 지도자는 말했다. ‘그들은 카뮈Camus의 책을 읽는다.’”

그 조사는 계속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일 그들이 반란자들이라면 그들은 이념과 장기적인 혁명 프로그램이 없는 반란자들이다. 그들은 철학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

라 문제를 중심으로 모여서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회의 체계적인 정치이론을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학생은 그의 사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그 조사는 명백하게 주장하면서 동정적인 공감을 표시하는 몇몇 성인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다.

『뉴욕포스트New York Post』의 편집인인 제임스 웨슬러James Wechsler는 말한다.

“3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진정한 역할을 다해보기를 원하는 행동주의자들 단체이다.” 그러나 이념적으로가 아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토론 하곤 했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민권과 평화를 위해 일한다.”

다트머스Dartmouth대학의 교목인 리처드 운스워드Richard Unsworth는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몇 년 전 방법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대신에 행동하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작가이며 교육자이고 ‘현재 학생들의 영웅 중의 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폴 굿맨Paul Goodman이 버클리 운동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 것이 인용되었다. 그는 “폭동의 지도자들이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위험을 안았으며, 그들은 혼돈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더이상 냉정하고 싶지 않으며 양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고딕은 저자가 삽입한 것이다. 술취한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찬사를 보낼 수 있다)

‘양도taking over’라는 주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 당장의 목표는 대학을 양도받는 것이 명백하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기사는 언론자유운동 지도자 중 한 사람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대학은 교수, 학생, 책, 사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문자적인 의미로 대학당국은 보도sidewalks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하면 된다. 대학당국은 교수와 학생들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대학생들은 ‘권리장전’을 채택한다Collegians Adopt a Bill of Rights”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1965년 3월 29일자)에 실린 기사는 그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일단의 동부 대학생들은 이번 주말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대학당국은 대학사회에서 관리인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현대의 대학은 학생과 교수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대학당국은 교수와 학생들의 뜻을 집행하는 목적을 가진 관리인, 사무직원, 보안요원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선언문은 필라델피아와 뉴욕지역의 대학, 하버드, 예일,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 중서부 대학 등 39개 대학에서 2백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 회의에서 되풀이된 주제는 대학들이 ‘재정적, 산업적, 군사적 확립’의 봉사자가 되어왔고 학생과 교수들은 학교당국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선언문의 조항 중에는 어떤 조직이든 가입하거나, 조직하거나, 회의의를 개최할 자유에 대한 공포와…… 수업료 폐지, 학생 및 교수들에 의한 범법행에 대한 통제, ROTC의 폐지, 충성서약의 폐지,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 및 교수의 통제 등이 있다.

그 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사용된 방법은 계몽적이다.

“약 2백 명의 학생들이 그 회의에 참가했고, 마지막으로 ‘학생 권리장전’이 채택될 때까지 남은 학생은 45명이었다.”

미국청년들의 대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민주적인 절차’였고, 행동주의자의 권리를 아주 잘 나타냈다.

이러한 모든 보도들과 그 보도들이 선택하여 인용한 권위자들이 학생폭동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두는가? 도덕적 용기(moral courage)는 오늘날 문화의 특징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도덕적 비겁함(moral cowardice)이 아주 추하고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사평론가들이 그 사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반란자들로부터 실마리를 찾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란자들의 불평 때문에, 대학이 ‘너무 거대하게’ 성장해 왔다는 반란자들의 불평이 폭동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피상적이고 관련성이 적으며, 따라서 가장 안전하다.

마치 대학이 밤새 급성장한 것처럼 대학의 ‘거대함(bigness)’이 여론으로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갑작스레 비난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의 ‘불안’에 대해 비난을 받고, 학생들의 동기는 청년의 ‘이상주의’라고 환영을 받았다. 오늘날의 문화는 ‘거대함’을 공격하면 항상 안전했다. 그리고 단순히 크기라는 무의미한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대기업’ ‘거대한 노동자’ ‘큰 정부’의 리스트에 ‘큰 대학’이라는 새 캐치프레이즈를 첨부시켜 왔다.

더 눈이 높은 독자를 위해 사회주의자 잡지인 『새 지도자(The New Leader)』(1964년 12월 21일자)는 마르크스주의자-프로이트학설 신봉자의

평가를 제시하면서 폭동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소의’ (“어떤 식이든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다”라는 사비오의 말을 인용하면서)와 ‘30년 주기의 폭동(generational revolt)’에 돌리고 있다(자발적으로 학생 정치항의의 자연스러운 표현방식은 부모입장에서 in loco parentis 다스리는 대학당국에 대한 성적인 항의였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의 도덕적-지적 본질을 나타낸 데 대한 상은 캘리포니아주 브라운(Brown) 주지사에게 돌아가야 한다. 캘리포니아대학은 주립대학이고 재단이사들은 주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추악한 언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모를 포함한 폭동의 궁극적인 표적은 주지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사상적인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왔는가?(라고 브라운 주지사는 캠퍼스 만찬에서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변해왔으나 대학의 구조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러한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따라서 몇몇 학생들은 변화를 강행시키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권리를 가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들은 이상주의적 위선의 극치를 드러냈다. 한손에 연방헌법(Federal Constitution)을 들고 정치적 지지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요구했다. 동시에 그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위해 정당한 절차의 원칙(principles of due process)을 버렸다.

☞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대학만큼이나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 즉 변화에 대한 도전이다.¹⁾(고딕은 저자가 삼입한 것임)

1) The New York Times, 1965년 5월 22일.

브라운 주지사는 강력한 자치단체장chief executive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원에게는 강력한 적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라. “캘리포니아 여론조사California Public Opinion Poll에 따르면 74퍼센트의 사람들이 버클리에서의 학생항의운동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라.2) 그리고는 브라운 주지사가 45명의 학생단체에 의해 조정되고 인도되는 운동을 감히 비난하지 않았고, 그는 ‘이상주의적’ ‘위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느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회피되고 있는 어휘를 가지고 이상한 조합들 중의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주목하라.

25 (대학생활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 관한 통계를 제시한 『뉴스위크』의 목적인 조사를 포함하여) 대대적인 논평, 평가, 해석을 하면서도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상의 본질이나 현대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능한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다루어졌다. 이것은 감히 아무도 토론하지 못하는 주제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토론을 시작해야 할 주제이다.

만일 극작가가 철학적 사상을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 전환할 힘을 가졌고 현대철학의 걸어다니는 구체적 표현을 창조하려고 했다면 그 결과는 버클리 폭동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자’는 현대철학의 완전하고, 충성스럽고, 문자 그대로 강력한 산물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당국과 교수들을 향해 “형제여, 자업자득이다”라고 울부짖어야 한다.

“이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에 무기력하고, 현실은 알 수가 없으며, 확실성은 불가능하고, 지식은 단순히 확률이며,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리이며, 정신은 미신이며, 논리는 사회적 관습이며, 윤리는 임의의 원리에 대한 주관적인 서약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적 분열의 파편이 내뿜는 빛에 수십 년간 노출되어 온 인류가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 결과 태어난 돌연변이는 습관적으로 무서움에 떨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지배하기 원한다고 소리치르는 왜곡된 젊은 피조물들이다.

만일 그 극작가가 영화를 만든다면 그는 “이마누엘 칸트의 아들, 마리오 사비오Mario Savio, Son of Immanuel Kant”라는 제목을 정당하게 붙일 수 있다.

아주 드물게 학문적으로 무시되는 예외가 있지만 오늘날 대학의 모든 강의실, 주제, 지식인에게 침투하는 철학적 ‘주류’는 인식론적 불가지론agnosticism, 공공연한 비합리주의irrationalism, 윤리적 주관주의subjectivism이다. 우리시대는 칸트가 깔아놓은 길의 끝에서 오랜 파괴과정의 결말과 절정을 목격하고 있다.

칸트가 현실로부터 이성을 분리시킨 이후 그의 지적 추종자들은 열심히 그 둘의 간격을 확대시켜 왔다. 이성의 이름으로 실용주의는 단기적인 시각을 삶에 대한 사리가 밝은 견해로, 문맥을 빠뜨리는 것을 인식론의 법칙으로, 편의주의를 도덕원칙으로, 집단적인 주관주의를 형이상학을 대체하는 것으로 확립했다. 논리적인 실증주의Positivism는 더 나아가 이성의 이름으로 지식은 언어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악덕변호사변호사의 아주 오랜 정신인식론을 과학적인 인식론 체계의 위치로 높였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철학의 임무는 보편적인 원칙들을 식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언어분석Linguistic Analysis은 주장했다. 철학 없이는 그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은

2) The New Leader, 1965년 4월 12일.

그때의 철학계에서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도덕적 지주를 깨뜨리며, 고무풍선보다 가벼운 것처럼 떠다니며, 현실 및 인간존재 문제와의 관련성을 상실한 철학의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론과 실제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그들이 철학을 응접실이나 강의실 게임으로 아무리 수줍어하면서 다루려고 노력해도, 젊은이들은 실질적인 행동에서 그들을 인도해줄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대학에 다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철학선생들은 “현실이란 용어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거나, 철학은 임의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즐거움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들이 무효화시키기 위해 수없는 시간을 소비해온 ‘상식’과 모든 이론을 조화시켜 보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4년 내지 8년을 공부하고도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퇴적물만 쌓은 채 현대대학을 졸업한다. 존재existence는 지도에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정글이며, 공포fear와 불확실성uncertainty은 인간의 영구적인 상태이며, 회의skepticism는 성숙의 표시이며, 냉소주의cynicism는 현실주의의 표시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인의 특징은 지식인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일 학구적인 평론가들이 그들 이론의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 생
 27 각해보았다면 그들은 불확실성과 회의는 차이의 인정, 융통성, 사회적 ‘조정’, 자발적인 타협으로 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특성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눈에 띄게 연합이 되었을 것이다. 몇몇 평론가들은 지적인 확실성은 독재자 정서의 표시이고, 확신이 없고 절대적인 것이 부족한 만성적인 의심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보

장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옹호하는 데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그들의 계산이 틀렸다.

칸트의 이분법Kant's dichotomy은 두 개의 칸트학파를 가져왔는데, 둘 다 칸트의 기본적인 전제를 받아들이지만 서로 정반대의 것을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성을 선택한 학파는 현실을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한 학파는 이성을 포기한다. 첫번째 학파가 두번째 학파에게 세계를 내주었다.

28 칸트철학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의 노력을 수집한 자, 즉 철학을 위축시킨 퀘변, 불임, 지독히 시시함 등 도산 직전인 난장판의 수혜자는 실존주의Existentialism였다.

실존주의는 본질적으로 현대철학을 지적하면서 “여기 이성이 있으니 지옥에나 가지고 가라”라고 주장한다.

실용주의자-실증주의자-정신분석가가 이성을 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자는 그들을 이성의 지지자로 인정했고, 그들을 세계에 대해서 합리성의 본보기로 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성의 무력함을 주장하고, 이성의 ‘실패’에 반항하며 이성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현실·인간존재의 문제·주관적인 가치·분별 없는 행동으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본능’, 충동, 감각을 최고의 도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 근육, 신장, 심장, 피의 인식력cognitive power을 주장했다. 그것은 머리 없는 몸통의 반란이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날 대학의 철학과는 사실상 정신분석가analysts와 실존주의자 사이의 동족상잔family quarrel의 전장이다. 그들의 후계자progeny는 학생폭동의 행동주의자들이다.

만일 이러한 행동주의자들이 ‘먼저 행동을 하고는 행동을 되돌아

보는’ 정책을 선택했다면, 실용주의가 진리는 결과로써 판단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온 것이 아닐까? 만일 그들이 ‘사회의 체계화된 정치이론을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폭력으로 그들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비명을 지르면서 말한다면, 논리적 실증주의가 윤리적 명제는 지적 의미(cognitive meaning)가 없고 단지 어떤 사람의 감각이나 감정분출에 대한 보고서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온 것이 아닐까? 만일 그들이 야만스럽게도 순간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논리적 실증주의가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온 것이 아닐까? 언어분석학자들이 “고양이는 매트 위에 있다”는 것은 ‘매트’가 ‘고양이’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매트 위에’는 ‘고양이’가 속한 종(genus)을 의미하지 않으며, ‘고양이’가 ‘매트 위에’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바쁜데, 학생들은 “지금 과업을 하고, 나중에 분석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버클리 구내를 습격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이 슬로건은 피터슨 교수가 『콜럼비아대학 포럼』에서 인용했다)

6월 14일 CBS는 “버클리 스토리(The Berkeley Story)”라는 제목의 뒤죽박죽이고, 모순투성이고, 난해한,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확실하고도 중요하게 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모든 광기에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현대철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큐멘터리는 지성인의 대학 고문실에 침투해 있는 대량 학살의 임의적인 메아리와 찌그러진 모습들을 찍어내는 촌극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처음에 나온 남학생은 이제는 소위 악덕자본가(Robber Barons)가 적이지 않고 지성인이 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투사하고 있는 “윌 스트리트를 타도하자”라는 말을 일단 유보한 채 무시와 증오의 논조로

“우리 세대는 이념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구세대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조그마한 알약’을 가졌지만 그 알약이 효력을 보이지 않아 그들은 단지 “심장이 터졌다”라고 그는 비웃듯이 설명했다. “우리는 알약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 젊은 여학생은 자명한 이치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는 것을 배워왔다”라고 성급히 방어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우리자신들을 위한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그녀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똑똑하지 못한 발음으로 설명했다.

그 여학생은 수업시간을 ‘단어, 단어, 단어, 논문, 논문, 논문’으로 묘사하면서 그녀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때때로 중단했다고 진정으로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문장을 끝마치지 않고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진지한 여학생 하나는 사람들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쁜 짓을 해왔다고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사회를 비난했다. 그녀는 문장의 중간 정도에서 중지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성장하든 나는 아직도 생산물이다”라는 잡담을 하고 또 계속했다. 그녀는 자연의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양심 있는 아이의 단순한 진지함으로 그것을 말했다. 그것은 행동이 아니다. 가난하고 작은 피조물이 진담으로 한 말이었다.

시사평론가인 해리 리저너(Harry Reasoner)가 발표했던 것을 요약하려고 할 때 그의 얼굴에 있는 난감한 당혹감은 왜 언론이 학생폭동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는지를 생생히 나타내주었다.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의 하나인 버클리 캠퍼스에서 야만인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을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약간 놀란 난 감한 목소리로 반란자들의 태도를 찬양도 비난도 않고 묘사함으로써 “지금 즉시 어떤 상황이든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의심스럽게 말했다.

그것들이 현대철학의 산물이다. 그들은 너무 지적이어서 그들이 배운 이론들의 논리적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지만 이론들을 간파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기에 충분할 만큼 지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체제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가르치기 쉬운 학생들이고, 그들의 폭동은 체제의 원형을 유지하는 현상유지에 대한 폭동이며, 이타주의 캐치프레이즈·‘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가난과의 전쟁’과 같은 안전한 전통적 원인에 대한 헌신을 포함해서 1930년대 ‘자유주의자’의 모든 진부한 명제를 삼켜버린 체제의 로봇으로서 지적인 ‘확립’에 반대하는 폭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체제’에 대항하여 큰소리를 지른다. 틀에 박힌 문구가 새겨져 있는 깃발을 야단스럽게 앞세우는 폭동은 그다지 설득력도 없고 가슴을 뛰게 하는 광경도 아니다.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동기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 현대철학에서 금광을 발견하고, 논쟁을 위한 논쟁을 좋아하고, 준비된 역설로 적에게 도전하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있다. 자신들을 영웅으로 생각하여 반항을 위한 반항을 하는 역할연기들이 있다. 깊은 증오심에 의해 움직이며, 파괴를 위한 파괴만을 추구하는 무정부주의자들nihilists이 있다. 그들을 받아줄 군중에 속할 방법을 찾는 희망 없는 식충이들이 있다. 분쟁의 냄새를 풍기는 대중행동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항상 거기에 있는 철저한 무뢰한hooligans이 있다. 동기가

어떻게 결합되든 무지하여 실수로 이성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는 노이로제라고 대문자체로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나 현대철학의 이론들이 단지 영화, 방어체계, 노이로제의 합리화로 이용되든, 아니면 그것들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이용되든, 이러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현대철학이 파괴해왔고 최악의 것들을 조장해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젊은이들은 인생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인 철학을 찾고, 그들은 의미·목적·이상을 찾고,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가진 것을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와 20대 초반에 선과 악,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삶에 대한 철학적 해답과 전제를 찾는다. 어떤 사람은 결코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탐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몇 년 사이에 철학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이 현대철학의 억울한 희생물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희생물들이다.

그들은 독립적인 사상가도 지적 창시자도 아니다. 그들은 밀려오는 현대케변에 저항하거나 해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한두 개의 난해한 과목을 수강한 후 그들 중 얼마는 사고思考는 시간낭비라고 확신하고, 그들이 25세가 될 때까지 냉소주의자나 어리석은 중산층stultified Babbitts이 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들이 오늘날의 행동주의자다. 그리고 어떤 혼돈된 동기가 행동주의자들을 움직이든 행동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과 그들이 쫓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상을 모색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이상한 작은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현대철학의 선생들이 받아들인다면 현대철학의 모든 선생들은 행동주의자들의 요구에 굽실굽실해야 한다.

이제 현대대학에 있는 훌륭한 지성인들과 실질적으로 배우기를 갈망하는 평균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이 발견하고 또 참아야 하는 것은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심리적·인식론적 고문의 과정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철학의 영향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도 교육의 인식론적 기준과 방법을 설정한다. 오늘날 그 결과는 논리, 의사소통, 시연(試演), 증거, 증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수업시간마다 다르고 교사마다 다른 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무질서이다. 나는 견해나 내용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론 원칙의 부재를 말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과목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강의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과목이 수강학생에게 사전도 제공하지 않고 그 언어로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는 동의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적 붕괴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 그것은 어떤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내용과 모순되고, 각 주제는 허공에 떠다니고 문맥이 무시된 채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도 지적 붕괴를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부당하고, 나쁜 평판을 받고, 저지당하는 ‘체제구축’, 즉 지식통합에 대한 반대이다.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 그것은 대부분 교과과정의 임의적이고 무분별하고 되는 대로의 혼합, 계층적 지식구조·순서·연속성 및 합리성의 부재, 내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항목들과 주제에서 벗어난 조사들에 관한 과목의 혼합, 널리 퍼져 있는 난해함, 건방지게 자인

하는 불합리, 결과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외워야 할 필요성,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송해야 할 필요성, 다음 시험을 통과하기에 충분한 만큼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소음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필요성 등이다.

다시 추가한다. 그것은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는 교수들, 회피와 조소로 답하는 교수들, “우리는 여러가지를 함께 섞기 위해 여기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들의 과목을 잡담으로 만드는 교수들, 강의는 하지만 ‘반(反)독단주의’라는 이름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견해를 표명하지 않아 학생들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모순의 미로에 빠지게 하는 교수들, 입장을 밝히고 학생들의 평을 듣기는 하지만 낮은 학점으로 반대자에게 벌을 주는(특히 정치학 과목에서) 교수들이다.

마지막으로 추가한다. 그것은 대부분 대학당국의 비난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영구적인 도덕중립성 정책, 모든 것과 타협하는 정책,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 그리고 최악의 강의실 부정은 교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어떠한 항의도 실질적이지 않고 정의(justice)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즉 대학교수 중에도 유능한 교육자, 날카로운 지성인,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비합리성이라는 ‘주류’에 가려져 있고, 종종 오랫동안 억제되어 온 좌절감이라는 희망 없는 비관주의 앞에 무력화된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교수들과 행정요원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개인으로 행동할 때 더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그들 대부분은 오늘날 교육계의 악을 인식하고 있고 비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불평한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문제의 거대함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무

능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도 실체도 없는 거의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 비난한다. 그들은 그것을 ‘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정치체제이며, 특히 자본주의라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규모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며 인간행동을 통합하고 통일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철학이 오히려 그들의 일을 파괴하고 분해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대부분은 감옥형을 마친다는 굳은 결심으로 대학시절을 참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받는 심리적인 상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고문의 본질이 그들의 정신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렵듯이 느끼면서 가능한 한 그들의 사고력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는 불신에서부터 분개, 비난, 증오까지로 기진맥진함과 고통스러운 권태감이 뒤섞여 있다.

지각의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감정은 지적으로 높은 수준 2의 학생조직에서부터 낮은 수준의 학생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조직이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소수의 버클리 반란자들이 처음에는 참가하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명백해지자 빠져나가 버린 수천 명의 학생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에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바람으로 무엇을 반대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필사적이고 모순된 욕구불만과 항의의 필요성에 의해 움직인다.

나는 뉴욕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의 한 학교에서 반란자들에게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소수 그룹의 지적인 학생들에게 만일 그 폭동

이 그들의 캠퍼스에서 일어난다면 그들은 대학당국과 싸울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 모두는 희미하고 쓴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버클리의 대학당국에서부터 사회평론가, 언론, 브라운 주지사에 이르기까지 성인권위자들이 버클리 폭도들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없고 그들에게 합리적인 해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기성세대의 철학적 무력함 때문이다. 현대철학의 전제를 받아들이면 반란자들의 논리가 맞다.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전제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철학의 재평가가 필요한데, 기성세대는 아무도 그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폭력, 깡패들의 전술, 투쟁적이고 명백한 비합리성 등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대학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고,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변명하는 듯한 양보, 진부한 일반론, 대학의 법과 질서의 수호자들이 둘러대는 상투어들이 나오고 있다.

문명사회에서는 학생이 학내 집단행동과 폭력에 가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을 거부하고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만 해도 그것은 즉각적인 제적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대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선언에 반대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오랫동안 상실해왔고, 따라서 학생들의 폭력행동에 대항하는데 아주 무기력하다.

학생폭동은 이성을 포기할 때 사람들은 폭력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면서 폭력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폭동은 회의와 만성적인 의심은 사회조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논리에 대한 가장 명백한 반박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장점을 가볍게 여길 때 악이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되고, 선한 사람들이 양보할 수 없는 목적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할 때 악당들이 그것을 집어들며, 그리고 당신은 굽실거리고, 협상하고, 반역하는 선과 독선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악의 끝사나운 광경을 보게 된다. 『지성인들의 좌업Atlas Shrugged』)

그 폭동으로 누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 해답은 그 폭동지도부의 본질과 목표에 달려 있다.

만일 대학폭동의 단순가담자가 부분적으로나마 희생자라면 그 수뇌부는 그들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 누가 그들의 지도자인가? 독수리같이 자본주의 잔존물 곁을 맴도는 모든 국가통제주의자-집단주의자들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시체에 달려들기를 바라고 있고 목적을 촉진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의 최소 목표는 단지 ‘소란을 일으키는 것’, 즉 약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도이다.

그러한 지도력하에서 대학반란자들은 단지 그들의 머리가 없는 목을 내밀고, 캠퍼스에서 싸우고, 감옥에 가고, 그들의 경력과 미래를 잃고, 만일 지도력이 성공한다면 결국에는 거리에서 싸우면서 생명을 잃고, 권력을 다투는 악한들 중 가장 잔인한 절대독재자의 길을 포장하는 일을 맡기로 되어 있는 총알받이(cannon-fodder)에 불과하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젊은 바보들은 그들이 누구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 중에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는 학생폭동의 원인제공자가 아니고 조정자

이다. 이것은 허물어져가고 있는 몸의 상처에 있는 세균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할 경우에는 항상 부전승을 거둔다는 사실의 좋은 예이다. 그들은 미국대학을 파괴하는 조건들을 창출하지 않았고, 그들은 목적이 없고, 분개하며, 신경과민인 10대들을 창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적이 피해를려고 고집하는 상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들은 전문적인 이념가이며, 지적인 진공상태에 침투하고 자기들의 모순된 원리로 ‘반(反)이념’에 আব하는 지지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잡색인 좌익지도력에 있어서 학생폭동은 문화적인 온도를 재어보는 것과 같이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예비적 타진이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으며, 어떤 반대에 부딪칠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은 현재의 문화적 추세가 도전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이 나라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국가 전체는 그 나라 대학의 거울이다. 현대철학의 실질적인 결과는 도덕적 허무주의, 단견적인 실용주의, 반이념적 이념, ‘여론정치’라는 개념에 참으로 수치스럽게도 의지하는 오늘날의 혼합경제이다.

압력단체에 의한 지배는 단지 군중지배에 대한 서곡이며 사회적 여건조성이다. 일단 한 국가가 개인권리, 객관성, 정의, 이성이라는 도덕원칙의 말살을 인정하고 합법화된 폭력의 지배에 의존하면 ‘합법화’의 개념은 곧바로 제거된다. 누가 무슨 명목으로 그것에 저항하겠는가?

수적인 우세가 도덕을 대체하고, 그 어떠한 개인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폭력집단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권력을 쥐

고 있는 자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타협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와 한순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는 가장 부정하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나타내는 자가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 체제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 세계에 공산주의자나 다른 악한들이 없다면 그러한 체제는 그러한 자들을 창출해낼 것이다.

관료가 타협의 정책을 펴면 필수로 그는 어떤 것에 더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위급한 사태에 처했을 때 그가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과 기본적인 행동원칙은 항복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봉 easy mark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폭동이 버클리를 첫 전투지로 선택한 것과 케르 총장이 ‘자유주의자’이고 명성 있는 중재인이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첫 목표로 선택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평론가들은 피상적인 것의 극단을 보여준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성숙되지 못한 학생대변인이 케르씨를 반자유적인 행정가로 묘사하려고 한다”라고 『뉴욕타임스』(1965년 3월 11일자)의 사설은 적고 있다. “물론 이것은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는 우익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자유와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용기 있게 싸워온 케르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합리했다.” 다른 평론가는 케르씨를 재단이사회내 ‘보수주의자’와 교수들 중 ‘자유주의자’ 사이에 상반되는 압력의 억울한 희생제물로 묘사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고, 또한 논리적으로도 길 가운데 서서는 어느 쪽이든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반란자들이 클라크 케르를 그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초 목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록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제 만일 버클리 폭동에서 이용된 기술이 전국적인 규모로 반복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지를 예상해보자. 그 폭동지지자들의 열광적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타협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불만을 느끼게 했다. 타협은 일반적인 성취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좌절을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당한 주장의 부분적인 승리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요구하도록 충동질한다. 정당한 주장의 부분적인 패배는 희생자들을 실망시키고 무력화시킨다. 만일 잘 훈련된 단호한 국가통제주의자의 폭력집단이 이 나라가 무언으로 인정한 집단주의자 교의 collectivist tenets를 대담하고 명백하게 공포하면서 혼합경제의 망가져가는 잔존물에 대해 공격한다면 어떠한 저항에 부딪히겠는가? 의기소침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실망한 다수는 어떤 공적인 사건에도 아주 무관심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현상유지라는 숨막히는 절망감에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바람, 필사적이고 모순된 욕구불만, 항의의 필요성에 의해 무엇을 반대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고 폭력집단을 지원할 것이다.

누가 존슨의 ‘여론’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도덕적으로 고무되었는가? 누가 러시아 케렌스키 정부Kerensky government,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Weimar Republic, 자유중국 정부Nationalist government의 목적 없는 상투어를 위하여 싸웠는가?

그러나 아무리 한 나라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철학적으로 무장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반자유의 상태에서 어엿한 독재에 대한 항복으로 진전되기 전에, 어떤 심리적인 전환점에 그 국가는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정치적 논쟁을 매듭짓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인정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학생폭동 지도자들의 중요한 이념적 목적이었다.

버클리 반란자들이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이념적 선례를 살펴보자. 그들 모두는 권리의 폐지와 폭력의 지지를 감싸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들이 공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의미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고 반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 중요한 문제는 국가가 집단적인 시민 불복종(mass civil disobedience)을 적절하고 유효한 정치행동의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시도한 것이었다. 이 시도는 민권운동과 연계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문제는 흑인들은 합법화된 불의의 희생자였고, 따라서 합법성을 파기하는 문제는 아주 명백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혼돈되었다. 국가는 집단적인 시민불복종을 법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간주했다.

어떤 개인이 어떤 문제를 시범사례로 법정에 가지고 가기 위하여 법에 불복종한다면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합법성에 대한 존경을 필요로 하며, 항의는 불의를 증명할 기회를 개인이 찾는 특별한 법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개인의 집단에서도 그

Ⓜ 집단이 피해를 볼 때 그러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

문명사회에서 시위의 목표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집단적인 시민 불복종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종류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보장받을 수는 없다. 집단 불복종은 권리라는 개념에 대한 공격이며, 그것은 그러한 합법성에 대한 대중의 도전이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점유하는 것과 공공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여서 그것을 정당화하려면 도덕을 폐기시켜야 한다. 개인은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연좌항의(sit-in)’를 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폭력집단에 참가한다고 그러한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수적 우세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금지된 행동이 군중에게는 허용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

개인에 대항하는 군중의 유일한 힘은 아주 야만적인 폭력이다. 폭력수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명사회가 확립되었다. 집단적인 시민 불복종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협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논쟁을 매듭짓는 수단으로 협박(다른 사람에 의한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물리적 협박)을 묵인하는 사회는 사회체제로서 존재해야 할 도덕적 권리를 잃는 것이고, 그 사회는 곧이어 붕괴된다.

정치적으로 집단적인 시민 불복종은 국가정치체도의 완전한 파괴를 선언하는 내전의 전주곡으로서만 적합하다. 오늘날 지적 무질서와 상황무시의 정도는 버클리 폭동에는 반대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미국의 전통으로 존중한다고 서둘러 공포한 ‘보수적인’ 캘리포니아 관료에게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을 잊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잊고 있다.

만일 시민 불복종의 의미가 민권운동에서는 다소 불분명하여 국가의 태도가 확정이 안된다면 대학캠퍼스에서 연좌항의가 벌어질 때 그 의미가 노골적으로 명백해진다. 만일 이성, 지식, 학문, 문명의 최후 거점으로 여겨지는 대학이 잔인한 폭력의 지배에 항복한다면 국가의 나머지도 요리된다.

2. 완력의 인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버클리 반란자들은 **완력**force과 **폭력**violence을 특별히 구분했다. 그들은 완력은 사회행동의 적절한 형태이지만 폭력은 그렇지 못하다고 명백하게 주장했다. 그들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자 그대로 물리적 접촉이라는 수단에 의한 강압은 ‘폭력’이고 비난할 만하다.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방법은 단순히 ‘완력’이고 반대자를 다루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만일 반란자들이 대학본부 건물을 점령한다면 그것은 ‘완력’이다. 만일 경찰이 그들을 끌어낸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만일 사비오가 그가 사용할 권리가 없는 마이크를 잡는다면 그것은 ‘완력’이다. 만일 경찰이 그를 끌어내리면 그것은 ‘폭력’이다.

사회행동의 규칙으로서 그 구분이 시사하는 바를 고려해보자. 만일 당신이 밤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당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집 밖으로 밀어내면 그는 단지 ‘완력’이라는 평화로운 행동을 했지만 당신은 ‘폭력’을 행사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이상한 불합리함의 이론적인 목적은 도덕적 전도moral inversion를 확립하는 것이다. 도덕적 전도란 완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완력에 저항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함으로써 자기방어의 권리를 말살하는 것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은 최하위층의 정치적 유형인 경찰 앞잡이provocateurs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인데, 그들은 완력을 행사하고는 희생자들을 비난한다.

3. 그러한 속임수 구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버클리 반란자들은 사상과 행동이라는 합법적인 구분을 말살하려고 했다. 그들은 언론

자유는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과 행동 사이에 확실한 경계선은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만일 그들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지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내외의 활동과 심지어 법으로 금지된 활동까지도 조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터슨 교수가 지적한 대로 그들은 ‘대학을 일반사회에 대한 불법적인 습격을 감행하고는 피하는 피난처로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상을 교환하는 것과 주먹을 교환하는 것의 차이점은 자명하다. 언론자유와 행동자유는 경계선은 폭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추방함으로써 확립된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을 추방하지 않을 때이다. 폭력을 추방하지 않을 때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자유도 남아 있을 수 없다.

피상적으로 보면, 반란자들의 ‘일괄교섭’은 일종의 자유의 무정부주의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은 정반대를 의미한다. 즉 ‘언론자유’라는 명목으로 폭동에 가담한 경솔한 젊은이들에 대한 냉혹한 농담이다. 만일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죄를 범하는 자유와 동일시된다면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그 어떤 조직사회도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사상의 표현도 줄어야 하며, 어떤 사상은 마치 범죄행위가 금지되는 것처럼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속기 쉬운 사람들은 언론자유는 정의될 수 없으며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4. 캠퍼스내에서 제약 없는 언론자유에 대한 반란자들의 요구에 그러한 동기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외설언어운동’이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무제한적인 언론(또는 행동)자유와 권리와 같은 것은 없다. 버클리대학이 주정부의 소유라는 사실은 단지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지 그것을 바꾸지는 않는다. 주립대학의 소유주는 그 주의 유권자와 납세자이다. 선거로 선출된 주지사에게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명된 대학의 행정당국은 이론적으로 소유주의 대리인이고 주립대학이 존재하는 한 대리인으로 행동해야 한다(주립대학이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다른 문제이다).

한 사람 이상이 관련된 것을 설립함에 있어서 적당한 행동의 규칙과 조건을 설정하는 자는 소유주나 소유주들이다. 그 규칙과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다른 조건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몇몇 참가자들이 주도하며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 같은 것은 없다.

대학생들은 약간 품위 있는 술집의 주인이 건달들을 길거리에 내쫓을 때 사용하는 역겨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 어떤 언어가 허용되는지를 결정할 권리는 술집의 주인처럼 전적으로 대학당국이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통제주의자처럼 반란자들이 사용한 기술은 자유사회 원칙들의 ‘실행불능(impracticability)’(이 경우 언론자유에 대한 권리의 ‘실행불능’이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유사회 원칙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의 목표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재산권 없이는 그 어떠한 권리도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어진 사회여건 속에서 재산권에 기초해야 만 개인권리의 분야와 적용이 정의될 수 있다. 재산권 없이는 상충되는 견해, 이해관계, 요구, 욕구, 번덕 등의 절망적인 무질서를 피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

버클리대학 당국이 재산권에 호소하지 않고는 반란자들에게 대답할 방법이 없었다. 왜 현대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분명하다. 반란자들이 폭로하고 이용하는 것은 자유사회의 모순들이 아니고 혼합경제의 모순들이다.

어떤 이념적인 정책을 주립대학의 행정당국이 적절하게 채택해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다. ‘공공재산’의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모순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특히 재산이 사상을 보급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때 그렇다. 이것이 반란자들이 주립대학을 그들의 첫번째 투쟁장소로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주립대학은 어떤 정치적 견해,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지지할 권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주립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 중의 일부는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주립대학은 주립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 대다수의 재산, 자유,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어떤 정치적 견해(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지지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역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수결원칙은 사상의 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 개인의 확신은 다수의 투표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소수나 다수도 그들 자신의 파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이 어떤 사상의 표현을 금지할 권리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이 국가의 적(예를 들어 베트남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도와주고 자금을 공급할 권리는 없다.

이러한 모순의 원인은 개인권리의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산’인 집단주의자 제도가 개인권리의 원칙을 침해한 데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캠퍼스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헌법분야에서 싸워야 한다. 학생으로서 반란자들은 주립대학이라고 사립대학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로서 반란자들은 수백만 명의 다른 캘리포니아 납세자들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재단이사회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이 충분히 많은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아주 얼마 안되는 기회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형태든 ‘공공재산’에 대항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적 재산의 지지자가 아닌 반란자들이 공공소유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다수결원칙을 준수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대학이 ‘재정적, 산업적, 군사적 시설’의 하수인이 되어왔다고 불평할 때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수결원칙이다. 그들은 특정한 납세자단체의 권리(주립대학의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폐지하고자 한다.

만일 누군가가 공공소유의 지지자들은 다수결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재산통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재에 의한 재산통제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하나의 좋은 증거이다.

5.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이념조성의 한 부분으로 반란자들은 과거 몇 년 동안 모든 국가통제주의자-집단주의자들의 집중적인 추진대상이 되어왔던 오래된 주제의 새로운 변형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개인행동과 정부행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2 이것은 정부에게 헌법으로 금지된 특정한 침해를 시민의 탓으로 돌리고, 따라서 정부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개인권리를 파괴하는 ‘일괄교섭’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수법의 가장 빈번한 예는 (정부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인) ‘검열’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고소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³⁾

반란자들이 제시한 이 새로운 변형은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에 대한 그들의 항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만일 학생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면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으로부터는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이중의 위험’은 정부, 정부의 한 부처인 사법부, 그리고 특정한 사법부의 행동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동일범죄로 피고를 재차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또는 여기서는 정부관료의 판단과 행동)을 법정재판과 동일시하는 것은 나쁘다. 그것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권리를 말살하는 터무니없는 시도이다. 그것은 법률위반자가 그의 범죄가 민간에 끼친 결과에 대해 고통을 받지 않으려는 요구이다.

만일 그러한 개념이 인정되면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평가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개인들은 법정이 어떤 사람이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지를 판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죄라는 선고가 있는 후에도 개인들은 그 사람에 대한 그들의

3) 부록에 있는 나의 글 “Man’s Rights”를 참조하라.

행위를 바꿀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에게 벌을 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한 은행원이 횡령을 하고 그에 따른 형을 마쳤다면 은행은 그의 복직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인데, 그의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이중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는 정부관리는 부서직원들의 행동의 합법성을 감시할 권리가 없거나 그들이 법에 엄격하게 복종하도록 규칙을 만들 수 없다. 다만 법정이 그들의 법률위반 행위가 유죄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들이 지위의 이용, 또는 수회收賄나 반역에 따른 형을 마친 후에는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그리고 정부내 한 부서나 한 그룹)독점으로서의 도덕이란 개념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독재란 이념의 한 부분인데, 반란자들이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2

6. 대학은 학생과 교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반란자들의 개념은 그들의 다른 모든 개념에 의해 암묵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개인재산권에 대한 공개적이고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국가통제주의자-집단주의자 체제들이 그들의 목표로 선택한 것은 정치-경제적으로는 가장 실질적이지 않은 것이었고, 지적으로는 가장 변호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도덕적으로는 가장 치욕스러운 길드 사회주의였다.

길드사회주의는 사람들을 일의 종류에 따라 단체에 속박시키고 일은 단체의 힘에 일임하여 단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과 기준 및 관례를 정하게 함으로써 개인능력의 발휘를 폐지하는 체제이다.

길드사회주의는 사회이론으로 발전된 고착화되고 틀에 박힌 야만인의 정신구조이다. 마치 야만인의 부족이 정글의 일부 지역을 점유하고는 단지 그들이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을 주장하듯이 길드사회주의는 인간의 능력, 업적, ‘공공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있다는 이유로 정글숲이나 샘에 대한 독점권이 아닌 공장이나 대학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

마치 야만인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 그들 부족의 근력筋力을 초월하는 효력에 대한 개념이 없듯이 길드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로 산업문명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는 그 체도를 자연현상으로 간주하며 왜 폭력집단이 그들을 강탈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맡은 많은 과업 중 작고 틀에 박힌 일만 하며, 기계의 레버(또는 강의실의 강단) 외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기계가(또는 강의실) 거기에 있으며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그가 맡은 일을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의(또는 교수의) 정체된 정신이다. 행동의 영역에서 인간의 노력을 조직하고 통합하여 장기적이고 목적 있는 대규모의 활동으로 만드는 관리업무는 인지영역에서는 인간의 개념적 기능이다. 그것은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기억제적이고 지각 있는 정신구조의 첫 번째 표적이다.

만일 자신이 보통사람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을 단체의 절대적인 힘, 특히 전문직 동료집단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전제정치 중에서 이것이 최악이다.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인 지성에 반하는 것이며,

유일한 적^{enemy}인 혁신가에 반하는 것이다. 혁신가는 정의상 그의 직업에서 확립된 관습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단체에게 직업적인 독점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능력을 희생시키고 진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독점을 지지하는 것은 희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길드사회주의는 보통사람의, 보통사람을 위한, 보통사람에 의한 지배이다. 그것의 원인은 사회의 지적 붕괴이다. 그것의 결과는 꿈쩍할 수 없는 침체의 구렁텅이이다. 그것의 역사적 예는 중세의 길드체제이다(또는 현대에서는 무솔리니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체제이다).

학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대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의 교과과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반란자들의 개념은 아주 불합리하다. 만일 무지한 젊은이들이 어떤 과학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왔다면 무엇이 관련성이 있으며 어떻게 그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어떤 수단을 통해 결정하겠는가(배움의 과정에서 그는 단지 선생의 발표가 명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논리적인지 아니면 모순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주제에 관한 그의 지식을 능가하는 적절한 과목과 교육방법을 그가 결정할 수 없다)? 대학을 운영할(또는 누가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은 지식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과, 그의 요구는 자기모순이며 그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한 요구를 하도록 그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지지한 교수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덕적인 죄책감은 더욱 무겁다.

치료방법이 의사와 환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병원에서 당신은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그런데도 위에서 든 예들은 공장을 만든 사람의 업적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과 같을 수도 없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인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집단주의자들의 주장보다는 더 비합리적이고 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엉터리인 것은 확실하다. 기본적인 인식론적-도덕적 전제와 형태는 동일하다. 이성의 말살은 현실의 개념을 말살하고, 그것은 업적의 개념을 말살하며, 또한 그것은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를 구분하는 개념을 말살한다. 그리고는 무능력한 자가 공장을 차지하고, 무지한 자가 대학을 차지하며, 야만스러운 자가 과학연구소를 차지하여, 인간사회에 변덕과 주먹의 힘만 남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통제주의자-집단주의자 이론들보다 (서로 다르지는 않지만) 길드사회주의를 더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길드사회주의는 보통 언급되지 않는 이타주의의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주는 자들의 의견이 아니고 받는 자들의 의견이다. 대부분의 이타주의적 이론가들은 ‘공동선’이 그들의 정당성이라고 주장하고, ‘공동체’에 대한 자기희생적인 봉사를 지지하며, 그러한 희생을 받는 자의 본질이나 정체에 대해서는 조용한 반면에 길드사회주의자는 뻔뻔스럽게도 그들 자신이 수혜자라고 주장하며 사회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서비스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그들이 어떤 주어진 직업에서 독점을 원한다면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직업을 가질 권리를 포기하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만일 그들이 대학을 원한다면 공동체가 그들에게 대학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일 이타주의자들이 ‘이기주의’를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것은 “우리 생각에 대학은 교수, 학생, 도서,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대학당국은 단지 보도를 청결하게 하는 일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대학당국은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

다”라고 주장한 작은 버클리 집단주의자의 선언보다 더 추악한 이기주의에 대한 예라고 지적하면서 이타주의자들에게 도전하고 싶다.

현실에서 유리된 작은 신비주의자가 대학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무엇을 빠뜨렸는가? 누가 교수의 봉급을 지불하나? 누가 학생들의 생계를 제공하나? 누가 책을 발행하나? 누가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보도를 건설하나? 구세대의 신비주의자가 감히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에 대한 일종의 비난은 현대의 ‘원력 신비주의자mystic of muscle’가 하도록 내버려두자.

대학당국 이외에 누가 교수와 학생을 위하여 발언권도 권리도 없는 ‘봉사자’와 보도의 청소부가 되겠는가?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천재들, ‘대기업의 거물들’ ‘재정적, 산업적, 군사적 설립’을 하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납세자들, 높은 수준이든 낮은 수준이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예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그가 가지는 것에 대해 지불하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이라는 현실을 회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 그 누구도 될 수 없다.

이상이 버클리 폭동의 이념에 나타난 정신이다. 이것들이 반란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들이 확립하고자 했던 이념적 선례의 의미이다.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지지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이러한 자들이 보여주는 복잡함, 애매함, 속임수, 지적 곡예에 주목하라.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행동주의자들의 이념적 일관성에 주목하라.

학생폭동의 제1라운드는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언론이 쓸데없이 ‘부추겼는’데도 대중의 태도는 당황함, 무관심, 적대감 등이 섞인 것

이었다. 무관심을 보인 이유는 애매한 언론의 보도는 자멸적이어서
5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대감을 보인 이유는 미국의 대중은 아직도 대학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그런 것 같았고 그랬어야 했으나 이제는 더이상 아니다) ‘청년의 이상’에 대한 시사평론가들의 칭찬 반 농담 반인 상투어가 잔인한 폭력이 대학캠퍼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속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불쾌감과 정의되지 않고 우려되는 비난이라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캠퍼스에 침입하려는 반란자들의 시도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올봄에 몇몇 대학의 당국자와 졸업식에서의 연설자가 치욕스러운 유희정책을 선언했으나 대중의 동정은 거의 얻지 못했다.

몇몇 대학당국이 적절한 태도, 즉 확고부동함과 위엄과 비타협적인 엄격한 태도를 보인 예가 있었는데, 특히 콜롬비아대학이 그랬다. 헌터 칼리지Hunter College 총장인 멩Meng 박사의 졸업식 연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대학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침해를 한 학생과 교수는 ‘즉각적인 추방’을 당할 만하다고 선언하면서 그는 “어제의 상아탑이 오늘 날에는 은신처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론과목의 자유시간은 일종의 항의대열, 교수와 학생의 장시간 토론, 회의, 감시원을 조직하는 데 점점 점유당하고 있다.4)

그러나 비록 학생폭동이 많은 대중적 동정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사태의 가장 불길한 면은 학생폭동이 어떤 이념적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고, 반란자들 입장의 시사점이 해결되지도 거절되지도 않았으

4) The New York Times, 1965년 6월 18일.

며, 학생폭동에 대한 비난은 아주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회피적이고 피상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예비적 타진으로서 폭도들은 그들 지도자의 목적을 달성해왔다. 그들은 약간 앞서 가고 그들의 야욕을 너무 일찍 드러내어 ‘자유주의자’ 일부를 포함하여 많은 잠재적인 동조자들의 반감을 산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앞길은 눈에 보이는 지적 장애물이 전혀 없이 텅 비어 있다.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학생폭동의 장기적인 의도는 현시점에 대해 그들의 전적인 헌신을 선언한 동일한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공포되어왔다. 버클리 ‘언론자유운동’의 잔존자들은 또다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호전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유학생동맹 Free Student Union’을 재조직해왔다. 그들의 개념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반란자들의 공격은 우리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정치적 문제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타협으로 매수할 수 없다. 잔인한 폭력이 진행될 때 타협이 그것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성이 공격을 당할 때 상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형태의 철학 없이는 한 개인이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안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이다. 만일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주는 대로 받는다. 국가의 자유의지는 그 국가의 지식인이다. 그들이 조건, 가치, 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대로 받는다.

지적인 반대가 없으면 반란자들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문화 속으로 흡수된다. 오늘날에 명백하게 불합리한 것들이 내일에는 슬로건들로 인정된다. 그것들은 한쪽에서의 계속적인 압력과 다른 쪽에서의 계속적인 후퇴로 서서히 암암리에 인정되어 나중에는 그것들이

갑자기 한 나라의 공식적인 이념으로 선포될 날이 오게 된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통제주의의 이념적 시사점을 이용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가속되는 것이다. 대학의 반란자들은 모든 국가통제주의자-집단주의자들이 미국내 자본주의 잔류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이념적인 발판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맡은 단순한 특공대원들이다. 그리고 그들 임무의 일부는 미국대학들의 이념적 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이다.

만일 집단주의자들이 성공한다면 시끄럽고, 무모하고, 호전적인 자신감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허풍이라는 사실에 놀랄 만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의 진격이 가속되는 것은 승자의 행진이 아니고 패자의 맹목적인 쇄도이다. 집단주의는 인간의 지성을 위한 전투에서 패했다. 집단주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안다. 그들의 마지막 기회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수십 년에 걸친 철학적 부패를 이용하려 한다면, 즉 지금 막 함몰하려고 하는 철학적 쥐구멍의 미로를 파기 위하여 값고, 파고, 찢고, 굽는 모든 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지금이 그때이며, 앞으로는 결코 그러한 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문화적-지적 능력과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집단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죽었다. 만일 아직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모여든다면 그것은 공허함과 붕괴라는 관성 때문이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지루하고 미치게 만드는 변증법적인 개념으로 시작된 사회운동은 결국에는 “나는 지금 그것을 원한다”라고 발을 구르면서 소리지르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승배자들의 무리만 남겨놓았다.

전세계를 통해 힘없는 국가를 차례차례 쓰러뜨리면서 집단주의는

미래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 인류의 지식인과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잃어가고 있다. 인류의 지식인에 관해서는 영국의 ‘두뇌유출’을 주목해보라. 청년들에 관해서는 미국 다수의 대학에서 교수들의 정치적 견해가 학생회의 정치적 견해보다 더 눈에 띄게 ‘자유주의적’이라는 사실을 (학생폭동에 관한 언론의 논평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려해보라(국가 전체로 본 이 나라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뉴딜New Deal하에서 자라나서 현재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35세에서 50세의 기성세대에게 대항한다). 그것은 학생폭동이 위장하고자 했던 사실들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반집단주의자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수적인 다수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단체, 문화, 사회, 시대에서든 현상유지의 수동적인 지지자들이 항상 다수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추세를 정하는 것은 수동적인 다수가 아니다. 누가 한 나라의 추세를 결정하는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사상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단지 자신들의 선택과 편의에 따라 살아가며 사회에 안정을 주는 사람들이다.

대학생들(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 중에서 ‘비자유주의적인 자들’이 현재 단순히 ‘반집단주의자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면 위협스러운 요소이며 의문이 간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악의 늪에 대항해서 싸우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지만 무엇이 선한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메스껍고 낱아빠진 집단주의의 상투어를 거절한다. 그들은 절망과 부패의 승배를 포함한 모든 집단주의의 문화적 표현을 거부한다. 그 문화적 표현이란 몸을 비틀고 울부짖는 춤, 노래, 연기 등의 분별 없는 것, 반反 영웅승배,

영감을 위해서 정신병자의 뇌를 해부하는 것을 쳐다보고 안내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맨발자국을 쳐다보는 경험,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무감각, 톰 존스Tom Jones의 영화 같은 삶에 대한 감각 등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방향도, 일관성 있는 철학도, 합리적인 가치도, 장기적인 목표도 없다. 이러한 것들이 없는 한 나은 미래를 위한 뒤죽박죽된 그들의 노력은 집단주의자의 마지막 공격이 있기도 전에 붕괴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일종의 지식인이 없는 땅에 살고 있다. 그리고 미래는 현상유지라는 참호를 위협을 무릅쓰고 뛰쳐나가는 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한 모험가들이 새로운 문예부흥new Renaissance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나, 아니면 어제의 전투에서 남은 잔해를 치우는 청소부냐에 우리의 방향이 달려 있다. 전사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청소부들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대학캠퍼스에 있는 작은 멍청이zombies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지금, 지금, 지금!’이 과학적으로(!) 계획된 사회라는 약속으로 모인 군대에 한때 있었던 자로 지금은 기진맥진해 있는 부랑자들의 마지막 슬로건이며 울부짖음이 된 이유이다.

언론에 나타난 학생폭동의 가장 정확한 특징 두 가지는 ‘정치적 실존주의’와 ‘카스트로주의’였다. 둘다 지적 파산에 관한 개념이다. 정치적 실존주의는 이성의 포기를 나타내고 카스트로주의는 주먹만을 유일한 도구로 삼고 휘두르는 정신병적인 공포상태를 나타낸다.

『뉴스위크』는 발표된 조사자료를 준비하면서(1965년 3월 22일) 대학생들 상대로 여러 주제에 대해 상세한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가 학생들의 영웅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뉴스위크』의 편집인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고 알려주

었고, 현대대학의 상태에 관한 나의 견해를 묻기 위해 취재기자를 보내왔다.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면담내용을 일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가 말했던 것은 (간략하게 보면) 앞으로 말할 결론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론은 나를 그들의 영웅으로 선택해준 대학생들에게 특히 하고 싶은 말이다.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비참한 추세와 싸우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형태의 행동을 찾고 있으며 그들의 희망을 어두운 뒷골목에서 부수고 있는데, 특히 매 4년마다 선거 때에 그렇다. 투쟁이 이념투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편이 낫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학생폭동이 대학을 떠나 세계에 나가서 그들이 싸워야 할 투쟁의 종류에 대해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기회는 그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투쟁의 첫 라운드에서 이기게 한다.

만일 그들이 중요한 원인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반란자들이 뻔뻔스럽게 인정하지 않는 기본원칙들을 지적하여 답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의 의미를 밝혀 폭로함으로써 도덕적-지적 토대 위에서 그들과 이념적으로 싸울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투쟁은 이 나라에 이념적 해답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기성세대가 포화세례를 받고 도망쳤던 행동분야이다.

사상에는 더 나은 사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 투쟁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하는 것이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것이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일관성 있고, 급진적인 대안을 대담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학생들이 반란자들과 토론을 벌이거나 그들을 전향시키도록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합리주의자라고 자인하는 자들과는 논쟁할 수 없다. 이념적 투쟁의 목표는 대학에 있는 무력하고 당황해하는 대다수 학생들과 이 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이다. 또는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몇 년 동안 집단주의자의 궤변만 들어서 혐오감을 가지고 포기한 대다수 사람들의 정신을 계몽하는 것이다.

그러한 투쟁의 첫번째 목표는 언론이 비트족beatniks에게 기꺼이 부여해준 ‘미국청년의 대변인’이란 직함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다. 첫단계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캠퍼스와 바깥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항의집회, 탄원서, 연설, 팸플릿, 편집인에게 편지 보내기 등 여러가지 교양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국제연합 앞에서 항의하고 하원 비미非美활동 조사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를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자유를 위한 미국청년회Young American for Freedom와 같은 무익한 단체가 그러한 일에 관여하면서 항의는 하지 않고 집단주의자의 선봉대가 그들의 이름과 미국 대학생의 이름으로 연설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할말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철학적 근본까지도 알아야 한다. 공화당의 전투기 조종사가 핵전문가와 싸우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학생폭동의 배후에 있는 지도자는 그들의 특별한 책임에서 전문가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초점을 잃은 채 바라보는 자들과 신앙, 감정,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사상과 싸우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위협

하다. 집단주의 공론가들이 자신감 있고 지적인 적을 만날 때 얼마나 빠르게 후퇴하는지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혼돈, 무지, 불성실, 소심함, 절망에 호소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지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라.

집단주의는 세계권력을 쥐게 했고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지성과 이상주의, 또는 이성과 도덕성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사기였기 때문에 집단주의는 성공한 만큼 정확하게 잃어야 했다.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파시스트 국가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현실은 집단주의자 체제의 비합리성과 도덕률로서의 이타주의의 잔인함을 드러내왔다.

아직도 이성과 도덕은 역사의 과정을 결정하는 유일한 무기들이다. 집단주의자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다닐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떨어뜨렸다. 이제 당신이 그것들을 집어들어라.

23

소 의*

나다니엘 브랜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인간의 광란과 하나님의 불화를 마주할까?
나는 내가 결코 만들지 않은 세상의 이방인이며 세상이 두렵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의 심리학자와 사회학자의 글 속에서 하우스만 A. E. Housman의 시에서 인용한 이 구절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시는 20세기를 사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감성과 심리적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요약하고 있다.

사회논평에 관한 많은 서적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현대인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현대인은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로 고통을 겪고 있다. 현대인은 소외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들은 현대의 대중사회에 속한 인간이 자기자신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사회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헨드릭 루텐빅Hendrik M. Ruitenbeek은 그의 저서인 『개인과 군중—미국의 정체성 1』에 관한 연구*The Individual and the Crowd—A Study of Identity in America*에서 주장하고 있다.¹⁾

정신의학에서 원래 사용하는 소외alienation의 개념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며, 간혹 특히 법적인 문맥에서는 정신이상자the insane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합리성과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상실이라는 개념과 그가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 즉 강제로 이질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힘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해졌다고 느낀다.

수백 년 전 중세의 신학자들은 신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 즉 세

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인간을 상실하게 했고, 인간의 올바른 영적 유산으로부터 소외해졌다고 비통하게 말했다.

소외의 개념을 (정신의학적인 배경에서) 현대세계에 소개한 사람은 철학자 헤겔Hegel이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자기소외의 역사라고 헤겔은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고, 자신이 창조한 사회제도와 재산이라는 ‘죽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고, 자신이 한 부분인 우주적 존재the Universal Being로부터 소외해졌다. 그리고 인간이 그의 개인적 인식의 한계를 초월함에 따라 인간의 발전은 인간의 전체Whole를 향한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외’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 계승되어 보다 협의의 무질서한 의미가 주어졌다. 그는 소외의 개념을 주로 노동자에게 적용했다. 분업, 전문화, 교환, 그리고 사유재산의 발달로 인하여 노동자의 소외는 불가피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노동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팔아야만 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상품’처럼 보게 되고, 그의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리고 그의 일은 더이상 그의 힘과 그의 내면적인 자아의 표현이 아니었다. 살아 있는 노동자가 1 ‘죽은 것’, 즉 자본과 기계에 의해 지배당한다. 그 결과는 정신적인 무력감과 파괴mutilation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노동자는 그 자신, 자연, 그리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 있는 듯한 객체로서 존재한다.

마르크스 이후, 소외의 사상은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어법과 의미들이 덧붙여지면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헤겔과 마르크스 이후 소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는, 소외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소외를

1)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Mentor), 1965, p.15.

개념적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마치 소외의 의미를 느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두 권으로 된 『소외Alienation』라는 에세이집 편집자인 제럴드 사익스Gerald Sykes는 특히 용어정의에 지나치게 열광적인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다. 성급하게 소외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진전된 경우의 소외’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²⁾

어떤 저술가들, 특히 프로이트학과Freudian, 또는 융학과Jungian 성향의 사람들은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간은 ‘지나치게 문명화’되었고, 인간존재의 깊은 뿌리와외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인간의 ‘본능적인 본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 특히 실존주의자나 선불교도Zen Buddhist 성향의 사람들은 우리의 진보된 기술사회는 인간을 지나치게 이지적으로 살게 하고, 추상적 개념에 의해 지배당하도록 강요하여, 그 결과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만 그 ‘전체’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세계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불평한다. 다른 사람들, 특히 까다로운 보통사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예술가의 소외를 공공연히 비난한다. 후원자 시대의 상실, 속물philistines에 의해 지배당하는 시장에서 발버둥치면서 자신의 자원을 내던지는 예술가들은 그의 정신적 고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는 싸움을 한다고 비난받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예술가는 물질적 유혹들로 지나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술가들 대부분은 소외와 정체성 추구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인간에게 번민의 근원이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문화, 특히 미국에서 그 문제는 전례없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 문제

2)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4, Vol.I, p.xiii.

는 위기가 되었다.

무엇이 이 위기의 원인인가? 무엇이 인간을 소외시켰고 정체성을 박탈해왔는가? 소외에 대한 대부분의 저술가들의 답은 항상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주의의 비인간화 효과’ ‘정신을 파괴하는 상업주의’ ‘기술문화의 메마른 합리주의’ ‘서구의 저속한 물질주의’ 등과 같이 그들이 비난하는 듯이 내뱉는 수많은 언급들에서 사물에 대한 그들의 견해로 볼 때, 그 악한, 즉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파괴자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자본주의이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실질적인 악, 또는 가상적인 악에 책임이 있는 속죄양이 되어왔다. 저명한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세스Ludwig von Mises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보다 더 평판이 좋지 못한 것은 없다. 오늘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현상은 자본주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무신론자들은 자본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생존한다고 한다. 그러나 로마교황의 회칙the papal encyclicals은 무종교의 확산과 오늘날 인간의 죄들에 대한 책임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하며, 그리고 개신교와 그 종파들도 자본주의자의 탐욕에 대해 강경하게 고발한다. 평화주의자들은 인류의 전쟁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파생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의 완고한 민족주의자 전쟁광들은 자본주의를 인간본능에 반하고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법칙에 반하는 ‘부르주아’ 평화주의라고 고발한다. 설교자들은 자본주의가 가족을 분열시키고 방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이른바

시대에 역행하는 성역제의 규칙을 보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이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더 많은 쾌락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함부로 충족시켜 주면서 지독한 물질주의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비난은 서로를 상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전혀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다.³⁾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내적 공허함, 정신적인 가난, 개인정체감의 결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비난에 대한 어떤 정당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난에 대한 이유들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은 인간소외감과 비정체성의 본질 및 의미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자본주의를 향한 적대감을 증가시키는 심리적 동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지적해왔듯이 소외에 관하여 글을 쓴 저술가들은 지적으로 동일한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다르다. 정확히 무엇이 소외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 그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현대 산업사회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견해, 그들이 자본주의가 원흉인 것처럼 지적한 것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그들 정치적 성향의 세부적인 것 등 모두 다르다. 이 저술가들의 일부는 사회주의자이고, 일부는 파시스트이고, 일부는 중세 찬미자이고, 일부는 복지국가 지지자이며, 일부는 정치를 싸잡아서 경멸하는 사람들이다. 일부는 사회조직의 새로운 체제에 의해 소외의 문제를 대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소외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이며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은 찾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행히 이 분석을 위하여 이 분야의 논평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범해진 거의 모든 중요한 오류들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잘 결합시킨 현대의 저술가가 있다. 그는 바로 심리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Erich Fromm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프롬의 견해와 소외이론을 자세히 살펴보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우주의 기형이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중요하고도 중심 되는 주제이다. 인간은 살아 있는 모든 다른 종들species과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자연과 ‘소원하게 되고’ ‘소외되고’ ‘고립isolation’과 ‘격리separateness’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 인간은 진화과정 속에서 다른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조용한 평온을 잃어버렸고, 인간은 동물, 새, 또는 벌레가 즐기고 있는 자연과의 ‘인류 이전의 조화’를 상실했다. 이러한 인간저주의 근원은 인간이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롬은 『자신을 위한 인간Man for Himself』에서 “자각, 이성, 그리고 상상이 동물적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조화’를 깨뜨렸다. 그것들의 출현은 인간을 이형anomaly과 우주의 기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적고 있다.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을 환경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지 않

3) Ludwig von Mises, *Socialism*,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51, p.527.

다. 동물은 맹목적으로 ‘종들의 양식pattern을 반복하고’, 동물의 행위는 생물학적으로 규정되고 정형화되며, 동물은 ‘적응하거나 사멸한다.’ 그러나 동물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동물은 삶과 죽음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간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삶과 죽음을 문제로 인식한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이성은 인간의 축복이면서 저주이다…….”⁴⁾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간존재에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은 동물의 왕국과 본능적인 적응으로부터 발생했으며, 결코 자연을 떠나본 적은 없지만 자연을 초월해왔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그러나 한 번 자연으로부터 떨어져나가면 다시는 자연으로 돌아올 수 없다. 자연과 하나였던 원래 상태의 낙원에서 한 번 내던져진 후 다시 되돌아가려고 시도하면, 불검을 가진 천사들이 그를 저지할 것이다.⁵⁾

인간의 합리적 능력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고 멀어지게 하여 ‘낙원’을 인간에게서 빼앗은 것은 인간의 정신이 인간이 운명적으로 마주치도록 해준 ‘존재에 관한 이분법existential dichotomies’, 즉 삶 자체 속의 타고난 ‘모순들’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프롬은 말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분법’은 무엇인가? 프롬은 기본적으로도 중심적인 세 가지를 말한다. 인간의 정신은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 즉 죽음을 상상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그가 살아있기를 원하도록 한다.”⁶⁾ 인간의 본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반면에 “짧은 인간의 삶은 가장 좋은 상황하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⁷⁾ 인간은 “순전히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혼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있는 것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⁸⁾

이러한 ‘모순들’이 ‘인간상황’의 딜레마를 구성한다고 프롬은 말한다. 그 모순들이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지만 결코 풀거나 제거할 수도 없는 모순들, 그리고 인간을 자신, 그의 동료,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모순들을 말한다.

만일 앞서 말한 논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개요 synopsis가 간결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상을 나타내는 프롬의 방식이 완전히 독단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자처럼 글을 쓰지 않고 이유나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는 예언자처럼 쓴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개념적인 재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살아 있는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인간에게 생존은 지성을 발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다 소모할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혼자이고, 분리되었고, 독특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고思考는 독립성을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사실들이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무서운 우주의 역설로 생각하고 그 사실들 속에서 터무니없이 비극적인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증거를 보고자 할까?

4) Erich Fromm, *Man for Himself*, New York: Rinehart & Co., 1947, p.39, p.40.

5)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p.7.

6) *Man for Himself*, p.40.

7) 앞의 책, p.42.

8) 앞의 책, p.43.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이성이 하는 일은 책임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 즉 동물의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공원의 의자에서 자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방랑자(tramps)라고 불린다. 인간들 중에는 생각이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신박약자(morons)라고 불린다. 사람들 중에는 죽음에 대한 만성적인 선입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피아니스트, 재벌, 철도기술자, 야구선수, 그리고 심해 다이버가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몹시 원망한다. 또한 이들은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자로서의 자신들의 존재를 견딜 수 없는 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신치료자의 사무실에서 볼 수 있으며, 신경과민 환자(neurotics)라고 불린다. 그러나 왜 프롬은 방랑자, 정신박약자, 그리고 신경과민 환자들을 인간에 대한 상징과 형상처럼 선택할까? 그리고 왜 프롬은 그들의 상태가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도록 운명지어진 상태이고,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상태라고 주장하고자 선택할까?

프롬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도 그는 그가 관찰한 사실과 그가 발표한 결론들과의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세우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그의 결론을 독단적이거나 사실상 신비적인 계시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의 결론들이 사실상 자명하며 그가 인용한 사실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자기반성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인용한 사실들이 인간에게 고민스러운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자기반성에 의해 그가 명백하게 느낀다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답은 “형제여, 남의 의견까지 대변했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것이다.

이성과 이성으로만 가능한 자기인식이 인간의 ‘격리되고 분리된 존재’를 ‘견딜 수 없는 감옥’ 속으로 집어넣었으며, 인간은 “만일 그 자신을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하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 그리고 외부세계와 연합하지 않으면 정신이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프롬은 주장한다.⁹⁾

다음 문단은 프롬의 전형적인 설명이다.

분리의 경험은 근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정말 모든 근심의 근원이다. 분리된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이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괴리된다는 것은 무력하게 된다는 것과 세상, 즉 사물과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상이 나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를 침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가 강한 근심의 근원인 것이다. 이 밖에도 분리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분리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의 경험은 아담과 이브에 관한 성서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 그들이 불복종한 후…… 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원래의 동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인간이 된 후, 즉 그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후, 그들은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우리는 이같이 오래되고 기본적인 신화

5

9) *The Art of Loving*, p.8.

가 19세기 사고방식의 지나치게 얽매는 도덕성을 가졌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은 그들의 생식기가 노출된 것에 대한 당혹감이라고 가정해야 하는가? 이것은 거의 그렇지 않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으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된 논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그들 자신과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그들은 그들의 분리, 그들의 차이, 그들이 다른 성sex에 속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의 분리를 인식하는 동안 그들은 낮은 사람으로 남았다. (아담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브를 옹호하기보다는 이브의 탓으로 돌린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에 의한 재결합이 없는 인간분리의 의식은 수치심의 근원이다. 그것은 동시에 죄의식과 근심의 근원이기도 하다.¹⁰⁾

모든 사회제도, 모든 문화, 모든 종교와 철학, 모든 발전들은 인간의 이성이 그를 비난하는 무서운 무력감과 외로움에서 탈출하기 위한 인간의 필요에 자극을 받는다고 프롬은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존재 속에 있는 모순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해답을 추구할 필요와 자연, 그의 동료, 그리고 자신과의 연합을 위한 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할 필요는 인간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모든 정신적 힘의 근원이다…….¹¹⁾

10) 앞의 책, pp.8-9.

11)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New York: Rinehart & Co., 1955, p.25.

『자신을 위한 인간』에서 오직 ‘이성, 생산과 사랑’으로 인간은 자신의 ‘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새로운 결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프롬은 말한다. 이성의 옹호자가 되겠다는 프롬의 주장은 아주 줄잡아 말한다 해도 정직하지 못하다. 이성과 사랑은 ‘세계를 이해하는 단지 두 가지 다른 형태’라고 그는 말한다.¹²⁾ 이것이 그의 신비주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아닌 것처럼, 그는 『사랑의 기술』에서 계속 말하기를 동방종교의 ‘역설적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학과의 모순법law of contradiction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간은 오로지 모순 속에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말한다¹³⁾(그는 헤겔과 마르크스는 확실히 그의 ‘역설적’ 인식론 계열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의 논의는 거의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신을 위한 인간』보다 몇 년 뒤에 저술한 『사랑의 기술』에서, 그는 이성과 생산적인 일이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이며 그것들만으로는 아주 불충분한 해답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달성한 ‘조화’는 ‘개인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개인간의 연합을 위한 갈망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노력이다.”¹⁴⁾ 여기서 프롬은 설명하지도 않고 전환을 한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 이제 인간의 ‘연대감’에 의해 (어떤 명기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프롬의 글을 읽으면, 이것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사랑, 그리고 사랑만으로 인간의 공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그는 놀라운 독창력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사랑은 인

12) *Man for Himself*, p.97.

13) *The Art of Loving*, p.77.

14) 앞의 책, p.18.

간존재의 문제에 대한 건전하고도 만족스러운 단 하나의 답이다.”¹⁵⁾

자신의 개인적 고통함을 보존하면서 오직 자신을 타인과 긍정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오직 그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인간은 그를 소외된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대, 새로운 연합을 확립할 수 있다고 프롬은 다소 이해할 수 없게 부연한다.

고양이는 이제 가방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 표현은 소외를 형이상학적 문제로 보는 프롬의 견해이다. 이것의 완전한 의미와 함축적인 뜻은 소외에 대한 프롬의 사회-경제적 분석을 보면 분명해진다.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어떤 종류의 ‘유대ties’, 어떤 종류의 ‘결합union’,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랑’을 프롬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인간관계의 체제로서 모든 사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필요를 얼마나 잘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프롬은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 관계, 그리고 사회가 인간에게 주는 개인적 동질감의 경험의 가능성에 의해 평가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해를 끼쳐왔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인간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본주의는 많은 측면에서 소외의 문제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 인간을 중세의 규제와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교회, 경제, 그리고 사회적 전제정치와 사슬을 깨고, 봉건질서의 ‘안정’을 파괴하면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는 인간에게 전례없는 자유를 억지로 떠맡겼다. 이 자유는 “심각한 불안정감, 무기력함, 의심, 외로움, 그리고 근심을 창조하게 되어 있었다.”¹⁶⁾

집단주의자collectivist를 한꺼풀 벗기면 보통 중세 찬미자이다. 프롬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많은 사회주의자들처럼 그도 중세를 미화하는 사람이다. 그는 기계적으로 중세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세를 이어받은 자본주의와 중세를 대비시키면서 그가 중세의 장점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에 의해 매혹당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비교할 때 중세를 특징짓는 것은 개인자유 부족이다…… 그러나 비록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자유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는 혼자이지도 않았고 고립되지도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독특하고, 불변하며,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위치를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기에 인간은 조직화된 전체 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은 의미가 있었고 의심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필요를 남기지 않았다. 개인은 사회에서 그의 역할과 일체감을 이루었다. 그는 농부였고, 예술가였고, 기사였고, 우연히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게 된 개인이 아니었다. 사회질서는 자연질서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었다. 그 시대에는 비교적 경쟁이 거의 없었다. 개인은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전통에 의해 결정지어진 생계가 보장된 특정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제한된 그의 사회적 영역내에서는, 개인은 그의 일과 정서적 삶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자유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 시대에는 많은 삶의 방식들 중에서 무제한적으로 선택하는 현대적 의미의 개인주의는 없었지만(대부분 추상적인 선택의 자유이지만), 실제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개인주의가 많이 있었다.¹⁷⁾

15) 앞의 책, p.133.

16) Erich Fromm,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Rinehart & Co., 1941, p.63.

소의를 다루는 저술가들의 중세에 대한 이런 시각을 접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프롬의 경우 위의 인용문이 특별히 놀랍고 공격적인 것은 그가 자유를 사랑하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공언하기 때문이다.

중세의 중요한 특성은 개인존재의 모든 면에 대한 통제의 완전한 부족, 지적인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 여러 형태의 개인적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무능력하게 하는 제약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프롬에 의해서 일축되었다. 기근, 전염병,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고된 노동, 숨막히는 일상사, 미신적인 공포, 모든 도시를 괴롭히는 집단 히스테리의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무자비함, 정상적인 생활방식으로써 합법화된 고문의 사용 등이 모두 일축되었고, 인간은 발명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굴복하고 복종만 하면 되는 세계에 대한 비전에 프롬은 매혹되었다.

무엇이 중세인의 ‘구체적인 개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프롬은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병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중세정신의 붕괴와 자유-시장 사회의 등장과 함께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인간은 생산과 교역을 해야 했으며,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했으며, 인간은 자신을 안내하는 권위자authority가 없었고, 오로지 그를 존재하게 하는 자신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계급 때문에 그의 개인정체감을 더이상 상속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 인간은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에

17) 앞의 책, pp.41~42.

게 지독한 정신적 문제를 제기했으며, 인간의 기본적인 고립감과 분리감의 도를 더했다.

“어떤 것이든 중앙에서 계획된 사회질서는 정치적 통제와 궁극적으로는 독재로 가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정치적 자유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¹⁸⁾라고 프롬은 말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고 인간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고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sane society’는 인간에게 정치적 자유나 물질적 풍요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비난에 대한 아주 뜻깊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프롬도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노동자의 굴욕적인 상태를 비난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그 자신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상품, 즉 교환되는 물건처럼 경험하도록 운명지운다. 더욱이 노동자는 단지 거대한 생산과정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그는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그리고 그것을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의 작은 한 부분만을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는 결국 어떤 알려지지 않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팔리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따라서 자신의 노동으로 그의 개성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었던 중세의 장인과는 달리 그 자신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분업하에서 전문화와 교환은 그것이 없었다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실

18) *The Sane Society*, p.138.

이다. 인간의 경제적 복지가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시적인 도구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에 의해 제한되었던 자본주의 이전의 세기에서는 아주 단순한 생필품을 만들고 얻는 데도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노동이 필요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수준도 형편없이 낮았다. 인간의 생존은 절박한 굶주림과의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투쟁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신생아들이 열 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의 임금제도의 발전, 기계의 등장과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팔 수 있는 기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질적 복지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이전 경제에서는 살아남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수백만 명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프롬과 그와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려대상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다. 인간에게 전례없는 물질적 복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명백히 그들에게 소외를 선고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들을 중세의 농노나 길드조합원의 정체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정신적 성취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프롬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구조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힘들의 익명성’을 비난한다.¹⁹⁾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제적 인과법칙 등 시장법칙은 불길하게도 비인격적이다. 어떠한 개인의 소원들도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자가 노동자인가? 아니다. 고용주도 아니다. 얼굴 없는 괴물인 시장이 그것을 결정한다. 노동자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시장이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자본가의 경우 그의 지위가 노동자보다 거의 나은 게 없다. 그 역시 무력하다. “개별자본가는 기본

적으로 그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한다. ……확장을 연기하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⁰⁾ 만일 지체하고자 하면 그는 파산할 것이다. “그러한 제도하에서 어떻게 인간이 소외를 느끼지 못하겠는가?”라고 프롬은 묻는다.

프롬이 비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인간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일반 가격을 확립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노동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할 경우 제시하는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노동에 대한 시장가치 이상을 요구하면 그는 실업자로 남을 것이다. 만일 어떤 특정한 고용주가 노동에 대한 시장가치 이하를 그에게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일 자리를 찾을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상품을 팔려고 제공하는 자본가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그의 상품가격과 품질이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상품가격과 품질에 필적하거나 더 낮다면 그는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만일 다른 사람들이 아주 월등히 좋은 상품을 같은 값에 제공하거나, 아니면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상품을 개선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고객을 잃어버릴 것이다. 생산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의 상품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시장의(그리고 구매자

19) 앞의 책.

20) 앞의 책, p.86.

지식의) 배경내에서 평가되는 그의 상품의 객관적인 가치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단 하나의 교환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것이 프롬이 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프롬이 반대하는 것은 객관성objectivity이다. “인간의 소망이 전능하지 않고, 노력으로 얻지 않은 것은 가질 수 없고, 성장은 보상을 받고 침체는 벌을 받는 체제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전술한 것으로부터 프롬의 기본적인 논쟁은 현실에 있음이 분명하다. 자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자유경제는 단순히 자연 역시 인간을 인과의 법칙에 묶어두고 있으며, 자연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성공적 삶의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의 공격의 중심을 자본주의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소외에 관한 저술가들이 있다. 그들은 자연을 공공연히 비난한다. 그들은 현실은 ‘포악하기’ 때문에, 모순된 욕망들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은 ‘감옥’이기 때문에, 시간은 아무도 회피할 수 없는 ‘그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비극이라고 선언한다. 특별히 실존주의자들이 이러한 선언에 전문화하고 있다.

(3) 자본주의 경제의 소비자로서, 인간은 더욱 소외하는 압력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소비자는 그가 선택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상품들에게 압도당한다. 소비자는 그들의 상품을 사라고 영원히 강요하는 광고주들의 유혹에 현혹되고 세뇌당한다. 이 가능한 선택들의 어마어마한 다양성은 그의 건전함을 위협한다. 더욱이 그는 소비를 위한 소비에 ‘습관화’되었고, 단순히 ‘체제’를 지속시키

기 위하여 전에 없이 높은 생활수준을 갈망하고 있다. 자동세탁기, 자동카메라, 그리고 자동 깡통따개와 함께 현대인과 자연과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지게 되었다. 소비자는 점점더 인위적인 세계의 악몽이라는 운명이 지어진다.

봉건농노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해보지 못했다.

이만큼은 진실이다. 중세의 농노는 동굴인간caveman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흙바닥에서 자면서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개념의 세계인 자연과 아주 가까웠다.

자본주의에 대한 위의 비판은 사회논평가들 사이에 아주 유행하게 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프롬의 경우처럼 이러한 비판은 거의 예외 없이 인간은 더 많은 자유시간leisure이 필요하다고 크게 외치는 저술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자동세탁기, 자동카메라, 자동 깡통따개와 같은 ‘도구들gadgets’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시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수단은 비난하면서도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주기 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에게 제시된 다양한 선택들이 인간의 정신적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관하여는 선택과 결정의 두려움은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사회가 어떠한 정신상태로 조정되기를 원하는가?

(4) 복잡하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사고방법에서 극도의 정량화定量化와 추상개념을 요구한다고 프롬은 진술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인간은 사물들의 ‘구체성과 독특함’을 연결

시키는 능력을 상실했다.²¹⁾

부분적으로 프롬에게 동의할 수 있다. 산업기술 사회는 인간의 개념적 능력, 즉 독특한 인간의 인식력의 완전한 개발과 연습을 요구한다. 동물의 인식수준인 의식의 감각-지각 수준으로는 안될 것이다.

의식의 개념적 수준이 인간을 현실세계로부터 소외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념들이 현실과 관계가 없거나 그들은 개념과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상화하고 개념화시키는 능력으로 인해 인간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연결시키는’ 수단은 다른 어떤 종들species의 수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로 만든다. 동물은 자연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 인간은 자연에 지적으로 복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힘을 얻는다.

(5) 끝으로, 아마도 가장 소외된 것은 자본주의하에서의 인간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프롬은 말한다.

현대인과 그의 동료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를 이용하는 두 추상개념, 살아 있는 두 기계들 사이의 관계이다. 고용주는 그가 고용한 사람을 이용하고 판매원은 그의 고객을 이용한다……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사랑, 또는 증오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형식적인 친절함, 그리고 외형적인 공정함만이 있으며, 그 이면에는 거리감과 무관심만이 있다. ……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는 중세와 대부분 자본주의 이전 사회들의 특성이기도 한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인연을 상실하는

21) 앞의 책, p.114.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²²⁾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자유-시장 사회의 발생으로 사라진 인간 사이의 호의, 존경하는 태도와 호의적인 연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고려 등이 존재했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잘못된 것보다 더 나쁘다. 이 주장은 역사적으로 터무니없고 도덕적으로는 수치스럽다.

중세의 인간관계는 상호불신, 적대감, 그리고 잔인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이웃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고, 어떤 것도 인간의 목숨만큼 값싸게 취급당하지 않았다. 그러한 현상은 인간이 폭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어떤 사회에서나 항상 있는 일이다. 노예제도와 농노제도를 종식시키면서 자본주의는 이전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했던 사회적인 자선을 도입했다. 자본주의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은 도덕적 권리에 의해 인간의 것이라는 원리의 정치-경제적 표현이다.

『근원The Fountainhead』이라는 저서 속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구절이 있다.

“문명화는 개인적 자유사회society of privacy를 향한 진보이다. 야만의 모든 존재는 부족의 법에 의해 지배당하는 공적인 존재였다. 문명화는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은 그들의 ‘사회적 인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그들이 누구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그들의 가족, 부족, 세습계급, 계급, 또

22) 앞의 책, p.139.

는 이웃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 그들은 누구를 그들이 존중하고, 누구를 그들의 친구로 하고, 누구와 그들이 거래하고, 어떤 관계를 그들이 가질 것인지를 선택한다. 이것은 독립적인 가치판단을 형성하는 인간의 책임을 의미하고 수반한다. 또한 인간은 그가 원하는 사회적인 관계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반한다. 그러나 이것은 프롬이 아주 싫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랑은 인간존재의 문제에 대한 분별력 있고 만족스러운 유일한 답이다”라고 프롬은 우리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사랑과 자본주의는 적대적인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와 사랑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는 양립할 수 없다.”²³⁾ 자본주의의 원리는 힘, 또는 사기에 의지하지 않는 ‘공평윤리’, 거래, 가치교환의 원리라고 프롬은 말한다. 개인들은 오직 상호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관계를 갖는다. 그들은 이윤, 보상, 또는 이득이 있다고 기대되는 거래에만 참여한다. “공평윤리의 발달은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윤리적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에 접근하는 것은 사랑의 바로 그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개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염려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성격, 또는 개성을 사람들이 만족감을 기대하는 ‘상품’처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나 기준, 또는 판단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본질

적으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전체One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이러한 본질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든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²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매한 존재나 아니면 아주 하잘것없는 존재나, 천재나 아니면 바보나, 영웅이나 아니면 불한당이냐 하는 것들이 차별을 주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랑의 견해로 볼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 그의 객관적인 개인가치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 아주 ‘절실히 갈망하는’ 것의 하나라고 프롬은 주장한다. 반면에 공적merit을 기준으로 사랑받는다든 것, 즉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킨다. 그 이유는 공적은 투쟁을 통해 얻어지며, 그러한 사랑은 공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그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하는 쓰라린 느낌을 쉽게 남긴다…….”²⁶⁾

자신의 비난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평가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에 치명적인 모욕이 되는 것을 그가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프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는 모든 인간은 본래 자존심self-esteem이 아주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획득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업적, 또는 인격에 관계없는 사랑, 즉 선물로 받는 사랑을 갈망한다고 가정한다.

23) *The Art of Loving*, p.131.

24) 앞의 책, p.129.

25) 앞의 책, p.55.

26) 앞의 책, p.42.

‘자기자신이’ 사랑받는다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성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그의 인격과 개인적으로 성취한 가치가 사랑받는다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당신은 내 행복의 본질이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프롬에 의하면 이것은 한 사람에게 ‘쓰라린 느낌’을 남기는 사랑이다.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 그리고 노력하여 얻은 자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자와 같은 개념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사랑의 성장을 망치는 것은 자본주의적 문화라고 프롬은 주장한다. 올바른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사랑의 ‘능력potency’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직 사랑을 주는 사람의 정신적 풍요로움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고 프롬은 우리에게 말한다. 물론 프롬은 어디에서도 이 ‘능력’의 정확한 본질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이다…….”²⁷⁾ 올바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장점, 또는 인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올바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는 장점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도 안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고 오직 자본주의적 이기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현존하는 사회의 틀 속에서 행동하고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²⁸⁾라고 프롬은 묻는다. 프롬은 자본주의하에서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인 랜드는 누구인가? Who Is Ayn Rand?』에서 프롬의 사랑이론에

27) 앞의 책, p.128.

28) 앞의 책, pp.130~31.

대해 평하면서 나는 이렇게 적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이다. 사랑은 당연히 감탄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부터 받은 기쁨에 지불하는 감정적인 가격이 사랑이다.”(『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 사랑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찬사이다.

만일 사랑이 감탄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만일 사랑이 사랑의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속성들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어떤 의미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왜 프롬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오직 한 가지 답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호감이 가는 답이 아니다. 사랑의 가치가 떨어질 때, ‘사랑’은 찬사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든 용서받을 것이고,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인 도덕적 백지수표가 된다.²⁹⁾

사랑에 대한 이 견해는 물론 프롬에게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자-이타주의자 전통의 중심 요소이다. 그리고 그것은 독실한 신자들만큼이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랑의 견해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답은 『지성인들의 파업』에 있는 존 갈트John Galt의 한 문장일 것이다.

“정신의 가치가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도덕성,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주는 창녀를 경멸하도록 당신을 가르치는 도덕성, 바로 이 도덕성이 신청자 전부에게 사랑을

29) Nathaniel Branden, *Who Is Ayn Rand?*, New York: Random House, 1962, pp.38~39, Paperback Library, 1964.

주는 문란한 사랑에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라고 당신에게 요구한다.”

사랑을 가치와 가치판단들로부터 결별시키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얻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망을 올바른 도덕적 목표로 이상화시키는 것이 프롬의 저서 속에 깔린 주제이다.

보살핌을 받기 원하고 독립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은 소외문제에 대한 프롬의 사회-정치적 ‘해답’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인간이 그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정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개인 정체성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프롬은 주장한다.

생산도구로서의 사적 소유제는 철폐되어야 된다. 이윤동기는 금지되어야 한다. 산업은 분산시켜야 한다. 사회는 자치하는 산업 동업 조합으로 나뉘어야 한다. 공장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프롬의 사회철학에 따르면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왜 산업공장에 있는 청소부janitor들은 공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공장을 만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가? 왜 청소부의 인격은 다른 사람만큼의 자기표현을 요구하지 않는가?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은 그 절대적 힘과 법칙이 그들의 이해와 통제 범위를 벗어난 복잡한 산업기계의 불모이며, 그것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고 프롬은 말한다. 길드사회주의와 노동조합주의syndicalism의 혼합의 일종으로 프롬이 제안한 분산된 ‘민주적’ 체제하에서, 산업시설들은 그 기능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누군가의 추상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진 ‘소외하는’ 요구가 없는

단위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 체제하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일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저 생계가 제공될 것이라고 프롬은 설명한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위도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보조는 2년 이상 넘어서는 안된다고 프롬은 제안한다. 누가 이러한 보조를 제공할 것인지,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 프롬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인간이 생존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정신적인 관심들은 필연적으로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프롬은 느낀다. 만일 노동자가 생계를 해결해야 할 필요에 날마다 직면해야 한다면, 어떻게 노동자의 성격이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만일 사업가가 그의 생산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창조적인 잠재력들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만일 예술가가 헐리우드와 매디슨가의 유혹에 전념이 되면, 어떻게 그가 영혼의 고결함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만일 소비자가 대량 생산의 결과 초래된 표준화된 상품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그가 개인의 기호tastes와 선호preferences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정치학과 인식론의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롬이 매우 만족스럽게 기술한 ‘역설적 논리’로부터 프롬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그는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처럼 만일 ‘인간이 오직 모순 속에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프롬은 이성의 지지자가 되겠다는 그의 주장과 동방의 신비주의에 대한 그의 열광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주의의 옹호자가 되겠다는 그의 주장과 정치적 집단주의에

대한 그의 지지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모순의 법칙에 대한 그의 경멸은 그로 하여금 참된 개인주의는 오직 집단화된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고 공포하도록 한다. 그리고 참된 자유는 생산이 사적 개인들의 손에서 나와 집단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일 때 가능하다고 공포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기꺼이 개인적 이익을 포기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할 때에만 다른 사람들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단될 것이라고 공포하도록 한다.³⁰⁾

프롬은 그가 제안한 체제를 ‘인간성 공산사회 사회주의(Humanistic Communitarian Socialism)’라고 부른다. 이 체제하에서 인간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연과의 새로운 조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프롬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동물들의 평온과 자기성취감의 상태를 즐길 것이다.

프롬은 가끔 그의 견해를 나타내는 데 조금 부정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명확하다. 이것이 그를 색다르게 한다. 프롬과 같은 신념을 가진 대부분의 저술가들은 프롬이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사상들과 모순들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감추기 위해 많은 분량에 걸쳐 자신들을 왜곡한다. 아주 드문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오직 실존주의자들과 선불교도들 중에서 이에 상응하는 솔직함을 발견할 것이다. 프롬은 그들의 많은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화적으로 아주 상징적이며 그렇게 인식되어야 한다. 소외에 관한 문헌과 오늘날의 사회논평 속에 일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은 프롬이 표면화시킨 것들이다. 그 주제들은 이성은 ‘비자연적’이다, 객관적이고 모순되지 않은 현

실은 인간의 개성을 ‘제한한다’, 선택의 필요성은 두려운 짐이다, 케이크를 먹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자기책임감은 두려운 것이다, 개인정체성의 달성은 사회적 문제이다, ‘사랑’이 전능한 해답이다, 그리고 이 해법들을 정치에 적용한 것이 사회주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다.

소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나타난 명백한 불합리성이나 난해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완전히 환상이라고 믿도록 유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일 수 있다. 비록 소외에 대한 설명들이 그럴듯할지라도 소외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소외에 대해 글을 쓴 이들이 설명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적 상태를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정체성에 대한 감성이 결여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들이 결코 만들지 않은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왜? 소외의 문제란 무엇인가? 개인정체성은 무엇인가? 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정체성을 성취하는 일을 두려운 짐으로 경험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소외와 개인정체성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 개인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개인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하다.

고통은 생물체의 비상정보이며 위협에 대한 경고이다. 소외감이라는 특정한 고통은 인간에게 그가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 즉 그와 현실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어떤 동물도 “나 자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삶의 태도가

30) 이 신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프롬의 *The Sane Society*를 참조할 것.

나의 본질에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직면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질문들은 오직 이성적 존재에게만 가능하다. 이성적 존재란 (현실을 이해하는) 인식기능의 특징적인 방법이 개념적인 존재, 의식적인 뿐만 아니라 자의식이 강한 존재, 그리고 그의 추상화의 힘이 그에게 선택 가능한 행동의 진로들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를 말한다. 더욱이 그러한 질문들은 인식적 기능이 자발적으로(생각이 자동적이 아닌) 발휘되는 존재, 즉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규제하고, 그 결과 그의 존재가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을 수반하는 존재에게만 가능하다.

살아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특정한 필요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들이 소위 인간이란 종(species)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구성한다. 그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즉 그가 어떻게 현실을 다루고, 사고와 행동에서 그가 어떠한 역할을 선택하느냐가 그의 개인적, 또는 개별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그 자신에 대한 느낌, 즉 (자신의 자존심, 또는 자존심의 결여를 포함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암묵적인 개념, 또는 이미지는 그의 선택들이 축적된 결과이다. 이것이 “인간은 스스로 만든 영혼의 존재이다”라는 아인 랜드(Ayn Rand)의 문장의 의미이다.

인간의 ‘나’, 그의 자아(ego), 그의 가장 깊은 자신(self)은 인간의 자각의 기능이며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며, 현실의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 즉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주장의 형태이다. 그것은 이성적 존재로서 그의 본질에 대한 승인이며, 지적 독립에 대한 책임의 승인이며, 그의 정신의 효

력에 대한 위임이다.

사심 없음(selflessness)의 본질은 인간의 의식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고, 지식의 추구, 판단의 책임과 노력을 피하기로 선택할 때, 그의 행동은 자기포기의 하나이다.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의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 자신이 존재하기에 부적절하고 현실의 사실들을 다루기에 무능하다고 공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만큼 그의 전제들과 가치들은 직접적으로 획득되며, 그것들이 그에게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 행위, 그리고 목표들에 대한 능동적인 원인으로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살기를 시도하는 만큼, 그는 수동적인 자신을 경험하고 그의 인격과 행동들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의한 우연의 산물이며, 그의 순간적 느낌들의 범위와 무작위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한 우연의 산물이다. 어떤 사람이 사고의 책임을 태만히 할 때, 그는 그의 비자발적이고 잠재의식적인 행동들의 자비에 맡겨진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를 침해하는 외부의 힘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의 자비에 맡겨질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태만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사회결정론자들의 견해에 자신을 맡긴다. 그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틀(mold)과 같게 되고, 어떤 환경이나 조정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기를 기다리는 의지 없는 로봇처럼 된다.

개인정체성에 대한 강한 느낌은 독립적인 사고의 방침과 그 결과 통합된 가치관의 소유라는 두 가지의 산물이다. 인간의 감정과 목표들을 결정하고 그의 삶에 방향과 의미를 주는 것은 그의 가치들이므로 인간은 그의 가치들을 자신의 확대로, 그의 정체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자신을 자신되게 만드는 데 중요한 것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가치들’은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합리성을 그의 추상적인 가치처럼 견지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실현할 것처럼 보이는 친구를 선택할 것이다. 만일 그후에 그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고, 그의 친구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관계는 끝나야 된다고 그가 결정하더라도, 이것이 그의 개인정체성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에 만일 그가 합리성에 더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의 개인정체성은 변경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순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개인정체성에 대한 그의 의식을 침해한다. 그것들은 합쳐질 수 없는 조각들로 부서진 자신, 즉 자신이 분열된 것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분열된 정체성의 아픈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모순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회피, 억제, 합리화 등의 수단으로 그의 모순된 지식으로부터 탈출을 공통적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사고의 실패로 창출된 문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그는 생각하는 것을 단념한다. 그의 개인정체성의 의식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는 자아를 단념한다.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단념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 대한 의식을 아래쪽으로 옮겨놓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능동적이고 독창적인 요소인 이성으로부터 수동적이고 반응적 요소인 감정으로 옮긴다. 어디서 왔는지를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들과 자신도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순들에 의해 움직여지면서, 그는 자기소외self-estrangement과 자기소외self-alienation가 진전된다는 느낌으로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의 감정들은 그의 전제들과 가치들, 그리고 그가 해왔던 생각, 또는 실패했던

생각의 산물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간은 감정을 합리적 판단의 대체품이 되도록 시도하며, 감정들을 외부의 힘으로 경험한다. 그의 역설적 입장은 이것이다. 그의 감정은 그의 유일한 개인정체성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그의 경험은 악마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가 된다.

자기소외의 경험, 그리고 현실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은 동일한 원인, 즉 사고의 책임에 대한 직무무태만으로부터 생겼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과의 올바른 인식접촉의 중단과 자아의 단념은 한 가지 행위이다. 현실로부터의 도주는 자신으로부터의 도주이다.

이러한 결과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 인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느낌, 실제로 별종이라는 느낌이다. 인간이라는 지위를 배반하면서 사람은 그 자신을 형이상학적 추방자로 만든다. 이것은 다른 많은 인간들도 똑같이 배반했다는 것을 안다고 변경되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라고 느끼며, 자신의 존재의 비현실성과 고독하고 내적인 정신적 무력감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느낀다.

인간 스스로 개인정체성을 빼앗은 합리성과 독립의 동일한 실패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분별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정체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좀더 정확히 말하면 간접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자기파괴적 정책으로 그들을 이끈다. 이것이 내가 사회적 형이상학이라고 이름붙인 심리적 현상이다.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적 형이상학자를 다룬 논문 「깡패전시실Rogues Gallery」³¹⁾에서 나는 현재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인 ‘전통적인’ 사회적 형이상학자에 대해 논평했다.

31) *The Objectivist Newsletter*, February 1965.

그는 세상과 세상에 유행하는 진부한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는 왜 그런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 진실인가? 남들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남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들이 사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동시에 어디든지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 조건 및 기대들을 만족시키는 그의 능력에 정체성에 대한 감성과 개인적 가치가 명백하게 좌우되는 사람이다…… 분열되는 가치, 지적 혼란, 도덕적 타락과 함께 익숙한 지침들과 규칙들이 사라지고, ‘현실’을 반영하는 권위적 귀감들이 많은 난해한 이문화 집단으로 분열되고, ‘조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 속에서, 전통적 사회형이상학자가 제일 먼저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이다. 그는 그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소리 지르는데, 더이상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거나 결정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신념상실에 냉정한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대할 때 현대인의 고뇌에 대한 오늘날의 통곡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견지에서 볼 때, 이 통곡은 더욱 이해가 된다. 그것은 어떤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지를 더이상 모르고, 그들을 자신에 대한 감성으로 모으는 것은 누군가의 의무이며, ‘체제’는 그들에게 자부심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한탄하는 사회적 형이상학자들의 울부짖음이다.

이것이 중세, 그러한 삶의 방식에 현혹되어 있는 갈망, 그리고 그 시기에 생존의 실질적 조건에 관련된 대규모의 회피에 대한 현대 지식인들의 비법의 심리적 뿌리이다. 중세는 사회적 형이상학자의 고백하지 않은 꿈을 상징한다. 그 꿈이란 그의 독립과 자기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장점으로 선포되고 사회명령이 된 제도이다.

어떤 시대이든 사람이 지적 독립의 책임감을 회피하거나 그의 정체성의 느낌을 ‘소속감’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할 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정신적 과정들을 고의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치명적인 가격을 지불한다.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타인의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을 대체하는 정도는 그의 정신적 과정이 현실로부터 소외되는 정도와 같다. 그는 개념의 수단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한 단서가 되는 단어들, 즉 특정한 문맥들이나 상황과 관련시켜 배운 소리들이지만 사용자를 위한 확실한 인식적 내용이 결여된 단어들 수단으로 하여 움직인다. 이것은 오늘날 생각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인은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지적으로’ 살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비난에 대해 타당성을 주도록 하는 확인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현상이다. 그들은 그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해설을 받아들인다. 진실은 그들이 ‘추상개념’ 사이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상개념의 본질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념 사이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서가 되는 단어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현실을 너무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차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

을 오로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쳐진 대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차단된다. 그들은 현실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온 슬로건들이나 구절들을 소리치르면서 말장난의 비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이러한 빈말들이 개념이라고 잘못된 상상을 하고, 그들의 개념적 기능의 올바른 사용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며, 무엇이 직접적이고 개념적인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지 결코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들은 현실로부터의 그들의 소외에 대한 해답은 모든 생각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다리를 꼬고 한 시간 동안 앉아서 나뭇잎의 결의 형태를 응시하는 데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선불교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이 신경적으로 불안할 때,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으로 고통받을 때,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외부의 어떤 대상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곤경을 더욱 견딜 만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심리학적 사실이다. 그들의 공포는 세균의 위협, 또는 강도가 나타날 가능성, 또는 번개의 위협, 또는 화성인의 뇌를 조정하는 방사선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것을 확신하려고 그들은 노력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외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결정하는 과정도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그들의 구체화와 합리화의 표적이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소외된 사람은 의지적인, 즉 자발적인 의식의 책임감으로부터 달아난다.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자유, 이성의 과정을 시작하느냐 피하느냐의 자유는 그가 탈출하기를 갈망하는 부담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출

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가 감정과 맹목을 지지하고 이성과 판단을 포기할 때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 문제에 직면하는 또다른 수준인 실존적, 또는 사회적 수준이 있으며, 여기에 탈출이 가능하다. 정치적 자유는 형이상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취되는 것이며, 따라서 거부될 수 있다. 사람의 존재 속에 있는 자유에 대한 반항의 심리학적 근원은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자유에 대한 반항이다. 행동 속에 있는 자기책임감에 대한 반항의 근원은 자발적 사고에 대한 반항이다.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동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중세 찬미자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의 유사성을 논한 『아인 랜드는 누구인가?』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중세 찬미자와 사회주의자들의 글 속에서, 인간의 생존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즉 인간이 그의 생존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위한 명백한 열망을 관찰할 수 있다. 두 캠프(중세 찬미자와 사회주의자:역주)는 그들의 이상사회는 급속한 변화, 도전, 또는 경쟁에 대한 가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와 그들이 말하는 ‘소화’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예측한다. 그 사회에서는 각자가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에게 미리 정해진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회에서는 사람이 획득했느냐 아니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그 사회에서는 보상이 업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자선은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결과로

때말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존재에 대한 목가적 견해 pastoral view of existence라고 불릴 수 있는 그것에 자본주의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 자유사회에 대한 중세 찬미자와 사회주의자들의 고발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에텐동산이 아니다.³²⁾

물론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자유와 국가통제주의의 혼합인 혼합경제에 대한 선호로 인해 많이 퇴색되어 왔고, 국가통제주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노동자의 ‘소외’에 대한 글을 쓴 때보다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사회’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집단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인간소외에 대한 우려의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도 그러한 비판의 소리가 허락되면서, 어떤 논평가들은 노동자의 소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해답이 실패했으며, 공산주의하에서도 인간은 아직 소외되고 있으며, 자연 및 동료들과의 ‘새로운 조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다.

에릭 프롬과 같은 논평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세의 농노나 길드조합원들에게도 없었다.

인간은 그의 본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인간이 그의 본성의 요구에 불리한 사회체제, 즉 그들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역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회체제를 만든다면, 그 결과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재난이다.

물론 자유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정신적 안녕을 자동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자유는 인간의 올바른 성취를 보장해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즉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그 조건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제도이다.

소외의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죄와 같이 인간이 결코 탈출할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은 아니다. 그것은 질병이다. 그것은 자본주의나 산업주의, 또는 ‘거대함bigness’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산권의 폐지에 의해 법률로 없앨 수도 없다. 소외의 문제는 정신분석-인식론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의식을 사용하는가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사고에 대한 인간반항의 산물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간의 반항을 의미한다.

만일 인간이 지식추구, 가치선택, 그리고 목표설정의 책임을 태만히 한다면, 만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자신이 항복하는 영역이라면, 어떻게 그가 우주가 자신에게 달여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니?”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인간의 광란과 하나님의 불화를 마주할까? 나는 내가 결코 만들지 않은 세상의 이방인이며 세상이 두렵다.”

32) Branden, *Who Is Ayn Rand?*, pp.15~16.

인간을 위한 애가*

아인 랜드

자본주의를 옹호함에 있어서, 나는 오랫동안 자본주의는 이타주의 및 신비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왔고 강조해왔다. 문제가 ‘양자택일either-or’이라는 것을 의심한 사람들은 이제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 최고의 권위자인 교황 바오로 6세Pope Paul VI로부터 그것을 듣고 있다.

로마교황이 전세계 모든 성직자들에게 보내는 회칙encyclical인 「인류의 발전에 대하여Populorum Progressio」는 유별난 문서이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침묵의 압력을 받으며 오랫동안 억제된 감정이 조심스럽게 재어보고 신중하게 계산된 문장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어 갑자기 터지듯이 씩어 있다. 문장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감정은 일관성이 있다.

그 회칙은 자본주의를 향한 정열적인 증오의 선언서manifesto이다. 그러나 그 회칙의 악은 더욱더 깊고, 그 표적은 단순한 정치 이상이 다. 그것은 신비적-이타주의자mystic-altruist의 ‘삶에 대한 감성sense of life’의 말로 씩어졌다. 삶에 대한 감성은 형이상학과 동등한 잠재의식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및 존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 이전에 감정적으로 통합된 평가이다. 신비적 이타주의자의 삶에 대한 감성에 있어서 단어들은 단지 비슷하기만 한 것이다. 따라서 회칙의 회피하는 논조와 같다. 그러나 회피되고 있는 것의 본질이 회칙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에 관해서 회칙의 입장은 뚜렷하고 명백하다. 산업혁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회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사회조건들 위에 이윤을 경제적 진보의 중요한

* The Objectivist, 1967년 7~9월호.

동기로, 경쟁을 경제학의 최고 법칙으로,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를 제한도 없고 그에 부응하는 사회적 의무도 지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생각하는 체제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자본주의 형태가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과도한 고통, 불의 및 동족간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본주의 형태를 취한 비참한 체제에 속한 사악한 것들을 산업화 그 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일 수 있다.(문단 26)

바티칸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삼류 타블로이드판 신문이 붙어 있는 도시의 방이 아니다. 바티칸은 수백 년에 걸친 신학적 견해 및 학문과 시간을 초월하는 철학적 심의를 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무지는 위에 인용한 문단 26의 설명이라 할 수 없다. 좌익들조차도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출현은 ‘불행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자본주의가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이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과도한 고통, 불의 및 동족간의 갈등’인가? 회칙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악에 대해서 과거, 혹은 현재의 어떤 사회체제가 더 나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중세의 봉건주의가 가지고 있는가? 절대군주제가 가지고 있는가? 사회주의나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가? 아무런 답이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도한 고통, 불의 및 동족간의 갈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의 어떤 면이 나치독일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공포와 대량 학살과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는가? 아무런 답이 없다. 만일 자본주의와 인간의 진보, 복지, 그리고 생활수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면, 왜 자본주의적 경제자유의 요소가 가장 많이 있는 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진보, 복지,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가? 아무런 답이 없다.

교황의 회칙이 역사와 근본적인 정치원리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이외에는 어떤 사회체제도 논의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모든 체제들은 회칙의 정치철학과 양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어떤 덜 중요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로 인해 비난받고 있으며, 그 본질은 다른 모든 체제의 기초가 아니라는 사실로 뒷받침된다(그 본질은 이윤동기, 경쟁,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이다).

회칙은 어떤 도덕적 기준에 의해 사회체제를 판단하는가? 자본주의를 향한 회칙의 가장 구체적인 비난은 다음과 같다.

생필품을 위한 욕망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은 의무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일하지 않는다면 먹지도 맡게 하라.’ 그러나 속세의 재화를 얻는 것은 탐욕과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초래할 수 있고, 증대되는 힘이 유혹하는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개인, 가족, 그리고 국가들은 탐욕에 압도당할 수 있으며, 그들은 가난하거나 부자가 될 수도 있으며, 모두가 질식할 것 같은 물질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문단 18)

먼 옛날, 그리고 산업사회 이전부터 ‘탐욕’은 부의 근원, 또는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착화된 문맹자들이 부자들을 향해 퍼붓는 비난이 되어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한 위의 글은 문맹자에 의해 씌어진 것이 아니다.

‘탐욕greed’, 또는 ‘욕심avarice’과 같은 용어들은 똥똥한 사람과 야원 사람, 분별 없이 폭음과 폭식에 탐닉하는 사람과 금이 축적된 큰 상

자를 놓고 굶주리는 사람 등 풍자적 이미지를 가진 두 사람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둘은 모두 부를 위해 부를 획득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동력인가?

만일 미국의 모든 부자가 개인소비를 위해 지출한 모든 부를 몰수하여 미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분배한다면, 그것은 1인당 1달러 이하가 될 것이다(만일 전세계 인구에 분배한다면 얼마나 될지 그 액수를 계산해 보라). (소비를 제외한) 미국인의 나머지 부는 생산에 투자되고,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이 투자이다. 이것은 교황 바오로 6세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경제학의 기초이다.

인식론상의 조작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인용된 문단을 다시 읽어 보라.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라는 눈속임에 의해 인용된 이미지를 되돌아보라. 비난받고 있는 악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것을 당신은 관찰하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욕망인가? ‘증대된 힘’에 대한 욕망이다. 어떤 종류의 힘인가? 그 문단 속에는 직접적인 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회칙 전체에서는 심각한 생략이라는 수단으로 그 답을 제공한다.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생산과 폭력)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없다. 이 둘은 어떤 구절에서는 교환하여 사용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명백하게 동일시되고 있다. 만일 당신이 현실의 사실들을 살펴보면, 당신은 자본주의 하에서 부자들이 추구하는 ‘증대된 힘’은 독립적인 생산력, 그들의 생산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만족할 줄 모르는’ 야망의 힘이며 바로 이것들을 교황의 회칙이 비난한다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일이 아니라 야심 있는 일이 비난받고 있는 악이다.

이러한 암시는 사회생존의 ‘덜 인간적’ 조건들에 관한 회칙의 견

해를 나열한 다음 문단 속에서 지지되고 있고 점잖게 강조되고 있다.

10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필수품의 부족, 이기심에 의해 절단된 사람들의 도덕결핍…… 소유의 남용 때문이든 힘의 남용 때문이든 압제적인 사회구조…… 그리고 ‘불행으로부터 필수품들의 소유로 가는 길’인 ‘더 인간적’인 조건들……(문단 21)

어떤 ‘필수품들’이 ‘삶을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삶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생존인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의 생존인가? 아무런 답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회칙의 원칙은 분명하다. 겨우 최저 생계비를 넘지 않는 사람들만이 물질적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그들의 생존권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성경은 첫쪽에서부터,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현명한 노력에 의해 그것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노동수단에 의해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 즉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만일 세상이 모든 개인에게 생계수단들과 그의 성장과 진보를 위한 도구들을 공급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모든 개인은 무엇이 그 자신을 위해 필요한지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공의회Council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것이 모든 인류와 인간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정의와 자선을 따르듯

이, 창조된 재화들은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인간을 위해 풍부해야 한다.” 재산권과 자유교역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들도 이 원칙에 종속되어야 한다.(문단 22)

어떤 요소가 세계에 대한 이 견해에서 빠져 있는지, 어떤 인간의 능력이 비본질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지 주목해보라.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논의하려 한다. 지금은 나는 단순히 위의 문단에 있는 ‘인간’이란 단어의 사용에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어떤 인간?) 그리고 ‘창조된 재화’라는 용어에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창조된? 누구에 의해? 확실하지 않다.

이 누락된 요소는 회칙의 다음 문단에서 노골화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교회의 신부들이 사용한 단어들이 얼마나 강했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성 앰브로스 St. Ambrose의 말을 인용해보자.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유물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에게 원래 그의 것을 양도하는 것이다.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횡령해왔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오직 부자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은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수품이 부족할 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보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문단 23)

성 앰브로스는 재산에 관한 그러한 견해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도 생각으로는 납득될 수 있는 4세기에 살았다. 19세기 이후로 그러한 견해들은 납득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었다.

회칙은 오늘날의 세계문제에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개인의 주도만으로, 그리고 단순한 자유경쟁으로는 성공적인 발전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고통 속에 남겨두고 피압자의 노역을 더하는 반면에 부자의 부를 더욱 증가시키고 강한 자들의 지배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인간은 틀림없이 피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들의 활동과 이를 중개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조정하고, 보충하고 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추구되어야 할 목표들, 성취되어야 할 목적들, 그리고 그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들을 선택하고 심지어 규정하는 것은 공공당국과 관계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자극하는 것은 공공당국의 일이다.(문단 33)

추구되어야 할 목표들, 성취되어야 할 목적들,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을 정부가(‘공공당국’) 선택하고 정하는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바로 다음의 문장을 읽는 것은 도덕적으로 충격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주도와 중개단체들을 이 일과 관련시키는 것은 그들이 하도록 하라. 따라서 그들은 자유를 부인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완전한 집단주의화, 또는 독단적인 계획의 위험을

피하게 될 것이다.(문단 33)

무엇이 ‘모든 다른 권리들이…… 이 원칙(최저 생계의 ‘권리’)에 종속되는’ 국가에서의 (회칙 속에서는 전혀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가?(문단 22)

무엇이 정부가 목표를 규정하고 수단을 징발하는 국가에서의 ‘자유’, 또는 ‘개인주도’인가? 무엇이 불완전한 집단주의화인가?

이 문단의 청취대상이 되는 현대의 타협자들이 그들의 회피능력을 혼합경제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혼합경제는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주의의 혼합이다. 자본주의의 원칙들과 경험들이 근본부터 비난받고 무효가 될 때, 무엇으로 국가통제주의자의 집단화가 완전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회칙이 어떤 사람의 회피능력을 무한히 탄력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도덕적 충격이다. 그 반응으로 판단해볼 때 회칙은 잘못된 계산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모든 정치이론은 어떤 윤리규칙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비록 도덕률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견해와 반대입장에 있지만, 회칙은 다시 한 번 나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다.

개인에게 근거하고 있는 연대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가 국가에도 역시 존재한다. “선진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을 도와야 하는 아주 무거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공의회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어떤 국가가 신이 그 국가에 수여한 선물을 자기백성의 노동의 결실로서 먼저 이익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국가도

자국의 부를 자국만을 위해 보존하겠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문단 48)

이것만으로도 명백해보인다. 그러나 회칙은 오해가 없도록 더 수고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의 규칙은 그것만 놓고 보면 더이상 국제관계를 지배할 수 없다…… 상품교환법칙처럼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문단 58)

부자국가들의 여분의 부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데 쓰여져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들의 혜택을 위해서만 적용되어왔던 이 법칙은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문단 49)

만일 필요, 즉 세계적 필요가 도덕의 기준이라면, 만일 최저 생계가(최저 개발국 야만인의 생활수준이) 재산권의 기준이라면, 모든 새 셔츠나 옷, 모든 아이스크림, 모든 자동차, 냉장고, 또는 텔레비전은 ‘여분의 부’가 된다.

‘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과 미국의 소작인들share-croppers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도 회칙은 “저개발국가들은 단지 식품, 섬유, 그리고 다른 원료들을 파는 데 반해 고도산업 국가들은 대부분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는 근거로 불균형적으로 개발된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을 ‘불공정’한 듯이 비난하고 있다.(문단 57) 이것이 저개발국가들의 빈곤을 영속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회칙은 국제무역은 자유시장법칙

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참여국들의 필요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는 아주 명백하다.

■ 이것은 부자들의 큰 호의, 많은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각자가 우리시대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양심을 살펴보자…… 공공당국이 그들의 노력을 개발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개인은 높은 세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산자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은 수입상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문단 47)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부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세금부담의 많은 부분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떠맡고 있다. 외국상품과 원자재의 수입은 부자의 개인적 소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식량가격은 부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리고 식량이 저개발국가들의 중요한 상품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 회칙의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상해보자. 그것은 미국의 가정주부들이 맨손, 또는 손쟁기로 흙을 파내는 사람들에게 의해 생산되는 식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만일 미국의 기계화된 농부들에게 지불하면 백 배, 또는 천 배나 많은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값을 손쟁기로 흙을 파내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들이 ‘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녀의 가족예산 중 어떤 품목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녀는 의복구매에서 약간 희생해야 하는가? 그러나 의복예산은 같은 방식과 비율로 줄어들어 버렸다. 그녀는 ‘섬유와 다른 원

료들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그녀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국농부들과 원료생산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생산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 경쟁하도록 강요되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발전’을 억제해야 하고 손쟁기의 방법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면 전세계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까?

교황 바오로 6세가 경제학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이론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아주 부족하여 그러한 제안이 가지고 올 말로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깨닫지 않고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런 제안을 했을 리는 없다.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기본전제가 있다. 그것은 회칙의 충돌요소들, 즉 모순, 애매함, 생략, 대답 안된 질문들을 일관성 있는 형태로 통합할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회칙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그 특별한 견해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완전히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의식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감성에 의해 지시되는 감정의 문제이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철학은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들로 눈에 띄게 구성되어 있다.

그 견해를 밝히기 위하여 삶에 대한 감성이라는 용어 속에 있는 그것의 근원들과 그것을 생기게 한 일종의 현상을 살펴보자.

어린아이가 그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이해했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수줍음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주장하는 기쁨, 해방, 거의 승리감에 도취한 빛

나는 모습이며, 그리고 그 빛은 두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듯이 보인다. 밖으로는 세상의 조명처럼, 안으로는 노력하여 얻은 자부심의 불이 되게 하는 첫 불꽃처럼 퍼져나간다. 만일 당신이 이 모습을 보거나 그것을 경험했다면, 만일 당신이 인간에게 가능한 지고지선의 의미인 ‘신성함’과 같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이나 누구에게도 신성하고, 배반당하지 않고, 희생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어린이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연재만화가들은 갑자기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해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 머리 위에 반짝이는 전구를 그려놓는 버릇이 있다. 단순하고 원시적인 술어이지만 이것은 적절한 상징이다. 하나의 사상은 인간의 영혼 속에 켜져 있는 빛이다.

당신이 성인들의 얼굴에서, 특히 당신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맡기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확신에 찬 그 빛의 반사이다. 당신은 그 빛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수술하는 외과의사의 눈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당신은 그 빛을 당신이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눈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일관성이 있다면 당신은 그 빛을 당신이 결혼한 남자나 여자의 눈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 그 전구의 모습은 행동하는 인간지성의 반짝임이다. 그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재능이 걸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인간정신의 신호이고 상징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추구하고, 즐기고, 존중하고, 또는 사랑하는 모든 것 속에 당신의 인간에만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나 성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모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감탄이 아니라 가정하자. 당신의 반응은 이름 없는 두려움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당신은 그 두려움이 결코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데 당신의 삶과 당신의 철학적 능력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감추기 위한 합리화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기적인’, 또는 ‘거만한’, 또는 ‘양보하지 않는’, 또는 ‘자만하는’ 모습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겠지만 당신이 제시하려고 애쓸 방법은 아니다. 당신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당신의 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정복하기 위한 욕망이 이성, 논리, 일관성, 존재, 현실에 우선하는 아주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영혼을 부수겠다는 욕망이다.

그 결과 당신은 「인류의 발전에 대하여」라는 회칙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삶에 대한 감성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의 삶에 대한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회칙에서 삶에 대한 감성을 지배하는 감정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증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증오, 따라서 삶과 지구를 향한 증오, 따라서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이 주는 기쁨에 대한 증오, 그리고 마지막이고 가장 작은 결과로서 이 모든 가치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유일한 사회체제인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이다.

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강제노동을 일생 동안 하는 미국인을 비난하는 제안을 생각해 보자. 야만인들이 미국인들의 노력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동안, 미국인들은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또는 더욱 열심히 일한다. 이러

한 제안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가? 내게 보이는 것은 자신감 있는 열정으로 삶을 시작한 젊은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젊은이, 기쁨과 불평 없는 헌신으로 그들의 눈을 미래에 고정시킨 젊은이, 그리고 새 코트, 새 양탄자, 중고차, 또는 영화관람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연료라고 여기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인류노동의 결실’을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자신의 생산품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미지를 회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제외한 모든 동기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이 하나에만 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싫다. 회칙은 삶에 대한 감성보다 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의식적이고, 철학적인 확증을 가지고 있다.

회칙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더욱 괴롭히는 것, 즉 인간의 정신을 노예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회칙의 사회이론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존 갈트 John Galt의 문장 속에 있다.

“나는 당신이 무시할 수 있도록 공백으로 남겨둔 그 존재이다. 나는 당신이 살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당신은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이 버린 책임감을 내가 졌다는 것과 당신의 삶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다.”(『지성인들의 파업 Atlas Shrugged』)

회칙은 인간지성의 존재를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 회칙은 단

순히 인간지성을 고려해볼 필요도 없고 대수롭지도 않은 인간속성으로 다룬다. 인간존재에 있어서 지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하고도 실질적으로 유일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산업을 도입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인간의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또한 발전의 신호이며 발전에 기여했다. 지속적인 일과 지성의 사용에 의해, 인간은 점진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비밀을 손에 넣었고 자연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더 좋은 응용방법을 찾고 있다. 인간의 자재력이 증가하면서, 인간은 연구와 발전, 계산된 위험을 받아들이는 능력, 기업경영의 배짱, 그가 하는 것에서 관대함과 책임감을 맞보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문단 25)

(인간생존의 기본적 수단들이며,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기능인) 인간정신의 창조적인 힘은 올리브나 여성패션의 것처럼 획득된 ‘맛’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에 주시하라. 심지어 이러한 작은 인정조차도 독자적인 인정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시하라. ‘연구와 발견’이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그것들은 ‘관대함’과 같은 부적절한 것 속에 빠뜨려졌다.

똑같은 양상이 일이라는 주제의 논의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회칙은 “이것(일)은 때때로 그 중요성이 과장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회칙은 일은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는 “일이 공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희망과 고난, 야망과 기쁨이 공유될 때…… 인간은 자신들이 형제가 되었음을 발견한다”라고 회칙은 덧붙인다.(문단 27) 그리고는 “물론 일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은 돈, 쾌락과 권력을 약속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심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반항적인 태도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문단 28)

이것은 (생산적 일에 의해 얻어진) 쾌락은 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적인 일에 의해 얻어진 경제력인) 힘은 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칙 전체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돈은, 돈을 번 사람들의 손에 보관되어 있으면 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존 갈트가 ‘희망, 고난, 야망과 기쁨’을 제임스 타가트James Taggart, 웨슬리 무치Wesley Mouch, 그리고 플로이드 페리스 박사Dr. Floyd Ferris와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나 이들은 오직 가상인물이라고 당신은 말하는가? 좋다. 당신은 파스퇴르Pasteur를 보았는가? 당신은 콜럼버스Columbus를 보았는가? 당신은 갈릴레오Galileo를 보았는가? 그리고 그가 그의 ‘희망, 고난, 야망과 기쁨’을 가톨릭교회와 공유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니오. 회칙은 천재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회칙은 세계적인 나눔을 위해 그렇게 어렵게 간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교체될 수 있다면, 만일 능력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양을 생산할 것이고 누구도 나눔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회칙은 이롭고 없고, 인식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은 부의 근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기능을 하리라고 가정하고, 그러한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존조건들을 계속 만들어간다.

지성은 천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모든 사람의 속성이고 단지 정도의 문제이다. 만일 생존조건들이 천재에게 유해하다면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성에 비례해서 그들에게도

유해한 것이다. 만일 천재가 궁지에 몰리면 다른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지성의 기능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이런 차이만이 있다. 평범한 사람은 천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있는 저항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더 빨리 무너진다. 그는 압력이 처음 들어오면 희망을 잃고 당황하면서 그의 정신을 포기할 것이다.

회칙이 제안하는 세상에는 지성인을 위한 자리와 인간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들은 선택, 판단, 가치들, 확신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빼앗긴 로봇들이고, 거대한 부족기계가 미리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조정되는 지각력 없는 로봇들이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유물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에게 원래 그의 것을 양도하는 것이다.(문단 23)

토머스 에디슨Thomas A. Edison에 의해 창출된 부가 그것을 창출하지 않은 총림지대 주민bushmen의 소유인가? 이번주 당신의 급료가 그것을 벌지 않은 이웃히피hippies의 소유인가? 인간은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로봇은 받아들일 것이다. 인간은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미래의 로봇에게서 태워버려야 할 것은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다.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횡령해왔다.(문단 23)

하나님은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것이 모든 인류와 인간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문단 22)

당신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당신은 ‘모든 인류와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는가? 회칙의 답은 분명히 “그렇다”이다. 회칙이 제안하는 세상은 모든 중요한 면에서 이 전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존 갈트와 같은 사람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산업시대를 결코 발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비참한 형태의 인간생계가 노예의 육체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던 야만인 시대의 도덕성에 집착한다. 모든 신비주의자는 그가 두려워하는 물질적 현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노예들을 갈망해왔다. 그러나 이상한 작은 격세유전에 의한 형질을 가진 개체 *atavists*인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고층빌딩들과 굴뚝들을 맹목적으로 응시하면서 과학자, 발명가, 실업가와 같이 물질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당신이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시끄럽게 요구할 때 당신은 지성인들의 공유제를 시끄럽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지성인들의 파업』)

그러나 로봇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로봇은 부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인간정신이 부의 근원이라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문단 22) 그리고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문단 23)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이것들은 자연자원을 선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 얼버무리는 것equivocation임을 인간은 이해할 것이다. 그는 아무 것도 그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 원료를 인간의 재화로 변형하는 데는 사고과정과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정의 속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사고와 노동에 의해 창조된 상품에 대해 우선권을 정당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봇은 저항하지 않는다. 로봇은 그 자신과 원료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로봇은 자기동작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일이 거대한 장점(사고, 에너지, 목적, 헌신의 혼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항할 것이다. 그리고 물질생산에 대한 경멸은 회칙의 모든 구석에서 언급되고 있다. “덜 풍요로운 사람들은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그들에게 오는 이러한 유혹에 대응하여 결코 충분히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유혹은 ‘물질적 변영의 정복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행위의 한 방법’이다.(문단 41) ‘세계의 결속’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문명들간의 ‘대화’를 지지하면서, “상품이나 기술적 기교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 기초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회칙은 강조한다.(문단 73) 이것은 기술적 기교는 무시할 수 있는 특성이며, 그것들을 얻는 데는 아무런 장점도 필요없으며, 상품을 생산하는 능력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인간’개념의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회칙 전체가 산업의 부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간청하면서도 그것들의 근원에 대해서는 경멸적으로 무관심하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원인을 무시한다. 그것은 고상한 도덕수준은 주장하지만 물질생산의 과정은 마치 어떤 도덕원리가 필요도 없고 관계도 없는 낮은 질서의 활동인 것처럼 여기면서 도덕의 영역밖에 내버려둔다.

『지성인들의 파업』에서 인용해보자.

“실업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없다. 공장은 나무, 돌, 또는 진흙덩이와 같은 ‘자연자원’이다…… 누가 생산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재화들은 여기에 있다. 어떻게 그것들이 여기에 왔는가? 어떻게 든지 해서. 무엇이 그것을 일으켰나?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은 적용할 수 없다. 회칙의 답은 ‘신Providence’이었을 것이다)

생산과정은 인간의 정신에 의해 지배된다. 인간의 정신은 불확실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조건들 중 중요한 하나는 자유이다. 회칙은 마치 인간의 생각이 아무 곳에서나, 어떤 조건들하에서나, 어떤 압박하에서도 계속해서 용솨음쳐오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나, 마치 그 쏟아져나오는 것을 중단시킬 작정인 것처럼 정신의 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기묘하고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다.

만일 인간의 빈곤과 고통에 대한 관심이 어떤 사람의 주된 동기였다면, 그 사람은 그것들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추구할 것이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어떤 국가들은 발전했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는가? 왜 어떤 국가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성취해왔고, 다른 나라들은 인간 이하의 고통 속에 정체된 채로 남아 있는가? 역사, 특히 19세기의 전례없이 폭발적인 번영은 즉각적인 답을 줄 것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풍부한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 유일한 체제이고 자본주의의 열쇠는 개인의 자유이다.

정치적 체제가 인간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거나 방해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회칙은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는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회칙이 가장 단호하게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회칙은 그러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명화된 국가들이 비문명화된 국가를 돕고 발전시키는 부담을 떠맡는 미래세계를 예측하면서, 회칙은 “그리고 수혜국가들은 그들의 정치적 삶에 간섭하거나 그들의 사회구조를 파괴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권국가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그들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사회를 향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문단 54)

그들이 선택한 사회가 생산, 발전, 그리고 진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회가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라면 어떻게 될까? 또는 나치독일처럼 소수 민족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또는 인도처럼 종교적 카스트제도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 또는 아랍국가들처럼 유목과 반수산업의 생존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 회칙의 무언의 답은 그것들은 주권국가의 특권이며, 우리는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세계의 문명국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무언의 답이 아니다.

“저개발국가들의 증대되는 필요하에서, 선진국들이 그들 생산의 일부를 저개발국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선생님들,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그리고 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문단 48)

회칙은 그러한 사자들(emissaries)에게 엄격하고 분명한 지침을 준다.

그들은 오만한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동료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하는지 애정 없이 하는지를 그들은 빨리 눈치챈다…… 만일 그들의 메시지가 형제애를 배경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위협에 처한다.(문단 71)

그들은 ‘모든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모든 분야에서 그들에게 우월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의 것이 ‘유일한 문명이 아니고, 가치 있는 요소들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역사와 함께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문화적 부의 구성요소를 발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부유하게 할 상호이해가 세워질 것이다.(문단 72)

어린이들은 굶어죽도록 내버려두면서도 신성시하는 소는 먹이는 국가, 여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길거리에 버려지는 국가, 사람들이 장님이 되어도 종교에 의해 의료의 도움이 금지되는 국가, 정절을 지키게 하려고 여성을 불구로 만드는 국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들이 죄수들에게 의식으로 가해지는 국가, 식인풍습이 실시되고 있는 국가로 모험을 걸고 가는 문명인들에게 이것을 말했다. 이러한 것들이 서구인이 ‘형제애’를 가지고 환영해야 하는 ‘문화적 부유함’인가? 이것들이 그가 경외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 있는 요소들’인가? 이 ‘분야들’보다 그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는가? 그리고 전체인구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썩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의 국가와 문화의 위업들, 그들을 창조했고 그에게 전수할 수 있는 훌륭한 유산을 남겨준 사람들의 업적을 그가 타오르는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가?

회칙의 암묵적인 답은 “인정하지 마라”이다. 그는 판단을 해도 안 되고, 의문을 가져도 안 되고, 비판을 해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사랑해야 한다. 그 자신의 가치, 기준, 또는 확신들을 침해하면서 이유 없이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실제로 서구인이 저개발국가에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일한 지원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관해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이 자본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주민들의 ‘문화적 전통’과 충돌할 것이다. 산업화는 미신적인 비합리성 위에 접목될 수 없다. 선택은 양자택일이다. 더욱이 서구사회 자체가 잃어버린 것은 지식이다. 그리고 회칙이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 구체적인 요소이다).

1 회칙은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까다롭지 않은 상대주의relativism를 요구하고 어떤 가치들이건 원시적 문화에 대한 권리를 존경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요하면서도, 서구문명에까지는 그러한 관용을 연장시키지 않는다. ‘최근에 산업화에 문을 연’ 나라들과 거래를 하는 서구 사업가에 대해 말하면서, 회칙은 “그러면 그들이 저개발국가에서 운영할 때 왜 그들은 개인주의라는 비인간적인 원칙으로 되돌아가는가?”라고 적고 있다.(문단 70)

회칙은 그러한 저개발국가에 있는 부족생존의 공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라. 오로지 인류를 원시의 늪으로부터 일으켜세운 원칙인 개인주의는 ‘비인간적인’ 것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 구절(문단 70)에 비추어볼 때, 회칙은 ‘개인의 직업과 권리에 대해 깊은 존경을 보여주는 보다 나은 세계의 건설’을 지지하면서, 회

칙이 개념적 고결함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문단 65) 개인주의를 ‘비인간적’이라고 간주하는 세계에서 무엇이 개인의 권리들인가? 답이 없다.

서구국가들에 관계된 것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또다른 비평이 있다. 회칙은 “어떤 나라에서는 ‘병역의무’가 ‘순수하고 단순한 서비스’인 ‘사회봉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기쁘다”라고 적고 있다.(문단 74)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개념 및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국가를 위해 몇 년간의 순수하고 단순한 노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은 흥미가 있다. 그것은 징병보다 더 악한 개념으로 미국의 모든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유례가 없는 사악한 개념이다.

미국을 만들어낸 철학이 회칙의 목표물이고, 회칙이 말살하고자 하는 적이다. 라틴아메리카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참고문은 열심히 달려드는 타협자들을 위한 눈속임과 위장폭탄이다. 그 참고문은 “만일 어떤 토지가 광범위하고, 사용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번영을 방해한다면…… 공동선은 때로는 그것들의 물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문단 24)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죄들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자본주의는 그 죄들 중의 하나는 아니다. 개인권리의 보호와 인정에 기초하고 있는 체제인 자본주의는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한 적이 없다.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는 원시적 형태의 파시즘에 의해 지배되었고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쿠데타와 군국주의적 깡패들, 다시 말하면 폭력에 의한 비조직적인 지배이다. 실권을 쥐고 있는 어떤 깡패집단에 의해 몰수되는 것이 용납되는 명목적이고 가식적인 사

유재산을 허용한다(이것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정체의 원인이다).

2 회칙은 세계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저개발국가의 명단에 높이 올라가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자기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가 전세계의 필요를 공급하는 세계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개인주의 원칙 위에 창조되었고, 역사상 가장 자유스러운 자본주의의 예이며, 인간권리를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옹호하는 국가인 미국만이 그러한 역할을 시도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자살하도록 유혹을 받을 것이다.

회칙은 인간이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것이 생각하는 ‘단위’는 부족, 즉 국가, 지역, 국민이다. 그리고 회칙은 부족들이 시민을 처분할 수 있는 전체주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인과 같은 실체들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부족들을 논의한다. 이것이 회칙의 전략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은 개인주의를 향한 수천 년 서구문명의 투쟁에서 얻은 가장 높은 성취이며, 그 투쟁의 불안한 최후 유물이다. 미국이 말살되면, 즉 자본주의가 말살되면 집단화된 부족 외에는 지구상에 대처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회칙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다루고 그 부족들간의 관계에 대해 적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설교를 해온 자기희생의 도덕적인 이타주의가 지금은 문명화된 국가들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인간의 성공에 벌을 주기 위해, 인간의 자신감을 도려내기 위해, 인간의 독립성을 무능하게 하기 위해, 인간이 삶을 즐기는 것에 해독을 끼치기 위해, 인간의 자존심을 거세하기 위해,

인간의 자부심 성장을 방해하고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원시적인 무기인 자기희생의 신조creed는 이제 동일한 파괴를 문명국가들과 그러한 문명에 가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존 갈트의 말을 인용해보자.

“당신이 더이상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동의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배신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당신은 그것은 ‘단지 타협’이라고 믿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당신의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라고 당신은 인정했다. 그리고는 당신의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는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당신의 조국을 위해 사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라고 당신은 인정했다. 지금 당신의 조국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세계를 위해 사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당신이 인정하면서, 당신은 지구의 구석구석에 있는 깡패들이 이 위대한 국가들을 삼키는 것을 내버려두고 있다. 삶의 권리가 없는 인간은 가치들에 대한 권리도 없으며 그것들을 지킬 수도 없다.”(『지성인들의 파업』)

권리들은 인간으로서, 즉 이성적 존재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생존의 조건들이다. 그것들은 이타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은 그의 의식이다. 그의 의식의 동력은 이성이다. 자유, 즉 그의 정신을 사용할 권리를 그에게서 박탈하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오직 부족이라는 끈에 의해서 조작될 준비가 되어 있는 육체뿐이다.

회칙만큼 육체 지향적인 문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 당신 자신에

게 물어보라. 회칙이 세우기를 제안하는 세계의 거주자들은 하나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맞추어진 로봇들이다. 그 자극이란 가장 낮고, 가장 추잡하고, 물질적이고, 곳곳에 있는 다른 로봇들의 물질적 필요이다. 또한 모든 로봇들이 일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출산하는데 겨우 필요한 최저 필수품들이며, 일하고, 먹고, 자고, 배출하고, 출산을 하는 더 많은 로봇을 생산하는 데 겨우 필요한 최저 필수품들이다. 가장 비인간적인 빈곤수준은 겨우 동물수준의 필수품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이고 목표인 수준이다. 이것이 회칙이 제도화하려고 제안하고 있는 수준이며, 회칙이 모두의 동물적 필요만이 유일한 동기인 것처럼 하여 모든 인류를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수준이다(“어떤 종류이든 모든 다른 권리는…… 이 원칙에 종속된다”).

만일 회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숨막힐 듯한 물질주의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만다고 비난한다면, 회칙이 제안하는 세계는 어떤 분위기인가?

3 그러한 계획의 생존자 중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다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받은 병원이고 받은 가축사육장인 어떤 장소, 즉 무능력, 재앙, 질병 외에는 어떤 것도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맹목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짐 나르는 짐승이었다. 짐승들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 그 장소에 던져진다…… 추가배급의 기회도 없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먹여질 때까지, 그리고 파타고니아 주민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일해야 한다. 지구에 태어난 모든 창조물, 즉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필요를 당신이 전혀 알 수

없고, 그의 능력이나 게으름, 또는 영성함이나 사기행각을 당신이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질문할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지수표를 위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한다. 그리고는 당신의 노력, 이상 및 인생의 날들을 누가 소비할 것인지는 이 세상의 학구적인 사람들the Ivys과 통치자들the Gerald들이 결정하도록 맡긴다.”(『지성인들의 파업』)

당신은 내가 과장하고 있고, 아무도 그러한 이상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회칙의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34 그것은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받아들여져서 실천에 옮겨지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져서 살기 위한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의해 부서지고, 따라서 수치스러운 연약함으로 전환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들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목표를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이후 그들의 머리를 다시는 들 수 없으며, 그들이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는 머리를 숙이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고통의 경감은 이타주의의 동기가 아니고 오직 이타주의의 합리화이다. 자기희생은 더욱 행복한 목적을 위한 이타주의의 수단들이 아니고 목적이다. 그 목적이란 자기희생이 인간의 영원한 상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꺼져가는 눈 속에서 ‘왜?’라는 질문이 다시는 타오를 수 없는 오물투성이의 황폐한 지구에서의 삶의 방식과 즐겁지 않은 노고가 되게 하는 것이다.

회칙은 이 견해를 인정하는 단계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타주의적 순교를 위한 세속적인 정당화를 제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회칙은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척도가 되기는커녕, 인간은 그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봄으로써만 그 자신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문단 42)(사후에?) 그리고 “위대한 인간애를 향한 이 길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위해 받아들인 고통 그 자체는 모든 인류의 진보를 확증해준다.”(문단 79) 그리고 “신을 향한 이 진보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문단 80)

인간의 정신을 향한 자세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인정은 회칙 밖에서 찾을 수 있다. 1967년 4월 7일 이탈리아 주교 전국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호감을 주지 않는 교조dogma와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한 겸손한 경의를 요구하는 모든 교조’에 대한 질문을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주교들에게 ‘자신을 예찬’하는 것과 싸우도록 격려했다.(『뉴욕타임즈』, 1967년 4월 8일)

어떤 정치적 제도를 회칙이 주장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회칙은 경멸적으로 무관심하다. 외관상으로 회칙은 어떤 정치적 체제도 그것이 국가통제주의 형태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명목적인 형태의 사유재산에 대한 모호한 언급은 회칙이 파시즘에 호의를 보이는 듯싶다. 다른 한편으로 어조, 스타일, 그리고 논쟁의 천박함은 진부한 마르크스주의를 암시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천박함은 지적인 강연에 대한 깊은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청중을 경멸하듯이 회칙은 어떤 상투어든 오늘날 안전하게 유행한다고 간주되는 것을 골랐다.

회칙은 오직 두 가지의 정치적 요구를 강하게 주장한다. 미래의 국가들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전제주의식으로 통제하는 국가통제

주의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이다. 또다른 하나는 이러한 국가들은 세계계획을 세움에 있어 전체주의적 힘을 가진 세계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이러한 국제협력은 그것을 준비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이끌고 갈 조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법과 정치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계정부 world authority를 점진적으로 세울 필요성을 누가 이해하지 않겠는가?” (문단 78)

회칙의 철학과 공산주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나는 완전하게, 그리고 기꺼이 저명한 가톨릭교 권위자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회칙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거절로 불린다Encyclical Termed Rebuff to Marxism”라는 표제 아래 1967년 3월 31일자 『뉴욕타임스』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뛰어난 예수회 신학자인 존 코트니 머레이John Courtney Murray 신부는 어제 교황 바오로의 회칙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회의 확실한 답’이라고 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한 길만을 제안해왔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추구함에 있어서 오직 인간에게만 의존한다’라고 머레이 신부는 말했다. 이제 교황 바오로 6세는 참된 인본주의, 즉 인간의 종교적 본질을 인식하는 인본주의에 기초하여 달성하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발표했다.”

아멘.

이타주의자 윤리의 도덕적 식인풍습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또한 먹고 있다고 믿으며 종교가 자본주의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자신이 이성, 과학, 그리고 진보의 옹호자라고 자부하고 자

본주의 지지자를 미신적이고, 어두운 과거의 반동적인 대표자들이라고 비방하는 현대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이다. 동지들이여, 당신의 편에 항상 속해 있었던 당신의 최근 동조자들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라. 그리고는 만일 당신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과거를 그들이 주장하는지 살펴보라.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국가통제주의의 시류에 편승한 종교의 광경이다.

가톨릭교회는 세계국가와 세계신정theocracy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면서, 중세의 정교일치union of church and state를 재건하려는 희망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가톨릭교회는 당시 자기들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운동에 항상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참여해왔다. 이번에는 너무 늦었다. 지적으로 집단주의는 죽었다. 가톨릭교회가 편승한 시류는 영구차이다. 그러나 그 차에 의지하면서 가톨릭교회는 서구문명을 저버리고 인간정신의 업적들을 먹어치우기 위해 야만적인 군중들을 부르고 있다.

이 광경 속에는 슬픈 요소가 있다. 가톨릭교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철학적인 때가 있었다. 가톨릭교의 오래되고 빛나는 철학적 역사는 거인 토머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의해 빛을 받았다. 그는 이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견해(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인식론)를 유럽의 문화에 가지고 왔으며, 르네상스로 가는 길에 빛을 밝혔다. 그의 철학이 가톨릭 철학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던 19세기의 짧은 기간에, 그의 사상의 장엄함은 (기본적인 모순의 대가를 치렀지만) 교회를 거의 이성의 영역에 가깝게 끌어올렸다. 지금 우리는 아퀴나스 계열의 끝을 목격하고 있다. 교회가 다시 원시적인 적대자, 정신의 증오자이며 삶의 증오자인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성 토머스St. Thomas에게 더 위엄 있는 애가requiem를 주었어야 했는다고 바랄 뿐이다.

회칙은 황폐된 문명의 텅빈 거리에 부는 찬바람 소리처럼 오늘날 지성의 공백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암흑시대의 목소리이다.

치명적인 모순인 개인주의와 이타주의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서구가 포기하고 있다. 인간이 이성과 자유를 포기할 때 그 공백은 믿음과 힘으로 채워진다.

어떤 사회체제도 도덕적 기초 없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 흐르는 모래quicksands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대한 고층빌딩을 상상해보라. 인간이 백번째 층과 2백번째 층을 위에 세우려고 고생하는 동안, 열번째 층 스무번째 층은 자취를 감추어 쓰레기더미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그것이 이타주의자 도덕의 기초 위에서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서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이고, 자본주의 동요swaying 5 이다.

그것은 양자택일이다. 만일 당황해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본주의 옹호자가 그것을 모르면 두 이타주의의 완전히 일관된 대표자들인 가톨릭교와 공산주의는 그것을 안다.

따라서 그들의 화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오직 초자연적인 것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 현실과 지구상에서 그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동일한 도덕성인 이타주의, 동일한 목표인 힘에 의한 세계지배, 동일한 적인 인간의 정신이다.

그들의 전략에는 전례가 있다. 1933년의 독일선거에서 공산주의자는 그들이 나중에 나치와 서로 권력투쟁을 하더라도 먼저 그들의 공동의 적인 자본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나치를 도왔

다. 오늘날 가톨릭교와 공산주의는 그들이 나중에 서로 권력투쟁을 하더라도 먼저 인류를 억지로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들의 공동의 적인 개인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잘 협력할 것이다.

회칙은 전세계 공산주의 신문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 공산당 신문인 『휴머니스트L'Humanité』는 회칙은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 오랫동안 강조된 자본주의의 악을 강조하는 데 ‘가끔은 감동적’이고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1967년 3월 30일자)는 보도했다.

인간문제에서 도덕적 자신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기사의 냉소적이고 익살맞은 다음 구절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교황이 ‘가진’ 국가와 ‘가지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불균형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비난 속에서 부유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힘으로 획득한 부는 정당한 재산이지만 생산으로 벌어들인 부는 그렇지 않다. 약탈은 윤리적이지만 생산은 아니다. 약탈자들의 대변인은 부에 대한 회칙의 비난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생산자의 대변인은 굶실거리고, 문제를 피하고, 모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를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만일 자본주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것이 자본주의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만들 광경이다.

『뉴욕타임스』(1967년 3월 30일자)는 사실에서 회칙은 “경제철학에 있어서 눈에 띄게 진보되었다. 그것은 정교하고, 포괄적이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만일 ‘진보된’이라는 용어가 사실에서 회칙의 철학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을 따라간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면, 사람들은 『뉴욕타임스』지가 관련된 움직임의 방향에 대해서 실수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회칙이 20세기로 진보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가 4세기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1967년 5월 10일자)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 신문은 교황이 실제로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칙은 교황의 사상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잘못 번역한 바티칸 번역가의 불가사의한 음모에 의해 야기된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황은 자유시장 체제에 대하여 찬사를 퍼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티칸의 영어판에 나타나 있는 의미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라틴어 문단들을 그들의 공식 번역 및 비공식 번역들과 세심하게 비교해보고, 또한 사소한 일도 신랄하게 따지는 칼럼을 통해서, 『월 스트리트 저널』은 교황이 비난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만 자본주의에 관한 ‘몇몇 의견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떤 의견들? 비공식 번역에 의하면, 회칙의 문단 26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조건들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우리도 모르게 몇몇 의견들은 인간사회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이러한 의견에서는 이윤은 경제적 진보를 촉진하는 최초의 유인으로 간주되었고, 자유경쟁은 경제학의 최고의 법칙으로 간주되었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는 제한이나 사유제와 관련된 사회적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었다…….”

“라틴어에서는, 교황은 ‘몇몇 종류의 자본주의’의 발달에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비난을 ‘모든 비참한 체제’,

즉 모든 자본주의 체제에 돌리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의 몇몇 사악한 견해들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그 기사는 말했다.

만일 이윤동기, 자유경쟁, 그리고 사유재산을 지지하는 견해들이 ‘사악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자본주의인가? 확실하지 않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자본주의 정의는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들이 모두 제거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하나? 확실하지 않다.

이 마지막 질문은 그 기사에 적혀 있지 않은 의미, 즉 교황이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단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을 위해 그 기사는 회칙을 비난하는 용기를 찾았는가? “회칙이 원했던 것은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더욱 많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월 스트리트 저널』의 영광이 변했다*Sic transit gloria viae Wall*. 『타임』지(1967년 4월 7일자)는 유사한 시각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교황 바오로가 세계의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된 기독교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도, 그의 회칙은 구식의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자본론*Das Kapital*만큼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무시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교황의 비난은,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속되고 있는 낡은 사상의 변화를 향한 것이었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만일 이것이 경쟁이었다면 비즈니스 잡지인 『포천*Fortune*』지(1967년 5월호)가 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 잡지의 태도는 호전적으로 초超도덕

적이고 초월철학적이다. 경제학과 윤리학의 분리를 유지하기로 자랑스럽게 결정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유일한 경제체제이다”라고 『포천』지는 말한다.

먼저 교황의 ‘칭찬할 만한 목적’을 인정하면서, 『포천』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 “그러나 그것의 현대적, 그리고 세계적 비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발전에 대하여 Populorum Progressio」는 자멸적인 문서일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케케묵고 의심스러운 견해를 택했다…… 만일 이 구절(문단 26)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교황은 소수의 옹호자를 가진 허수아비를 세운 것이다. 실제로 순수한 자유방임은 세계의 교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 선진국에서 ‘소유’는 ‘사회적 의무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진화해왔다…… ‘절대적’ 개인권리들은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부적절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한 후, 『포천』지는 교황이 세계의 가난과 싸우라고 요청한 ‘선의의 사람들’ 중에 사업가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고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별써 세계의 여러 곳에서 교황이 종용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빠뜨림으로써 그는 자연적이고 필요한 동맹을 경시하고 있다. 원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믿고 있는 원시적인 힘처럼, 그리고 오로지 길들여지고 마구를 채워두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원시적인 힘처럼 사업가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비동맹적’ 상태의 사업가에 대한 『포천』지의 견해가 아닌가?)

“바티칸은 자본주의를 잘해야 필요악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대하여 Populorum Progressio」는 아직도 더 나은 이해는

어렵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사회계몽과 진보를 위한 완전한 방식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도움으로 규정한 사회적 목표들을 오직 선의의 사람들이 획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체제이다.”

이타주의적 봉사의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려고 버릇 없이 시도하는 것에 주목하라. 냉소주의자의 소박함 naïveté을 역시 주목하라. 회칙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부도 빈곤의 구제도 아니다.

냉소주의를 ‘실용성’과 동등시하면서 투쟁적으로 고착화된 현대의 실용주의자들은 혼수간밤에 볼 수 없거나 무엇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시류에 기꺼이 따를 수 있고, 어떤 것과도 기꺼이 타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상의 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인간중요자의 두 집단이 문명에 모이고 있는 동안, 그들은 중간에 앉아서 원칙들은 허수아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객관주의를 향한 똑같은 비난을 듣고 있다. 우리가 어떤 허수아비와 싸우고 있고, 아무도 우리가 반대하는 사상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건 그렇고, 나의 친구가 관찰했듯이, 오직 바티칸, 크렘린,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이 현대세계의 실질적인 문제를 안다.

* The Objectivist지는 9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부록 I
인간의 권리*

아인 랜드

* *The Virtue of Selfishness*에서 재수록했다.

만일 자유사회, 즉 자본주의를 옹호하기를 원한다면 자본주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은 개인권리의 원칙principle of individual rights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개인권리를 지지하고자 한다면 자본주의가 개인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유일한 체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자유와 오늘날 지식인들의 목표와의 관계를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개인권리의 개념이 회피되고, 왜곡되고,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특히 소위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는 눈에 띄게 논의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

‘권리’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도하는 원리로의 논리적인 전이transition를 제공해주는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 배경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을 보존하고 보호해주는 개념이며, 인간의 도덕률과 사회의 법률, 윤리와 정치의 연결고리이다. 개인권리는 사회를 도덕률에 종속시키는 수단이다.

모든 정치체제는 몇몇 도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윤리는 개인을 신비적 권위든 사회적 권위든 상위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교의doctrine의 변형들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체제는 기본원리에서는 같고, 전통, 혼돈, 피비린내 나는 투쟁과 주기적인 붕괴의 사건들만 약간 다른 동일한 국가통제주의자 전제정치statist tyranny의 변형들이었다. 그러한 체제하에서는 도덕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었다. 도덕률의 구체화, 근원, 독점적 판단자,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헌신의 고취는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윤리의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는 도덕률 밖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사회’라는 실체는 없었고, 사회는 많은 개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의 통치자들은 도덕률로부터 면책되었다. 전통적인 관습에만 근거하여 그들은 전권을 쥐고 ‘사회(또는 부족, 종족, 국가)에 좋은 것이 선인善人이고 통치자의 명령은 지구상에서 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묵시적인 원리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이것은 모든 국가통제주의 체제와 신비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윤리의 변형하에서는 사실이다. 신비적 윤리의 정치이론은 ‘왕의 신성한 권리The Divine right of Kings’에 요약되어 있고, 사회적 윤리의 정치이론은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Vox populi, vox dei’에 요약되어 있다. 그 증거로는 왕을 신성시하는 이집트 신정정치theocracy, 무제한적인 다수결원칙unlimited majority rule인 아테네의 민주주의, 로마황제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국가, 중세 후반의 이단자 탄압, 프랑스의 절대군주,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프로이센의 복지국가, 나치독일의 독가스실, 소련의 대살육장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정치체제는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윤리의 표현이며, 이들 체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능하고 최고의 변덕승배자로서의 사회가 도덕률보다 상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러한 모든 체제는 초도덕적인 사회amoral society의 변형들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혁명적인 성과는 사회를 도덕률에 종속시킨 것이다.

개인권리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제한으로서, 집단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인간의 보호로서, 힘의 권리에 대한 종속으로서의 도덕을 사회체제에 확장한 것을 나타낸다. 미국은 역사상 최초의 도덕적 사

회였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체제들은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사회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간주해왔다. 미국은 개인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간주하고 사회를 개인들의 평화롭고 질서정연하며 자발적인 공존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앞의 모든 체제들은 개인의 삶이 사회에 속하고 사회는 마음대로 개인을 다룰 수 있으며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특별히 자신에게만 사회가 허락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해왔다. 미국은 개인의 삶은 권리로(즉 도덕적 원리와 본성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권리는 개인의 재산이며 사회는 그러한 권리가 없고, 정부의 유일한 도덕적 목적은 개인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지지했다.

‘권리’는 사회적 배경하에서 개인행동의 자유를 정의하고 허용해주는 도덕원리이다. 단 하나의 근본적인 권리가 있는데(다른 모든 것은 그것의 결과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권right to life이다. 삶이란 자립과 자발적인 행동의 과정이다. 생존권이란 자립과 자발적 행동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생존권이란 자기삶의 지원, 촉진, 완성 및 즐거움을 위해 이성적 존재의 본성이 요구하는 행동을 취할 자유를 의미한다(그것이 삶,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의미이다).

‘권리’의 개념은 단지 행동과 관계가 있는데, 특히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물리적 강요, 강압, 또는 다른 사람의 방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권리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자발적이고 강요되지 않은 선택과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도덕적 허용이다. 그의 권리를 침해하

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네거티브(negative)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주위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과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존권은 모든 권리의 근원이고, 재산권(right to property)은 모든 권리의 유일한 실현이다. 재산권이 없다면 다른 어떤 권리도 불가능하다. 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삶을 유지할 수단을 잃는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은 노예이다.

재산권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권(right to action)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어떤 객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객체를 생산하거나 획득하는 행동과 결과들에 대한 권리이다. 어떤 개인이 어떤 재산을 획득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가 그것을 획득하면 그것을 소유할 것이라는 점만은 보장할 수 있다. 물질적인 가치를 획득하고 유지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것이 권리이다.

개인권리의 개념은 인류역사에서 너무 생소하여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신비주의와 사회주의 윤리 등 윤리학의 두 이론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권리가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권리가 사회의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의 근원은 인간의 본성이다.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는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그들의 창조자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창조자의 피조물이라고 믿든 아니면 자연의 산물이라고 믿든 인간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인간은 강압하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특이한 종, 즉 이성적 존재(rational being)라는 사실과, 권리는 인간

의 독특한 생존방법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인간권리의 근원은 신성한 법도 입법부의 법도 아니며 동일률(law of identity)이다. A는 A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권리는 인간의 적절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생존의 조건이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며,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며,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노동의 산출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지구상에서의 삶이 인간의 목적이라면 이성적 존재로 살아갈 권리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 본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비합리적이지 못하게 한다.”(『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의 가치를 몰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폭력의 사용이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두 그룹의 잠재적인 침해자는 범죄자와 정부이다. 미국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범죄자들의 행동과 같은 3 것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범죄자와 정부를 구분한 것이다.

독립선언문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 사이에 설립되었다”라는 원리를 주장했다. 이것이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정부의 정당성을 제공해주었고 정부의 적절하고도 유일한 목적을 정의했는데, 그것은 인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은 통치자의 역할에서 봉사자의 역할로 변화되었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헌법은

정부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 개인권리가 어떠한 공권력이나 사회의 힘을 대신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듯이, 권리장전은 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3 그 결과는 150여 년의 짧은 기간에 미국이 달성했던 문명사회의 형태였다. 문명사회는 폭력이 인간관계에서 추방되고 경찰로서 행동하는 정부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보복할 경우에만 유일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것이 개인권리의 원리에 함축되어 있는 미국 정치철학의 중요한 의미이자 의도였다. 그러나 그것이 명시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았고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며 일관되게 실천되지도 않았다.

미국의 내적 모순은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윤리이다. 이타주의는 자유, 자본주의, 개인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누구도 행복추구와 희생제물sacrificial animal의 도덕적 상태를 결합할 수 없다.

자유사회를 대동시킨 것은 개인권리의 개념이었다. 자유의 파괴는 개인권리의 파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집단주의자의 전제정치는 물질적 가치든 도덕적 가치든 국가가치를 완전히 몰수하여 국가를 감히 노예화시키지는 않는다. 국가의 노예화는 내부적인 부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질영역에서처럼 한 나라 부富의 약탈은 통화를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달성된다. 따라서 오늘날 인플레이션의 과정이 권리의 영역에까지 적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새로 공포된 ‘권리’를 증가시켜, 사람들이 개념의 의미가 전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이러한 ‘인쇄기에서 찍혀 나온 권리들 printing-press rights’이 진짜권리들을 무력화시킨다.

전세계에 걸쳐 새로운 ‘권리’와 강제노동 수용소라는 두 개의 모순되는 현상들이 그렇게 확산된 적이 없었다는 신기한 사실을 생각해보라.

권리의 개념을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전환시킨 것은 ‘새로운 고안물gimmick’이었다.

1960년 민주당의 강령은 그러한 전환을 대담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 강령에서 민주당 행정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가 16년 전 우리의 국가적 도덕을 써놓았던 경제적 권리장전 economic bill of rights을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 항목들을 읽어보면서 ‘권리’라는 개념의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하라.

1. 국가의 산업, 상업, 농장, 광산에서 유용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
 2. 적절한 음식, 옷 및 여가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만큼 벌 권리.
 3. 농사를 지어 자신과 가족의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장해주는 가격으로 생산물을 팔 농부의 권리.
 4. 크든 작든 모든 사업가가 국내외의 불공정한 경쟁과 독점에 의한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역할 권리.
 5. 모든 가족이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살 권리.
 6.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
 7. 노후, 질병, 사고 및 실업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
 8.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 위에서 열거한 8개의 각 조항에 “누구의 지출로?”라는 질문을 덧붙이면 논점이 명확해진다.

일자리, 음식, 옷, 여가, 집, 의료서비스, 교육 등은 자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만든 가치, 즉 인간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들이다. 누가 그것들을 제공할 것인가?

만일 몇몇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든 생산물을 권리로써 차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노예노동자로 운명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멋대로 주장한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필연적으로 침해하므로 권리가 아니며 권리가 될 수도 없다.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의무, 보상이 없는 책임, 비자발적인 노역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노예로 만들 권리’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권리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권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자유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합중국 헌법제정자 Founding Fathers들의 지적인 정확성에 주목하라. 그들은 행복할 권리 right to happiness를 말한 것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를 말했다. 이것은 인간은 그의 행복을 성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존권은 인간은 자신의 노력(자신의 능력이 감당하는 만큼의 경제적 수준에서)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생필품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산권은 인간은 재산을 얻고 이용하고 처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행동을 취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재산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론자유권은 정부에 의한 억압, 방해 및 징계행위의 위험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강당, 라디오 방송국, 인쇄기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일은 모든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동의 voluntary consent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강요할 권리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일자리를 가질 권리 right to a job’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자유거래권 right of free trade만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고용하기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일자리를 취할 권리가 있다. ‘집을 가질 권리 right to a home’는 없고 단지 자유거래권만 있다. 만일 그 누구도 지불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의 생산물을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공정한’ 임금, 또는 ‘공정한’ 가격을 받을 권리는 없다. 만일 생산자가 우유, 신발, 영화, 샴페인 등을 제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없다(그러한 것들을 제조할 권리만 있다). 특정그룹의 ‘권리’, 즉 ‘농부, 노동자, 사업가, 고용인, 고용주, 노인, 젊은이, 미출산아의 권리’는 없다. 단지 모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인간의 권리만이 있다.

재산권과 자유거래권은 인간의 유일한 ‘경제적 권리들’이며(그것들은 사실상 정치적 권리이다) ‘경제적 권리장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거래권의 옹호자들이 재산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파괴해왔다는 것에 주목하라.

권리는 인간행동의 자유를 정의하고 보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자유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폭력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민은 범죄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범죄자에 대항할 법적인 보호를 가진다.

범죄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소수이다. 그들이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은 인간이 만든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다른 공포들(학살, 전쟁, 박해, 몰수, 기근, 노예화, 전체적인 파괴)과 비교할 때 지극히 작다. 잠재적으로 인권관리에 정부가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정부는 법적으로 무장해제된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독점권 legal monopoly을 가지고 있다. 개인관리에 의해 제한과 제약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부가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권리장전에 적혀 있는 것은 개인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보호가 파괴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 과정은 (시민은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정부에게는 헌법으로 금지된 특정한 침해들을 시민의 탓으로 돌리며, 정부를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한 전환은 언론자유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수년 동안 집단주의자들은 개인이 반대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거절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반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검열 censorship’ 행위라는 개념을 선전해왔다.

그들의 주장은 만일 신문사가 회사의 정책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작가를 고용하거나 그의 글을 발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검열’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만일 사업가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중상하는 잡지에 광고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검열’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만일 TV 광고주가 알저 히스 Alger Hiss가 전 부통령 닉슨 Nixon을 비난하기 위해 초청되었던 사건과 같이 그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행해지는 폭행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검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뉴튼 미노 Newton N. Minow는 “등급, 광고주, 방송망, 계열사에 의해서 그들의 지역에 공급되는 프로그램을 거절하는 것도 검열이다”라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그것은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미노이다.

그러한 경향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보라.

‘검열’은 단지 정부행위와 관련된 용어이다. 어떠한 사적인 행위 private action도 검열은 아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대리인도 다른 사람을 침묵하게 하거나 어떤 출판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없다. 단지 정부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의 언론자유란 그의 반대자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경제적 권리장전’과 같은 교의에 따를 경우 개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물질적 수단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자신의 재산에 ‘권리’를 가진 연설자나 선전자들에게 자신의 돈을 차별 없이 양도해야 한다.

이것은 사상을 나타내기 위한 물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능력이 어떤 종류의 사상이든 그것을 보존할 권리를 개인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발행인은 가치가 없고 잘못되었고 해악이 된다고 그가 생각하는 책도 발행해야 하며, TV 광고주는 그의 신념을 모욕하는 시사평론가에게 재정지원을 해야 하며, 신문사 사주는 언론의 예측화를 극성스럽게 요구하는 젊은 무뢰한에게 사설란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것은 어느 한 그룹은 무제한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반면, 다른 그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격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요구자들에게 일자리, 마이크, 또는 신문사설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선택권이 폐지된 상³ 태에서 누가 ‘경제적 권리’의 ‘분배’를 결정하며 수혜자를 선택할 것인가? 미노는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지적해왔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이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적 권리’의 이론은 당신이 관람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는 모든 극작가 지망생, 모든 비트족 시인, 모든 소음 작곡가 및 (정치적 연고를 가진) 모든 비객 관적 예술가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예술을 보조하는 데 당신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의미가 그 프로젝트에 있는가?

사람들이 ‘경제적 권리’에 대해 아우성치고 있을 동안 정치적 권리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불일치, 반대, 나쁜 평판 및 지원부족을 포함한 개인의 견해를 주장할 자유와 가능한 결과들에 책임을 질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자유의 권리는 잊혀졌다. ‘언론자유의 권리’의 정치적 기능은 반대자와 인기가 없는 소수를 강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지원, 편의 및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인기보상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권리장전에 “언론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를 빼앗으면서 의회가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것은 시민들이 그들을 파괴하는 것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마이크를 제공하거나, 그들로부터 약탈해 가려는 도둑에게 열쇠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목을 자

르고자 하는 살인자에게 칼을 제공하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상황이 정치적 권리 대 ‘경제적 권리’라고 하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양자택일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파괴한다. 그러나 사실 ‘경제적 권리’ ‘집단의 권리’ ‘공익의 권리’ 등은 없다. ‘개인권리’가 그것들과 중복되는 용어이다. 개인권리 외에 다른 권리는 없으며 그것들을 소유하는 사람도 없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는 개인권리의 유일한 옹호자들이다.

부록II

정부의 본질*

아인 랜드

* *The Virtue of Selfishness*에서 재수록했다.

정부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행위에 관한 어떤 규칙들을 집행하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기관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한다면 왜?

인간의 정신은 인간생존의 기초적 도구이고, 인간행동을 인도하는 지식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조건은 사고(思考)의 자유와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이다. 이것은 개인은 혼자 생활해야 하며, 무인도가 인간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사회환경은 단지 어떤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성공적인 생존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가치는 지식과 교환이다. 인간은 축적된 지식을 세대에 걸쳐 전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인간이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얻는 지식보다 크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지식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도움을 얻는다. 두번째 큰 혜택은 분업이다. 그것으로 한 사람이 어느 특정한 분야의 일에 그의 노력을 전적으로 쏟고, 다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으로 교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개개인이 무인도나 자급자족하는 농장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생산해야 하는 경우에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지식, 기술, 그들의

노력에 대한 생산적인 보수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혜택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지정하며, 한계를 정하며, 정의한다. 합리적, 생산적,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단지 합리적, 생산적, 독립적인 사람들만이 서로에게 가치가 있다.”(『이기주의의 미덕*The Virtue of Selfishness*』에 실린 「객관주의자 윤리*The Objectivist Ethics*」)

개인으로부터 개인노력에 의한 산출물을 약탈해 가거나, 개인생각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거나,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하는 사회(사회명령과 인간본성의 요구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회가 아니고 제도화된 깡패규칙 gang-rule에 의해 서로 모여 있는 폭도이다. 그러한 사회는 인간공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며 정당성도 없고 혜택의 근원도 아니며 인간생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소련이나 나치독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만일 사람들이 평화롭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같이 살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기본적인 사회원리를 인정해야만 도덕적 사회나 문명사회가 가능하게 된다. 그 원리는 개인권리이다.

개인권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인간생존을 위해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는 폭력의 사용에 의해서만 침해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박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약탈하거나, 다른 사람이 스스로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은 폭력에 의한 수단 외에는 없다.

문명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관계에서 폭력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갖기 원할 경우 이성의 수단, 즉 대화, 설득,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합의에 의해서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원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인간생존권의 필수적인 결과는 인간의 자기방어에 대한 권리이다.

3 문명사회에서는 폭력은 폭력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보복으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폭력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악이므로 폭력을 보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절대 필요하다.

만일 몇몇 ‘평화주의자pacifist’ 사회가 보복용 폭력의 사용을 포기했다면 그 사회는 비도덕적이 되기를 결심한 악한에게 좌우되는 무력한 상태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는 사회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다. 즉 악을 폐지하는 대신에 악을 장려하고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회가 폭력에 대항하는 어떤 조직적인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모든 시민들이 무장한 채 돌아다니며 집을 요새로 만들고 문을 향해 다가오는 수상한 사람을 총으로 쏘는 사회가 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다른 폭력단과 싸우는 시민방어 폭력단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회는 퇴보하여 잔인한 폭력이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 선사시대 미개인의 부족간 전투가 지속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폭력의 사용은 심지어 보복용이라 하더라도 시민개인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장에 그 이웃으로부터 오는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하에서 살아야 한다면 평화적인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 이웃의 의도가 좋든 나쁘든, 그들의 판단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들의 동기가 정의감에서든 무지, 선입견,

악의에서든 한 사람에 대한 폭력의 사용을 다른 사람의 임의의 결정에 내버려둘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지갑을 잃어버리고는 도둑을 맞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이웃의 모든 집에 쳐들어가서 그에게 화난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첫번째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죄책감의 증거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쏘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를 상상해보라.

폭력의 보복적 사용은 처벌과 시행과정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주며 누가 범죄행위를 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규칙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규칙 없이 범죄행위를 기소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사형私刑을 가하는 폭도lynch mob들이다. 만일 사회가 보복적인 폭력의 사용을 시민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그것은 폭도의 규칙, 사형의 법, 끝없는 불화와 복수의 연속이 되어버릴 것이다.

만일 폭력이 사회관계에서 금지되면 사람들은 객관적인 규칙하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임무가 주어진 기관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올바른 정부의 임무, 즉 기본적인 임무이며, 사람들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도덕적 정당성이며 이유이다.

정부는 객관적인 통제, 즉 객관적으로 정의된 법률하에서 보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개인행동private action과 정부행동governmental action의 근본적인 차이점(오늘날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회피되고 있는 차이점)은 정부는 폭력의 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폭력의 사용과 싸우고 제지하는 대리인이므로 정부는 그러한 독점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의 행동은 엄격히

정의되고 제한되고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 그 어떤 변덕의 기미도 정부행위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법만을 원동력으로 하는 비인격적인 로봇 impersonal robot이어야 한다. 만일 사회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부가 통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사회체제하에서 정부관리는 그의 모든 공적 행위가 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반면에 개인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개인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 정부관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권력 might’을 ‘권리 right’에 종속시키는 수단이다. 이것은 ‘사람의 정부가 아닌 법의 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개념이다.

자유사회에 적합한 법의 본질과 정부권력의 원천은 적합한 정부의 본질과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정부의 본질과 목적의 기본적인 원리는 독립선언문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사람들 사이에 설립되고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들의 정당한 권력을 끌어내고…….”

3 개인권리의 보호가 정부의 유일하고도 적합한 목적이므로 그것은 법률제정 legislation의 유일하고도 적합한 주제이다. 모든 법은 개인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권리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모든 법은 객관적이어야(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에 앞서 법이 무엇을(그리고 왜) 금지하고 있으며, 무엇이 범죄의 구성요소가 되며,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정부권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동의 consent of the governed’이다. 이것

은 정부는 지배자가 아니라 시민의 봉사자,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러한 정부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민들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개인이 자유문명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개인이 동의해야 할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폭력사용을 포기하고 질서 있고,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정의된 집행을 위해서 물리적인 자기방어의 권리를 정부에 위임하는 원리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개인은 폭력과 변덕의(자신의 변덕을 포함한 모든 변덕의) 분리를 인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관련된 일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유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강제로 거래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거래를 하며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될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거래한다. 만일 계약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파기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재정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보상으로써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상환청구 방법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폭력의 사용을 개인의 결정에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기능 중의 하나인 객관적인 법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는 중재자의 기능이 된다.

어떠한 반문명사회에서든 범죄자는 소수이다. 그러나 민사법정을 통한 계약의 보호와 이행은 평화로운 사회에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보호 없이는 어떠한 문명도 발전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

사람은 동물처럼 순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생존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전생애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인간은 그의 행동을 계산하고, 그의 삶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훌륭한 정신과 지식을 많이 가진 인간일수록 그 계획은 더 길어진다. 높은 수준과 복잡한 문명일수록 문명이 요구하는 행동의 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상 합의(contractual agreements)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러한 합의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 필요가 더 시급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자 한 가마를 계란 한 상자와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계란을 받았으나 감자를 양도하기를 거절한다면 원시적인 교환사회조차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변덕 지향적인 행동이 사람들이 1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신용으로 양도하거나, 수백만 달러어치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거나, 99년간의 리스에 서명하는 산업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상해보라.

일방적인 계약파기(unilateral breach of contract)는 간접적인 폭력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한 사람이 물질적 가치 및 다른 사람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고는 지불을 거절하면서 권리로서가 아니고 폭력으로(단지 물리적인 소유로) 그것들을 가지는 것, 즉 소유주의 동의 없이 그것들을 가지는 것이다. 사기행위(fraud)는 간접적인 폭력이다. 그것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거짓구실과 거짓약속으로 물질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강탈(extortion)은 또다른 폭력의 간접적인 사용이다. 그것은 가치의 교환 없이 힘, 폭력, 상해의 위협으로 물질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범죄이다.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같은 것들은 범죄적 동기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무책임과

비합리성으로 야기된 것일 수 있으며, 아직도 양측에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정의된 법에 종속되어야 하며 법을 집행하는 공평한 중재자, 즉 판사에(그리고 특별한 경우 배심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정의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를 관찰해보라.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획득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인간의 권리는 일방적인 결정, 임의의 선택, 비합리성, 다른 사람의 변덕 등의 자비로움에 맡겨질 수 없다는 원리이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는 싸우고 혜택은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의 사회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목적이다.

정부의 올바른 기능은 세 개의 광범위한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폭력과 인간권리의 보호문제와 관계가 있다. 경찰(police)은 범죄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군대(armed force)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법정(law courts)은 객관적 법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해결한다.

이러한 세 개의 범주는 많은 파생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것들을 특별한 법안의 형태로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것은 법철학이라는 특별한 과학분야에 속한다. 이행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법과 정부의 목적이 개인권리의 보호라는 원리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원리가 잊혀지고, 무시되고, 회피되고 있다. 그 결과 오

늘날 인류의 상태는 절대전제정치의 무법상태와 폭력에 의한 원시적인 야만인의 지배로 후퇴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경솔한 항의로써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정부가 본질상 악이 되는지, 그리고 무정부상태가 이상적인 사회체제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정치적 개념으로서 무정부상태는 순진하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위에서 논의된 모든 이유로 인해 정부조직이 없는 사회는 깡패집단의 싸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최초 범죄자의 지배에 달려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비도덕성만이 무정부상태에 대한 유일한 반대는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회도 무정부상태하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부설립이 필요한 것은 객관적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불화의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정부(competing government)’라고 불리는 터무니없는 무정부 이론은 최근에 몇몇 젊은 자유의 옹호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정부기능과 산업기능의 차이, 폭력과 생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기업의 정부소유를 지지하는 현대 국가통제주의자의 기본전제를 인정하면서 ‘경쟁하는 정부’의 지지자들은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을 취하며 경쟁이 기업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경쟁이 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독점적인 정부 대신에 동일한 지역에 몇 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쇼핑’하고 그가 선택한 정부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개인에게 충성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속박이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서비스라는 것을 기억하라. 강제적 속박에서 경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자문해보라.

이 이론은 확실히 ‘경쟁’과 ‘정부’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상 명확한 모순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이론은 현실과의 연결이나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고 전혀 구체화될 수 없으며 심지어는 대략적으로도 구체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것은 다음 하나의 예시로써 충분할 것이다. 가령 A라는 정부의 고객인 스미스Smith가 그의 옆집 사람이며 B라는 정부의 고객인 존스Jones가 그의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의심한다고 하자. A정부의 경찰대가 존스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스미스가 한 고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A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B정부의 경찰대를 문에서 만났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서부터는 당신이 전개해보라.

‘정부’란 개념의 진화는 길고 뒤틀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적합한 기능에 대한 몇몇 어렴풋한 인식은 모든 조직사회에 존재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정부와 도둑집단의 암묵적인(때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차이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에 드러나 있다. 그 차이란 ‘법과 질서’의 수호자로서 정부에게 부여된 존경과 도덕적 권위이다. 또한 가장 나쁜 형태의 정부도 단지 상투적이고 전통적으로 질서 비슷한 것과 정의 같은 것을 유지하고, 신비적 권력이든 사회본질적 권력이든 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한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절대왕정이 ‘왕의 신성권’에 호소해야 했던 것처럼 소련의 현대 독재자들은 노예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려는 선전에 돈을 지출해야 한다.

인류역사상 정부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이해는 아주 최근의 성과

이다. 그것은 단지 2백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미국혁명의 헌법제정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유사회의 본질과 필요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수단을 고안했다. 인간의 다른 산출물과 마찬가지로 자유사회는 임의의 수단과 단순한 희망과 지도자의 '선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다. 사회를 자유롭게 하고 사회를 자유롭게 유지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유효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복잡한 법체제가 요구된다. 이 체제는 동기, 어느 관리의 도덕적 특성이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이 체제는 전제정치가 발생할 그 어떠한 기회나 법률상의 허점을 남겨놓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라는 미국체제가 그러한 성과이다. 헌법에 약간의 모순점들이 국가통제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수단으로서의 헌법의 개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이다.

오늘날 이 허점을 없애기 위해 일치된 노력을 할 때 헌법은 개인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정부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 헌법은 개인의 행동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행동만을 지정한다는 것, 헌법은 정부권력을 위한 헌장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헌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날 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견해 속에 있는 도덕 및 정치적 전도轉倒의 정도를 생각해보라. 정부는 인간권리의 보호자가 되는 대신에 가장 위험한 침해자가 되고 있다. 자유를 수호하는 대신에 정부는 노예상태를 확립해가고 있다. 사람들을 폭력의 최초 사용자로부터 보호하는 대신에 정부는 자기마음대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폭력과 강압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객관성의 수단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정부는 그 해석이 관료들의 독단적인 결정

에 맡겨져 있는 비객관적인 법의 수단에 의하여 불확실성과 공포라는 치명적인 숨은 통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람들을 변덕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대신에 정부는 무제한적인 변덕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인 전도의 단계에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다. 그 단계에서는 시민들은 허가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반면에 정부는 마음대로 어떠한 것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단계는 인류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이며 폭력에 의한 지배의 단계이다.

인간은 그 물질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인간본성에 관한 비판적 결론의 결과 그러한 견해가 보통 나온다. 인간의 도덕적 상태가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가 역사의 대부분을 그 치하에서 살아야 했던 정부의(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의 도덕성에 의해 가능했던 정부의) 엄청난 도덕적 전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문명과 같은 것을 보존해왔으며 어떤 자존심의 불멸의 흔적이 인간을 두발로 똑바로 걸어가게 했는지 알고 싶어진다.

또한 인간의 지적 문예부흥을 위한 투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지가 되었던 정치원리들의 본질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기 시작한다.

해 제

아인 랜드의 생애와 학문

아인 랜드Ayn Rand는 소설가이자 철학자이다. 그녀는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접근방법에 강한 도전장을 던지며 객관주의Objectivism라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학문적 취향은 자유를 개인권리로 간주하고 자유를 빼앗는 국가의 강제적 행위는 부도덕하다고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권리이론가에 속한다. 그러나 그녀는 학자라기보다는 사상가여서 학문의 세계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으나 일반대중에게는 큰 호응을 받았다. 그녀는 생전에 소설을 포함하여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그녀의 책들은 2천만 부 이상이나 팔렸고, 현재도 매년 30만 부 이상 팔리고 있다. 또한 그녀의 대표적인 소설인 『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책이다.

그녀는 1905년 러시아의 생트페테르스부르크St. Petersburg에서 출생했고 6세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9세 때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케렌스키혁명Kerensky Revolution과 볼셰비키혁명Bolshevik Revolution을 겪었는데, 이 혁명의 와중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에게 재산을 송두리째 몰수당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미국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을 동경했다. 그녀는 페트로그라드대학University of Petrograd에서 철학과 역사학을 공부하고 1924년 대학을 졸업했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하여 주립 영화예술학교State Institute for Cinema Arts에서 수학하던 중 1926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할리우드에서 조연으로 새출발을 했고, 1929년에는 영화배우 프랭크 오코너Frank O'Connor와 결혼하여 이후 그가 죽기까지 50년 동안 해로했다. 1933년부터 시작하여 몇 권의 소설을 출간한 후 1957년 그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마지막 소설인 『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을 출간했는데, 이 소설에서 그녀는 자신의 철학을 윤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정치학, 경제학 등을 통합하는 수준 높은 추리소설의 형태로 극적으로 표현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철학인 객관주의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했고 1962년부터 1976년까지 스스로 정기간행물을 편집하여 출간했다. 그녀는 198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인간에 대한 그녀의 비전과 지구상에서의 삶을 위한 그녀의 철학은 수많은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미국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아인 랜드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인 「아인 랜드: 삶에 대한 감성Ayn Rand: A Sense of Life」이 1997년 아카데미 최우수 기록영화상에 지명되었고, 그녀의 객관주의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인 랜드 연구소Ayn Rand Institute(이 연구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aynrand.org>이다)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인 랜드의 철학인 객관주의가 기존의 접근방법과 어떠한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객관주의는 오늘날의 문화와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인 신비주의, 이타주의, 집단주의, 허무주의, 환경보전주의, 국가통제주의 등에 대한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 또한 2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상에 도전하고 새 문예부흥new Renaissance의 토대를 제공해준다. 객관주의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완전하고, 체계적이며, 통합된 사상체계이다. 객관주의는 그녀 자신이 묘사한 것처럼 지구상에서의 삶을 위한 철학이며, 인간이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추상원리들abstract principles을 정의한다.

그녀를 포함한 객관주의자들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객관주의자 소식지The Objectivist Newsletter』의 창간호(1962년 1월)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랜드의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객관주의는 철학적인 운동이다. 정치학은 철학의 한 분야이므로 객관주의는 어떤 정치적인 원리(특히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근본적이고도 철학

적인 원리의 결과와 궁극적이고도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지지한다. 객관주의는 정치를 분리된 목표나 기본적인 목표, 즉 넓은 이념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치학은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 세 개의 다른 철학적인 분야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 및 인간과 실존의 관계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정치학은 누군가가 일관성 있는 정치이론을 만들어 실제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객관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우리는 급진적 자본주의자들이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철학적 기초, 그것 없이는 자본주의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철학적 기초를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다.

객관주의의 기본원리들을 철학의 네 분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이상학metaphysics에 있어서 객관주의는 현실reality은 인간의 의식, 지식, 믿음, 감정, 욕망, 공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동일률law of identity을 의미하며, 인간의 의식이 하는 일은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주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인식론epistemology에 있어서 객관주의는 인간의 이성reason은 현실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인간이 모든 감각을 통해 느끼는 물질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므로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이성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

고 이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수단이지만, 이성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객관주의는 지식수단으로서 믿음이나 감정과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신비주의mysticism를 거부하고 확실성이나 지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회의론skepticism을 거부한다. 또한 인간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힘(예를 들어 신, 운명, 유전자, 경제상황 등)의 희생물이라는 결정론determinism을 거부한다.

윤리학ethics에 있어서 객관주의는 이성만이 인간이 지닌 유일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이 되며, 합리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미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목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자신의 행복추구를 최고의 도덕적 목적으로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리사욕self-interest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객관주의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한 삶을 주장하는 이타주의altruism를 거부한다.

정치학politics에 있어서 객관주의는 어떤 사람도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폭력을 먼저 사용할 권리는 없고 다만 자기 방어나 폭력을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대항할 경우에만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유로운 쌍방의 동의mutual consent에 의해서 서로 거래자traders로 대해야 하며,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유일한 사회체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재산권property rights을 포함한 개인권리를 인정하는 체제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단지 개인권리를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시즘fascism이나 사회주의socialism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collectivism를 거부하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고 부유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현재의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거부한다.

이 책은 객관주의의 창시자이며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지지자인 아인 랜드의 경제철학 사상과 현실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국내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번역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이론 및 역사에 대한 에세이 모음집으로서 그녀의 에세이 18편과 다른 사람의 에세이 6편 등 모두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녀 자신이 편집했던 정기간행물에 실린 글들과 초청강연의 원고들이다. 이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자본주의가 도덕적이며 개인권리 및 자유사회와 일치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특허 및 저작권, 공중파의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중대한 오류들에 대한 반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학생폭동, 중상술, 보수주의 등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놀라운 철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와 사회에 관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초유의 위기국면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국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벗어나기 위하여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때 이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개인권리의 침해, 재산권의 침해, 여론정치, 경제철학 부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은 제공해줄 것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이론과 역사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철학이 19세기에 분리되고 20세기에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인문학이나 과학 등 다른 현대의 과학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학문인 정치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경제학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집단주의collectivism의 근본적인 교의를 공리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 교의란 자원은 공동으로 소유되며 정치경제학의 목표는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타주의의 윤리와 정치적 국가통제주의political statism에 영향을 받아 집단주의는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부족으로 보며, 부유는 사회와 부족의 생산물로 본다. 저자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자본주의’에 관한 설명을 인용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경제의 접근방법에서 이러한 부족전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합리적 재능rational faculty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곧 개인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정신은 기본적인 생존수단이며,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으

므로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인간정신의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어떤 사회체제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개인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자본주의가 재산권을 포함하여 개인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개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폭력이 추방되어야 하는데, 이 일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유일한 기능이다. 한편 어떤 사회체제의 확립, 변화, 진화 및 파괴를 결정하는 힘은 철학인데, 철학의 네 분야와 대응되는 자본주의의 네 가지 근본원리는 형이상학적인 면에서는 인간본성 및 생존의 필수조건이고, 인식론적인 면에서는 이성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개인권리이며 정치적인 면에서는 자유이다.

인류역사의 모든 사회체제 가운데 자본주의는 폭력에 의한 지배와 양립할 수 없고 객관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유일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시화되지 못했던 것은 역사적인 비극인데, 그 책임은 자본주의 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자본주의 옹호자들에게 있다고 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전쟁의 근원

국가통제주의는 폭력은 인간생존과 인간사회에서 적절하며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해왔다. 오늘날 국가통제주의자들은 평화운동을 펴고 있는데, 그들은 무장한 적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무장해제된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독재정권을 허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통제주의의 사상적 근원은 부족전제이다. 즉 부족이 최고의 전능한 통치자이며, 부족이 구성원들을 자기마음대로 희생시킬 수 있고, 부족의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원시시대 야만인들의 견해이다. 국가통제주의하에서는 한 나라가 폭력으로 자기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평화애호가들은 개인권을 인정하며 사회관계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유일한 체제인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오히려 국가통제주의를 지지한다.

19세기와 20세기 지식인들은 국가통제주의와 군국주의를 연계시켰는데, 미국에서도 집단주의 개혁가들의 영향으로 국가제국주의 정신이 부활했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 개혁가인 윌슨은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갔고 역시 ‘자유주의’ 개혁가인 루스벨트는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은 ‘민주주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소련, 파시스트 이탈리아, 나치 독일 등 세 독재정권을 창출했고, 제2차 세계대전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공산주의의 노예상태에 넘겨주었다.

진정으로 평화가 오늘날 지식인들의 목표라면 국가통제주의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 가난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을 예방하는 길은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통제주의를 버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욱 번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통제주의를 포기하는 않는 한, 한 국가내에서와 국가간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3. 미국의 박해받는 소수 : 대기업

소수 권리의 보호는 고도의 도덕원리인데 오늘날 이 원리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수에게만 적용되고 소수 사업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이중잣대로 사업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모든 독재정권은 독재권력을 요구하는 정당성으로 사용할 희생양으로 몇몇 소수 그룹을 필요로 하는데 소련에서 희생양은 부르주아 유산계급이었고 나치독일에서는 유대인이었으며 미국에서 그 희생양은 사업가들, 특히 대기업가들이었다.

미국의 사업가들은 인류의 경제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가장 위대한 천재성과 가장 화려한 업적을 과시해왔지만 그들은 우리의 지식인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고 관료들이 저지른 죄와 악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90년 제정된 독점금지법인 셔먼법 Sherman Act이었는데 이 법은 자유기업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소위 ‘보수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 법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범죄자가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자유경쟁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요인은 방해받지 않는 자유시장 기구의 운영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자유방임Laissez-faire인데 독점금지법으로 인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자는 미국에서 발생했던 몇몇 독점금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진정으로 소수 그룹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소수인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작은 소수인 사업가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따

라서 저자는 독점금지법의 폐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과정으로써 독점금지에 관한 문제 전체의 재검토와 개정을 요구해야 하며 자유사회의 상징이고 미국의 상징인 사업가들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4. 반트러스트

이 장의 저자인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의 전반적인 구조는 경제적 비합리성과 무지의 뒤범벅이며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오해의 소산과 비현실적인 이론들의 소산이라고 본다. 따라서 반트러스트 체제의 전체의 재검토가 시작되어야 하며 독점금지법의 역사적 근원과 이러한 법들이 근거하고 있는 경제이론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트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반발은 남북전쟁 직후 철도의 등장으로 시작되었고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의 철도회사들은 독단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들은 그것을 자유시장 실패의 증거로 보았으나 철도회사들의 권력이 자유시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제약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견해는 오류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산업의 일반적인 발전은 소수의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고 곧이어 많은 회사들이 합병을 통하여 효율성과 이윤을 증대시킨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회사들이 진입하므로 기존의 주도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생산효율성의 수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

19세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고전학과 경제학은 경쟁을 시장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상태에 영향을 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최대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수동적인 경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저자는 경쟁을 생산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상태에 영향을 주는 능동적인 경쟁으로 이해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서 이러한 경쟁의 궁극적인 조정자는 자본시장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야기시켜 생활수준을 계속 낮추어온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의 엄청난 비용을 비판하고 아울러 사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원들이 비난을 받는 데 대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

5. 자본주의에 대한 공통적인 오류들

이 장은 나다니엘 브랜던이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들 중 독점, 불황, 노동조합, 공교육, 상속재산, 자본주의의 실용성 등의 문제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독점의 종류에는 강제적 독점과 비강제적 독점 등 두 종류가 있는데 강제적 독점은 정부통제, 입법행동, 정부행동 등 국가통제주의 요소에 의해 생길 수 있다. 비강제적 독점은 그 가격 및 생산정책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수요-공급법칙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비강제적 독점은 자유시장체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강제적 독점은 정부간섭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비난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독점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통제주의자들은 불황은 자유방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1929년의 대공황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자유방임하에서 일시적인 침체는 경제체제가 오류를 수정해 가는 바람직한 과정으로 본다. 그리고는 1929년의 대공황을 포함하여 미국의 불황을 살펴본 후 불황의 원인은 연방준비제도와 정부간섭에 의한 통화조절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이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 그렇지 않다고 저자는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자본주의로 인한 자본축적, 기술진보, 산업확장 등으로 인해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였다고 주장하면서 1920년대 미국보다 노동운동에 있어서 우세를 보인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자 생활수준이 미국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이 국가의 특권이므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공교육을 위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국가통제주의자들의 주장은 그 어떠한 도덕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교육과 같은 사상의 영역에 개입하고 그 내용들을 규정할 때는 자유사회는 끝장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치욕적으로 낮은 미국의 교육수준을 국가통제 교육제도의 결과로 보면서 교육분야에 시장체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를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문제를 논할 때는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형성자의 권리와 파생된 권리인 상속인의 권리로 나누어야 한다. 재산권이란 사용권과 처분권이므로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재산을 사용하고 그의 생애에 걸쳐 처분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을 선택할 권리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인물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써 상속재산을 받기에 적합한 상속인이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면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만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상속인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덜 실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오히려 경제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은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더욱더 눈에 띄게 비실용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금과 경제적 자유

이 장은 앨런 그린스펀이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의 금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과 경제적 자유는 분리할 수 없으며 금본위제는 자유방임의 수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가통제주의자들은 금본위제를 거의 병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반대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사회에서 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금은 교환경제에서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충족시켜 주며 다른 교환의 매개수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은 사실상 유일한 국제적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금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회의 분업과 전문화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제도와 은행권 및 예금 등 새로운 신용수단이 개발되었다.

국가통제주의자들은 은행의 지불준비 부족이 경기후퇴를 가져왔기 때문에 만일 은행들이 무제한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면 결코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하였고, 1923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

도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이 경제에 퍼부었던 과도한 신용은 주식시장으로 넘쳐들어가 엄청난 투기붐을 유발시켰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추락하여 미국경제가 붕괴되었다고 저자는 보면서 완전히 자유로운 금본위제와 완전히 일관성 있는 금본위제는 경제안정과 균형성장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통제주의자들이 금본위제를 반대하는 숨은 이유는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본위제가 없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통한 몰수로부터 저축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므로 금이 재산권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7. 미국의 자유기업사에 대한 주해

흔히들 대기업가의 잘못으로 돌려졌던 해악들은 규제가 없는 산업의 결과가 아니고 산업에 대한 정부권력의 결과이므로 사업가와 자유기업가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입법가와 정부통제가 나쁘다고 저자는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예시로 미국의 철도산업의 역사를 들고 있다.

어느 한 철도회사가 받은 정부지원의 정도는 그 회사의 어려움과 실패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의 4인방Big Four이 설립한 서던 퍼시픽Southern Pacific과 같이 최악의 역사를 가진 철도회사는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회사이고 제임스 제롬 힐James Jerome Hill이 설립한 그레이트 노던Great Northern과 같이 가장 성과가 좋은 철도회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던 회사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경쟁자들

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정부규제의 지원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부에게 의존하며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재산을 모은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한 정부는 부패한 정치인과 부정직한 사업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솔하게 받아들여 온 개념, 즉 경제에 대한 통제는 정부의 적합한 기능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며 기업을 위하든 노동자를 위하든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는 산업사에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왔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가와 경제를 분리하여 생산과 거래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국가간섭을 철폐하는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식할 시점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8. 산업혁명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

이 장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자본주의가 아동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끌어내어 어린이들의 조건이 나빠졌으며, 또한 여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자본주의 적들의 비평에 대한 로버트 헤센 Robert Hessen의 반론이다.

먼저 아동노동에 대해서 저자는 영국의 인구통계를 근거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체제의 발전은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영아사망률을 떨어뜨리고 수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생계와 생존수단을 제공하여 오히려 공장이 그들을 아사餓死로부터 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어린이들의 조건이 나빠졌다는 사회주의자와 파시스트의 비난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영국의 아동보호법과 공장법은 오히려 어린이들을

노예상태로 만들거나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어린이들의 신분을 비참한 상태로 격하시켰다. 산업혁명과 그 결과로 나타난 번영이 어린이들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만이 달성할 수 있는 과업이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자본주의가 여성의 격하와 비참함만 가져왔다는 것은 거짓이며 자본주의가 여성들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하에서 여성의 신분과 자본주의 이전 여성이 처한 조건을 비교해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여성은 가정에 예속되었으며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개념이었다. 자본주의하에서 공장체제는 여성들에게 생존수단, 경제적 독립, 최저 생계에서 벗어나는 수단 등을 제공하여 여성들의 신분을 높였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9. 정직에 대한 공격

이 장은 자본주의에서 사업가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집단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앨런 그린스펀의 반박이다.

그는 오히려 사업가의 탐욕과 이윤추구가 소비자들을 보호해준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업가들의 사리사욕 속에는 정직한 거래와 질 좋은 상품에 대한 명성을 얻고 싶은 것이 있다. 자유경제에서 이러한 명성이나 평판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가가 모든 생산분야에서 신중하게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유인이 된다. 이 유인이 자유기업체제에 내장된 안전장치이며 기업의 부정적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수단이 된다.

정부규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못한다. 먼저 소비자들을 부정직한 사업가로 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믿을 만한 보호인 경쟁과 명성을 점차적으로 파괴해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그러한 정부규제는 사업가들이 수년에 걸쳐 이룩해놓은 영업권의 시장가치를 잠식해 사업가들이 정직으로 창출한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와 같다.

자본주의는 정직과 신의를 중요한 미덕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이를 보상하고 사람들이 악덕이 아니고 미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최고의 도덕적 체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10. 방송전파의 재산상태

인간의 지식과 노력에 의해 창출된 자원들은 그러한 지식과 노력을 투입한 사람의 권리에 의해 사적 재산(private property)이 되어야만 하는데 방송주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집단주의자들은 과학천재들이 만들어낸 방송전파를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재산(public property)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이 있었을 경우 미국정부는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서부의 공유지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개인소유권을 확립한 1862년의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이다. 이 경우 정부는 소유주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유주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편견 없는 규칙을 정의하는 임자 없는 자원의 관리인처럼 행동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공영화의 역사는 자본주의 파괴의 과정과 원인을 소규모로 축약해서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철학 부재로 자본주의가 멸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초기 라디오 공중파의 무질서는 무정부 상태에서 사적 재산권이 없어서 발생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홈스테드법의 원리에 따라 방송채널을 개인소유권으로 이양하는데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를 경매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이지만 과학진보에 이념이 따라서 발전해주지 못하면 더이상 과학진보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11. 특허권과 저작권

특허권과 저작권은 모든 재산권의 기초를 법으로 완성한 것들로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생산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이며 지적 재산이다. 정부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발명자에게 특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창시를 증명해주며 이용과 처분에 대한 소유주의 독점권을 보호한다.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는 영원히 행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의 시간제한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원칙하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집단주의자들은 상표나 상표명 등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허권의 폐지이다. 특허권이 재산권의 심장이기 때문에 일단 특허권이 붕괴되면 다른 모든 권리

들은 자동적으로 붕괴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허체계의 현상태는 아주 나빠서 발명가들이 특허받기를 두려워하여 가치 있는 발명품들을 비밀리에 보호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12. 이론과 실제

이 장에서는 『LA 타임스』에 실린 아인 랜드의 칼럼 두 편을 모아놓았는데 하나는 인간중오자이고 다른 하나는 맹목적인 혼돈이다.

먼저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에 희생을 요구하며 사람을 희생동물로 간주하는 인간중오자이다. 그들은 인류복지가 최고의 목표라고 말하지만 이타주의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중오가 그 신조이며 집단주의자는 인간의 독립성, 성공, 번영, 행복을 파괴하고자 한다고 저자는 단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대조에서 보여주듯이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생활 수준을 만들어온 자본주의를 가장 큰 목소리로 그들이 비난하는 것을 듣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정치철학의 부재가 혼돈을 가져온다고 저자는 주장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데는 정치원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정치원리란 개인권리를 이웃과 지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 미국 헌법에 있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은 이러한 정치철학에 의해 인간의 권리를 획득한 국가였으나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치철학을 포기함으로써 나라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저자는 안타까워하면서 정치원리를 회복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13. 자유방임

경제성장이 오늘날 큰 문제여서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방임laissez-faire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자문관이었던 콜베르Colbert은 산업장려를 통한 정부규제가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실패했다. 17세기 프랑스 기업인들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도움은 정부박해만큼이나 비참하며 국가번영에 정부가 서비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을 떼는 것, 즉 자유방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산업 이전 시대에서조차 실패했던 정부통제가 근대 고도 산업사회에서 성공할 희망은 없다. 더구나 지성은 강압하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은 무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류번영, 업적, 진보의 정도는 정치자유에 직결적으로 비례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가진 서독이 통제된 경제체제를 가진 동독보다 높은 경제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또한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영국에서 두뇌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한 최고의 필요조건은 자유라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제2장 현재상태

14. 타협의 해부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어느 특정한 순간에 구체적인 대안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미래를 계획

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것은 원리밖에 없다. 따라서 원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이 분해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원리가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준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첫번째 준칙은 동일한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있는 두 사람, 또는 두 그룹 사이의 갈등에서는 승리하는 쪽이 더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써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들고 있다. 두 당 모두 이타주의를 도덕원리로 삼으면서 복지국가와 혼합경제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부권력의 증대에 일관성 있는 자세를 취해온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할 경우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타주의 원리를 바꾸어야만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두번째 준칙은 상이한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있는 두 사람, 또는 두 그룹 사이의 협력에서는 승리하는 쪽이 더 나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써 국제연합을 들고 있다. 공산주의 독재정권과 반자유국가의 협력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로부터 물질, 재정적, 과학적, 지적 자원을 얻지만 자유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제연합은 소련이 무력으로 정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넓은 지구의 땅과 인구를 소련의 권력에게 양도해왔다. 따라서 이타주의 원리를 무시해야만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 준칙은 상반된 기본원리들이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정의될 때는 합리적인 쪽에 이익이 되지만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숨겨지거나 회피될 때는 비합리적인 쪽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기본원리를 타협하지 않으면 악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15. 지성인들의 파업

이 장의 목적은 아인 랜드의 소설 『지성인들의 파업Atlas Shrugged』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과 오늘날 세계의 실제사건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성인들의 파업』이라는 소설의 주제는 인간존재에 있어서 지성인의 역할인데 이 소설에서 모든 합리적 노력의 창시자이고 혁신가인 지성인들이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사회에 대항하여 파업하고 자취를 감추어버릴 때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근본적인 두 적대자, 즉 이성-개인주의-자본주의 대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은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로 인해 국가가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잃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영국 과학인재들의 국외 유출과 최고로 우수한 인재들의 의과대학 지원율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업적이 커서 그에 대한 사회의 필요가 크면 클수록 그가 받는 대우는 더 나빠지고 그는 희생동물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는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해준 사업가가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로부터 착취당한 최초의 희생자였고 이제는 의사가 그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역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힘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합리적 재능의 힘, 즉 사상의 힘이다. 따라서 우리를 현재상태로 만들어온 신비주의-이타주의-집단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성-개인주의-자본주의 철학밖에 없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16. 연줄을 파는 사람들 : 로비스트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미국경제를 파멸로 이끌고 있으며 타협, 퇴각, 패배 및 배신의 기록만을 가진 무능한 낙오자의 위치로 끌어내려 국제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당초 기대했던 세계발전을 가져오는 대신에 종족전쟁의 피나는 무질서를 가져오고 약소국가들을 하나둘씩 공산주의 권력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대외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외국의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이 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입법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법률제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한다. 특히 러시아는 이러한 로비스트들을 조정하여 음모를 꾸미고, 또한 실제로 미국을 자기파멸로 몰고 감으로써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로비스트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미국이 입법과정에서 이타주의-집단주의에 근거한 대중의 이익, 또는 국제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권리보다 대중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한 로비스트와 압력단체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입법가나 행정관료들과의 연줄을 파는 행위인 로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17. '극단주의', 또는 '중상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합리적인 개념을 말살하고 대체할

의도를 가진 인공적이고, 정의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가 반개념이다. 반개념의 목적은 공론을 거치지 않고 어떤 개념들을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반개념들의 예로써 1930년 고립주의, 1940년대 맥카시주의, 그리고 최근의 극단주의를 들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 나라에 국가통제주의를 들여오기 위해 이러한 반개념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데, 그들이 말살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자본주의 개념이다. 우리의 문화적 정서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반개념들 중 극단주의가 규모면에서나 시사하는 점에서 가장 야심적이다.

우리시대의 기본적인 중요한 정치적 이슈는 자본주의(자유) 대 사회주의(국가통제)이다. 그러나 이 이슈는 수십 년 동안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취급되어 왔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국가통제주의자들에 의해 극단주의자와 온건주의자라는 반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온건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지지자를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부유한 자들을 위한 독재라고 중상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제거하기 바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완전한 말살을 시도하면서 미국에 국가통제주의를 몰래 들여왔다. 그들은 중도를 내세워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주의를 혼합한 혼합경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개인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타주의 도덕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통제주의와 결코 혼합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지지자는 기본원칙과 도덕적 문제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국가통제주의자는 이러한 자본주의 지지자들의 비타협적인 자세를 극단주의라고 중상을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개념이 말살되면 자유사회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들과 대항하는 데는 오히려 더욱더 이러한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18. 자본주의의 말살

국가통제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개념을 말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반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반개념을 만들어내어 자본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보는 이타주의적 견해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인간의 권리인 개인권리의 인식에 근거한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이타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미덕을 선전하고 사회주의를 공격하면 할수록 자본주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지지자들이 이타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갈등에서 보수주의자들이 패하는 이유는 보수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공산주의자와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타주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옹호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타협, 화해, 애매함, 완곡함으로 자본주의 적들과 대항해서는 자본주의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다. 자비심, 선의, 인간 불행에 대한 관심 등은 이타주의의 본질이 아니며 이타주의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중요이고, 성공적인 삶에 대한 중요이며 선한 사람들에 대한 중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 거래에 의해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체제는 자본주의이며 인간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일한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들과 싸울 태세를 가져야만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19. 보수주의 : 사망광고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국가통제주의를 몰래 시도하고 있고 보수주의자는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도덕적 기초의 부재와 완전한 철학적 방어의 부재로 자본주의는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날의 보수주의자가 자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장은 신앙에서 나온 주장, 전통에서 나온 주장, 부패에서 나온 주장 등 세 가지가 있다. 신앙에서 나온 주장은 미국과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에서 나온 주장은 미국의 선조들이 정치체제로 자본주의를 선택했으므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패에서 나온 주장은 사회주의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장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여 자본주의 적들의 승리를 도와주고 재촉한다.

개인권리에 근거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집단의 이익에 대한 개인의 희생에 근거하고 있는 이타주의 도덕으로 파괴되었다. 자본주의는 이타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이타주의의 도덕적 근본을 거부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자유 및 문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자본주의는 과거의 체제가 아니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미래의 체제이다.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보수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새 급진주의자, 새 지식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고 헌신적인 도덕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면서 그의 저서인 『새 지식인을 위하여 *For the New Intellectual*』에서 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위기는 도덕적 위기이다. 그리고 도덕적 혁명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도덕적 혁명은 미국혁명의 업적을 인정하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 새 지식인은 ‘실질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정의감을 가진 도덕적 문제로서 자본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주의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다.

20. 새 파시즘 : 여론정치

오늘날의 문화를 지배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오늘날 이념적 추세가 없다고 답변한다. 오히려 국가통제주의자는 여론정치라고 하는 반이념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이 이성과 도덕을 대신하는 최고의 덕이라고 주장한다.

국가통제주의는 사회주의와 파시즘을 국가통제주의의 특정한 변형으로 하는 광의의 포괄적인 용어인데 오늘날 우리는 사회주의와 파시즘 중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오늘날 우리는 새 파시즘을 향한 길을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재산의 사유화는 인정하지만 개인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를 하는 체제는 파시즘의 근본적인 특징이므로 사유재산을 유지하면서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국가통제주의는 사유재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보다는 파시즘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사업계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고에 의한 귀족’이라는 사업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파시스트 국가에서 기업과 정부관계의 경제적 본질과 동일하며 동반자 관

계는 정부통제와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의 파시즘 형태와 유럽의 파시즘 형태는 차이가 있는데, 유럽은 호전적인 파시즘이며 미국은 내부 부패에 의해 자멸하는 냉소적 파시즘이라고 저자는 주장하면서 이를 길드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길드사회주의는 사람들을 엄격한 규칙하에서 직업적인 특권계급으로 묶어둠으로써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약탈하며 보통 사람들을 보호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속박하는 새 파시즘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와 미국의 뉴딜정책을 저자는 들고 있다.

미국이 새 파시즘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주의자들이 실용주의와 여론정치를 가지고 혼합경제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보수주의자들은 철학의 부재로 인하여 자본주의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권리의 보호라는 자본주의의 철학적 기초로 확실히 이해하면 자본주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21. 여론의 파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적인 규모로 이타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나 지금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미국을 그러한 책임 없는 무모함에 빠져들게 한 것은 징병제도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혼합경제에서 개인권리에 대한 국가통제주의자의 침해들 중 징병제도가 최악의 것인데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논리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이

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논리이다. 또한 징병제도는 국가방위가 그 목적이 아니고 국가통제주의자들이 징병제도를 통하여 권력과 인간의 삶이 국가에 속한다는 그들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의 징병제도는 지원군 제도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원군은 정부 일각에 있는 호전적인 이념을 견제해주는 평화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현대전은 기술전쟁이어서 고도로 훈련된 과학적인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또한 국가통제주의자들은 사회봉사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무지, 가난, 인종 차별 및 전쟁과 같은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자유와 개인권리에 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대상자들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여론주의는 원래 목표하던 통일과 합의를 가져오는 대신에 미국을 와해시키고 분해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통제주의의 진부한 선전문구에 환멸을 느끼고 다른 대안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은 지식인들이 기본원칙에 의해서 도덕적·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응집할 때라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22. 이용당하는 학생폭동

1964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언론자유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학생폭동이 발생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그 폭동의 본질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폭동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자가 있었고 그 운동의 실질적인 목표는 권력쟁탈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한 예비적 타진trial balloon으로 학생폭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버클리 폭도들은 국가통제주의자-집단주의의 이념인 개인권리의 폐지와 폭력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특공대원이었으나 대학 당국, 사회평론가, 언론, 주지사 등 기성세대의 권위자들이 철학적 무력함으로 인해 이들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고, 합리적인 해답을 줄 수 없었으며, 그들을 인정하거나 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타협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불만을 느끼게 했다.

한 나라의 추세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일종의 지식인이 없는 땅에 살고 있다. 집단주의자들은 그동안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성과 도덕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사기로 드러남에 따라 인간의 지성을 위한 전투에서 패배하여 이제 그 최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좋은 이념을 가지고 그들의 의미를 폭로하고,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대안을 지식인들이 제시해야 한다. 확고한 도덕적·지적 토대 위에서 이념으로 무장할 때 쇠도 하는 집단주의의 공격을 퇴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결정할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23. 소 외

이 장에서는 나다니엘 브랜던이 인간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소외alienation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류가 형성된 이후 이 문제는 인간과 항상 함께 해왔다. 성서적으로 볼 때, 인간소외의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인

간을 소외의 문제로 고통받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발달이 인간소외의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인간소외의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간은 전혀 없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 산업주의와 기술만능주의, 합리주의, 사유재산제도를 확대시켰다. 또한 인간개성의 상실,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소속감의 상실을 초래했고, 그 결과 인간은 정체성identity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현실로부터 소외되었다.

한편 에릭 프롬은 인간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의 회복과 인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사회체제의 확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소외 문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책임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 즉 인식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은 스스로의 사고와 선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소외를 극복해야 하며 ‘인간은 스스로 만든 영혼의 존재’라고 주장한다.

24. 인간을 위한 애가

저자는 로마교황이 전세계의 모든 성직자에게 보내는 회칙encyclical에 나타난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회칙에 나타난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회칙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즉 빈곤, 부익부 빈

익빈, 동족간의 대립, 물질만능주의 등이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이윤추구와 경쟁,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회칙은 이타주의에 기초한 국가 중심의 분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칙은 분배의 기준은 필요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저자는 회칙이 주장하는 이타주의하에서의 국가 중심의 분배는 군국주의, 또는 독재를 정당화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인간의 창의력이나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개인주의와 이타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풍부한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 유일한 체제이므로 자본주의의 실천과 확대를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록 I 인간의 권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아테네, 로마제국, 프랑스, 프로이센, 나치독일, 소련 등 이타주의자-집단주의자 윤리를 신봉하는 체제들은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사회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의 삶이 사회에 속하고 사회는 마음대로 개인을 다룰 수 있으며 개인이 누리려는 자유는 특별히 자신에게만 사회가 허락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자유사회는 개인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간주하고 사회를 개인들의 평화롭고 질서정연하며 자발적인 공존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의 삶은 권리, 즉 도덕적 원리와 본성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권리는 개인의 재산이며 사회는 그러한 권리가 없고, 정부의 유일한 도덕적 목적은 개인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자유사회를 태동시킨 것은 개인권리의 개념이었고 자유의 파괴는 개인권리의 파괴와 함께 시작된다. 개인권리에는 모든 권리의 근원이 되는 생존권, 모든 권리의 유일한 실현인 재산권, 그리고 언론자유권 등이 있다. 생존권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며 재산권은 재산을 얻고 이용하고 처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행동을 취할 권리를 의미한다. 언론자유권은 정부에 의한 억압, 방해 및 정계행위의 위협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는 이러한 개인권리의 유일한 옹호자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부록II 정부의 본질

정부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행위에 관한 어떤 규칙들을 집행하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왜 그러한 기관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평화롭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상부상조하면서 공존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생존을 위해 인간본성이 요구하는 개인권리라는 기본적인 사회원리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권리는 폭력에 의해서 침해당할 수 있다. 사회관계에서 폭력을 금지시키는 것이 문명사회의 전제조건이므로 폭력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용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보복용이라 하더라도 폭력의 사용을 시민 각자에게 맡겨두면 객관성을 상실하여 사회관계에서 평화적인 공존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규칙하에서 사람들의 권

리를 보호할 임무가 주어진 기관을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이다. 즉 정부는 객관적으로 정의된 법률하에서 보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개인권리의 보호가 정부의 유일하고도 적합한 목적이다. 정부의 올바른 기능은 세 개의 광범위한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폭력과 인간권리의 보호 문제와 관계가 있다. 경찰police은 범죄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군대armed force는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법정law courts은 객관적 법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해결한다. 한편 정부는 폭력의 사용과 싸우고 제지하는 대리인이므로 정부는 폭력의 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야 하지만, 정부권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동의consent of the governed’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배자가 아니라 시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하며 정부의 행동은 엄격히 정의되고 제한되고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 즉 정부권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에 대한 주도적인 견해 속에는 도덕 및 정치전도轉倒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인간권리의 보호자가 되는 대신에 인간권리의 침해자가 되고 있고 자유를 수호하는 대신에 노예상태를 확립해가고 있다.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신에 정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색 인

INDEX

* 이 색인은 웨슬리언대학 철학과의 앨런 고텔프Allan Gotthelf가 작성했음.

용어색인

가격전쟁price wars 109
가톨릭교회catholicism 458, 471
검열censorship 69, 183, 184, 185, 386, 490
경쟁competition 43, 80, 89, 100, 135, 171, 183, 250, 320, 415, 443, 447, 502
경제권력 대 정치권력economic power vs. political power 70~74, 270~74, 290~96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s 41, 122, 150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489
공공이익public interest 31
공교육public education 129~33
공동선common good 18, 31, 45, 391, 466
공산당Communist Party 256, 355
공산주의communism 24, 55, 64, 215, 247, 275, 285, 316, 331, 357, 385, 462, 474
공화당Republican Party 80, 214, 320, 339
공화당 전당대회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255, 258, 265
국가통제주의statism 47, 55, 70, 107, 119, 201, 263, 270, 284, 285, 299, 300, 321, 335, 439, 450, 471, 503
국제연합United Nations 216, 265, 323, 399
권리rights 8, 20, 27, 30, 40, 57, 62, 77, 84, 92, 112, 134, 155, 176,

189, 194, 232, 251, 267, 287, 300, 319, 335, 343, 361, 377, 384, 400, 428, 443, 447, 462, 476, 480, 491, 495, 497
권리의 본질과 인정nature and validation of rights 480~90
권리장전Bill of Rights 81, 360, 485, 492
극단주의extremism 255~69
금본위제gold standard 114, 139
길드사회주의guild socialism 322, 388
나치독일Nazi Germany 56, 64, 79, 130, 330, 444, 462, 482, 494
나치독일 이전pre-Nazi Germany 58, 124, 379, 482
나치독일 이후post-Nazi Germany 196, 205~6
냉전cold war 329
노동조합labor union 68, 122~29, 158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367
대외정책foreign policy 60, 246, 334, 337
도덕가치moral values 339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 484, 497
독점monopoly 75, 86, 101, 106~13, 151, 333, 388, 487
두뇌유출brain drain 205, 227, 395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 355, 466, 477
무정부상태anarchy 118, 180, 501
미국 알루미늄 회사 사례ALCOA case 86
미국 정보부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274, 279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71, 76
민주당Democratic Party 214, 250, 266, 308, 486
반개념anti-concepts 261, 270, 274, 319
반트러스트antitrust 69, 78, 94, 109

방송산업broadcasting industry 177, 182, 235
 베트남전쟁Vietnam war 62, 329, 343
 벨기에Belgium 232
 보수주의자conservatives 6, 64, 86, 183, 194, 214, 263, 279, 284, 298, 314, 335, 378, 472, 480
 보수주의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정당화pseudo-justification of capitalism by conservatives 194~95, 270~74, 290~96
 복지국가welfare state 70, 145, 158, 214, 231, 285, 313, 323, 406, 482
 불황depressions 113, 317
 사회주의socialism 55, 138, 198, 205, 263, 275, 285, 299, 300, 321, 430, 444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124, 159, 443
 3대 혁명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he Triple Revolution 241, 273
 상속재산inherited wealth 133
 셔먼법Sherman Act 74, 80, 95, 104, 152
 소비에트 러시아Soviet Russia 33, 444, 462
 소비에트 러시아 이전pre-Soviet Russia 58, 337, 379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174
 소외alienation 362, 402, 413, 420, 422, 430, 440
 스탠더드 오일 회사Standard Oil Company 95, 97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380
 실업unemployment 125, 238
 실용주의pragmatism 275, 325, 365, 377
 실존주의existentialism 358, 367, 397
 아동노동child labor 159, 163
 알제리Algeria 198, 199, 200, 201

언론자유freedom of speech 350, 382, 394, 490
 언어분석linguistic analysis 365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116, 121, 144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81, 235
 영국England 60, 75, 144, 159, 205, 229, 276, 330, 395
 은행제도banking system 115, 142
 의료사회화socialized medicine 231, 232
 이타주의altruism 7, 19, 31, 41, 53, 194, 214, 233, 247, 253, 273, 288, 297, 331, 342, 370, 391, 400, 442, 467, 470, 485
 이탈리아Italy 64, 266, 322, 389, 405, 470
 인간의 본성nature of man 5, 24, 295, 408, 425, 432, 443, 468, 484, 495
 인도India 123, 163
 임금wages 45, 68, 120, 135, 161, 272, 338, 418, 489
 자본주의에 대한 고전적 방어classical defenses of capitalism 47~52, 99~102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attacks on capitalism 20~24, 46~53, 73~74, 106~38, 148~58, 194~96, 265~68, 270~83, 313~20, 405~7, 413~23, 439~41, 442~79
 자본주의와 자유시장capitalism and the free market 36~44, 71~72, 98~99, 106~38, 139~47, 170~72
 자본주의와 제국주의capitalism and imperialism 62~65
 자본주의와 진보capitalism and progress 43~45, 442~45, 460~63
 자본주의와 철학capitalism and philosophy 17~19, 29~38, 195~201
 자본주의의 대외정책foreign policy of capitalism 61~62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초moral base of capitalism 22~32, 35~38, 45~

48, 174~75, 285~86, 480~92
 자본주의의 정의definition of capitalism 29
 자유방임의 기원origin of laissez-faire 202~5
 자유주의자liberals 68, 75, 137, 201, 263, 270, 284, 310, 335, 370, 384, 472
 재산권property rights 27, 134, 147, 176, 300, 335, 384, 440, 451, 483
 저개발국가under-developed nations 49, 138, 277, 451
 저작권copyrights 187~92
 전쟁war 54~66, 121
 정부의 본질nature of government 70~71, 335~36, 493~505
 제너럴 일렉트릭 사례General Electric case 88
 존 버치 협회John Birch Society 256, 261
 징병제도military draft 334, 342
 1960년 민주당 강령Democratic Party platform of 1960 486
 1887년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 of 1887 95, 97
 철도회사railroads 80, 95, 149, 236, 254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349, 353, 361
 KKK단Ku Klux Klan 256, 261, 266
 타협compromise 30, 211, 247, 268, 282, 305, 326, 327, 366, 394, 467
 특허권patents 85, 187~92
 파시즘fascism 55, 266, 285, 299~325, 444, 466, 471
 평화운동peace movement 55
 프랑스France 124, 198, 202, 207, 482, 503
 현재의 교육상태state of contemporary education 130~31, 349~400
 혼합경제mixed economy 47, 57, 61, 73, 104, 119, 136, 152, 183, 214,

249, 273, 285, 304, 310, 321, 326, 377, 439, 450

도서 · 잡지 색인

Alienation(G. Sykes ed.) 403
The American College Dictionary 300
The Antitrust Laws of the U. S. A.(A. D. Neal) 75
The Art of Loving(E. Fromm) 407, 408, 410, 412, 423
Atlas Shrugged(Ayn Rand) 8, 21, 27, 43, 192, 219, 220, 254, 282, 375, 426, 456, 484
Barron's 239
The Big Four(O. Lewis) 152
Capitalism the Creator(C. Snyder) 114
Chicago Sun Times 239
Columbia University Forum 353
The Decline of American Liberalism(A. Ekirch) 63
East Minus West=Zero(W. Keller) 58, 206
Economics and the Public Welfare(B. M. Anderson) 117
Economics in One Lesson(H. Hazlitt) 128
Encyclopaedia Britannica 21
England in Transition(M. D. George) 168
English Social History(G. M. Trevelyan) 168
Escape from Freedom(E. Fromm) 414
The Fascist New Frontier(Ayn Rand) 267, 319, 324

For the New Intellectual(Ayn Rand) 48, 297
Fortune 88, 477, 478
The Fountainhead(Ayn Rand) 27, 423
The God of the Machine(I. Paterson) 60, 131
Grand Central(D. Marshall) 154
Health, Wealth and Popula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M. C. Buer) 160
Human Action(L. von Mises) 121, 136, 137, 161
Ideals and Self-Interest in America's Foreign Policy(R. E. Osgood) 63
The Individual and the Crowd(H. M. Ruitenbeek) 402
The Industrial Revolution(T. S. Ashton) 163
It Can't Happen Here(S. Lewis) 322
Man for Himself(E. Fromm) 407, 408, 412
The New Leader 362, 363
The New Republic 64
The New York Times 128, 393
Newsweek 359
The Objectivist Newsletter 5, 8, 106, 159, 170, 176, 184, 187, 211, 220, 246, 255, 270, 299, 327, 349, 401, 435, 442
The Octopus(F. Norris) 152
Persuasion 348
Planning for Freedom(L. von Mises) 123, 128
Populorum Progressio 442, 477, 478
Richardson Digest(Texas) 271
The Road of the Century(A. F. Harlow) 154

Rochester Times Union(N. Y.) 225
The Sane Society(E. Fromm) 412, 416, 429
The Saturday Evening Post 358
Socialism(L. von Mises) 405
Star Herald(Camden, N. J.) 236
The Story of American Railroads(S. Holbrook) 149, 154
The Strategy of the Great Railroads(F. Spearman) 156
Ten Thousand Commandments(H. Fleming) 76
Time 90, 224
TV Guide 184
Victorian Working Women(W. Neff) 166
The Virtue of Selfishness(Ayn Rand) 8, 25, 27, 268, 480, 493, 494
The Wall Street Journal 475
Washington Star(D. C.) 311
Who Is Ayn Rand?(Nathaniel Branden) 426, 427, 439
Wives and Mothers in Victorian Industry(M. Hewitt) 167

인명색인

Ambrose, St. 448
Anderson, Benjamin M. 117
Aquinas, St. Thomas 473
Aristotle 199
Ashton, T. S. 163
Augustine, St. 473
Branden, Nathaniel 9, 267, 284
Brown, Governor Edmund 362
Buer, Mabel C. 160, 164
Celler, Representative Emanuel 79
Colbert, Jean Baptiste 203
Cooley, Representative Harold 250
Efron, Edith 184
Ekirch, Arthur 63
Engels, Friedrich 160, 165
Fairless, Benjamin F. 77
Fleming, Harold 76
Frankfurter, Justice Felix 177

Fromm, Erich 407
Ganey, Judge J. Cullen 92
George, M. Dorothy 168
Goldwater, Senator Barry 307, 343
Greenspan, Alan 9, 103, 109
Grendon, Alexander 352
Hand, Judge Learned 86
Harlow, Alvin F. 154
Hazlitt, Henry 128
Hegel, Georg 395, 402, 412
Hershey, Lt. Gen. Lewis 340
Hessen, Robert 9, 159
Hewitt, Margaret 167
Hill, James 74, 149
Hitler, Adolf 35, 200, 266, 323
Holbrook, Stewart 149
Hoover, President Herbert 119, 181
Housman, A. E. 401
Hugo, Victor 37
Jackson, Justice Robert H. 78
Johnson, President Lyndon B. 206, 308
Kant, Immanuel 18, 364, 365, 366
Keller, Werner 58, 206
Kennedy, President John F. 182
Kerr, Clark 350

Keynes, John Maynard 317
Landers, David S. 353
Lenin, V. I. 35, 200
Lewis, Oscar 152
Lewis, Sinclair 322
Lively, Earl 271
Locke, John 161, 199
Louis XIV 202
McCarthy, Senator Joseph 259
McNamara, Robert S. 340
Marshall, David 154
Marx, Karl 106, 160, 273, 314, 359, 395, 402, 412, 439
Mason, Lowell 78
Meng, John 393
Minow, Newton N. 182, 490
Murray, Rev. John C. 472
Mussolini, Benito 266, 322
Neale, A. D. 75
Neff, Wanda 166
Norris, Frank 152
Osgood, R. E. 63
Paterson, Isabel 60, 131
Petersen, William 353
Pope Paul VI 442, 445
Rand, Ayn 97, 194, 319, 426, 432

Reagan, Governor Ronald 346
Reasoner, Harry 369
Reston, James 342
Rockefeller, Governor Nelson 95, 265, 303
Romney, Governor George 271, 328
Roosevelt, President Franklin 486
Roosevelt, President Theodore 63
Ruitenbeek, Hendrik M. 402
Savio, Mario 350, 364
Snyder, Carl 114
Spearman, Frank 156
Stalin, Josef 35, 82, 200
Sulzberger, C. L. 274
Sykes, Gerald 403
Trevelyan, G. M. 168
Vanderbilt, Cornelius 74
Mises, Ludwig von 121, 161, 405
Warren, Justice Earl 265
Wicker, Tom 303
Wilson, President Woodrow 63, 309

추천도서

Recommended Bibliography

객관주의 연구를 위한 도서

- Branden, Nathaniel, *Who Is Ayn Rand?*, New York: Random House, 1962; Paperback Library, 1964.
- The Objectivist*, a monthly journal published by The Objectivist, Inc., The Empire State Building, 350 Fifth Avenue, New York City (Formerly *The Objectivist Newsletter*).
- Rand, Ayn, *Anthem*, Caldwell, Idaho: The Caxton Printers, 1953;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Signet), 1961.
- , *Atlas Shrugged*, New York: Random House, 1957;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Signet), 1959.
- , *For the New Intellectual*, New York: Random House, 1961;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Signet), 1963.
- , *The Fountainhead*, New York: The Bobbs-Merrill Company, 1943;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Signet), 1952.

- , *The Virtue of Selfishnes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Signet), 1964;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65.
- , *We the Living*, New York: Random House, 1959;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Signet), 1960.

다음은 객관주의를 대표하는 저자들은 아니다. 이 책들을 추천하는 것이 그들의 지적 태도 전체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 Anderson, Benjamin M., *Economics and the Public Welfare: Finan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914 ~1946*,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49.
- Anderson, Martin, *The Federal Bulldozer: A Critical Analysis of Urban Renewal, 1949 ~1962*,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64.
- Ashton, T. S., *An Economic History of England: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Barnes and Noble, 1955.
- ,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 ~183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 Ballvé, Faustino, *Essentials of Economics*,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63.
- Bastiat, Frédéric, *Economic Sophisms*,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64.
- , *Selected Essays on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64.

- Boehm-Bawerk, Eugen von, *The Exploitation Theory*, South Holland, Illinois: Libertarian Press, 1960.
- Buer, Mabel C., *Health, Wealth and Popula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15*, London: George Reutledge & Sons, 1926.
- Chu, Valentin, *Ta Ta, Tan Tan(Fight fight, talk talk); The Inside Story of Communist China*, New York: W. W. Norton & Co., 1963.
- Crocker, George N., *Roosevelt's Road to Russia*, Chicago: Henry Regnery Co., 1959.
- Dallin, David J., and Nicolaevsky, Boris I., *Forced Labor in Soviet Russia*,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47.
- Ekirch, Arthur A., Jr., *The Decline of American Liberalism*, New York: Longmans, Green & Co., 1955.
- Fertig, Lawrence, *Prosperity Through Freedom*, Chicago: Henry Regnery Co., 1961.
- Fleming, Harold, *Ten Thousand Commandments: A Story of the Antitrust Laws*, New York: Prentice-Hall, 1951.
- Flynn, John T., *The Roosevelt Myth*, revised edition, New York: The Devin-Adair Co., 1956.
- George, M. Dorothy, *England in Transition: Life and Work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Penguin, 1953.
- , *London Life in the Eighteenth Century*, 3rd edition, London: reprinted by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51: New York: Harper and Row(Harper Torchbooks), 1964.
- Hazlitt, Henry, ed., *The Critics of Keynesian Economics*,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60.
- , *Economics in One Less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6.
- , *The Failure of the 'New Economics': An Analysis of the Keynesian Fallacies*,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59.
- , *What You Should Know About Inflation*, 2nd edition,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65.
- Hewitt, Margaret, *Wives and Mothers in Victorian Industry*, London: Rockliff, 1958.
- Keller, Werner, *East Minus West=Zero: Russia's Debt to the Western World*, New York: G. P. Putnam's Sons, 1962(Published in Great Britain as *Are the Russians Ten Feet Tall?*, London: Thames and Hudson, 1961).
- Kubek, Anthony, *How the Far East Was Lost: American Policy and the Creation of Communist China, 1941~1949*, Chicago: Henry Regnery Co., 1963.
- Lynch, Matthew J., and Raphael, Stanley S., *Medicine and the State*,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1963.
- Mason, Lowell B., *The Language of Dissent*, New Canaan, Connecticut: The Long House(Originally published Cleveland, Ohio: The World Publishing Co., 1959).
- Neale, A. D.,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Study of Competition Enforced by Law*,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Paterson, Isabel, *The God of the Machine*, Caldwell, Idaho: The Caxton Printers, 1964(Originally published New York: G. P. Putnam's Sons, 1943).
- Snyder, Carl, *Capitalism the Creator: The Economic Foundations of Modern*

- Industrial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0.
- Mises, Ludwig von, *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Princeton, New Jersey: D. Van Nostrand Co., 1956.
- , *Bureaucracy*, New Haven, Connecticut,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44.
- ,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49.
- , *Omnipotent Government*,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44.
- , *Planned Chaos, Irvington-on-Hudson*, New York: The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1947.
- , *Planing for Freedom*, 2nd edition, South Holland, Illinois: Libertarian Press, 1962.
- ,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51.
- ,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new edition, New Haven, Connecticut,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53.

아인 랜드 Ayn Rand

1905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출생.

1924년 역사부분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페트로그라드대학을 졸업했다.

1926년 미국으로 건너가 사망할 때까지 전업작가이자 강사로 활동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급진적 자본주의자이며, 종교적으로는 무신론자였다.

소설로는 *We the Living*(1936), *Anthem*(1938), *The Fountainhead*(1943),

Atlas Shrugged(1957)가 있으며,

논픽션으로는 *For the New Intellectual: The Philosophy of Ayn Rand*(1961),

The Virtue of Selfishness(1964), *Capitalism: The Unknown Ideal*(1966),

Introduction to Objectivist Epistemology(1967),

The Romantic Manifesto: A Philosophy of Literature(1969),

Philosophy: Who Needs It(1971), *The New Left: The Anti-Industrial Revolution*(1982),

The Ayn Rand Lexicon: Objectivism from A to Z(1984) 등이 있다.

강기춘 Gi Choon Kang

60년 경남 남해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1922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아이오와 주립대학 초빙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다부문 경기변동이론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역총생산의 장기지속성 및 공동변화」(1995)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기변동」(1996) 등 여러 편이 있다.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1. 규제와 재산권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s

김일중Il-Joong Kim 저

2.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Economic Policy/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김진현 역

3. 경쟁과 기업가정신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커즈너Israel M. Kirzner 저/이성순 역

4. 사회주의와 자본주의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호페Hans-Hermann Hoppe 저/이선환 역

5. 자유주의Liberalis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이지순 역
-
6. 제도 · 제도변화 · 경제적 성과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노스Douglass C. North 저/이병기 역
-
7. 윤리와 경제진보Ethics and Economic Progress
뷰캐넌James M. Buchanan 저/이필우 역
-
8. 헌법적 질서의 경제학과 윤리학The Economics and the Ethics of Constitutional Order
뷰캐넌James M. Buchanan 저/공병호 · 조창훈 역
-
9. 시장경제란 무엇인가What is the Free Market Economy
공병호Byeong-Ho Gong 저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10. 진화나 창조나Evolution or Creation
민경국Kyong-Kuk Min 저
-
11. 시장의 도덕The Morals of Markets and Related Essays
액튼Harry Burrows Acton 저/이종욱 · 유주현 역
-
12. 경제행위와 제도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에거트슨Thráinn Eggertsson 저/장현준 역
-
13.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신중섭 역

14. 시장경제와 그 적들The Free Market Economy and Its Enemy
공병호Byeong-Ho Gong 저
-
15.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전용덕Yoong-Deok Jeon · 김영용Young-Yong Kim · 정기화Kee-hwa Chung 저
-
16.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Economic Freedom and Interventionis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윤용준 역
-
17.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Law and Order of Market Economy
민경국Kyong-Kuk Min 저
-
- 18, 19. 자유헌정론 I · II The Constitution of Liberty I · II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저/김균 역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20. 도덕감성The Moral Sense
제임스 Q. 윌슨James Q. Willson 저/안재욱 · 이은영 역
-
21. 법 · 입법 그리고 자유II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민경국 역
-
22. 법Law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저/김정호 역
-
23. 법 · 입법 그리고 자유III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I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서병훈 역
-
24. 경쟁과 독점競爭と獨占

25. 경제학적 사고방식The Economic Way of Thinking

헤인Paul Heyne 저/주만수 · 한홍렬 역

26. 애덤 스미스의 지혜The Wisdom of Adam Smith

스미스Adam Smith 저/로지Benjamin Rogge편/박순성 역

27. 개인주의와 경제질서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박상수 역

28. 기업가Entrepreneur

공병호Byeong-Ho Gong 저

29.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Philosophy: Who Needs It

랜드Ayn Rand 저/이종욱 · 유주현 역
